

프랑스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kotra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1
2. 정치사회동향 /2
3. 한국과의 주요이슈 /7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11
2. 주요 산업 동향 /14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37

III. 무역

- 1. 교역동향**
수출입 동향 /39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48
-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수입규제제도 /56
대한수입규제동향 /59
관세제도 /60
주요인증제도 /63
지적재산권 /71
통관운송 /73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77
- 외국기업 투자동향 /83
- 우리기업 투자동향 /90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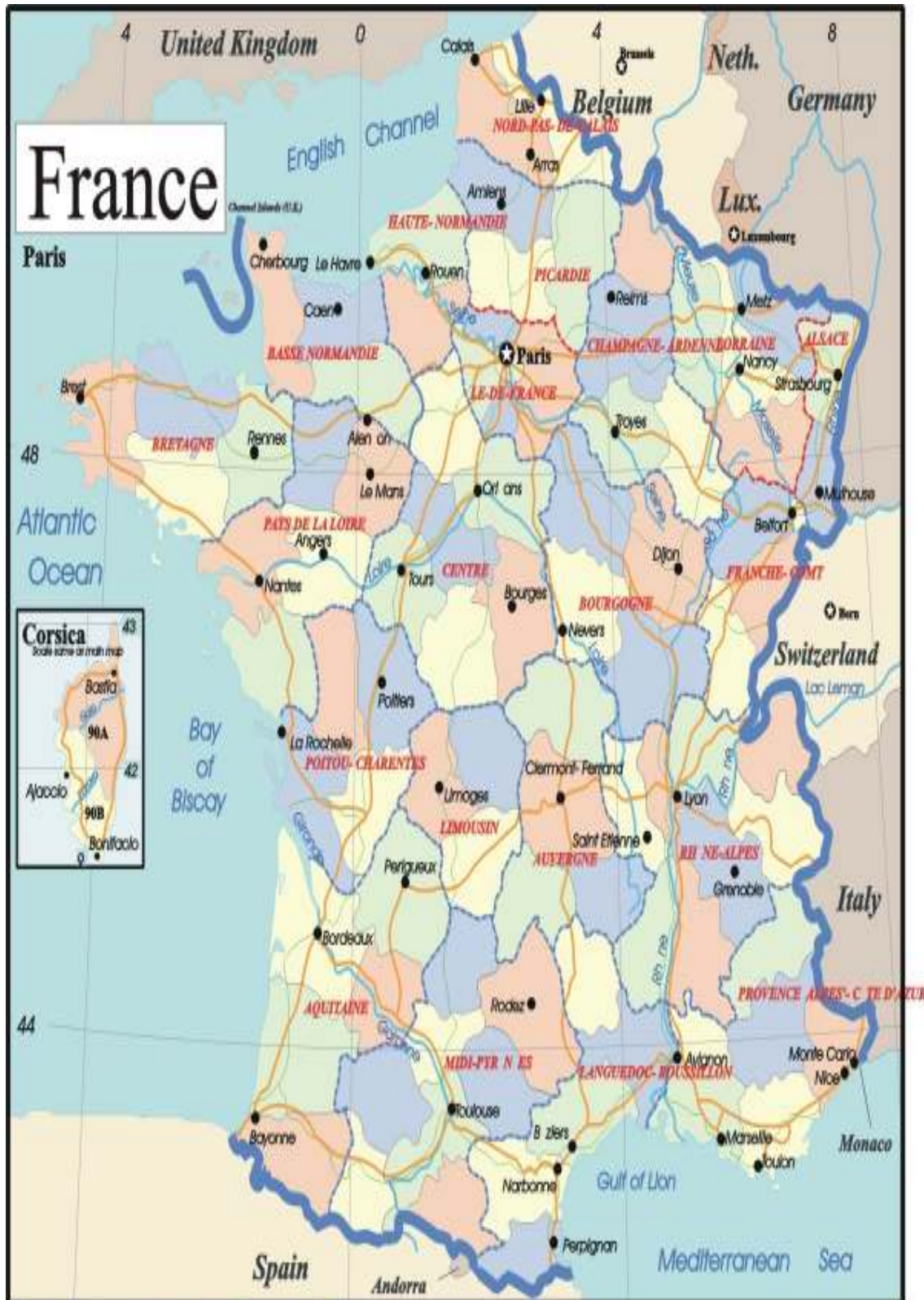
- 주요 투자법 내용 /94
- 진출형태별 절차 /98
- 투자입지여건 / 105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111
- 조세제도 /117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120

V.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특성 /122
2. 물가정보 /126
3. 바이어발굴 /130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 131
5. 무역, 투자 진출시 애로사항 /134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135
7. 이주정착 가이드 / 137
8. 출장가이드 /140



1994 MAGELLAN Geographic/SMSanta Barbara, CA (800) 929-4627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 사항

국 명	프랑스(République Française)
위 치	유럽 중서부
면 적	549천km2(한반도 면적의 약 2.4배)
기 후	대부분 지역이 온대성 기후이나 남부 지방은 지중해성 기후
수 도	파리(Paris)
인 구	6,357만 명(본토 기준; 2007년 1월 기준 잠정치)
주요 도시	Paris(215만 명), Lyon(126만 명), Marseille(111만 명)
민 족	Gaul족(켈트족의 일파), 로마족, 노르만족, 프랑크족의 혼합
언 어	프랑스어
종 교	가톨릭(90%), 개신교(2%), 유대교(2%), 이슬람교(4%), 기타 (2%)
건 국 일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혁명 발발 일로 자유, 평등, 박애를 국가 이념으로 한 현재의 프랑스 탄생)
정부 형태	대통령 중심제의 입헌 공화국
국가 원수	대통령 Nicolas Sarkozy(국가 원수), 2007. 5 월 취임(5년 임기) 총리 Francois Fillon
입 법 부	양원제(상원 321석, 하원 577석)
정 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당: UMP(313석), MPF(22석), 소수 우파정당(9석), 민주운동(3석), 프랑스운동(1석) ○ 야당: PS(사회당; 186석), PC(공산당; 15석), 민주운동(3석), 신중앙당(22석), 소수 좌파정당(15석), 녹색(4석), 극좌파(7석), 지역주의당(1석), 기타 (1석) ※ 의석 수는 하원의 의석 수. 정부 성향: 중도 우파

나. 경제 지표

GDP	1조 8,922억 유로 (2007년, INSEE)
실질 경제성장률	2.2% (2007년, INSEE)
1인당 GDP	33,231 달러 (2007년, EIU)
실업률	7.5% (2007년 4/4분기 기준, INSEE)
물가 상승률	1.6%(담배 포함) (2007년, INSEE), (담배 불 포함 시 1.5%)
화폐단위	유로 (Euro) (2002.1.1일부터 유럽13개국 단일 통화 본격 시행)
환율	US\$ 1 = 0.6345 Euro (2008년5월 26일 기준) 1 EURO = US\$ 1.5751 (2008년 4월 평균 환율) 1 EURO = 1,555.98 원 (2008년 4월 평균 환율) 1EURO = 6.55957 FFR(고정 환율; 프랑화의 유통은 유로화도입과 동시에 중단)
산업구조	농업 2.6%, 공업 29.2%(식료품 3.9%, 소비재 4.2%, 자동차2.9%, 설비자재 5.9%), 중간재 8.6%, 에너지 3.8%); 건설 6.2%; 상품서비스 48.1%; 행정서비스 13.7%(2006년)
교역 규모	4,474.5억 유로(수입), 4,029.1 억 유로 (수출) (2007년, EUROSTAT)
주요 교역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대 수출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용차, 항공기, 의약품, 자동차부품, 철강제품, 석유제품, 유기화학제품, 향수 및 화장품, 플라스틱자재, 시청각 방송기기 ○ 10대 수입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유 및 천연가스, 승용차, 석유제품, 항공기, 자동차부품, 컴퓨터 및 정보기기, 의약품, 철강제품, 유기화학제품, 시청각 방송기기

자료: 프랑스 관세청, 통계청, OECD, Eurostat 등 자료 종합

다. 한-불 관계

1886. 6. 4	○ 우호통상조약 체결로 최초의 외교관계 수립
1906.	○ 을사조약으로 인한 외교권 강제 박탈로 외교관계 일시 중단
1949. 2.15	○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재 수교
1961. 2. 1	○ 상표 협력 협정
1963. 4. 1	○ 세관 협력
1963. 4.26	○ 특허권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1967. 4.12	○ 사증 면제 협정
1968. 5. 8	○ 문화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72.11.29 발효)
1974. 6. 7	○ 한 불 민간 항공 협정
1974.10.19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 협정
1975. 1.22	○ 한 불 투자 보장 협정
1975. 9.22	○ 국제 원자력 기구, 한 불간 안정 조치 적용을 위한 협정 서명 발효
1977.12. 8	○ 한 불 투자 보장(쌍무) 협정 서명 (77.12.8 서명, 79.2.1 발효)
1979. 6.19	○ 한 불 이중과세 방지 협정 서명
1980. 9.19	○ 한 불 어업 협정 서명
1981. 4. 4	○ 한 불 과학 기술 협력 협정 서명 (81.12.18 발효)
1981. 4. 4	○ 한 불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
1991. 4. 9	○ 한 불 이중과세 방지 협정 개정
1993. 9.13	○ 한 불 산업 협력 약정 체결
1995. 3. 2	○ 형사 사법 공조 조약
1994. 3.28	○ 한 불 환경 협력 약정 서명
2000. 3. 6	○ 한 불 군사 비밀 보호 협정 체결
2002. 4.26	○ 청소년 교류에 관한 약정 체결
2004.12. 6	○ 한 불 사회보장 협정 체결
2007. 6. 1	○ 한 불 사회보장 협정 발효
교역 규모	US\$ 3,478백만(2007년 대 불 수출), 1,2206백만(2008.4) US\$ 4,043백만(2007년 대 불 수입), 1,6396백만(2008.4)
교역 품 (2007년)	○ 10 대 대불 수출: 무선전화기, 승용차, 평판 디스플레이, 집적회로 반도체, 냉장고, 편직물, 항공기 부품, 편직제 의류, 타이어, 선박 ○ 10 대 대불 수입: 의약품, 화장품, 집적회로 반도체, 펌프, 냉연강판, 밸브, 자동차부품, 기타정밀화학원료, 무선통신기기부품, 기타정밀화학제품
투자 교류	프랑스의 대한 투자 실적 704건, US\$ 5,150백만 ('62. -2007 누계)
교 민	15,000여 명(파리 거주 교민 약 15,000명 - 2007년 말 기준)

2. 정치 사회 동향

가. 대선, 총선 및 상원의원 선거 결과

1) 프랑스 대통령 결선투표 결과

- 기존 체제와의 단절 및 개혁을 통한 신 자유주의를 주창했던 중도 우파 집권 정당 <대중운동연합(UMP)>의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만 52세) 후보가 5공 화국 제 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 투표율: 1차 투표율보다 0.2포인트 더 높은 83.97%
- 후보 별 결선 득표율: 니콜라 사르코지 후보, 53.06% 및 세골렌 루아알 후보, 46.94%.

2) 사르코지 대통령 후보의 주요 선거 공약

- '함께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일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세제 도입 등 전반적인 경제 및 제도적 개혁을 통해 침체에 빠진 프랑스 경제의 취약점인 경쟁력 회복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을 제시 하였다.
- 대표적 경제 정책: 노동 시장의 유연화와 감세 정책, 주 35시간 근로 제 개편 및 근로시간 연장, 미국식 자유시장 경제 체제 적극 도입.
- 사회정책 공약: 경제성장에 맞춘 최저임금의 점진적 인상, 2년 내 노숙자 주거지 공급.
- 치안 및 이민 정책 강화: 강력한 법 질서 확립을 통한 치안 유지 및 불법 이민자 유입 방지 및 양질의 노동력 적극 수용.
- EU 정책: 터키의 EU 가입 거부 등 EU 확대 반대 및 EU 헌법 대신 미니 조약 체결 입장.
- 외교 정책: 미국과의 긴밀한 파트너 관계(복종이 아닌 우정의 관계) 유지 및 이란 핵 문제에 대한 강력 대응 주장.

대선 후보자 별 선거 공약 경제 비용 비교표

(단위: 억 유로)

분야	비용
고등교육 예산 50% 이상 증가 및 연구 예산 GDP의 3% 5년간 책정	90
초과 근무수당에 대한 사회보장 세 및 소득세 면제(보너스 25% 추가 지급)	46
운신이 불편한 고령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35
최대 과세 한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소득세, 부유세 및 주민세에 사회부채상환기여세(CRDS) 및 극빈자 연대 세(CSG)도 포함> 및 부유세(ISF) 면제<중소기업에 투자 및 기증한 금액(5만 유로까지)에 대해>	30
상속세 및 증여세 면세(95%가 면세 혜택 받을 것)	30
비상 교육정책	26
주택 정책 관련 비용(부동산 용자 이자, 소득액에서 공제)	25
자녀 부양비 1자녀까지 확대 지급	20
환경 세 감면(하이브리드 승용차 구매 보조금 등)	10
중소기업 연구 비용 감세제도 강화	5
합계	317

3) 총선 결과(2007년 6월)

6월 10일 1차 투표 후 집권당(UMP) 측에서는 사회당이 100석, 중도파 프랑스 민주연합당 20석 등 현상 유지밖에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면서 우파 집권당이 470석까지 차지할 것으로 낙관했으나 17일 치러진 결선투표에서 예상했던 압승에는 못 미치며 기존 의석 중 46석을 잃었다. 반면 사회당은 참패를 면하며 의외의 성적을 거두었다.

내무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하원의석 577석 중 집권여단인 UMP가 기존 의석 수 359석 보다 46석 적은 313석을 획득했으며 신중도파, UMP 친 세력이 22석, 다른 군소 우파 정당들이 9석을 차지했다.

기존 의석 149석의 사회당은 39석이 늘어난 186석을 차지해 예상외로 선전했고 다른 군소 좌파 정당들은 41석을 차지했다. 기존의석 22석을 보유하고 있던 프랑스 공산 당은 7석을 잃은 15석으로 프랑스의 공산당의 입지가 사라지고 있음을 사실화했다. 녹색당 역시 기존보다 적은 4석 확보에 그쳤다.

극우파는 단 한 좌석도 얻지 못했고 대선 1차 선거 시, 좋은 성적으로 프랑스 정치의 새로운 세력으로 자리할 것 같았던 프랑수아 바이우의 중도정당 민주운동은 바이우를 포함, 3명의 의원을 배출하는 데 그쳤다.

이번 총선결과는 극단주의 정당을 비롯한 군소정당의 영향력이 위축되었고 양당체계가 뚜렷해졌음을 입증하고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약속한 개혁정치를 밀어붙일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총선 최대 타격자는 알랭 쥐페의 낙선이다. 보르도 시장으로 부정의혹으로 정치권에서 하야했었던 알랭 쥐페는 대선 이후 사르코지 대통령의 임명으로 제 1기 내각의 2인자 자리인 수석각료, 환경장관에 임명되었으나 불과 한 달만에 내각에서 물러나야 하는 수모를 겪었다. 의원으로 선출되지 못하는 장관은 국민의 신임을 받지 못함을 입증하는 것으로 낙선장관은 사임해야 한다고 사르코지 대통령은 발표한 바 있다.

하원 국회구성 현황

정당 명	의석수
공산당	15
소수 좌파 정당	15
사회당	186
극좌파	7
녹색당	4
지역주의당	1
환경주의	0
기타	1
민주주의 운동	3
Majorite presidentielle	22
민중운동연합(UMP)	313
소수 우파 정당	9
프랑스 운동	1
극우파	0
합계	577

자료: 프랑스 내무부

4) 제2기 내각 구성 내용

- 총리직: 프랑수와 피용(Francois FILLON)
 - 대중적 인기는 적지만 사회당에서도 비교적 무난한 정치인으로 평가하고 있는 프랑수와 피용(Francois FILLON)은 정치수완이 능란한 우파 출신으로 사르코지와 성격적 배합 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 환경부장관 알랭 쥐페의 해임으로 구성된 1기 내각에 약간의 조정이 있었다.
 - 경제, 재무, 고용 장관에 재임명되었던 장-루이 보를로오(Jean-Louis BORLOO)가 알랭 쥐페의 후임자로, 환경부장관에 임명되었다.
 - 농, 수산장관으로 임명되었던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가 장-루이 보를로오 뒤를 이어 경제, 재무, 고용 장관에 임명되었다.
 - 농, 수산장관에는 외무장관을 지냈던 미셸 바르니에(Michel Barnier)씨가 등용되었다.
 - 대선 1차 선거에서 3위를 차지한 바이우 후보가 이끄는 중도정당 프랑스민주연합(UDF) 소속의 에르베 모랭(Hervé MORIN)45세)을 국방 장관 요직에 중용되었다.

- 사회당 대선 후보 루아얄 세골렌의 유세 선봉장이었다가 루아얄을 비판하며 사르코지 편에 가담한 에릭 베송(Eric BESSON)을 공공정책 평가담당 차관에 임명하였다.
- 좌파 인사 <국경 없는 의사 회> 창설자, 베르나르 쿠슈네(Bernard KOUCHNER)를 외무장관에 임명하였다.
- 등용된 7명의 여성 장관
 - 미셸 알리오-마리(Michele ALLIOT-MARIE) 전 국방 장관(60세)을 내무장관에 중용
 - 대선 참모로서 활약이 컸던 모로코 계 변호사 라시다 다티(Rachida DATI: 41세)를 법무 장관에 기용하였다.
 - 발레리 페크레스(Valerie PECRESSE)를 고등교육, 연구 장관에 기용하였다.
 - 보건, 스포츠 장관: 로즐린 바슐로-나르퀼(Roselyne BACHELOT-NARQUIN)
 - 주택, 도시 장관: 크리스틴 부팽(Christine BOUTIN)
 - 경제, 재무, 고용 장관: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 문화, 통신 장관 겸 정부 대변인에 크리스틴 알바넬(Christine ALBANEL)씨를 각각 기용하였다.
- 이민, 내무, 국가 정체성 및 공동개발 장관: 브리스 오르뜨피(Brice HORTEFEUX)
 - 대규모 불법체류자 추적은 없을 것이나 2007년도에 25,000명을 추방하겠다고 호언하였다.
 - 이민 정책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 노동, 사회관계 및 연대 장관에 그사비에 베르트랑(Xavier BERTRAND)씨가,
- 교육 장관에 그사비에 다르코(Xavier DARCOS)씨가,
- 예산, 공공회계 및 공공 기능 장관에 에릭 보에르트(Eric WOERTH)씨가 각각 임명되었다.
- 제1기 내각 구성 시 추가 임명되었던 차관(총 5명)은 다음과 같다.
 - 국회 관계 담당 차관: 로제 카루치(Roger KAROUTCHI)
 - 유럽업무 담당 차관: 장-삐에르 주이에(Jean-Pierre JOUYET)
 - 공공정책 평가 및 전망 담당 차관: 에릭 베송(Eric BESSON)
 - 운송 담당 차관: 도미니크 뷔스로(Dominique BUSSEAU)
 - 가난 퇴치 연대 행동 고등 판무관: 마르탱 히르슈(Martin HIRSCH)
- 도시정책담당 차관으로 “매춘부도, 복종도 아닌(Ni putes ni soumises)” 연대 항설자인 좌파페미니스트 파델라 아마라(Fadela Amara)의 임명은 이미 좌파 정치인 베르나르 쿠슈너의 외무장관 임명으로 보인 사르코지 대통령의 열린 정치에 대한 의지로 보인다.

5) 상원의원 간접 선거 결과(2008년 9월 21일)

매 3년마다 정족수의 1/3을 교체해야 하는 프랑스 상원의원 선거제도에 따라 지난 9월 21일 114명의 상원의원 간접선거 결과, 집권단(UMP)은 12석을 잃은 반면, 사회당은 21석을 쟁취하였다.

상원의 정복수는 331석에서 인구 증가를 감안하여 343석으로 12석이 증가한 상황에서 1/3에 해당하는 114석에 대한 간접선거 결과, 집권당(UMP)은 당초 159석보다 12석이 줄어든 147석을 차지, 절대 과반수에서 더욱 멀어졌으나 중도우파(UC)의 29석과 기타 우파(DD) 3석을 포함할 경우에는 과반수(172)가 넘는 179석이 되어 개헌을 제외한 일반 의사결정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2011년 상원의원 간접선거 시, 좌파 세력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엿보이며 현실적으로 우파 집권당은 개헌에 필요한 상,하의원 정족 수의 3/5 이상의 의석수를 잃게 되었다.

상원 국회구성 현황

정당 명	의석수
프랑스 공산당(PCF)	23
기타 좌파	7
사회당(PS)	116
유럽 사회, 민주 모임(RDSE)	12
중앙연합(UC)	29
민중운동연합(UMP)	147
기타 우파	3
비 등록 의석	6
합계	343

자료: 프랑스 상원(SENAT)

6) 예측 가능한 대 내외적 주요 변화 및 영향

대대적인 감세 및 면세 조치 및 유연한 근로 법의 도입 등으로 2012년 임기말 시점에서는 프랑스의 기업 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국제 경쟁력 향상 및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량 증가 등이 예상된다. 부유세가 폐지될 경우, 타 국가로 도피한 부자, 자본 및 주주회사들이 프랑스로 다시 되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선별적 이민정책, 불법 체류 10년 이상의 외국인 신분의 정상화 제도의 폐지 등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 강화(2007년 25,000명, 2008년 28,000명 추방정책 발표 등), 가족생계 수단이 불충분한 외국인 체류자의 가족합류 조건 강화, 미성년 상습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고용 기회 2회 이상 거부한 실업자에 대한 강제 규정 도입 등 프랑스의 노동 및 사회 환경이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고등 교육기관의 자치화 및 연구 분야 대폭 지원 정책에 따라 개인 부담 교육비의 증가가 예상되며 산업은 IT, 바이오, 나노 기술 쪽으로 전환할 것이며 해외 고급 인력 및 연구원 우대 정책에 따라 동 분야 종사자들 간의 경쟁 치열화 및 브레인 헌팅 현상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프랑스는 금년 하반기 EU 의장국 기간 중, 지중해 경제연합체 기반 작업을 완성한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어 EU, 지중해 연안 북아프리카 및 중동 국가들 간의 경제교류가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EU의 투자 및 무역이 지중해 연안 국가들로 점차 전환될 전망이다.

7) 최근 사회동향

프랑스 체신은행의 민영화 반대 시위운동이 9월 23일 전국적으로 벌어져 우편물 배달 등 관련 업무가 마비되었다.

프랑스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 급감 및 증권시장 폭락 등으로 도산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실업위기감과 더불어 고물가로 인한 구매력 약화로 안 쓰고 저축하자는 심리가 팽배해져 이제는 내수 시장 특히, 요식업계마저 매일 1개 이상의 업소가 문을 닫는 연쇄현상이 나타나는 등 경기침체로 치달는 위기감이 짙어지고 있다.

능동적 연대소득세(RSA) 등 10여 개의 신규 과세 부담 증가로 인한 구매력 약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중산층 및 여당 측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어 모처럼 인기를 회복한 사르코지 대통령 및 피용 총리가 이끄는 개혁 정부의 운신 폭이 좁아졌으며 이로 인해 경기는 침체의 늪에서 빠져 나가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용자 받기가 어려워져 부동산 거래 급감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동산 업체들의 도산 증가 및 실업 증가 등 사회 불안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대 다수의 기업주들이 세계적인 불경기로 인해 작업시간을 단축하는 등 긴축 경영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추가 근무를 하여 소득을 늘려보고자 하는 저소득층들은 고물가로 인한 구매력 감소 피해를 가장 크게 받게 되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극빈자들의 비중이 점증하고 있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프랑스 기업 한국 내 주요 인프라 및 관광 프로젝트 참여 확대

1) 필요성

한국은 사회간접시설의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인프라 확충을 유도하고 있으며, 중국, 시베리아 등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물류 인프라 수요 역시 지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3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 있으며 지리적으로 동북아의 중심권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의 인적 인프라를 보유한바, 해양, 위락 산업의 발달이 유망하다.

반면 프랑스는 도로, 대교, 철도, 수 처리 등 인프라 건설 분야의 다국적 기업들이 많으며 우수한 기술력 보유하고 있고 주요 토목 건설국이며 제1의 관광 산업국으로서 오랜 경험과 우수한 시공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간 협력 가능 분야가 많은 상황이다.

2) 진출 현황

- 프랑스 기업들은 도로, 대교, 철도, 수 처리 분야에서 한국 업체와 합작 투자를 통해 성공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 도로 및 대교 건설: BOUGUES(마창대교), EGIS(대전천변)
 - 철도: ALSTOM(KTX), SISTRA 등
 - 수 처리: VEOLIA ENVIRONMENT(인천), ONDEO(양주)

3) 향후 조치 사항

- 한국의 지자체 및 한.불 기업간 컨소시엄을 통한 민간 자본 유치 역시 필요한 분야이다.
 - 대교 건설, 경전철, 풍력 발전소 등 SOC 인프라
 - 서울 Digital Media City(DMC) 건설
 - 제주 중문 단지 개발 등 관광 단지 개발 프로젝트 등

나. 프랑스 전자 정부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 참여 가능성

1) 현황

프랑스 정부는 2004-2007년간 총 18억 유로를 투자하여 행정 시스템 현대화 작업 및 새로운 칩 카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프랑스 전자 정부 구축 프로젝트 "ADELE"를 추진하고 있다.

- ADELE : Administration Electronique
 - 추진 기구: ADAE
 - 국무총리실 산하에 각 부처에서 직원이 파견되어 구성
 - 140개 분야 300여 개 서비스 분야의 행정 절차 전산화
 - 개인의 신분증, 은행 카드, 사회보장 카드를 전자 주민증과 연결 등
 - 인터넷 사이트: www.adae.gouv.fr/adele

2) 향후 조치 사항

따라서 한국의 인터넷 기술과 프랑스 네트워크 장비 기술간 협력을 통해 프랑스 전자 정부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양국간 협력을 통해 습득된 노하우를 기타 아시아권 국가로의 기술이전 등에 활용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다. 프랑스 항공기업 한국 전투기 구입 및 헬기 개발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

한국의 2020년도 국방 개혁 프로그램 가운데 전투기 구입 및 헬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 2010년 경 20대 전투기 구입 프로그램(F-X)
 - 2020년 신세대 전투기 120대 구매 프로그램에 포함.
 - 총 예산 24억 달러
- 전투용 헬기 프로그램(272대)
 - 총 예산 50~100억 불
 - 국산 수송용 헬기 개발 프로그램(KHP: Korean Multirole Helicopters): 한국산 개발에 Eurocopter 사가 파트너사로 참가할 계획이다.
 - 국산 전투용 헬기 개발 프로그램(Indigene): 외국 헬기사를 파트너로 하는 한국산 헬기 개발 계획이다.
 - Eurocopter 사의 'Le Tigre'와 Boeing 사의 'Apache AH-64D Longbow' 간에 치열한 경쟁 중이다.

라. EU 의 대한 수입규제 내역(2008년 6월 기준)

우리나라는 올 6 월 말 기준 EU 로부터 총 5 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으며, 3 건이 조사 중이다. EU 집행위가 밝힌 2008 년 상반기 중 EU 의 역외 수입규제 현황과 우리나라의 규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008 년 상반기 EU 의 역외 수입규제 현황

- 개요
 - 2008년 6월 말 기준 EU 는 131건의 반덤핑 관세와 8건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9개국 10개 품목에 대해 가격인상 합의를 적용하고 있음. 또한 62건의 조사 (2008년 5월 말)가 진행 중이다.
 - 반덤핑 관세 131건의 경우 품목명 기준으로는 63개, 국가 기준으로는 33개국이 대상이며, 상계관세 조치 8건의 경우 품목명 기준으로는 6건, 국가 기준으로는 3개국이다.
- 조사 개시 건수
 - 상반기 중 총 22건의 조사가 진행됐으며, 이 중 10건이 신규조사이고, 2건이 만기재심, 9건이 중간재심, 그리고 1건이 기타 재심임. 신규 수출업체에 대한 조사나 우회조사, 세이프가드 조사는 전무했음. 신규조사 10건 중 9건이 반덤핑 조사이며, 1건이 상계관세 조사이다.
 - 신규 조사 개시된 10건 중 7건이 철강 제품, 2건이 화학제품이며, 나머지 1건이 기타 제품으로, 섬유·제지·전자·기계엔지니어링·금속 분야 등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추세는 2007년 한해 전체로도 동일해 2007년 중 신규조사된 9건 중 6건이 철강제품, 2건이 화학제품, 나머지 1건이 기타이며, 섬유·제지·전자·기계엔지니어링·금속 등의 분야에 대한 조사는 없었다.
 - 신규 조사 개시된 10건: 스테인리스스틸 냉연강판(중국·한국·대만), PSC wires and strands(중국), 양초(중국), Wire rod(중국·몰도바·터키), 바이오 디젤(미국·반덤핑 및 상계관세 각각 1건)
- 조치 부과 현황
 - 상반기 중 2건의 잠정관세가 부과됐으며, 7개국 5개 품목군에 대해 9건의 확정 조치가 부과됐음. 잠정관세와 확정조치 모두 반덤핑관세로 상계관세는 전무하다.
 - 중간재심을 통해 9건이 확정조치로 이어졌으며, 우회조사중 1건이 확정조치가 부과됐음. 상반기 중 세이프가드조치가 부과된 사례는 없다.
- 조치 종료
 - 신규조사 중 2건이 확정조치 부과 없이 조사 종료됐으며, 만기 재심 중 4건, 중간재심 중 3건이 역시 종료됐다.

2) 지난 5 년간(2004~08 년 6 월) EU 의 수입규제 현황

2004 년 이후의 지난 5 년간 신규조사가 개시된 건수는 총 110 건으로, 2006 년의 36 건, 2007 년 9 건에서 2008 년 상반기 중에는 10 건으로 대폭 늘었다.

주요 조사대상 산업은 철강과 화학산업으로, 철강의 경우 5 년간 총 30 건의 조사가 신규 개시됐으며, 이어 화학 28건·전자 12건·금속 9건·섬유 7건·기계 엔지니어링 6건 등의 순임. 특히 철강은 지난 2007 년부터 신규조사가 급증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5년간 EU로부터 수입규제 신규 조사를 한번이라도 받은 국가는 모두 28개 국가로, 총 신규조사 개시건수 110건 중 중국이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국가들은 모두 1~8건 이내를 기록함. 중국에 이어 대만이 8건, 러시아 7건, 한국·말레이시아·미국이 각각 6건으로 3위 그룹을 차지했다.

한편 올 상반기 중 신규조사가 진행 중인 건수는 총 12개 품목(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조사가 별도로 진행 중인 바이오디젤을 한 품목으로 간주할 경우는 11개 품목)으로, 이 중 바이오디젤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입대상국에 중국이 포함돼 있어 중국산에 대한 EU의 우려가 어느 정도인지를 시사해주고 있다.

2008년 6월 말 기준 조사가 진행 중인 신규조사 품목

상계관세	바이오디젤
반덤핑	바이오디젤, 양초, Citric acid, Citrus fruits, 철강제 웨스너, 철강판 Monosodium glutamate, PSC wire & Strands, 스테인리스 냉연판 철강제 튜브와 파이프, Wire rod

3) 대한 수입규제 현황

2008년 상반기 중 한국은 스테인리스스틸 냉연판에 대한 신규 조사가 개시됐으며, DRAMS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가 종료됐다.

2008년 6월 말 기준 한국은 EU로부터 5건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고 있으며, 3건의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이다.

EU로부터 수입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산 수출품

구분	조치 유형	대상 품목
규제 중	반덤핑 조치	폴리에스테르 단섬유(PSF), PET 칩, 양운형 냉장고 실리콘, 철강제 관연결구류
조사 중	반덤핑	스테인리스스틸 냉연판(신규 조사), 철강제 관연결구류(만기재심),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중간재심)

주 1: 2008년 6월 말 기준.

주 2: 실리콘의 경우, 중국산에 대해 부과 중인 반덤핑 관세의 우회 혐의에 따른 우회덤핑 관세로 수출 시, 우회수출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U 폴리에스테르 단섬유(PSF) 시장동향 지수

	2004	2005	2006	조사대상기간
총소비(톤)	834,141(100)	843,579(101)	822,509(99)	823,667(99)
대한수입(톤)	122,260(100)	108,407(87)	111,967(92)	133,574(109)
한국산 점유율	15.1%	13.2%	14.1%	16.9%
4대조사국수입(톤)	197,549(100)	153,096(77)	114,781(58)	142,624(72)
역외수입(조사대상 4개국 제외, 톤)	171,633(100)	225,748(132)	278,392(162)	256,291(149)

주: 괄호 안은 지수로 한국산 점유율을 제외한 모든 항목은 2004년을 100으로 했을 때의 지수를 의미한다.

EU 역내 폴리에스테르 단섬유(PSF) 산업의 동향 지수

	2004	2005	2006	조사대상기간
생산(물량)	100	97	101	110
가동률	86.8%	89.3%	85%	84.4%
매출액(금액)	100	99	103	113
역내판매(물량)	100	92	97	107
평균판매가격	100	107	106	106
평균비용	100	109	112	109.7

주: 가동률을 제외한 모든 항목은 2004년을 100으로 했을 때의 지수를 의미한다.

EU 폴리에스테르 단섬유(PSF) 사용기업의 현황

	2004	2005	2006	조사대상기간
수익성	3.48%	4.07%	3.88%	3.79%
총비용에서 PSF 비중	22.3%	24%	24%	24%
역내 매출(금액, 지수)	100	106	107	111

우리 섬유업계의 큰 관심을 끌어온 PSF는 앞으로도 EU에 수출할 때 계속해 반덤핑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국산은 EU로부터 지난 2005년 3월부터 최저 0~10.6%(업체별로 무세, 5.7%, 6%, 10.6%)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아 왔다.

자료: EUROPA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가. 최신 경제동향

1) 경제 성장 둔화

건전 경제 체제 유지를 위한 최소 경제 성장률(2.5%-3%)에 미치지 못하는 연평균 1.9%의 GDP성장세가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어 정부의 예산 적자 누적 및 이로 인한 공공 부채 증가가 다시 경제성장의 제동 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금융 시장 불경기가 내수 및 투자의 제동으로 작용함으로써 경제 침체의 위기 직전으로 악화되고 있다.

2) 2/4분기 프랑스 경제성장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

프랑스 국립 경제통계연구기관(INSEE)의 8월 14일자 경제지표에 의하면, 프랑스 경제는 2/4분기 들어 1/4분기 대비 마이너스(-0.3%)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프랑스 경제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유가상승, 원자재 가격 급등 및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1/4분기까지 양호한 성장률(지난 해 3/4분기 0.7%, 4/4분기 0.4%, 올 해 1/4분기 0.4%)로 비교적 잘 견디어 왔는데 2/4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급변하여 그 충격이 더욱 크다.

프랑스의 연간 GDP 성장률은 2/4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해 지난 6월말 기준 0.9%에 그쳤고 금일 인터뷰에서 밝힌 프랑스 경제 재무부 장관의 3/4분기 경제 전망도 어두워 금년도 정부 목표(1.7% 내지 2%) 달성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1% 수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 세입이 올해 30억 내지 50억 유로 감소하여 정부 부채 비율(GDP대비) 감소 목표(금년 2.5% 및 2009년 2%) 달성이 어려워졌으며 EU 중앙은행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한 GDP의 64%에 달하는 공공적자 부담 가중 등으로 정부의 운신 폭이 현저히 줄어들어 경기 활성화(구매력 회복을 위한 직장인 교통비 지원 안 등) 대책 마련에 EU 프로젝트 예산 및 예비 예산을 끌어 들여야 할 상황이다.

설상가상 격으로 2/4분기 중 대외무역의 GDP 기여도 -0.5, 가계투자 2.9% 감소, 고용 12,200명 감소, 6월말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3.6% 등 프랑스 경제 전반에 적신호가 켜졌다.

3) 프랑스 2/4분기 GDP 마이너스 성장 요인

- 생산 감소
 - 생산은 1/4분기 0.2% 증가 후 2/4분기 중 0.5% 감소하였다.
 - 이는 공산품 생산이 1/4분기 0.5% 증가에서 2/4분기 중 1.5% 감소로 반전한 데 기인한다.
 - 중간재 감소세 악화: 1/4분기 -0.1%에서 2/4분기 -1.6%로 감소율 증가하였다.
 - 자동차 생산 1/4분기 0%증가에서 2/4분기 4.3% 감소하였다.
 - 소비재 감소율 증가: 1/4분기 -0.1%에서 2/4분기 -2.2%로 감소율 증가하였다.
 - 자본재 생산만 증가세 유지: 1/4분기 1.1%에서 2/4분기 0.5%로 증가율 둔화하였다.
 - 농산물 생산은 1/4분기 0.2% 증가에서 2/4분기 0.5% 감소하였다.
 - 에너지 생산은 1/4분기 1.1% 감소에서 2/4분기 4.3%증가로 호전하였다.
- 투자 감소
 - 미국발 신용경색으로 인한 프랑스 부동산 민간투자가 2/4분기 중 1.7% 감소하는 등 민간투자가 2.9% 감소하였으며 기업 및 공공투자도 각각 1.0% 및 1.7% 감소하여 전체 투자 1.5%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 건설분야 생산은 1/4분기 0.2% 증가 후 2/4분기 1.8% 감소하였다.
 - 2/4분기 건설허가 건수 및 착공 건수는 각각 15% 및 28% 감소하였다.
 - 투자는 기업투자가 1/4분기 2.1% 증가 후 2/4분기 0.9% 감소한 것처럼 0.9% 증가 후 0.7% 감소하였다.
 - 재고의 생산 기여도는 1/4분기 0.1포인트에서 2/4분기 0.6포인트로 높아졌다.
- 내수 침체
 - 에너지(특히, 유가) 및 식료품 가격 급등 및 부동산 위기 등에 민감한 프랑스 소비자들의 구매력 하락으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프랑스 소비자들은 지갑 열기를 꺼려하여 1/4분기 중 0.1% 감소했던 내수가 2/4분기 중 0.1% 증가에 그쳐 GDP 기여도가 1/4분기 0.2에서 2/4분기 -0.1로 반전하였다.
 - 민간소비지출은 1/4분기 1% 감소 후 2/4분기 중 0.3% 감소하여 덜 악화되었는데 이는 에너지 소비가 5% 감소 후 1.6% 증가한 데에 기인한다.

- 공산품 소비는 0.1% 증가 후 0% 증가하였다.
- 식료품 소비는 0.8% 감소에 이어 1.4% 감소로 더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 2/4분기 중 1.6% 증가한 에너지 소비 현상이 3/4분기 이후 재현되지 못할 경우, 올해 내수는 감소할 가능성이 다분하며 GDP기여도는 1%에 그칠 위험성이 크다.
- 무역수지 적자 악화
 - 독일 등 주요 교역 대상국의 경제침체 및 유로화 강세에 따른 달러화 지역 수출 둔화로 2/4분기 수출 감소율(-2%)이 수입 감소율(-0.3%)를 크게 웃돌아 무역적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GDP 기여도가 1/4분기 0.1에서 2/4분기 -0.5로 반전하였다.
 - 2008년 전반적인 내수 감소가 수입을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하였다.
 - 상품 수출(서비스 제외)은 1/4분기 3.2% 증가에서 2/4분기 2.6% 감소로 급회전했는데 이는 공산품 수출이 1/4분기 2.5% 증가에서 2/4분기 2.9% 감소한 것과 유관하다.
 - 자본재 수출은 1/4분기 2.4% 증가 후 2/4분기 중 4.7% 감소하였다.
 - 중간재 수출도 1/4분기 2.9% 증가 후 2/4분기 중 1.9% 감소했으며 자동차 수출도 1.5% 증가 후 5.7% 감소하였다.
 - 소비재 수출은 2.7% 증가 후 0.6% 증가로 둔화하였다.
 - 에너지 수출의 경우도 13% 증가 후 4.3% 감소로 급선회하였다.
 - 농산물 수출은 1/4분기 4.3% 증가에서 0.6% 증가로 둔화하였다.
 - 상품 수입의 경우도 1/4분기 2.4% 증가에서 2/4분기 0.3% 감소로 반전하였다.
 - 농산물 수입, 4.5% 증가 후 3.4% 감소 및 공산품 수입 2.1% 증가 후 0.2% 감소가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소비재 수입은 0.7% 증가에 후 0.8% 증가했으며 자본재 수입은 1.1% 증가율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 중간재 및 자동차 수입은 1/4분기 공히 3.1% 증가 후 2/4분기 중 각각 0.5% 및 3.1% 감소하여 전체 수입 감소의 일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에너지 수입은 3% 증가에서 1.5% 증가로 약간 낮아졌다.
- 동 결과, 무역수지가 상품생산에 기여한 비율은 1/4분기 0.2포인트에서 2/4분기 -0.9포인트로 반전하였다.

2008년 분기(2/4, 3/4, 4/4) 및 연간 경제성장을 전망 및 (6월 기준 실적)

(단위: %)

연도	2007				2008년 전망치 및 (6월 기준 실적)				2007	2008
	1/4	2/4	3/4	4/4	1/4	2/4	3/4	4/4	연간	연간기준
GDP	0.6	0.6	0.7	0.3	0.6(0.4)	0.2(-0.3)	0.0	0.2	2.1	1.6(0.9)
수입	2.3	1.8	1.8	-1.1	1.9(1.8)	0.0(-0.3)	0.3	0.5	5.9	2.7(2.0)
가계 소비	0.8	0.8	0.6	0.6	0.1(-0.1)	0.1(=)	0.1	0.3	2.5	1.3(1.0)
정부 소비	0.2	0.4	0.4	0.3	0.2(0.3)	0.4(0.5)	0.3	0.3	1.3	1.2(=)
투자	1.2	0.6	1.0	1.1	1.1(0.7)	0.0(-1.5)	-0.4	-0.4	4.9	2.2(0.9)
(기업)	2.0	1.1	1.7	1.2	1.8(1.2)	0.4(-1.0)	0.2	0.6	7.3	4.4(2.5)
(가계)	0.5	0.3	0.3	0.8	0.0(-0.1)	-1.0(-2.9)	-1.7	-2.5	3.0	-1.5(-1.4)
수출	0.9	1.6	1.1	-0.2	3.1(2.4)	-0.1(-2.0)	0.0	0.3	3.2	3.9(1.0)
GDP 기여도										
내수	0.8	0.7	0.6	0.6	0.4(0.2)	0.1(-0.1)	0.1	0.2	2.7	1.5(1.0)
재고	0.2	-0.1	0.3	-0.6	0.0(0.1)	0.1(0.3)	0.0	0.0	0.2	-0.2(0.0)
무역	-0.4	-0.1	-0.2	0.3	0.3(0.1)	0.0(-0.5)	-0.1	0.0	-0.8	0.3(-0.1)

주: 전년도 가격기준, 계절변동치 및 근무일수 조정 후

자료: 프랑스 국립 경제통계연구기관(INSEE) 2008년 6월 경제전망 및 2/4분기 국민계정

4) 전망

프랑스 경제전문가들은 2008년도 경제성장률을 1%로 전망하면서 2009년도는 이보다 더 저조한 0.8%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프랑스 경제재무장관도 2009년도 정부 예산(안)에 적용한 경제지표로서 당초 정부 목표의 최하 수준치를 적용하였다고 발표함으로써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을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이 드러났다.

프랑스 경제재무장관은 2009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경제 전문가들의 대다수는 내년 연말 이후에나 회복 조짐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프랑스 경제회복의 시발점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실업증가 억제 및 물가안정을 통한 금리인하 순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필요한 정부의 재원이 고갈 상태이어서 내년도 정부 예산 적자가 EU의 건전경제협약 규정치(GDP의 3% 미만)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어떠한 부양책도 내놓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주요 교역대상국들인 인근 EU 회원국들의 경제마저 침체위기에 처해있어 수출증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여지마저도 없는 상황이어서 프랑스 경제는 당분간 부진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2. 주요 산업 동향

가. 산업 구조

- 프랑스의 2007 년도 전체 산업 생산 규모는 전년도 가격 기준으로는 2 조 9,640 억 유로로 2006 년 대비 2.3% 증가했다.
 - 경상가격 기준, 3 조 3,735 억 유로로 2006 년(3 조 2,342 억 유로, 2005 년 대비 4.5% 증가) 대비 4.3% 증가했다.
- 3차 산업이 전체 산업 규모는 1 조 8,382 억 유로로 2006 년(1 조 7,923 억 유로, 2005 년 대비 1% 증가) 대비 2.6% 증가했으며 산업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품 서비스가 전체 산업의 48.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행정 서비스는 13.6%로 3 번째 비중을 차지하였다.
- 에너지 산업 및 농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6% 및 2.5%이다.
- 건설 산업은 전체 산업의 6.3%를 차지하였다.
- 순수 제조업 규모는 8607 억 유로로 2006 년(8,463 억 유로, 2005 년 대비 1% 증가) 대비 1.7 증가하였으며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로 2006 년에 비해 0.2 포인트 줄었다.
 - 동 요인은 자본재를 제외한 여타 분야 특히, 농산물 가공 및 식품 그리고 자동차 분야의 생산 증가율이 둔화한 데 비하여 건설 및 서비스(특히, 상품 서비스) 분야의 증가율이 크게 증가한 데에 기인한다.

산업별 생산 현황(물량 기준)

(단위: 십억 유로, %)

산업별	2005		2006				2007			
	생산	증감률	생산	증감률	구성비		생산	증감률	구성비	
					전체	공업			전체	공업
총계	2,839.0	1.7	2,897.1	2.0	100	-	2,964.0	2.3	100	-
농업	76	-2.5	74.2	-2.4	2.6	-	74.3	0.1	2.5	-
공업	838.3	0.8	846.3	1.0	29.2	100	860.7	1.7	29.0	100
농산물 가공, 식료품	114.1	0.5	113.9	-0.2	3.9	13.5	115.0	0.9	3.9	13.4
제조업	621.3	0.4	628.5	1.2	21.7	74.3	640.4	1.9	21.6	74.3
소비재	121	0.9	122.7	1.4	4.2	14.5	124.1	1.2	4.2	14.4
자동차	89.8	-1.6	84.8	-5.7	2.9	10.0	85.6	0.9	2.9	9.9
자본재	161.8	2.9	170.6	5.4	5.9	20.2	176.4	3.4	5.9	20.5
중간재	248.7	-0.6	250.4	0.7	8.6	29.6	254.3	1.6	8.6	29.5
에너지	103	3.9	104.4	1.4	3.6	12.3	106.1	1.6	3.6	12.3
건설	174.1	4.1	180.7	3.8	6.2	-	187.4	3.7	6.3	-
상품 서비스	1,355.10	2.4	1,394.40	2.9	48.1	-	1434.9	2.9	48.4	-
상업	279	1.5	287.6	3.1	9.9	-	296.6	3.1	10.0	-
운송	127.5	2.3	131.4	3	4.5	-	134.9	2.7	4.6	-
금융	149.4	3.8	153.3	2.6	5.3	-	160.3	4.6	5.4	-
부동산	222.5	1.8	228.4	2.6	7.9	-	234.4	2.6	7.9	-
기업 서비스	432.6	3.3	447.8	3.5	15.5	-	459.9	2.7	15.5	-
개인 서비스	144.6	1	146.5	1.3	5.1	-	148.7	1.5	5.0	-
행정서비스	392.9	1.1	397.9	1.3	13.7	-	403.3	1.4	13.6	-
교육, 건강	236.7	1.2	239.8	1.3	8.3	-	160.0	-33.3	5.4	-
행정 관리	156.1	1.1	158.1	1.3	5.5	-	243.3	53.9	8.2	-

자료: 프랑스 국민계정(Comptes nationaux anuels 2007, trimestriels 2008), 프랑스 경제통계연구소

나. 산업 현황

1) 프랑스 산업 생산 및 수주 동향

- 2007년 프랑스 산업은 전체적으로 1.5%의 성장률을 보였다.
 - 이는 최근 10년 기간 중 2번째로 높은 것임: 1.9%의 성장률을 보인 2004년을 제외.
 - 2002년부터 산업활동은 전반적인 경제성장률에 비해 뒤쳐져왔으나 2007년 1.9%가 상승함으로 오랜 침체를 만회함.
 - 공업생산증대는 지난해 초부터 시작되어 상반기 말경 최고치를 기록함.
- 최근 몇 달간 분야별 추이는 눈에 띄는 변화를 보였다.
 - 자본재 분야는 지난 3년간 지속된 추세를 그대로 유지했고 지난 1월에서야 1년 만에 5.2%의 상승률을 보임.
 - 자동차 업계 생산은 지난 3년간의 감소세 끝에 2007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보임.
 - 한편 가공식품 및 중간재는 꾸준히 높은 생산 추이를 기록함.
 - 소비재는 하반기에 뚜렷한 감소를 보여 지난해 1.6%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경제동향 조사에서 산업활동은 최고치에서 내수 및 해외시장 주문량이 약간 침체하였으나 2005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2) 무역 및 내수시장 소비

- 최근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2007년 하반기 최고치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 지난 1월 수출액은 3개월 유동평균으로 5.5% 성장하였다.
 - 그러나 국내 3/4 분기 수지에 나타난 판매량은 그다지 밝지 못하였다.
 - 거의 전분야에 걸쳐 수출액이 증가했는데 특히, 자본재 수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 2007년 에어버스 수출은 5% 이상 감소하였다.
 - 산업재 수입은 2007년 상반기 증가 후 여름 이후에도 줄곧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 일년간 무역수지는 159억 유로의 적자로 전년도 수지 35억 유로에 비해 급격히 악화되었다.
- 공산품 소비는 동일 품목 수요가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이어져왔다.
 - 연말에 약한 하락세를 보인 후 2008년 초 회복되었다.
 - 이는 자연히 프랑스 내 제조업계가 아닌 수입을 활성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 2000년 말부터 2007년 말까지 각 세대 소비재의 소비는 21.7% 성장하였으며 소비재 수입은 64.2%나 증가한데 비해 생산은 4.8% 성장하는데 그쳤다.

3) 주요 생산 환경

- 산업고용률 감소세가 둔화되었다.
 - 6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2006년 대비 2007년에는 41,000개가 감소하였다.
 - 신생기업의 물결에 임금노동자 외 일자리 4천 개가 창출되었다.
 - 용역고용률은 한풀 꺾이는듯했으나 연간 일일 용역고용 수는 3.3% 증가하였다.
 - 고용성장 및 창출을 위한 정부 정책에 의한 TEPA법으로 추가근무임금에 대한 세금면제혜택이 주어질 정도로 해당 산업계는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007년 일자리 수요대비 공급은 2000년 이후 최고치에 달하였다.
- 산업활동 침체 전망에도 제조업계의 투자지출액은 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4) 가격 및 자산 현황

- 개인 산업가격전망은 지난 한 해 상승세를 그쳤다.
 - 가공식품의 경우 역사적 수치를 기록할 만큼 높는데 이는 원자재 재고가 가격의 상승 및 유로화의 평가절상에서 기인한다.
 - 실지로 2년 사이 산업용 원자재 가격지수가 28% 이상 올랐으나 이 여파는 판매가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았다.
 - 지난 7년간 지속되어온 추세대로 생산가의 변동은 여전히 중간소비재 가격변동보다 낮았다.
- 2007년 여름 시작된 재정위기 이후 대출조건강화에도 자산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영진의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공업분야 2007년 경영순이익은 7.4% 상승하였다.
 - 그러나 이는 2000년도에 비하면 5% 낮은 수치이다.
 - 마진을 또한 33.8%에서 30.8%로 감소하였다.

5) 생산추이 비교

- 2007년 1.5%였던 프랑스 산업성장률도 유로화 사용지역의 성장률인 3.5%에 비하면 작은 규모이다.
 - 유로화 사용지역의 산업생산 성장도 주춤하였다.
 - 2000년을 100 기준으로 하면 2008년 1월 프랑스 산업생산지수는 105.7로 유로화 사용지역 평균지수 114, 독일 지수 123.9 및 스페인 지수 109.9 보다 낮았다.
 - 유로화 사용 국가 중 이탈리아가 98.4로 가장 낮은 지수를 기록하였다.
 - 이는 지난 몇 년간 지속된 프랑스 및 이탈리아 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와 직관된다.
- 경기의 하락세는 프랑스보다 유럽 차원에서 더 뚜렷이 드러났다.
 - 외국으로부터 오는 주문량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독일의 경우가 가장 심했다.
 - 산업 경기에 따른 침체에는 스페인 및 이탈리아가 가장 영향을 크게 받았다.

6) 가격 경쟁력 약화

- 지난 가을을 기점으로 심화된 유로화의 평가절상이 프랑스 산업의 구조적 경쟁력을 더욱 약하게 하였다.
 - 유럽중앙은행에 따르면 22개 주요 화폐와 비교하여 유로화 가치는 일 년 사이 5% 인상되었다.
 - 유로화는 일 년 만에 US 달러 대비 16%, 영국 파운드 대비 12% 인상되었다.
 - 급작스런 화폐가치의 변화로 수출업체들의 부차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 1978년에서 2007년까지 평균 32.8%였던 마진율이 2007년 한해 평균 30.8%에 불과함으로 지난 30년간의 평균치에도 못 미쳤다.
- 다른 유로화 사용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내에 위치한 산업체들도 급작스런 유로화 강세로 인건비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 2007년 말 프랑스 산업 내 한 시간에 해당하는 노동비용은 32.7 유로였다.
 - 이는 전체 유로화 사용지역의 16.3%를 넘는 수치로 2000년에는 12.5%였다.
 - 곧 2007년 말 32.8 유로였던 독일의 산업 내 인건비 수준에 거의 다다른 수치이다.
 - 지난 12개월간 독일은 1.5%, 유로화 사용지역은 2.7%인 증가율이 프랑스 내에서는 3.1%에 달하였다.
 - 유로화 사용지역 외의 국가들과 비교하면 더욱 심한 격차를 보이는데 미국의 경우 오히려 1년 사이 8.9% 감소세를 보였다.
 - 프랑스 산업 내 한 시간 인건비는 앞으로 52%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였다.

7)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회복세

- 지난 8년간의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 이후 세계 주요 41 개국을 상대로 한 프랑스 수출은 4.8%까지 회복하였다.
 - 1998년에는 6.3%의 증가율을 기록했었다.
 - 지난 9년 동안 프랑스의 점유율은 약 25% 감소하였다.
 - 지난 1998년에 비해 감소한 유로화 사용지역 내수무역 포함 수출 점유율은 2007년 2.2%에 그쳤다.

- 프랑스 수출의 감소의 주요원인은 다른 유럽 내 생산지역에서 온 것이다.
 - 유로화 사용지역 내 프랑스 수출은 10년 전에 비해 20% 이상 감소해 2007년 말, 13.5%에 그쳤다.

8) 세계시장 內 프랑스 상품 위치

- 프랑스의 수출 침체 현상은 거의 모든 수출 대상국에서 나타났다.
 - 10년 전 9%이던 유럽연합 수입에서 프랑스의 수출 비중은 지난 해 7%였다.
 - 프랑스의 대영 수출은 2006년 9.2%에서 2007년 10.4%로 회복되었다.
 - 반대로 유로화 사용지역 내 교역에서 프랑스의 수출은 10년 전 16.7%에서 2006년 13.7%로 감소 후 또 다시 감소하여 2007년 말 13%로 떨어졌다.
- 그 외 큰 규모의 시장에서도 2007년 말 프랑스의 시장 점유율이 약간 감소하였다.
 - 미국시장에서는 현재까지 가장 낮은 수치에 근접한 1.7%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일본 시장에서도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 남미와 같은 개발도상지역에서는 눈부신 성장세를 보였으나 이는 프랑스 전체 수출의 3.6%에 불과한 시장이다.
 - 동유럽 시장에서는 수출 약화를 보인데 비해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는 미미한 증가세를 보였다.

9) 2007년 프랑스 제조 분야의 생산이 7년간의 침체에서 벗어나는 전기를 맞았다.

- 프랑스 생산 연합회(GFI: GROUPEMENT DES FEDERATIONS INDUSTRIELLES)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 중 프랑스의 공산품 생산, 수출 및 기업 마진은 7년간의 지속적인 감소 국면에서 증가 국면으로 전환하였다.
 - 제조 분야의 매출액, 4% 증가하였다
 - 공산품 수출, 5.3% 증가하였다
 - 공산품 생산 및 투자, 공히 2%씩 증가하였다
 - 동 결과, 기업 마진율이 2006년 29%에서 31%로 높아졌다.
- 동 증가 요인의 대 부분은 자동차 산업을 선두로 한 자본재의 생산 활황에 기인한다.
 - 지난 해 하반기부터 자동차 및 이에 따른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의 생산이 3년간의 큰 폭 감소국면을 벗어나 증가세로 반전하였다.
 - 동 분야의 도산 기업 수는, 보험-금융 조사 기관(EULER HERMES SFAC)에 의하면, 2006년 대비 39.4% 감소하였다.
- 한편, 농산물 가공식품 및 중간재는 한도에 달했으며 소비재는 지난 4/4 분기 중 9.1%가 감소하는 등 침체하였다.
- 이와 같은 분야별 대조적 증감 현상 결과, 제조업 종사인력의 감소율이 둔화되었다
 - 실직자는 2006년 6만 명에서 2007년 4만 1,000명으로 감소하였다
- 또 다른 고무적인 신호가 공산품의 수출에서도 나타났다.
 - 1999년 이후 최초로 2007년도 프랑스 수출 증가율이 독일의 것보다 높았다.
 - 동 결과, 지난 10년 기간 중 20% 이상 감소한 프랑스의 유로 존(EURO ZONE) 시장 점유율이 안정세를 보였다.

- 프랑스 경제 관측기관(COE-REXECODE)은 유로 존에서보다 프랑스에서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프랑스의 해외시장 점유율 감소 현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결론짓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분석하였다.

10) 프랑스의 임금 상승 문제

- 2000 년 독일에 비해 10% 낮은 수준이었던 프랑스의 제조업 분야 임금이 2007 년 기준, 오히려 15% 높아졌다.
 - 프랑스 생산 연합회(GFI) 이봉 자콥(Yvon Jacob) 회장은 이것이 바로 최근 수년 동안 프랑스 산업 경쟁력이 저하된 이유라고 지적하였다.
 - 동인은 상당히 많은 비중의 프랑스 기업들이 이미 사라졌으나 생존 기업들이 안전지대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하였다.
- 보험-금융 조사 기관(EULER HERMES SFAC)의 니콜라 델장(Nicolat Delzant) 이사는 프랑스 기업의 재무구조 및 수출 능력이 여전히 약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 프랑스 생산 연합회(GFI)는 장기적인 면에서 프랑스 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제 특히, 법인세를 감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자콥(Yvon Jacob) 회장은 프랑스 기업이 부담하는 생산세 및 사회보장세는 EU 15개국 평균치보다 50% 높다고 강조하였다.

11) 2008년 프랑스 산업 전망

- 델장(Delzant) 이사는 프랑스 산업 활동이 세계 경제성장 둔화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이태리 경제는 좋지 않고 스페인은 침체 국면에 들어섰으며 영국은 반전된 상황이어서 언제든 프랑스에 위기가 닥칠 것이지만 그 강도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 보험-금융 조사 기관(EULER HERMES SFAC)이 내놓은 2008 년도 프랑스 제조업 생산 전망에 의하면, 프랑스 제약업 및 화장품제조업은 매출 및 고용 규모 면에서 소비재 분야의 절반 및 30%를 차지하는 2 대 분야이어서 2008 년 및 2009 년에도 소비재 산업이 지속 증가하는 원동력 역할을 할 것이다.
 - 동 분야 리더 기업인 사노피-아벤티스(Sanofi-Aventis)와 로레알(L'Oreal)그룹은 다국적 기업이어서 프랑스 내 소비감소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 의약품 생산은 금액 및 물량 모두 4% 및 2.5%의 증가율을 2년간 고수할 전망이다.
 - 화장품의 경우는 생산 증가율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 한편, 의류 산업 생산은 감소세를 탈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 가구산업은 가격 인상이 가능할 정도로 비교적 양호할 것이나 기타 가정용 설비재 산업은 약간 감소할 전망이다.

프랑스 주요 산업별 2008년 및 2009년 생산 전망

(단위: %)

동향	구분	물량		금액		도산기업 증감률
		2008	2009	2008	2009	전년 대비
2008년9월까지	분야					
상당히 양호함	농산물 가공식품	0.9	1.1	6.2	3.2	6.3
상당히 양호함	소비재	0.4	1.8	1.1	1.6	10
침체 위기	의류 및 가죽	-1.6	1	1.3	1.7	-5.8
상당히 양호함	출판, 인쇄	-1.9	1.9	-0.6	1.9	-14.5
전망이 밝음	의약	3.9	4	2.5	2.6	-42.9
전망이 밝음	화장품, 세제류	1.1	2	2.5	3.1	-39.3
상당히 양호함	가구	-1.6	1.3	0.3	3.4	-11.3
구조적 약화	가전제품	-0.7	1.3	0.7	1.6	0
침체 위기	전자제품(TV, Hi-Fi, Video)	-1.6	-0.2	-8.2	-2.8	-14.3
상당히 양호함	자동차	2	2	4	3	-17.5
구조적 약화	자동차 부품	1	-2	2	-3	-73.1
상당히 양호함	전체	1.4	1.7	4.3	2.9	-6.5

자료: 보험-금융 조사 기관(EULER HERMES SFAC)

12) 공업 생산 동향

- 공업 생산은 전년도 가격 기준으로 2004년 1.9%, 2005년 0.8% 및 2006년 1% 증가한 후 2007년 1.7% 증가했다.
- 밝은 면
 - 부동산 경기 연착륙이 전망.
 - 유로화 강세에 따른 해외 하청 생산업체의 단가 절감 및 경쟁력 향상
 - 유로화 강세 덕분에 낮아진 수입상품 가격 및 공산품 물가 인하에 따른 소비자들의 구매력 향상 및 내수 증가 효과
- 어두운 면
 - 유로화 강세에 따른 국제 가격경쟁력 상실 및 이로 인한 수출 둔화 및 생산 감소(수출 비중이 높은 항공기 및 유명 브랜드 일류 상품 등 일부 산업)
 - 미국 서브프라임 신용경색으로 인한 주요 교역 대상국 특히, 미국 및 독일의 경제 성장 둔화
 - 세계화 추세에 따른 해외 산업이전 분야 국내 생산 감소(자동차, 항공기, 섬유 등)
 -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일부 산업 생산가 증가, 경쟁력 상실 및 이로 인한 생산 감소 등 연쇄 반응
 - 내수 증가의 대 부분을 저가 수입 상품이 흡수하고 있어 국내 생산 증가 기여도 미흡.

2007 년도 제조업 현황

(단위: 개 사, 천 명, 십억 유로, %)

산업별	기업 수	종업원 수	매출액(*)	수출 비중
제조업 전체	19,528	2,739	631	42.7
소비재	4,092	517	135	31.1
- 의류, 가죽	887	77	15	39
- 출판, 인쇄	1,521	124	26	8
- 의약, 향수, 세제	530	165	68	38
-- 제약	258	110	49	36
-- 향수, 비누, 세제	55	19	43	
- 가정 장비	1,154	146	27	32
자동차 및 부품	495	283	110	56
- 자동차	295	201	91	59.7
- 부품	200	82	19	43
자본재	4,780	672	158	52.8
- 운송장비	311	150	56	71
-- 선박	120	30	5	38
-- 우주선 및 항공기	117	99	46	78
- 기계장비	3,442	360	68	40
-- 기계장비 생산	342	69	15	60
-- 범용 기계	750	95	19	35
-- 농기계	189	16	4	42
-- 공작기계	139	12	2	40
-- 특수용 기계	567	51	10	57
- 전지, 전자	1,027	163	35	49
-- 사무 및 정보기기	48	6	2	66
-- 전기모터	148	23	5	51
-- 전송 및 전화	134	39	11	49
-- 의료기기	259	26	5	46
-- 측정기기	438	68	12	47
중간재	9,763	1,210	274	37.2
- 광물성 생산품	1,229	147	32	17
- 섬유	828	64	10	38
- 목재, 종이, 판지	1,173	125	27	29
-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2,169	339	92	38
- 금속제품	3,563	356	77	42
- 전기 및 전자 부품	801	179	37	48
-- 전기부품	503	124	26	42
-- 전자부품	298	56	10	63

자료: 프랑스 공업 통계국(SESSI)/ (*) 2000 년도 가격(계절변동치 감안)

2007 년도 프랑스 지방별 제조업 현황

(단위: 개 사, 명, 백만 유로)

지방별	기업 수	종사자 수	임금	투자액
알시스(Alsace)	1 141	107 915	3 372.0	862.8
아키텐(Aquitaine)	1 579	82 833	2 592.3	754.4
오베르뉴(Auvergne)	842	60 934	1 875.9	530.4
부르고뉴(Bourgogne)	1 207	79 906	2 285.3	496.5
브러타뉴(Bretagne)	1 534	93 220	2 616.3	646
쌍트르(Centre)	1 715	122 041	4 370.9	813.4
샴파뉴-아르덴(Champagne-Ardenne)	976	67 984	1 852.2	393.2
코르시카(Corse)	50	830	22.7	7.6
프랑슈-콩테(Franche-Comté)	946	80 001	2 269.1	672.2
일-드-프랑스(Île-de-France) (파리포함)	5 780	340 440	14 186.3	2 234.6
랑그독-루시용(Languedoc-Roussillon)	856	28 880	864.5	297.2
리무장(Limousin)	448	25 947	696.7	150.7
로렌(Lorraine)	1 388	103 858	3 007.0	867.6
미디-피레네(Midi-Pyrénées)	1 509	91 209	3 109.2	1 000.4
노르-빠-드-칼레(Nord - Pas-de-Calais)	2 097	166 366	4 788.5	1 706.4
바쓰-노르망디(Basse-Normandie)	863	57 207	1 551.1	337
오뜨-노르망디(Haute-Normandie)	1 156	97 478	3 057.6	1 297.0
베이-드-라 루아르(Pays de la Loire)	2 466	168 635	4 525.5	1 103.7
피카르디(Picardie)	1 238	93 827	2 725.4	740.5
뵘뚜-샤랑트(Poitou-Charentes)	1 095	64 685	1 769.1	422
프로방스-알프-코트다쥐르 (Provence-Alpes-Côte d'Azur)	1 802	83 686	2 999.6	948.6
론-알프(Rhône-Alpes)	5 072	310 055	9 687.5	2 635.1
프랑스 본토(France métropolitaine)	35 760	2 327 937	74 224.6	18 917.4

자료: 프랑스 공업 통계국(SESSI)

- 농산물 가공 식품: 2007 년 생산 물량 0.9% 증가에도 불구하고 1,150 억 유로에 달하는 프랑스 최대 매출 규모로 자동차에 앞서 1 위를 고수했다.
 - 총 37 만 명 이상의 고용 규모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출 비중(매출액의 17.8%)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 덕분에 생산이 증가하였다.
 - 우유 및 밀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식료품 물가인상 우려 및 이로 인한 구매력 약화가 예상된다. 주요 농산물 가격 폭등 요인은 인도 및 중국의 식생활 서구화 및 호주 등 세계 주요 밀 생산국의 일기불순으로 인한 수확감소 등이 겹쳐 수급 상의 커다란 불균형 현상이 심화된 데에 있다.
 - 중국 및 인도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 DANONE 사의 현지 파트너 사와의 분쟁 및 광산 수 위생 문제 등으로 동 국가 내 생산 및 수출에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팽배하다.
- 자본재: 일반 소비자용 자본재 분야에서는 부진세를 보이고 있으나 산업용 자본재 부문에서는 증가세를 보임으로써 2007 년 자본재 생산이 3.4% 증가했다.
 - 항공기 산업은 수주 상태가 극히 양호한 상태이며 생산이 15.3% 증가했다: EADS 그룹은 A380 생산 지연 등 구조적 문제에 봉착해 있다.
 - 기계류 생산은 수출 증가(5%) 덕분에 3.2% 증가했다.

- 터빈, 기중기 또는 풍력발전기 등은 에너지 및 건설 투자 붐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 선박 생산은 수출감소(10%)에도 불구하고 내수 덕분에 14.4% 증가했으며 열차 생산은 수출 증가(4%) 및 내수 증가로 12.8% 증가했다.
 - 전자-전자 장비 생산은 수출 감소(4.2%)로 0.8% 증가에 그쳤다.
- 중간재: 새로운 활력을 되찾고 있는 중이나 섬유류의 생산 감소(5.6%)로 1.1% 생산 증가에 그쳤다.
- 인조 및 합성 섬유사 생산이 대폭(24.3%)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기화학 생산 증가(12.3%) 등으로 화학, 플라스틱 및 고무 산업활동은 3.2% 증가했다.
 - 원자재 가격 상승(금속 및 원유)으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 소비재 생산은 의류 생산 감소(17.2%)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및 시청각제품 생산증가(3.3%) 및 7.5%) 덕분에 1.2% 증가했다.
- 제약: Sanofi, Meriau 등 세계 리더 그룹 및 외국 자회사들이 프랑스 제약 산업에 진출하여 의약품 수출이 증가(6.7%)함에 따라 동 생산도 크게 증가했다.
 - 비누 및 향수 생산은 수출에 힘입어 증가(2.2%)했다.
 - 의류 및 혁 제품, 출판 및 가정용 장비 생산은 여전히 침체해있는데 주 요인은 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산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밀린 데에 있다.
- 자동차 생산량은 신차 출시 및 내수시장 회복에도 불구하고 감소했다.
- 트럭 생산이 크게 증가(22.3%)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및 경 화물차 생산이 모두 감소(9% 및 3.7%)함으로써 국내 총 생산량(257 만 3,022 대)은 2006 년 대비 7.8% 감소했다.
 - PSA 및 르노 그룹의 생산량이 모두 감소(9.7% 및 7%)했다.
 - 동 감소 요인은 승용차 및 경 화물차의 해외 생산 투자 증가 및 생산 증가(17.5% 및 6.7%)에 기인한다.
 - 세계화 정책에 따른 해외 생산 증가 전략 추진으로 국내 생산 비중이 2006 년 이후 계속 감소 중이다.
 - 프랑스의 전 세계(국내, 외) 생산량은 해외 생산 증가가 국내 생산 감소량을 보충해주고 남아 4.6% 증가했는데 특히, 승용차 생산 증가율(5%)이 가장 높았다.

2007년도 자동차 국내 생산 현황

(단위: 대, %)

브랜드 별	승용차	증감률	경화물차	증감률	화물차	증감률	전체	증감률
시트로엥	540,171	-7.5	63,887	-1.4	-	-	604,058	-6.9
푸조	835,167	-7.9	66,012	4.9	-	-	901,179	-7.1
PSA 그룹 계	1,375,338	-7.7	129,899	1.7	-	-	1,505,237	-7.0
르노	790,046	-11.1	217,891	-3.8	-	-	1,007,937	-9.7
르노트럭	-	-	4,439	-61.0	55,388	22.3	59,827	5.5
Etalmobil	-	-	17	-34.6	4	+++	21	-25.0
총계	2,165,384	-9.0	352,246	-3.7	55,392	22.3	2,573,022	-7.8

자료: 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 연합회(CCFA)

2007 년도 프랑스 자동차 국외 생산 현황

(단위: 대, %)

브랜드 별	승용차	증감률	경화물차	증감률	화물차	증감률	전체	증감률
시트로앵	710,839	14.2	149,662	10.6	-	-	860,501	13.6
푸조	938,376	10.6	152,944	15.5	-	-	1,091,320	11.3
PSA 그룹 계	1,649,215	12.1	302,606	13.0	-	-	1,951,821	12.3
르노	1,089,524	26.9	167,638	-0.6	-	-	1,257,162	22.4
다시아	215,447	21.8	7,466	-35.1	-	-	222,913	18.3
르노 삼성	181,027	12.2	0	---	-	-	181,027	12.2
르노그룹 계	1,485,998	24.2	175,104	-2.8	-	-	1,661,102	20.7
르노 트럭	-	-	-	-	2,413	-77.9	2,413	-77.9
Etalmobil	-	-	-	-	0	---	0	---
총계	3,135,213	17.5	477,710	6.7	2,413	-77.9	3,615,336	15.7

자료: 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 연합회(CCFA)

2007 년도 프랑스 자동차 국내,외 생산 현황

(단위: 대, %)

브랜드 별	승용차	증감률	경화물차	증감률	화물차	증감률	전체	증감률
시트로앵	1,251,010	3.7	213,549	6.7	-	-	1,464,559	4.1
푸조	1,773,543	1.1	218,956	12.1	-	-	1,992,499	2.2
PSA 그룹 계	3,024,553	2.1	432,505	9.4	-	-	3,457,058	3.0
르노	1,879,570	7.6	385,529	-2.4	-	-	2,265,099	5.7
다시아	215,447	21.8	7,466	-35.1	-	-	222,913	18.3
르노 삼성	181,027	12.2	0	---	-	-	181,027	12.2
르노그룹 계	2,276,044	9.1	392,995	-3.4	-	-	2,669,039	7.1
르노 트럭	-	-	4,439	-61.0	57,801	2.8	62,240	-7.9
Etalmobil	-	-	17	-34.6	4	+++	21	-25.0
총계	5,300,597	5.0	829,956	2.0	57,805	2.8	6,188,358	4.6

자료: 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 연합회(CCFA)

13) 프랑스 최근 승용차 판매 동향

- 2월 중 전년 동기대비 11.1% 증가하였다
 - 프랑스 자동차 생산연합회(CCFA)에 의하면, 2월 중 총 17만 5,126대가 판매되어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했다.
 - 2월 총 판매량의 77.9%를 차지한 디젤차 판매 증가율은 18.8%로 전체 판매 증가율을 크게 웃돌아 시장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 프랑스 차 판매 호조, 외국 차 판매 저조하였다
 - 2월 중 프랑스 차 판매 증가율이 14.1%로 외국차 판매 증가율(7.6%)의 약 2 배에 달하였다.
 - 프랑스 소비자들은 독일, 미국, 일본, 한국산 대형 또는 SUV 특히, 4륜 구동차보다 최신 개발된 자국 소형차 구매를 선호하였다

- 프랑스 소비자들은 금년 초 적용된 탄소 분담금 제도로 인해 연비가 높고 공해 발생도가 낮은 소형 디젤 승용차 구매를 선호하고 있다.
- 르노 그룹의 루마니아 자회사인 DACIA 사의 LOW-COST 모델(로간: LOGAN)의 경우, 1월 153.4% 증가에 이어 2월에도 83%가 증가하여 1-2월 기간 중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114.6% 증가했다.
- 이 외에도 스마트(SMART), 미니(MINI), 피아트(FIAT) 500, 닛산(NISSAN) 미크라(MICRA) 및 노트(NOTE), 기아(KIA) 시드, 포드(FORD) 포커스(FOCUS), 르노(RENAULT) 투윈고(TWINGO) 및 클리오(CLIO), 푸조(PEUGEOT) 207, 시트로엥(CITROEN) C4, 세아트(SEAT) 레온(LEON) 및 알테아(ALTEA) 등 소형 최신 모델들도 모두 2자리 수 이상의 판매 증가율을 기록했다.

□ 1-2월 기간 중 승용차 판매는 2.4% 증가하였다.

- 프랑스 승용차 판매가 호조를 보인 반면, 외국 차 판매는 부진했다.
- 프랑스 승용차의 판매는 PSA 그룹의 판매 호조(+9.6%)로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다.
- 외국 승용차의 경우, 소형 모델 및 Low-Cost 모델의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대형 승용차시장점유율이 높은 독일 및 일본산 승용차의 판매가 급감하여 전체적으로 2.2% 감소했다.

□ 한국 차 판매가 감소하였다: 현대는 저조, 기아는 호조

- 1-2월 기간 중 국산 승용차의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8.1% 감소하였는데 이는 기아차의 판매 호조(+11.4%)에도 불구하고 현대 차의 판매가 모든 브랜드 중 가장 높은 감소율(32.1%)을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 동 결과, 한국차의 프랑스 시장 점유율은 2007년 1.9%에서 1.6%로 떨어졌다.
- 현대 차의 경우, 판매량이 1월에 43.6% 감소한 후 2월에도 16.9% 감소하여 1-2월 누계가 전년 동기 대비 32.1% 감소했으며 동 결과, 시장 점유율이 지난 해 1.3%에서 0.9%로 떨어졌다.
- 감소 요인은 주종 판매 모델이었던 SUV의 판매 급감 및 신규 소형 모델(i10 및 i30)의 공급 문제에 기인한다.
- 기아 차 판매는 1월 중 17.7% 감소한 후 2월에 39.3% 증가한 덕분에 1-2월 기간 중 11.4%의 증가율을 기록, 지난 해와 동등한 시장 점유율(0.7%)을 고수했다.
- 2월 중 디젤 엔진을 장착한 모델 및 소형 신규 모델, 시드의 판매 급증에 기인한 것이었다.

한국 승용차 판매 현황

(단위: 대, %)

연도	2006			2007			2008. 1~2		
	판매량	증감률	점유율	판매량	증감률	점유율	판매량	증감률	점유율
현대+기아	41,815	-8	2.1	42,275	1.1	2.0	5,291	-18.1	1.6
Hyundai	26,799	-2.2	1.3	26,814	0.1	1.3	2,976	-32.1	0.9
Kia	15,016	-16.9	0.8	15,461	3.0	0.7	2,315	11.4	0.7

자료: 프랑스 자동차 생산연합회(CCFA)

주요 브랜드 및 월별 승용차 판매 현황

(단위: 대, %)

브랜드	1 월	증감률	2 월	증감률	누계	증감률	구성비
Citroën	24,243	8.6	24,632	11.2	48,875	9.9	14.49
Peugeot	29,122	5.1	34,122	13.4	63,244	9.4	18.75
PSA 그룹 계	53,365	6.7	58,754	12.4	112,119	9.6	33.25
Renault	34,307	-10.4	38,659	16.7	72,966	2.1	21.64
프랑스 차	87,673	-5.6	97,415	14.1	185,088	6.5	54.88
Dacia	4,556	153.4	4,048	83.0	8,604	114.6	2.55
Smart	892	54.6	612	83.2	1,504	65.1	0.45
Mini	1,999	53.2	1,523	61.0	3,522	56.5	1.04
Fiat	5,603	43.6	6,197	56.9	11,800	50.3	3.50
Nissan	2,791	12.3	3,062	75.8	5,853	38.4	1.74
기아	838	-17.7	1,477	39.3	2,315	11.4	0.69
Ford	8,947	11.1	9,065	9.1	18,012	10.1	5.34
Skoda	1,490	-4.2	1,305	-0.6	2,795	-2.5	0.83
Opel	6,913	3.3	8,063	-7.3	14,976	-2.7	4.44
BMW	3,724	-24.3	3,578	30.5	7,302	-4.7	2.17
Volkswagen	11,100	-7.4	10,250	-2.1	21,350	-4.9	6.33
Seat	2,605	-23.6	2,594	24.7	5,199	-5.3	1.54
Honda	1,005	-12.8	1,237	0.7	2,242	-5.8	0.66
Mazda	945	-27.0	967	3.6	1,912	-14.1	0.57
Toyota	7,009	-27.3	7,459	2.2	14,468	-14.6	4.29
Audi	3,141	-30.0	3,783	-9.4	6,924	-20.1	2.05
Mercedes	3,995	-36.0	4,395	2.7	8,390	-20.3	2.49
Suzuki	1,694	-30.6	1,945	-9.8	3,639	-20.9	1.08
Lexus	174	-29.3	190	-12.8	364	-21.6	0.11
Volvo	787	-50.4	1,142	-5.2	1,929	-30.9	0.57
현대	1,401	-43.6	1,575	-16.9	2,976	-32.1	0.88
외국 차	74,443	-10.6	77,711	7.5	152,154	-2.2	45.12
총계	162,116	-5.6	175,126	11.1	337,242	2.4	100
디젤차	125,355	-1.5	136,476	18.8	261,831	8.2	77.64

자료: 프랑스 자동차 생산연합회(OCFA)

- 최근 중, 대형 신차를 출시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프랑스의 탄소 부담금 제도로 인해 소형 디젤차 판매만 급증하여 비록 총 판매량이 증가했음에도 전체적인 수익성은 감소하여 신차 개발 투자비용의 회수가 지연되고 생산 라인의 가동률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특히, 르노사의 경우, 지난 10 월에 야심차게 출시한 모델 라구나(LAGUNA 3: 현대 쏘나타 경쟁 모델)의 판매가 저조하여 2 월에 5 일간 조업을 중단한 데에 이어 3 월에도 5 일간 조업을 중단해야 할 예정이다.

- 동사는 동 모델의 생산 목표를 연간 18만 내지 20만(1일 900대)대로 잡고 4,200명을 2개조로 풀 가동해왔는데 기업체 및 리스업체의 수요가 크게 감소한 상태에서 소형 모델의 구매를 선호하는 현상으로 인해 일반인들의 수요까지 감소, 생산량이 1일 630대로 떨어져 이러한 상태가 5월까지 지속될 경우, 손익 분기점(연간 12만 내지 13만 대)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 대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 또한 르노사는 금년 여름 수입, 출시 예정인 르노-삼성 SUV 모델도 라구나 (LAGUNA)와 같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지 않을까 조바심을 내고 있는 상태이다.
- 프랑스 승용차 제조업체들은 EU 및 자국 정부의 환경오염이 많은 승용차에 대한 규제 및 불리한 세제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배터리-디젤 하이브리드 카 개발에 주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르노 및 푸조 등 프랑스 승용차 메이커들은 2011년 내지 12년까지 배터리 및 디젤 하이브리드카를 출시할 계획이다.
 - BMW도 2010년에 배터리-디젤 하이브리드카를 출시할 계획이다.
 - 도요다는 배터리-가솔린 하이브리드카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독보적으로 시장을 확대 중이다.
- EU의 자동차 환경오염 방지 규정의 엄격 적용, 원유 가격 급등 및 하이브리드카 개발 기술력 향상 및 개발비 감축 등 제반 시장 형성 여건이 유리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하이브리드 승용차 시대가 3-5년 내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될 전망이다.

다. 우주항공 산업

1) 산업 동향

- 세계 항공 및 우주 산업 리더 국가 중의 하나이다.
 - Airbus 수주 현황 호조로 생산 가속 상태: 2006년 월 28대에서 2007년 월 32대 및 2008년 월 36대로 생산 증가 중이다.
 - GIFAS에 의하면, 2006년 총 수주액은 2005년 대비 9% 증가한 500억 유로로 1년 매출규모(321억 유로)를 훨씬 능가하는 신기록을 세웠다.
 - 2006년 수출도 2005년 대비 15% 증가한 187억 유로 기록했다.
 - '유로콥터'사, 2006년 판매 신기록 수립: 총 615대의 헬기 판매(미군에도 공급하기로) 예정이다.
 - 'RAFALE' 전투기, 프랑스 공군에 납품 중이다
 - SNECMA는 AFM56 제트엔진을 GENERAL ELECTRIC과 공동으로 Airbus 및 보잉에 수천대씩 납품 중이다.
 - DASSAULT의 고급 자가용 경비행기 'FALCON' 특히, 최신 개발 모델인 7X은 세계적 대인기를 구사 중이다: 165대 주문 확정으로 2011년까지 생산 풀가동할 상황이다.
 - 'ARIANE' 로켓, 통신위성 및 미사일 등, 미국과 쌍벽을 이룬다.
- 고속열차와 더불어 프랑스 첨단산업의 쌍벽을 이루고 있으며 수십 년 동안 무역흑자 황금알을 낳고 있는 효자 산업이다. Airbus의 성공으로 프랑스 무역수지가 대폭 개선되고 있다.

- 프랑스 EADS 그룹의 자회사인 EADS Astrium 사는 2006 년 5%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2005 년 수익률의 2 배 수준이다.
- 차세대 'ARIANE' 로켓용 초 강력 엔진 개발 계획이 최대 현안 사안이다.
 - 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신규 엔진 개발(2013-2015 년 기간 중) 계획을 수립했다.
 - 기존 및 차세대(2020-2025 년경 발사 예정인) 'ARIANE' 로켓 장착이 주 목적이다.

2) EADS 그룹: AIRBUS 현안 문제(신임 회장: MR. Louis Gallois)

- Airbus A380 인도 지연 문제
 - 2006 년은 동사 사상 최대의 민항기 인도 및 두 번째 판매실적을 기록한 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어버스로서는 장거리 여객기 시장을 상실하여 1/4 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해였다.
 - Airbus 사는 심각한 위기는 프랑스 관련 산업은 물론 전체 산업 침체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했다.
 - Airbus A380 인도 지연(2 년이 늦은 2007 년 2/4 분기)으로 인하여 동사는 향후 2010 년까지 48 억 유로 상당의 매상 감소 타격을 받게 되었다.
- 결제 지연 문제
 - 프랑스 250 개 부품업체 및 3,000 개 하청업체들은 자동차 업계와 마찬가지로 3 개월 이상의 DA 결제 관행으로 인해 금전적 압박을 받고 있다.
 - 동 부품 및 하청업체들은 Airbus A380 의 인도 지연으로 인해 최근 2 년 동안 더욱 심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Airbus A380 이 인도되어야만 결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Airbus A380 가격경쟁력 약화
 - 달러화 대비 유로화의 강세로 인해, 달러화로 결제해야 하는 A380 의 가격경쟁력, '01 년 대비 40% 하락했다.
- 2007 년도 Airbus 수주 동향 및 시장 전망
 - 금년도 430 대 인도 및 향후 5 년 생산 분 항공기 수주 상태이다.
 - Airbus 사는 A380, A350XWB, A400M 등 대규모 항공기 개발 계획을 추진 중: 재정 상태가 악화된 상태이나 미래 시장 확보 대책은 준비된 상태이다.
 - 연평균 5~6%의 항공 운송 증가 지속 세에 따른 항공기 수요 지속적 증가 전망 등 시장성은 좋은 편이다.

3) 한-불 항공 산업 현안 사항

- 한국의 2020 년도 국방 개혁 프로그램
 - 2010 년경 20 대 전투기 구입 프로그램(F-X)
 - 2020 년 신세대 전투기 120 대 구매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
 - 총 예산은 24 억 달러이다.
 - 전투용 헬기 프로그램(272 대)
 - 총 예산 규모는 50~100 억 달러이다.
 - Eurocopter 사를 파트너로 하여 국산 수송용 헬기를 개발하는 프로그램(KHP: Korean Multirole Helicopters)과 외국 헬기사를 파트너로 하여 국산 전투용 헬기를 개발하는 프로그램(Indigene)용 예산이다.

- 외국 파트너 후보로는 Eurocopter 사의 'Le Tigre'와 Boeing 사의 'Apache AH-64D Longbow'간 치열한 경쟁 중이다.

라. 화장품 산업

1) 정의

- 화장품산업은(COSMETIC) 넓은 의미로 위생, 예방, 건강, 외모, 웰빙(well-being) 관련 품목을 지칭하는데 일반적으로 화장품산업을 일컬을 때는 다음과 같은 네 분야를 지칭한다.
 - 향수품목
 - 위생품목(비누, 샴푸비누, 치약 등)
 - 헤어케어 제품
 - 화장품(메이크업, 스킨케어 제품, 자외선차단 크림 등)

2) 규모

- 스킨케어 및 헤어케어 제품이 전체 시장의 60%를 차지한다.
- 세계 화장품시장의 규모는 1,200 억 달러가 넘고 최근 몇 년간 평균 5~6%의 지속 성장 중. 세계 선두 기업인 프랑스 로레알(L'oreal) 그룹이 세계 시장의 15%를 점유하고 있다.
 - 위생, 세제, 식품 제조업체도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하는 등 많은 경쟁사들이 각 분야 및 지역에서 세분된 시장 몫을 차지하고 있다.
- 사치품의 상징인 향수와 화장품은 프랑스 경제의 주요 산업 중의 하나임. 항공, 자동차, 포도주 산업의 뒤를 잇는 네 번째 수출품으로 국내시장에서도 판매가 급성장 중이다.
- 로레알(L'oreal), 클라린스(Clarins), 겔랑(Guerlain), 이브 로세(Yves Rocher)등 대표적 기업의 2006 년 실적이 2005 년 대비 +3.5% 성장한 실적 65 억 유로를 기록하며 프랑스 화장품 시장은 최근 2 년간의 부진에서 벗어났다.
 - 2005 년 5% 증가율에 머물렀던 수출은 2006 년 87 억 유로로 7.4% 증가한다.
- 화장품기업의 총 매출실적은 전년도대비 5.7%가 증가했다.
- 유통시장에서는 전문매장, 즉 향수체인점, 백화점, 향수, 화장품 전문 매장들의 매출은 2005 년 감소 후 6.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 이는 화장품 유통업계의 선두기업인 홍콩계 마리오노(Marionnaud)의 재고 정책에 따른 결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 화장품산업의 대 고객인 대형유통마켓의 매출은 3.4%가 증가한 반면 최근 5 년간 6%의 성장률을 기록한 약국의 매출은 한계에 달하여 2006 년 0.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 다이렉트셀링(direct selling)을 통한 판매는 1.5% 감소했다.
 - 이 분야 전문기업인 이브 로세(Yves Rocher)와 르 클럽 드 크레아퇴르 드 보떼(le Club de createurs de beaute)는 대외 수출로 동 판매 감소로 인한 적자를 만회했다.

- 전체적으로 수출시장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 10년 전 화장품산업 총 실적의 50%를 차지했던 수출 비중은 57%로 증가했으며 총 수출량의 2/3를 선진국에 수출했다.
- 시장 분석 및 전망
 - 선진국 시장에서는 인구 고령화 현상과 소비자들의 위생, 건강, 미용의식의 고조에 따라 관련 제품의 판매가 급속히 증가했음: 노화방지 제품, 천연 화장품, 바이오 화장품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남성 화장품 시장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 2007년 동유럽 시장으로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몇몇 기업들은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니아 등 동유럽 국가에 공장을 건설하여 신규 시장의 공세 전략을 모색 중이다.

마. 의약품 산업

1) 개요

- 프랑스 의약품 산업은 일차 원료(항생제, 비타민, 알칼로이드 등 화학 재료) 생산 업체와 의약품 제조 업체로 구성되는데 매출 면에서 의약품 제조업체가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 2006년 말 기준 645개 제조업체에서 103,621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고용 규모가 20명 이상인 기업 수는 258개로 전체의 40%에 불과하다.
 - 프랑스의 의약품 산업은 아직도 기업 인수 및 합병이 이뤄지지 않은 영세기업(주로 가족 회사 형태)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 지역별 분포도를 보면, 수도권(Ile de France)에 약 38%(약 250개)가 밀집해 있다.

프랑스 의약품 산업 주요 지수(2006년)

(단위: 개 사, 명, 백만 유로)

구 분	2006
기업 수(종업원 20명 이상)	258
종사자	103,621
매출액(세전 가격)	48,709
투자액	1,261
부가가치(세전 가격)	14,303
영업 이익 총액	6,324

자료: 프랑스 공업 통계국(SESSI)

프랑스 지역별 의약 업체분포 현황

(단위: 개 사, 명, 백만 유로)

지역	기업 수	종업원 수	급여	투자 총액
프랑스 전역	658	96,204	3,869.8	959.5
Ile de France(수도권)	249	38,171	1,844.1	194.5
Rhone alpes	71	12,409	488.1	191.7
Centre	50	8,861	275.6	140.4
Haute Normandie	21	5,814	216	73.2
Alsace	15	4,269	150.4	67.3

자료: 프랑스 공업 통계국(SESSI)

- 프랑스의 2005 년도 진료 및 의약품 등 의료관련 총 소비규모는 GDP 의 8.81%에 달한다.
- 2005 년 프랑스 의약품 소비는 의료 관련 총 소비액의 20.8%에 해당하는 313 억 유로로 전년대비 4.2% 증가했다. 이는 프랑스 국민 1 인당 연간 약 500 유로의 의약품을 소비한 것이며 2004 년에 비해 3.6% 증가한 것이다.
- 2005 년 프랑스 정부는 의료보험 환불비용 감소를 목적으로 Generic 의약품의 시장 도입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약 2 억 3,000 만 유로의 사회보장기관의 지출의 절감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의약품 소비 증감 현황 (%)

	1995-2000	2002	2003	2004	2005
총 실적	5.1	5.6	6.0	5.3	4.2
가격	0.0	-1.1	-0.4	-1.2	-1.2
물량	5.0	6.8	6.5	6.6	5.5

자료: 의료감사원(Compte de sante) 2005 년 보고서

- 의약품은 규제된 분야로 신규 의약품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는 프랑스 위생, 안전, 건강 심의위원회(Agence Francaise de Securite Sanitaire des Produits de Sante)의 시판허가증(Autorisation de mise sur le marche-AMM)을 반드시 획득해야 함. 의약품 및 가격의 안정성, 사회보장기관으로부터의 환급 등에 관해 공공기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산업이다.
- 인구의 노령화와 개발도상국 시장의 확대에 따라 의약품 산업은 지속 성장하는 가운데 세계화 경향에 맞서 끊임없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 전통적으로 가족기업이었던 소규모 연구소들은 신규 입자의 개발 및 마케팅 등에 필요한 예산 증가 및 다국적 기업의 인수 유혹에 어렵게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다.
 - Pierre Fabre, Ipsen, Servier 와 같은 매출규모가 5 억~30 억 유로의 중견기업들은 지난 10 년간 R&D 예산을 두 배로 늘려야만 했음. 전문가들은 다국적 기업들이 소홀이 하고 있는 전문 치료용 의약품 개발을 위해 투자하는 것만이 이들 기업의 미래를 보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유전학 및 바이오 테크놀로지 학에 의해 개발되는 새로운 치료용 의약품 덕분에 세계 의약품 산업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의약품 개발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음에도 프랑스의 연구 실태는 점점 악화하고 있는 상태이다.
 - 유럽국가 중 2005 년 프랑스가 발표한 연구 수치는 8%로 2002 년 11%보다 감소했음. 최근 정부차원에서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보임. 2005 년 설립된 국가 연구 개발원(Agence Nationale de la Recherche)은 생명과학 연구를 위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고, Paris 근교의 Ile de France 지역이 Meditech 단지로 선정된 것도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가 노력한 결실이다.
- 미국, 유럽, 일본의 10 개 다국적 기업이 4,250 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의약품 시장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프랑스는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의약품 소비 세계 3 위국가인 동시에 40%의 수출실적을 기록하는 세계 의약품 수출 3 위 국가이다.

- Generic(특허 시효가 지난) 의약품의 시장 출현에도 불구하고 2005 년 총 매출 380 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정부의 사회보장세 적자 감소정책으로 인한 사회보장 미 환불 의약품의 증가 및 고정 가격 정책 등에 의해 의약품 산업계의 미래는 변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스라엘의 Teva, 스위스 Novartis 사의 Sandoz(브랜드), 인도의 Rambassy 등이 대표하는 세계 Generic 의약품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이며 다국적기업의 시장독점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연간 10 억 달러 이상의 매출액을 내는 의약품 “Blockbusters”의 특허 만료 기간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Generic 의약품 시장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다국적 기업과 Generic 의약품 기업 간의 경쟁은 치열해 질 전망이다. Generic 시장의 매출은 향후 5 년 이내 약 1,000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 Generic 의약품의 시장 침투와 함께 주목할 것은 하이테크(Hi-Tech) 의약품의 등장임. Generic 시장이 80-90 년대 발명된 주요 의약품들을 대체하며 저렴하게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반면, 장기간 연구개발이 요구되는 전문 치료용 백신과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의해 생산되는 고가 의약품 시장이 신생하고 있다.

의약품 수급 현황

(단위: 백만 유로)

연도	내수					수출	총계
	약국			병원	합계		
	환불 약품	미 환불 약품	소계				
1990	7661	784	8444	1143	9588	2096	11684
1995	10420	1052	11472	1877	13348	4029	17378
2000	13507	1128	14635	2628	17263	9621	26884
2001	14478	1148	15626	3049	18675	12861	31536
2002	15100	1211	16311	3600	19911	14467	34378
2003	16020	1300	17320	4000	21320	14529	35849
2004	17010	1350	18360	4400	22760	15340	38100
2005	18134	1304	19438	4400	23838	16747	40585

자료: 프랑스 공업 통계국(SESSI)

2) 프랑스 주요 제약 업체

프랑스 주요 제약 업체(2006년 기준)

(단위: 명, 백만 유로)

회사명	종업원 수	실적	업종
Sanofi-Aventis	96,400	25,000	의약품제조
Servier	16,000	2,500	의약품제조
Pierre Fabre	9,300	1,470	의약품, 화장품제조
GlaxoSmithKline France	5,650	3,230	의약품제조
Biomerieux	5,335	930	의약품제조
Pfizer France	5,000	1,911	의약품제조
Groupe Ipsen	3,800	770	의약품제조
Laboratoires Fournier	3,400	593	의약품제조
Boiron	2,222	313	의약품, 유사요법 의약품 제조
Merk France	2,200	602	의약품제조

자료: GERS

□ Sanofi-Aventis 사

- 세계 제 3 의 선두 기업인 프랑스의 Sanofi-Aventis 는 2006 년 총 284 억 유로의 매출 실적 및 70 억 유로의 이윤을 기록함. Generic 시장의 치열한 시장공격에도 불구하고 2005 년 실적대비 3.9 가 증가한 실적이다.
- 동사는 “Blockbusters” 약품만 8 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트롬빈 치료제 (Thrombine)인 Lovenox 와 Plavix 는 작년 한 해 동안 각각 24 억 및 22 억 유로의 매출실적을 기록했음. 15대 약품이 2006년 총 실적에 기여한 금액은 1/2 가 넘는 170 억 유로이다.

Sanofi-Aventis 의 주요 생산 의약품

약품명	적용분야	2006년 매출액(십억 유로)
Lovenox	트롬빈	2.4
Plavix	트롬빈	2.2
Ambien Stinox	불면증	2.0
Taxotere	암	1.8
Eloxatine	암	1.7
Lantus	당뇨	1.6

자료: 경제 일간지 Les Echos 2007년 2월 12일자

- 동사는 트롬빈 치료제인 Plavix 를 개발하여 세계적 그룹으로 성장했다.
 - 1998 년까지만 하여도 작은 연구소에 불과하던 동 업체는 심장병 환자에게 처방되는 동 의약품을 발명, 미국 Bristol-Myers Squibb 사에 판권 계약을 하면서 비약하기 시작하였다.
 - 동 제품은 현재 세계 80 개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시장도입 이후 약 5,000 만 명의 환자에게 처방되는 등 동 카테고리 약품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바. 기계/하청 산업

- 32 만 명 이상의 고용 규모를 갖는 프랑스 주요 기간 산업이다.
- 2006 년 매출 신기록: 2005 년 대비 5.6% 증가한 960 억 유로이다.
- 2007 년 매출 5% 증가 전망이다.
- 수출(특히, 대 독일)에 의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매출실적의 43%를 수출 중이다.
 - 총 수출의 1/4 이상을 EU(특히, 독일)에 수출 중이다.
- 2006 년 산업 투자, 20 억 유로로 2005 년 대비 10% 증가했다.
- 하청 산업, '06 년 2% 성장: 최대 고객인 자동차 분야가 총 매출의 38%를 차지했다.
 - 유로화 강세에 따른 자동차 수출 부진으로 수주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 자동차 제조업체와의 결제 기간 단축 합의 9 월 시행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사. 이동통신 산업

프랑스에서 15년 전에 등장한 핸드폰 시장은 2006년 한해 210억 유로로 실적을 기록했다. 1992년 50만 명에 그쳤던 핸드폰 사용자는 현재 5,1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프랑스 12세 이상 국민의 74%가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 중 65%가 월 정규 가입자이고 35%가 카드충전식 핸드폰을 사용자들이다. 기업들의 핸드폰 사용 빈도도 증가하여 2005년 사용을 13% 대비 2006년에는 18%를 기록하고 있다.

2006년 총 매출실적 2백 십억 유로를 기록했지만 전년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저의 성장 둔화 징조를 보였다. 2000년부터 2005년 기간 중 평균 10.6%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해온 것과 큰 대조를 이루었다. 핸드폰 통화료의 하락이 주요인이다. 2006년도 핸드폰 통화량은 증가했기 때문이다.

유럽 이웃국가에 비해 프랑스의 복합기능 핸드폰 사용은 제한적이다. 반면 프랑스 소비자들은 다른 국가 소비자들 보다 저렴한 핸드폰 사용료 혜택을 받고 있다. 프랑스의 2006년 핸드폰 통화요금은 면세 가격으로 1분당 0.158유로로 독일(0.30유로) 보다 거의 절반 정도 저렴하다. 프랑스는 정부의 핸드폰 통화료 인하 방침으로 2002년과 2006년 사이 통화료가 26% 인하하여 핸드폰 통화시간의 증가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월평균 24.1유로(핸드폰구입제외)를 지출하는 프랑스 소비자 1인당 핸드폰 사용료는 총 소비 지출의 1.2%에 해당한다.

SAMSUNG은 NOKIA 및 SAGEM에 앞서 3G 핸드폰의 선두 개발로 프랑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삼성 핸드폰 프랑스 시장 점유율은, 물량 면으로, 2005년 21.5%에서 2006년 24%로, 금액 면으로, 32%에서 35%로 각각 증가하였다. 삼성은 2006년 총 250만 개의 핸드폰을 판매, 2005년 대비 15% 증가하였고 금액 면에서는 9억 유로로 2005년 대비 6% 증가했다.

프랑스의 핸드폰 수입은 최근 수년 동안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2006년 금액 면으로 34억 9천 6백만 유로를 상회, 2005년 실적 대비 17.2%가 증가하여 2003년 이후 매년 두 자리 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이 물량 면으로는 2위, 금액 면으로는 3위의 수입 국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패션국가의 명성에 따라 핸드폰의 패션화, 명품화 트렌드가 일고 있다. 애플 다투어 이태리 유명브랜드, 디자이너들과 합작 한정 판매 핸드폰을 출시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핸드폰의 유행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12~18개월인 소비자들의 핸드폰 교체기간을 단축하여 판매를 증가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 시장규모

- 프랑스 이동통신사업자 협회(Afom-Association francaise des Operateurs mobiles)에 따르면, 프랑스 핸드폰 산업(핸드폰 및 이동통신 사업)은 2006년 총 210억 유로의 매출실적 및 약 100억 유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프랑스 경제발전의 일등공신 산업이다.
- 동 산업 종사자는 2005년 기준 9만 5천여 명에 이르며 1992년 이후 투자금액은 300억 유로에 달한다.
- 2006년 핸드폰 총 판매실적 2십억 8천만유로를 기록했다.
- 프랑스 팬널 조사기관 GfK에 의하면, 프랑스의 핸드폰 수요는 2005년 1,800만 개에서 2006년 2,000만여 개로 증가했다.

- 2005년 조사기준에 의하면 3세대 핸드폰(3G UMTS)은 전체 시장의 3%를 차지하였고 3G 보다 약간 성능이 약한 EDGE 핸드폰은 동 시장의 30% 점유, 증가추세이며 카메라 내장 핸드폰 시장 점유율은 80%로 보편화되었다.
- 핸드폰의 보편화
 - 핸드폰 사용자가 1992년 50만 명에서 2007년 상반기 5,000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부터 2006년 기간 중에는 매년 14%의 증가세를 보였다.
 - 프랑스 이동통신사업자 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12-24세 핸드폰 소지자의 96%가 전화기능 외에 시계, 자명종, 계산기, 전화번호부 등 복합기능으로 사용하고 있고, 40세 이상의 핸드폰 소지자들은 주로 전화 기능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핸드폰 교체빈도는 젊은 층이 평균 9개월로 가장 빠르고 중년층이 평균 33개월에 한번 교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2-15세 학생층의 2/3가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는데 여학생(76%)이 남학생(64%)보다 더 많이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다.
 - 18-24세 연령층의 경우 95%가 핸드폰을 소지하며 60세 이상 연령층의 소지율은 51%에 그쳤다.
 - 15세 이상의 프랑스인 77%가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2005년 72%에 비해 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 프랑스 이동통신사업자 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2002년과 2006년 사이에 핸드폰 사용료가 26% 인하되었는데 영수증 상의 평균 통신료(세전 가격)는 2004년 24.8유로에서 2005년 24.10유로로 큰 변동이 없었다.
 - 프랑스 소비자들은 2006년 한 달 평균 157분을 통화하여 유럽국가 중 가장 많은 시간 핸드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통화의 40%가 핸드폰으로 이루어졌으며 10명의 사용자 중 7명이 문자 메시지를 사용했다. 복합기능 핸드폰 소비자는 약 천 1,5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 이동통신사업자 현황
 - 프랑스 시장에는 15개의 이동통신업체가 있는데 Orange, SFR 및 Bouygues Telecom 사가 3대 사업자이다.
 - 핸드폰서비스는 아래의 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 3대 업체: Orange, SFR, Bouygues Telecom
 - 12개의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 Tele2 Mobile, NRJ Mobile, Virgin Mobile, Breizh Mobile, Debitel, Coriolis Telecom, Ten, Neuf Mobile, Carrefour Mobile, A-Mobile, Transatel, Mobisud
 - 라이선스 업체: Universal Mobile, M6 Music Mobile, FNAC Mobile 등

□ 교역현황

한국은 물량 면에서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프랑스 핸드폰 2위 수입국 자리 고수하고 있다. 프랑스 관세청 통계에 의하면, 한국산 핸드폰 수입 규모는 물량 기준 시, 2003년 이후 매년 70% 이상의 급증세를 기록, 2005년 581만 개를 상회 2004년 실적 대비 72.2% 증가, 독일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으며 2006년에는 물량 면에서는 2005년 대비 12.4% 증가한 654만 대로 중국에 이어 2위의 자리를 지켰다. 1위는 1,130만 대 이상의 실적을 기록한 중국이 고수했다.

한국은 금액 기준 시, 2003년 이후 매년 80% 이상의 급증세를 기록, 2005년 9억 3,000만 유로를 상회. 2004년 실적 대비 82.3% 증가, 독일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후 2006년 0.4% 증가한 9억 3,000만 유로를 초과하여 3위로 밀려났다. 최근 12개월간 수입통계에 의하면 물량 면과 실적 면에서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지역별 최근 12개월간 교역 현황

(단위: 천 유로, 대)

지역	수출(2006.3월~2007.3월)		수입(2006.3월~2007.3월)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유럽	160,686	16,638,801	165,408	1,354,237
아프리카	15,967	140,794	58	200
미주	4,338	124,458	11,290	40,702
중동	11,665	105,951	183	11,724
아시아	15,473	346,358	356,683	3,964,769
기타	3,078	42,749	4,541	143,966
합계	211,207	17,399,111	538,163	5,515,598

자료: 프랑스 관세청

주요 국가별 최근 12개월간 교역현황

(단위: 천 유로, 대)

수출(2006.3월~2007.3월)			수입(2006.3월~2007.3월)		
국가	금액	물량	국가	금액	물량
영국	20541	9,352,373	중국	177,044	2,638,066
스웨덴	1944	3,060,452	한국	150,338	1,157,584
독일	21699	1,569,478	독일	57,977	679,081
네덜란드	16326	778,395	핀란드	54,442	340,074
이탈리아	46846	465,247	이태리	23,052	175,541
스페인	17661	374,405	말레이시아	14,811	97,475
벨기에	2645	277,395	대만	12,532	56,995
오스트리아	282	193,152	영국	10,958	26,364
홍콩	3346	87,103	캐나다	10,724	36,174
브라질	406	57,148	덴마크	5,202	23,217

자료: 프랑스 관세청

□ 경쟁 동향

○ SAMSUNG

- 2006년 프랑스 시장 24%를 차지하며 2005년에 이어 NOKIA와 SAGEM을 앞섰다. 2006년 한 해 동안 판매량으로 15%가 증가한 550만 대를 판매했고 금액 면으로는 2005년 대비 6% 증가한 9억 유로를 달성했다. 프랑스시장 점유율 22%로 2위를 차지한 NOKIA와의 차이도 더 벌어졌다. SAGEM의 시장점유율은 17.4%로 점점 감소하고 있다.
- 고가폰 제품 중심인 SAMSUNG의 시장 점유율은 실적 면으로 볼 때 더 증가한다. NOKIA의 20%, SONY ERICSSON의 10.8%에 크게 앞선 35%를 점유하고 있다.

- SAMSUNG 의 프랑스 시장 성공요인은 2006 년 한해 출시한 모델이 약 50 개에 이르는 제품의 다양함에 있다고 분석된다. 또한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광고 전략도 한 몫 했다.
- 시장점유율을 더 확보하려는 SAMSUNG 은 양면 LCD 스크린에 다른 두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신제품 출시를 예정하고 있다.
- NOKIA 제품에 대응하는 가격 경쟁성을 위해 2006 년 제품평균가격을 185 유로에서 163 유로로 재조정하였다.

프랑스 브랜드별 핸드폰 시장점유율 현황(판매량 기준)

(단위: %)

업체 명	2004	2005	2006
SAMSUNG	14.6	23.3	24
SAGEM	21.2	19.4	22
NOKIA	24	17.4	17.4

자료: GfK.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EU FTA 추진현황

프랑스는 EU회원국으로서 단독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EU집행위회 회원국으로부터 협상권을 위임 받아 제 3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모든 EU회원국은 체결된 자유무역협정 내용을 적용한다.

1) EU의 FTA 정책

EU의 기본적 통상정책 방향은 새로운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시장을 개방하고 유럽산 상품 서비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해외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EU의 통상부문 중점 추진 과제는 자유무역 및 시장개방, 해외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DDA협상에서의 균형된 결과 도출, MERCOSUR, GCC(걸프 협력회의), ASEAN 등 지역협력체와의 FTA 추진, 지재권, 투자, 정부조달 시장접근개선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FTA 추진과 관련, EU는 MERCOSUR, GCC와 같은 지역협력체와 FTA 협상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ASEAN, Andean, 중미국가들과의 FTA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WTO에 가입할 경우 관계를 심화시켜 나갈 예정이며 조달시장 개방관련 EU 기업에 조달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EU 시장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2) EU의 FTA의 주요 특징

□ 지중해지역과의 경제통합 가속화

EU는 현재 9개 지중해국가(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모로코, 튀니지,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시리아)와 양자 FTA를 체결한 상태이며 2010년까지 지중해 지역 국가들과 양자 FTA를 지역간 FTA(Euro-Med Agreement)로 확대하여 서비스 및 투자 부문까지 자유화를 추진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EU 집행위는 2006년 이라크와 무역협력협정(TCA)을 위한 회담 개시를 2005년 말 제안한 바 있다.

□ MERCOSUR와의 협력 강화

2000년 4월 지역간 협력을 위한 첫 회담 개최 이래 지금까지 16차례 회담을 가졌으며 이후 잠시 교착상태를 보였다가 2005년 9월 2일 장관급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MERCOSUR와의 정치적 경제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이래 기술적인 차원에서 토론이 계속되고 있다.

EU는 MERCOSUR에 있어서 세계 최대의 무역지대로 무역비중이 22.9%에 이른다. 양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인구 7억 명의 세계최대의 공동시장이 탄생될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은 기술적 협의에 그치고 있으며 실질적인 협상은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 한-EU 기본협력협정, 신 가입국에 확대 적용 의정서 체결

한-EU 기본협력협정의 신규 10개국에 대한 확대 적용 의정서가 2005년 11월 16일 브뤼셀에서 체결되었다.

한-EU 기본협력협정은 1996년 10월 28일 우리나라와 EU간 체결된 것으로 2001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2004년 5월 1일 EU 회원국으로 중동구 등 신규 10개국이 확대되면서 동 기본협력협정의 확대적용을 위해 동 의정서가 체결되게 된 것이다.

한편, 2007년 5월부터 한국과 EU는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EU의 FTA 추진현황

	기체결	협상 중	검토 중
국가	EU, EFTA, 유로-지중해협정, 멕시코, 터키, 칠레, 남아공	MERCOSUR, GCC, 한국	ASEAN, 러시아, 인도, 우크라이나, 중남미 6국, 안데안 4국

작년 결렬된 WTO협상 이후 유럽연합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재개했다. 협정이 완료되면 양 지역간의 교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유럽연합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은 약 47%, 한국에서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은 약 36%가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논의는 지난 5월 본격적으로 시작해 내년 상반기에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유럽의 8번째 교역국으로 2006년 한해 총 교역 금액은 530 억 유로에 이르렀다.

작년 한해 동안 유럽 연합이 한국에 투자한 금액은 3십5억 유로로 미국에 앞서 가장 많은 투자액을 기록했다.

이번 협상에서 유럽연합이 한국정부에 자유개방을 요구할 산업 영역은 자동차, 의약품, 화장품, 화학산업이다.

II.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세계 무역에서의 위치

프랑스는 세계 5대 수출입 국가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2007년 수입규모 면에서는 일본을 바싹 추격하고 있으나 수출규모 면에서는 네덜란드의 추격을 받고 있다. 이는 프랑스의 해외 생산공장이나 하청생산업체에서 제조된 완제품 수입이 증가한 것과 네덜란드를 경유한 중계무역 규모가 점차 증가한 데에 기인한다.

세계 5대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연도 국가 명	2006			2007		
		수출	수입	합계	수출	수입	합계
1	독일	1,118,290	921,451	2,039,741	1,327,220	1,059,480	2,386,700
2	미국	969,284	791,793	1,761,077	1,162,600	2,017,380	3,179,980
3	중국	1,037,070	1,919,260	2,956,330	1,218,130	956,259	2,174,389
4	일본	646,779	578,694	1,225,473	714,254	621,870	1,336,124
5	프랑스	495,220	541,605	1,036,825	553,257	615,793	1,169,050
6	네덜란드	463,517	417,011	880,528	551,777	492,429	1,044,206
7	이탈리아	409,652	436,478	846,130	492,000	504,827	996,827
8	벨기에	366,731	351,834	718,565	432,309	413,962	846,271
9	영국	422,553	546,685	969,238	440,653	623,673	1,064,326
10	캐나다	388,134	384,864	772,998	418,170	416,420	834,590

자료: 한국무역협회 KITA

나. 최근 수출입 동향

프랑스의 수출 증가율은 2006년 9%로 크게 향상되었으나 2007년에는 3% 증가로 크게 둔화되었다.

수입 증가율은 2006년 9.9%에서 2007년 5.4%로 역시 둔화되었다.

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보다 낮은 상태가 수 년째 지속됨에 따라 무역수지는 2004년 적자 기록 후 3년째 악화되어 2007년 391.7억 유로에 달했다.

프랑스의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십억 유로, %)

구분	2005	2006		2007(추정치)	
	금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입	470.76	416.74	9.9	439.34	5.4
수출	451.55	388.51	9.0	400.17	3.0
무역수지	-19.21	-28.23	-	-39.17	-

주: 2000년 가격 기준 계절 변동치(인플레이션) 조정 후 FOB/FOB 기준 통계임.

자료: 프랑스 관세청(DOUANES)

다. 프랑스의 주요 수출입 대상국

1) 주요 국별 수입 동향

WORLD TRADE ATLAS 통계에 의하면, 2007년도 6대 수입 대상국은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및 영국 등 EU 국가들이며 미국, 중국, 스위스, 러시아 및 일본이 그 뒤를 이어 11대 수입 대상국 자리를 차지했다. 2006년도 프랑스의 24대 수입 대상국이었던 한국은 2007년 26위로 밀려났다.

프랑스의 연도별 및 주요 국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금액			점유율			증감률
순위	국명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07/06
0	총수입	405213.0	431602.8	448909.2	100	100	100	4.01
1	독일	76613.3	81605.2	85057.4	18.91	18.91	18.95	4.23
2	벨기에	43438.4	47924.8	50942.5	10.72	11.1	11.35	6.3
3	이탈리아	33552.6	36019.5	37690.1	8.28	8.35	8.4	4.64
4	스페인	28282.0	30140.9	32121.9	6.98	6.98	7.16	6.57
5	네덜란드	26586.6	29240.7	31165.9	6.56	6.78	6.94	6.58
6	영국	23944.0	28604.2	25300.9	5.91	6.63	5.64	-11.55
7	미국	20475.2	19731.8	19625.0	5.05	4.57	4.37	-0.54
8	중국	14480.1	15839.6	17999.8	3.57	3.67	4.01	13.64
9	스위스	10160.6	10479.8	10947.7	2.51	2.43	2.44	4.46
10	러시아	8014.2	9444.2	10436.9	1.98	2.19	2.33	10.51
11	일본	6358.1	6235.0	6066.6	1.57	1.45	1.35	-2.7
12	스웨덴	4973.0	5380.9	5933.3	1.23	1.25	1.32	10.27
13	아일랜드	5944.4	5766.0	5843.4	1.47	1.34	1.3	1.34
14	폴란드	3974.6	5256.3	5733.6	0.98	1.22	1.28	9.08
15	노르웨이	5777.5	6014.3	5423.7	1.43	1.39	1.21	-9.82
16	체코	2881.9	3780.4	4466.4	0.71	0.88	1	18.15
17	터키	3292.3	3743.5	4165.2	0.81	0.87	0.93	11.26
18	포르투갈	3699.3	3957.9	4098.4	0.91	0.92	0.91	3.55
19	오스트리아	3707.6	3775.1	4018.7	0.92	0.88	0.9	6.45
20	튀니시아	2712.0	3001.9	3655.1	0.67	0.7	0.81	21.76
21	알제리아	3865.0	4137.3	3370.2	0.95	0.96	0.75	-18.54
22	싱가포르	3204.9	2561.4	3339.6	0.79	0.59	0.74	30.38
23	덴마크	3206.5	3185.4	2996.9	0.79	0.74	0.67	-5.92
24	브라질	2490.8	2558.7	2980.7	0.62	0.59	0.66	16.49
25	헝가리	2061.3	2432.0	2713.1	0.51	0.56	0.6	11.56
26	한국	2768.1	3073.0	2702.4	0.68	0.71	0.6	-12.06
27	사우디 아랍	3761.8	3881.2	2701.9	0.93	0.9	0.6	-30.39
28	룩셈부르크	2323.9	2647.7	2604.5	0.57	0.61	0.58	-1.63
29	이란	2162.5	2370.4	2450.1	0.53	0.55	0.55	3.36
30	모로코	4691.6	2383.2	2437.0	1.16	0.55	0.54	2.26

자료: WORLD TRADE ATLAS

2) 주요 수입대상 국가 (2007년)

프랑스 관세청 수입통계 월보에 의하면, 2007년도 EU 회원국들은 1-4위(독일, 벨룩스, 이탈리아, 스페인) 및 7,8위(영국, 네덜란드)를 차지했으며 5,6,9,10위는 중국, 홍콩, 미국, 러시아 및 일본이 차지했다. 한국은 2007년 프랑스의 19대 수입 대상국 자리를 차지했다.

(단위: 백만 유로, %)

순위	국가	금액	비중
1	독일	75,103	16.7
2	벨기에·룩셈부르크	39,301	8.7
3	이탈리아	38,704	8.6
4	스페인	31,483	7.0
5	중국·홍콩	29,167	6.5
6	미국	26,005	5.8
7	영국	24,659	5.5
8	네덜란드	18,566	4.1
9	러시아	11,109	2.5
10	일본	10,292	2.3
11	스위스	10,066	2.2
11	아일랜드	6,548	1.5
13	노르웨이	6,333	1.4
14	스웨덴	5,863	1.3
15	폴란드	5,533	1.2
16	터기	4,811	1.1
17	체코	4,585	1.0
18	포르투갈	4,175	0.9
19	한국	3,994	0.9

자료: 프랑스 관세청 수입통계 월보

3) 주요 국별 수출 동향

WORLD TRADE ATLAS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5대 수출 대상국은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및 벨기에 등 EU 국가들이며 미국, 중국, 및 일본은 각각 6, 9, 11위를 차지했다. 2006년도 프랑스의 27대 수출 대상국이었던 한국은 2007년에도 27위를 고수했다.

프랑스의 연도별 및 주요 국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금액			점유율			증감률
순위	국명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07/06
0	총 수출	372501.8	394926.3	403794.3	100	100	100	2.25
1	독일	54740.8	61330.9	60110.2	14.7	15.53	14.89	-1.99
2	스페인	35845.8	37959.2	37588.8	9.62	9.61	9.31	-0.98
3	이탈리아	32373.1	35081.3	35981.2	8.69	8.88	8.91	2.57
4	영국	30994.4	32747.9	32887.4	8.32	8.29	8.15	0.43
5	벨기에	26515.7	28563.2	29457.2	7.12	7.23	7.3	3.13
6	미국	26518.8	26000.8	24808.0	7.12	6.58	6.14	-4.59
7	네덜란드	14478.3	15870.9	16485.0	3.89	4.02	4.08	3.87
8	스위스	10890.3	10324.5	10347.5	2.92	2.61	2.56	0.22
9	중국	6296.8	8051.6	9031.3	1.69	2.04	2.24	12.17
10	폴란드	4707.7	6978.2	6309.4	1.26	1.77	1.56	-9.58
11	일본	5486.5	5693.2	5781.3	1.47	1.44	1.43	1.55
12	러시아	3707.9	4707.7	5601.8	1	1.19	1.39	18.99
13	스웨덴	4412.3	5028.8	5351.5	1.19	1.27	1.33	6.42
15	터키	4839.5	5200.5	5192.9	1.3	1.32	1.29	-0.15
16	포르투갈	4669.5	4882.6	4966.5	1.25	1.24	1.23	1.72
17	알제리아	4785.6	4010.8	4113.9	1.29	1.02	1.02	2.57
18	그리스	3123.5	3293.4	3795.0	0.84	0.83	0.94	15.23
19	오스트리아	3423.8	3685.1	3628.8	0.92	0.93	0.9	-1.53
20	에미레이트 아랍연맹	3435.5	3380.4	3622.3	0.92	0.86	0.9	7.16
21	싱가포르	3135.5	3459.5	3595.1	0.84	0.88	0.89	3.92
22	모로코	5570.5	3189.7	3479.7	1.5	0.81	0.86	9.09
23	인도	1976.5	2631.4	3333.6	0.53	0.67	0.83	26.69
24	체코	2592.3	3137.2	3328.4	0.7	0.79	0.82	6.1
25	튀니시아	2713.5	2990.8	3162.1	0.73	0.76	0.78	5.73
26	브라질	2286.0	2538.0	3072.2	0.61	0.64	0.76	21.05
27	한국	2393.2	2873.6	2991.6	0.64	0.73	0.74	4.11
28	알제리아	2820.2	2709.4	2914.5	0.76	0.69	0.72	7.57
29	덴마크	2628.6	2896.8	2860.1	0.71	0.73	0.71	-1.27
30	헝가리	2316.6	2696.4	2776.2	0.62	0.68	0.69	2.96

자료: WORLD TRADE ATLAS

4) 주요 수출대상 국가 (2007년)

프랑스 관세청 수입통계 월보에 의하면, 2007년도 5대 수출 대상국은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및 벨룩스 등 EU 국가들이며 미국, 중국, 및 일본은 각각 6, 8, 11위를 차지했다.

(단위: 백만 유로, %)

순위	국가	금액	비중
1	독일	57,172	14.5
2	스페인	37,968	9.6
3	이탈리아	36,259	9.2
4	영국	33,230	8.4
5	벨기에·룩셈부르크	31,764	8.0
6	미국	24,894	6.3
7	네덜란드	16,651	4.2
8	중국·홍콩	11,469	2.9
9	스위스	10,503	2.7
10	폴란드	6,395	1.6
11	일본	5,781	1.5
11	러시아	5,661	1.4
13	스웨덴	5,402	1.4
14	터키	5,201	1.3
15	포르투갈	5,005	1.3
16	알제리	4,177	1.1
17	그리스	3,749	0.9
18	UAE	3,663	0.9
19	오스트리아	3,660	0.9
20	싱가포르	3,623	0.9

자료: 프랑스 관세청 수입통계 월보

5) 2007년 산업 분야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유로, %)

	수입	증감률	수출	증감률	수지	수입 커버율
FOB/FOB 가격 기준	439,340	5.4	400,169	3	-39,171	91.1
CIF/FOB 가격 기준(군수물자 불포함)	450,524	5.4	395,649	2.8	-54,876	87.8
민간 산업	350,924	6.7	332,290	2.4	-18,634	94.7
- 소비재	70,299	5.1	60,295	3	-10,004	85.8
- 자동차	50,331	11	51,002	0.2	671	101.3
- 설비재	90,144	2.7	93,415	0.1	3,271	103.6
- 중간재	138,409	8.6	125,984	5.1	-12,425	91.0
- 기타	1,941	9.8	1,594	-5.2	-147	91.6
농식품	37,665	8.6	46,652	7.6	8,987	123.9
에너지	61,935	-2.9	16,706	-3.2	45,229	27.0
군수물자	1,136	15.5	3,897	43.4	2,761	343.1

자료: 프랑스 관세청(DOUANES)

- 민간 산업 제품 수출 둔화
 - 자동차 판매는 2005년 및 2006년 감소 후 2007년 안정세 회복: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스페인, 독일, 영국 및 벨기에 등 주요 수출 대상국내 자동차 수출은 감소하였는데 자동차 부품 수출(독일 및 스페인)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 2006년까지 수출 증가율이 지속 유지되었던 여타 민간 산업 제품들의 수출은 2007년 들어 크게 둔화하였다.
 - 중간재는 대 독일 금속제품 수출 호조로 2007년 5.1%의 양호한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목재 및 종이 수출은 4.7% 증가하였으며 화학제품 수출도 3% 증가하였다. 단, 석유류 수출은 0.1% 증가로 계속 부진세를 보였다.
 - 소비재 수출은 가정용 전자제품의 수출 부진으로 3% 증가에 그쳐 약간 부진하였다. 향수 및 화장품 수출은 7.5%의 급증세를 유지하였으며 의류 및 가죽 수출도 의약품의 대 벨기에 및 독일 수출이 호조했던 것처럼 대 이탈리아 및 스페인 수출 호조로 높은 증가율(6%)을 유지하였다.
 - 설비재 수출은 기계류의 지속적인 수출 호조(10.3%) 및 운송장비의 수출 담보(1%)에도 불구하고 전자장비의 수출 감소(10.3%)로 결국 담보했다.
 - 농식품 수출은 곡물, 알코올 음료수 및 우유 제품의 수출 호조로 7.6% 증가하였다.
- 산업재 수입 급증세 지속
 - 2007년도 산업재 수입은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율(6.7%)을 기록했다.
 - 자동차 수입 증가율(11%)이 현저히 높았는데 기존의 수입 대상국인 독일 및 스페인산 외에 EU 신규 가입국산 자동차 수입도 크게 증가하였다.
 - 중간재 수입도 8.6%라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독일산 금속을 비롯하여 화학제품 및 광물 수입이 동등한 증가율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 소비재 수입은 중국 및 독일산 수입 증가로 5.1% 증가하였는데 특히, 가구 및 의약품 수입 증가율이 높았다.
 - 설비재 수입은 전자 장비의 수입 둔화로 2.7% 증가에 그쳤는데 기계 및 운송장비의 수입은 현저히 높았다.
 - 농식품 수입은 8.6% 증가하였는데 특히, 우유 및 곡물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6) 주요 품목별 수입 동향

- 2008년 1-3월 기간 중 5대 주종 수입품은 원유 및 천연가스, 자동차, 석유제품, 우주 항공기, 자동차부품인데 우주 항공기만 감소하고 나머지는 모두 5%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 2007년도 10대 수입품은 원유 및 천연가스, 자동차, 우주 항공기, 석유제품, 자동차 부품, 의약품, 철강제품, 컴퓨터 및 정보기기, 기초 유기화학제품 및 기초 플라스틱 물질인데 원유 및 천연가스, 석유제품, 컴퓨터 및 정보기기는 수입 감소하였으며 나머지 7개 품목은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주중 품목별 수입 실적

(단위: 천 유로, %)

연도별	2006	증감률	2007	증감률	2008.1-3	증감률
총 수입	426,670,384	9.7	447,846,304	5.0	117,707,858	7.3
원유 및 천연가스	43,183,299	20.8	41,881,560	-3.0	12,828,964	42.9
자동차	30,895,944	5.0	34,429,956	11.4	9,102,240	7.5
석유제품	16,434,530	17.1	15,678,447	-4.6	5,383,128	57.3
우주 항공기	13,878,549	11.0	15,742,295	13.4	3,590,124	-10.8
자동차 부품	13,284,211	3.6	14,306,251	7.7	3,782,666	5.8
의약품	12,661,298	11.8	14,067,438	11.1	3,689,635	5.0
철강제품	11,183,676	22.3	12,847,287	14.9	3,327,575	-5.0
컴퓨터 및 정보기기	13,230,436	1.2	11,129,696	-15.9	2,590,798	-10.3
기초 유기화학 제품	9,798,466	1.4	10,546,798	7.6	2,617,391	0.5
기초 플라스틱 물질	7,398,011	13.5	8,131,639	9.9	2,079,632	-0.3
시청각 수신, 재생, 녹음, 녹화기	8,118,988	13.3	7,527,304	-7.3	1,704,603	5.3
시청각 방송 방영기기	8,501,934	48.3	6,079,165	-28.5	1,358,968	2.7
수술 및 정형수술장비	5,779,179	5.8	5,651,251	-2.2	1,437,328	0.8
외의류	5,512,392	3.3	5,595,433	1.5	1,519,126	-3.8
계측, 검사기기	5,519,388	12.4	5,427,658	-1.7	1,342,364	-1.3
전자부품	6,159,442	0.4	5,271,805	-14.4	1,290,303	-0.8
종이 및 판지	4,853,664	4.9	5,135,907	5.8	1,312,379	-0.5
산업용 화학제품	4,145,413	10.5	4,629,376	11.7	1,262,166	15.3
동	4,891,029	78.2	4,677,630	-4.4	1,150,786	-4.0
내의류	4,164,185	4.7	4,414,695	6.0	1,265,657	-0.5
알루미늄 및 동 제품	4,305,642	35.9	4,453,141	3.4	1,040,416	-12.4
신발	4,039,809	4.4	4,192,227	3.8	1,176,290	-3.3
전기 배전기 및 제어기	3,727,262	15.7	4,087,589	9.7	1,073,405	5.5
유압식펌프, 컴프레셔 및 시스템	3,452,022	1.0	3,880,663	12.4	967,612	-3.5
가전제품	3,508,300	6.3	3,611,714	2.9	868,451	0.3
플라스틱 판, 시트, 관	3,401,423	7.6	3,593,938	5.7	924,548	0.0
건설 및 추출기계	2,926,250	15.8	3,468,773	18.5	934,992	13.7
기타 금속제품	3,117,204	8.5	3,504,526	12.4	905,675	3.4
전기모터, 발전기 및 변압기	3,118,237	15.0	3,474,187	11.4	844,828	0.9
음료수용 과일 및 식물	3,031,904	-0.8	3,272,211	7.9	961,446	15.5
기초 의약품	3,777,770	-13.9	3,604,092	-4.6	780,933	-29.3
하역장비	2,682,570	12.1	3,138,495	17.0	801,346	9.3
기타 플라스틱 제품	2,913,103	5.3	3,165,755	8.7	802,517	-0.5
범용 기계	2,838,030	8.7	3,044,339	7.3	805,740	9.5

사무용 기계	1,775,741	22.0	3,039,797	71.2	822,122	1.3
육류	2,935,485	7.1	2,899,217	-1.2	722,310	2.7
어류 제품	2,945,990	11.1	2,875,550	-2.4	678,281	4.2
산업용품 및 냉동 기기	2,579,849	14.5	2,918,826	13.1	679,712	-3.5
기타 특수용 기계	2,645,981	3.6	2,721,694	2.9	644,602	5.6
화훼류 또는 관상수	2,712,945	1.7	2,766,227	2.0	811,292	-4.3
클러치 및 전동축	2,294,095	5.6	2,624,322	14.4	722,518	9.8
기타 가구류	2,363,279	1.2	2,637,829	11.6	709,105	6.5
우유 및 우유제품	2,067,819	6.4	2,443,451	18.2	588,430	15.0
완구 및 게임	1,985,430	1.6	2,369,007	19.3	498,999	17.7
의자류	2,273,036	3.1	2,350,341	3.4	654,089	3.3
타이어	1,909,481	10.6	2,222,085	16.4	622,454	20.4
핵산업 제품	1,805,293	3.3	2,158,296	19.6	558,502	28.3
밸브류	1,934,535	12.6	2,238,863	15.7	587,255	4.3
채소 및 과일 조제품	1,867,306	7.2	2,062,178	10.4	553,606	16.0
기타의류 및 기타 액세서리	2,215,030	5.6	2,167,619	-2.1	515,780	-5.7
니켈 및 기타 비철금속	1,544,268	26.4	2,164,537	40.2	491,418	-12.1
기초 무기화학제품	1,792,632	13.1	2,038,806	13.7	580,048	9.4
모터 및 자동차용 전기제품	1,843,349	-1.1	2,024,200	9.8	545,261	7.4
케이블 및 철선	1,496,385	-1.2	1,842,581	23.1	699,695	40.7
고무제품	1,841,431	11.7	2,044,097	11.0	499,463	-2.5
플라스틱제 포장용품	1,604,584	-2.8	1,736,904	8.2	641,723	70.3
쉐타류	1,959,249	3.9	2,032,427	3.7	487,399	-7.0
철관	1,791,343	20.2	1,963,753	9.6	491,870	2.4
섬유제품	1,948,547	18.8	1,965,991	0.9	398,082	2.1
램프 및 조명기기	1,662,405	-2.6	1,915,653	15.2	479,438	1.8

자료: 프랑스 관세청 수입통계 월보

7) 프랑스의 품목별 수출 동향

2008년 1-3월 중 수출규모는 1,038억 유로에 달하여 전년 동기대비 5% 증가했는데 이는 항공기, 의약품, 석유제품, 샴페인과 포도주를 포함한 농산물 제품, 방사핵 제품 수출 호조 등에 기인한 것이다.

주요 수출 증가 품목으로는 우주, 항공기(5.9%), 의약품(6.1%), 자동차 부품(2.9%), 석유 제품(42.1%), 기초 유기화학제품(5.5%), 포도주 및 샴페인(12.2%), 전기 배전기 및 제어기 (7.9%), 산업용 곡물 및 식물(16.5%) 및 우유 및 우유제품(20.4%) 등이다.

주요 수출 감소품목으로는 자동차(-1.5%), 전자부품(-4.8%), 컴퓨터 및 정보기기(-7%) 등이다.

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천 유로, %)

품목별	2006	증감률	2007	증감률	2008.1-3	증감률
총 수출	384,587,487	9.1	394,067,416	2.5	103,786,093	5.0
자동차	34,627,356	-6.7	33,732,195	-2.6	8,781,520	-1.5
우주, 항공기	27,274,778	17.8	27,755,049	1.8	7,385,708	5.9
의약품	18,862,952	9.2	19,731,341	4.6	5,267,112	6.1
자동차 부품	15,243,506	8.7	15,934,522	4.5	4,189,188	2.9
철강제품	11,926,790	17.4	13,079,110	9.7	3,543,233	0.2
석유제품	10,772,707	22.9	10,301,397	-4.4	3,121,432	42.1
향수 및 화장품	8,602,865	7.3	9,187,766	6.8	2,437,386	1.6
기초 유기화학 제품	9,261,315	10.6	9,015,366	-2.7	2,403,082	5.5
기초 플라스틱 물질	8,463,564	10.7	8,958,257	5.8	2,290,889	0.6
포도주 및 샴페인	6,280,368	10.4	6,785,623	8.0	1,548,492	12.2
전기배전기 및 제어기	6,184,400	10.2	6,700,492	8.3	1,792,744	7.9
산업용 곡물 및 식물	5,330,953	5.9	6,332,187	18.8	2,260,073	16.5
전자부품	7,426,238	4.9	6,600,769	-11.1	1,534,452	-4.8
계측, 검사기기	5,707,777	11.4	6,313,298	10.6	1,451,775	-3.2
산업용 화학제품	5,190,582	16.0	5,397,258	4.0	1,435,188	3.3
수술 및 정형수술장비	5,286,224	3.5	5,393,427	2.0	1,371,044	0.8
우유 및 우유 제품	4,269,554	2.3	4,837,708	13.3	1,352,493	20.4
종이 및 판지	4,549,004	0.8	4,670,510	2.7	1,218,287	4.0
컴퓨터 및 정보기기	5,686,298	7.0	4,676,162	-17.8	1,106,445	-7.0
펌프, 컴프레서	3,980,782	9.1	4,105,781	3.1	1,069,473	5.8
건설기계	3,628,149	22.7	3,863,135	6.5	992,882	12.5
기타 금속제품	3,361,025	9.6	3,792,608	12.8	1,023,067	10.5
하역장비	3,424,037	24.5	3,764,811	10.0	1,020,157	11.1
전기 모터, 발전기 및 변압기	3,503,367	18.5	3,863,690	10.3	975,354	-1.3
시청각 방송 및 전송기기	7,682,617	38.4	3,933,914	-48.8	744,641	-17.4
동	3,845,032	75.6	3,149,034	-18.1	905,025	10.7
알루미늄 및 동 제품	3,261,320	30.3	3,287,810	0.8	797,547	-10.5
산업용통풍 및냉동기기	2,697,059	8.1	2,989,537	10.8	761,227	7.7
클러치 및 전동축	2,570,237	13.5	2,930,430	14.0	829,832	14.1
기타 범용기계	2,880,862	4.5	2,973,412	3.2	763,190	8.5
타이어	2,670,033	8.4	2,877,233	7.8	816,690	11.6
시청각 수신, 재생, 녹음기	3,858,391	-2.8	2,928,085	-24.1	693,421	0.0
철관	2,377,059	22.5	2,847,750	19.8	793,381	9.2
기타 특수용 기계	2,992,954	13.1	2,764,163	-7.6	710,773	13.3
여행용구 및 혁제품	2,743,868	11.6	2,792,168	1.8	714,798	-2.5
증류된 알콜음료	2,629,943	15.7	2,717,359	3.3	567,011	-10.1
방사핵 연료 및 전기	3,110,826	-11.2	2,301,701	-26.0	844,772	62.2
플라스틱 판, 시트, 관 및 프로파일	2,357,817	10.9	2,540,596	7.8	624,664	-4.3
기타 플라스틱 제품	2,306,732	3.6	2,475,251	7.3	630,104	-1.4
핵산업 제품	1,407,312	-1.5	2,139,192	52.0	817,480	59.3
외의류	2,124,484	5.2	2,361,656	11.2	701,544	1.7
고무제품	2,096,211	9.2	2,321,228	10.7	613,653	3.5
기타 의류 및 액세서리	2,307,055	7.4	2,340,514	1.5	657,641	-2.7
육류	2,368,619	7.9	2,332,425	-1.5	578,806	-2.2
밸브류	1,895,331	10.3	2,153,681	13.6	578,083	11.3
기초 의약품	2,312,820	5.4	2,196,999	-5.0	571,353	1.9
내의류	1,847,092	9.0	1,986,250	7.5	621,315	4.4
농화학 제품	1,875,274	-2.8	1,881,032	0.3	778,454	5.7

자료: 프랑스 관세청 수입통계 월보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한국의 30대 수출 시장

한국의 대불 수출이 최근5년간 84% 증가하는 등 교역량이 날로 증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한국의 30대 수출 시장에 불과하다.

프랑스는 2005년 한국의 세계 21대 수출대상국이었는데 2006년 22대, 2007년 28대 및 2008년 4월 기준 30대로 그 순위가 계속 하락해오고 있다. 이는 동 기간 중 한국의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아랍에미리트 연합, 터키 및 핀란드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대불 수출 증가율보다 높은 데에 기인한 것과 2007도 대불 수출이 부진한 것에 기인한다.

2008년 4월 기준 한국의 30대 수출 대상국

(단위: 천 달러, %)

순위		연도 국가명	2007		2008(1월~04월)	
2007	2008.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371,489,086	14.1	137,256,903	19.7
1	1	중국	81,985,183	18	30,685,699	23.8
2	2	미국	45,766,102	6	15,322,708	0.5
3	3	일본	26,370,191	-0.6	9,519,776	13.9
4	4	홍콩	18,654,450	-1.7	6,195,566	8.3
5	5	싱가포르	11,949,491	25.9	5,339,230	37.5
7	6	독일	11,542,529	14.8	4,091,614	11.5
6	7	대만	13,027,109	0.2	4,074,977	-2.7
8	8	러시아 연방	8,087,746	56.2	3,255,019	56.9
13	9	베트남	5,760,054	46.7	3,106,642	91.9
9	10	멕시코	7,482,005	19.1	3,064,550	43.4
11	11	인디아(인도)	6,600,039	19.3	2,753,539	37.8
12	12	인도네시아	5,770,618	18.4	2,174,881	18
10	13	영국	6,870,038	21.9	2,043,405	-9
14	14	말레이시아	5,704,248	9.1	1,899,796	7.2
17	15	태국	4,488,400	5.7	1,895,278	24.1
16	16	이란	3,265,621	27.6	1,779,731	113.2
27	17	브라질	3,487,476	13.8	1,759,250	87.8
25	18	아랍 에미리트 연합	3,704,743	27.9	1,756,952	59.2
15	19	호주	4,691,191	-	1,693,295	19.3
18	20	필리핀	4,420,334	12.5	1,661,215	25.1
16	21	네덜란드	4,488,720	24.4	1,625,060	36.8
24	22	폴란드	3,508,775	34.3	1,443,268	40.8
19	23	이탈리아	4,151,400	-3.1	1,441,030	1.5
21	24	사우디아라비아	4,025,836	35.2	1,432,407	13.7
20	25	터키	4,087,436	34.6	1,397,965	13.7
32	26	벨기에	2,581,561	18.1	1,395,972	63.9
26	27	캐나다	3,506,423	-3.1	1,303,714	22.1
29	28	파나마	3,145,006	41.2	1,295,094	18.6
22	29	스페인	3,924,790	12.8	1,225,894	-6.1
28	30	프랑스	3,478,204	1.8	1,220,644	20.4
31	31	슬로바키아	2,706,890	113.6	1,110,782	32.5
30	32	칠레	3,115,103	98.9	1,102,525	31

자료: KOTIS

1) 프랑스, 한국의 세계 19대 수입 시장

프랑스는 2006년 한국의 세계 20대 수입 대상국가에서 2007년 19위로 올라선 후 2008년 4월 기준 19위를 고수했다. 이는 2007년 한국의 대 프랑스 수입이 러시아, 인도, 중국 다음으로 가장 크게 증가(23.7% 증가)한 것과 2008년 4개월 중 대불 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30.7% 증가한 데에 기인한다.

프랑스, 한국의 19대 수입 대상국

(단위: 천 달러, %)

순위		연도 국가명	2007		2008(1월~04월)	
2007	2008. 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1	총계	356,845,733	15.3	143,522,790	28.3
2	2	중국	63,027,802	29.8	25,094,385	28.4
3	3	일본	56,250,126	8.3	21,203,788	14.6
4	4	미국	37,219,301	10.6	12,937,229	6.2
5	5	사우디아라비아	21,163,501	3.0	9,672,246	59.1
8	6	아랍 에미리트 연합	12,656,189	-2.1	6,166,497	88.0
7	7	호주	13,232,471	17.0	5,019,402	17.9
6	8	독일	13,534,323	19.1	5,002,088	15.4
12	9	카타르	8,453,894	21.0	4,612,458	63.1
10	10	인도네시아	9,113,843	3.0	4,385,067	51.5
11	11	쿠웨이트	8,746,780	7.5	3,939,264	67.3
9	12	대만	9,966,531	7.3	3,786,536	19.7
13	13	말레이시아	8,442,225	16.6	3,629,704	15.4
15	14	싱가포르	6,859,677	16.5	2,902,722	33.1
14	15	러시아 연방	6,977,477	52.6	2,762,912	31.7
16	16	이란	6,481,826	28.4	2,371,733	45.0
17	17	인디아(인도)	4,624,421	27.0	2,038,189	41.7
20	18	오만	3,813,862	-25.6	1,898,913	33.6
19	19	프랑스	4,043,241	25.6	1,639,611	30.7
18	20	칠레	4,183,829	9.7	1,541,480	10.3
23	21	이탈리아	3,582,828	22.9	1,424,432	27.3
22	22	네덜란드	3,703,122	22.4	1,382,092	11.5
25	23	캐나다	3,254,474	5.3	1,376,904	29.5
21	24	태국	3,769,191	13.2	1,277,577	0.8
26	25	이라크	3,079,767	240.0	1,220,550	116.9
24	26	영국	3,580,764	20.3	1,117,161	2.0
27	27	브라질	2,793,711	3.2	1,116,018	55.1

자료: KOTIS

2) 한국의 유럽 내 9대 수출 시장

프랑스는 2007년까지 한국의 유럽 내 7대 수출국가였으나 2008년 4월 기준으로 9위를 기록했다(러시아연방 제외 시 8위). 이는 금년 4개월간 대불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20.46% 증가했음에도 대 벨기에 수출 증가율이 63.9%로 월등히 높아 프랑스 및 스페인을 제치고 7위로 2단계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 유럽 수출 대상국

(단위: 천 달러, %)

순위		연도 국가명	2007		2008(1월~04월)	
2007	2008. 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371,489,086	14.1	137,256,903	19.7
1	1	독일	11,542,529	14.8	4,091,614	11.5
2	2	러시아 연방	8,087,746	56.2	3,255,019	56.9
3	3	영국	6,870,038	21.9	2,043,405	-9
4	4	네덜란드	4,488,720	24.4	1,625,060	36.8
7	5	폴란드	3,508,775	34.3	1,443,268	40.8
5	6	이탈리아	4,151,400	-3.1	1,441,030	1.5
10	7	벨기에	2,581,561	18.1	1,395,972	63.9
6	8	스페인	3,924,790	12.8	1,225,894	-6.1
8	9	프랑스	3,478,204	1.8	1,220,644	20.4
9	10	슬로바키아	2,706,890	113.6	1,110,782	32.5

자료: KOTIS

3) 프랑스, 한국의 유럽 내 3대 수출 시장

프랑스는 최근 수년 동안 한국의 유럽 내 3대 수출국가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러시아 연방 제외 시 2위).

한국의 유럽 3대 수입 대상국

(단위: 천 달러, %)

순위		연도 국가명	2007		2008(1월~04월)	
2007	2008. 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356,845,733	15.3	143,522,790	28.3
1	1	독일	13,534,323	19.1	5,002,088	15.4
2	2	러시아 연방	6,977,477	52.6	2,762,912	31.7
3	3	프랑스	4,043,241	25.6	1,639,611	30.7
5	4	이탈리아	3,582,828	22.9	1,424,432	27.3
4	5	네덜란드	3,703,122	22.4	1,382,092	11.5
6	6	영국	3,580,764	20.3	1,117,161	2

자료: KOTIS

4) 2007년 대불(對佛) 무역 동향

- 한국 무역협회(KITA) 수출입 통계에 의하면, 對佛 무역수지는 2004-2006년 흑자에서 2007년 적자(5억 6,500만 달러)로 반전했다.
- 대불 무역수지, 2001년보다 더 악화하였다
 - 수출 증가 둔화(1.8%) 및 수입 급증(25.6%) 결과이다.
 - 무역역조 현상 발생: 대불 수출은 35억 달러를 넘지 못했고 수입은 40억 달러를 돌파했다.

한국 통계상의 최근 10년간 對佛 무역수지 현황

(단위: 천 달러, %)

연도	대불 수출		대불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1998	1,368,475	1.5	1,342,660	-24.4	25,815
1999	1,654,080	20.9	1,823,121	35.8	-169,041
2000	1,713,336	3.6	2,243,788	23.1	-530,453
2001	1,541,155	-10	2,092,316	-6.8	-551,161
2002	1,629,034	5.7	2,116,240	1.1	-487,207
2003	1,755,387	7.8	2,220,324	4.9	-464,937
2004	2,643,615	50.6	2,482,845	11.8	160,770
2005	3,172,313	20	2,758,994	11.1	413,319
2006	3,415,467	7.7	3,219,385	16.7	196,082
2007	3,478,204	1.8	4,043,241	25.6	-565,036

자료: 한국 무역협회(KITA)

5) 프랑스의 對韓 수출입(우회 수입 포함) 동향

- 2007년 프랑스가 오히려 對韓 무역 적자 기록
 - 2007년 대한 무역적자(9억 7,000만 유로) 규모는 2006년(13억 유로) 대비 25.4% 감소하였다.
 - 2007년 對韓 수입은 39억 7,200만 유로로 2006년 대비 5.4% 감소했으며 수출은 30억 400만 유로로 2006년 대비 4.2% 증가했다.
- 프랑스의 대한 수입실적이 한국의 대불 수출실적보다 월등히(56.4%) 큰 요인은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프랑스 관세청 통계에 EU 회원국을 경유하여 프랑스에 우회 수입된 한국 상품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연도별 韓-佛 무역수지 현황(유로화 기준)

(단위: %)

년도	구분	대불 수출		대불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7	한국통계(백만 \$)	3,478	1.8	4,043	25.6	-565
	EUROSTAT(백만 유로)	2,702	-12.1	2,991	4.1	-289
	프랑스통계(백만 유로)	3,972	-5.4	3,004	4.2	971
2006	한국통계(백만 \$)	3,415	7.7	3,219	16.7	196
	EUROSTAT(백만 유로)	3,073		2,874		199
	프랑스통계(백만 유로)	4,198	14.9	2,882	21.1	1,315
2005	한국통계(백만 \$)	3,172	20	2,759	11.1	413
	EUROSTAT(백만 유로)	2,768	-	2,393	-	375
	프랑스통계(백만 유로)	3,653	-	2,380	-	1,255

자료: 프랑스 관세청, 한국 무역협회(KITA) 및 EUROSTAT

- 유로화를 미 달러화로 환산했을 경우, 2007년 對韓 무역적자(13억 3,100만 달러)는 2006년의 것(16억 5,200만 달러)에 비해 19.4% 감소하여 유로화 기준시 감소율(25.4%) 보다 낮은 셈이다.

최근 연도별 韓-佛 무역수지 현황 (달러화로 환산 후)

(단위: 백만 달러, %)

년도	구분	대불 수출		대불 수입		수지	평균 환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유로: 달러
2007	한국통계	3,478	1.8	4,043	25.6	-565	
	EUROSTAT	3,703	-4.0	4,099	13.6	-396	1.3705
	프랑스통계	5,444	3.2	4,118	13.8	1,331	1.3705
2006	한국통계	3,415	7.7	3,219	16.7	196	
	EUROSTAT	3,858	17.6	3,609	27.2	250	1.2556
	프랑스통계	5,271	21.7	3,619	28.2	1,652	1.2556
2005	한국통계	3,172	20	2,759	11.1	413	
	EUROSTAT	3,282		2,837		445	1.18561
	프랑스통계	4,331		2,822		1,488	1.18561

자료: 프랑스 관세청, 한국 무역협회(KITA) 및 EUROSTAT

6) 프랑스의 한국상품 우회 수입 동향

프랑스 관세청의 對韓 수입통계와 한국 무역협회의 對佛 수출통계 간의 격차 즉, 프랑스의 한국상품 우회수입 실적은 2005년 36.5%(11억 6,000만 달러)에서 2006년 54.3%(18억 6,000만 달러) 및 2007년 56.5%(19억 7,000만 달러)로 계속 증가하였다.

(단위: 백만 달러)

년도	구분	대불 수출		대불 수입		수지	
		금액	차액	금액	차액	금액	격차
2007	한국통계	3,478	56.5%	4,043	1.8%	-565	1,896
	프랑스통계	5,444	1,966	4,118	75	1,331	
2006	한국통계	3,415	54.3%	3,219	12.4%	196	1,456
	프랑스통계	5,271	1,856	3,619	400	1,652	
2005	한국통계	3,172	36.5%	2,759	2.3%	413	1,075
	프랑스통계	4,331	1,159	2,822	63	1,488	

자료: 프랑스 관세청, 한국 무역협회(KITA) 및 EUROSTAT

한국의 FOB 수출가격 및 프랑스의 CIF 수입가격 기준에 따르는 격차 폭(약 6%)과 운송 기간(선편 45일 및 항공편 7일: 평균 1개월)으로 인한 수입통계 오차를 감안할 경우, 동 격차 (우회 수입) 규모는 약 20% 감소한 16억 3,000만 불을 상회하였다.

2007년도 한-불 무역통계 격차 비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HS 코드	통계 기준 구분	2007년 1-12월 누계			한국 06.11-07.11 누계			비고	
		프랑스	한국	차액	프랑스	한국	차액		
		CIF	FOB		FOB	FOB			
85	전기기와 부분품	3,059.3	1,682.2	1,377.1	2,875.8	1,667.3	1,208.5	EU 회원국을 경유하여 프랑스로 우회 수입된 한국 상품이 대다수. 특히, 85류 (전기기기), 84류(보일러, 기계), 87류 (철도 차량)의 경우 동 비중이 상당히 높음.	
84	원자로, 보일러, 기계류 및 동부분품	584.8	236.6	348.2	549.7	235.9	313.8		
87	자동차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905.6	733.8	171.9	851.3	757.7	93.6		
29	유기화학품	64.9	21.7	43.2	61	21	40		
72	철강	47.1	18.2	28.9	44.3	17.8	26.5		
61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 의류와 동부품	72.6	49.5	23.1	68.2	49.6	18.6		
39	플라스틱 및 동제품	90	67.4	22.6	84.6	68.5	16.1		
38	화학공업생산물	36.6	21.7	14.9	34.4	21.6	12.9		
62	의류와 동 부속품 (메리야스 및 뜨개 질 편물의 것 제외)	10.7	1.8	8.9	10.1	1.8	8.3		
73	철강 제품	25.4	17.4	8.1	23.9	16.5	7.5		
71	진주, 귀석, 반귀석,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 모조 신변 장식 용품, 주화	19.6	10.9	8.8	18.5	11.6	6.8		
27	광물성 연료, 광물유, 동종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12	5.3	6.6	11.2	4.5	6.7		
40	고무와 동제품	71.2	62.4	8.8	67	61.4	5.6		
70	유리와 유리제품	8.3	2.5	5.8	7.8	2.5	5.3		
60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67.6	56.6	10.9	63.5	59.6	3.9		
54	인조 장섬유	32.3	30.4	1.9	30.4	29.4	0.9		
88	항공기와 우주선 및 동 부분품	51.6	52	-0.4	48.5	51.1	-2.6		90류(각종기기) 의 경우 프랑스를 경유하여 타국 으로 우회수출된 한국상품 비중이 큼(80%)
89	선박과 수상구조물	41.1	41.9	-0.8	38.6	41.9	-3.3		
82	비 금속제 공구, 도구, 칼붙이, 스펀과 포크 및 동부분품	27.3	33.7	-6.3	25.7	33.2	-7.5		
59	침투, 도포, 피복, 적층한 방직물, 섬유직물,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제품	7.3	16.9	-9.5	6.9	16.7	-9.8		
90	각종기기(광학, 사진, 영화, 측정, 검사, 정밀, 의료) 및 동부분품과 부속품	52.2	221	-168.8	49.1	220.5	-171.4		
소 계		5,287.8	3,383.8	1,904.0	4,970.5	3,390.0	1,580.5		
총 계		5,444.0	3,478.2	1,965.8	5,117.3	3,483.6	1,633.7	프랑스의 우회 수입 한국상품 비중이 대불 수출의 47%	

자료: 프랑스 관세청 수입통계, 한국무역협회 수출통계 및 무역관 자체분석

7) 프랑스의 주요 품목별 對韓 수입 동향

- 편중된 對佛 수출 구조, 프랑스와 대조적
 - 2007년도 프랑스의 對 한국 15대 수입품목 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94%로 對 한국 15대 수출품목 군이 차지하는 비중(56.8%)에 비해 월등히 높다.
- 對韓 수입 대폭 감소 품목
 - 선박: 39,700만 유로 → 2,990만 유로(- 92.4%)
 - 광물성연료, 광물유 및 왁스: 3,000만 유로 → 870만 유로(-71.1%)
 - 각종기기(90류): 6,380만 유로 → 3,800만 유로(-40.3%).

- 對韓 수입 주종 품목 중 크게 증가한 품목
 - 유기화학 물: 1,800만 유로 → 4,700만 유로(161.4%)
 - 철강: 1,360만 유로 → 3,440만 유로(152.85%)
 - 락, 검, 수지, 식물성 엑스: 20만 유로 → 170만 유로(645.3%)
 -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무척추동물: 80만 유로 → 250만 유로(222.2%).
- 對韓 수입 주종 품목 중 소폭 증가한 품목
 - 유,무선 전화기 등이 포함된 전기기기(85류): 증가율 5% 및 증가 금액은 1억 400만 유로에 달함(21억 2,650만 유로 → 22억 3,230만 유로).
- 1천만 유로 이상 증가한 품목
 -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4억 700만 유로 → 4억 2,600만 유로, 4.7%),
 - 메리야스편물과 뜨개질편물(3,500만 유로 → 4,900만 유로, 39%)
 - 철도 차량(6억 4,500만 유로 → 6억 6,100만 유로, 2.3%).
- 2년 연속 증가한 품목
 -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225% 및 222%)
 - 유기 화학품(26% 및 161%)
 - 동과 그 제품(20.9% 및 61.5%)
 - 철강 제품(40.4% 및 33%)
 - 고무와 그 제품(17% 및 13%).

프랑스의 최근 연도별 및 주요 품목별 對 한국 수입 현황

(단위: 백만 유로, %)

HS 코드	품 목 군 명	2005	2006	증감률	2007	구성비	증감률
	수 입(對 한국) 총 계	3,653.2	4,197.7	14.9	3,972.2	100.0	-5.4
29류	유기화학품	14.4	18.1	26.2	47.4	1.2	161.4
72류	철강	16.7	13.6	-18.7	34.4	0.9	152.8
60류	메리야스편물과 뜨개질 편물	43.3	35.5	-18.1	49.3	1.2	39
73류	철강의 제품	9.9	14	40.4	18.6	0.5	33
40류	고무와 그 제품	39.3	46	17	52	1.3	13
39류	플라스틱 및 그 제품	61.9	59.4	-3.9	65.7	1.7	10.5
86류	전기기와 그 부분품	1,880.10	2,126.50	13.1	2,232.30	56.2	5
84류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동 부분품	386.5	407.4	5.4	426.7	10.7	4.7
87류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567.7	645.9	13.8	660.8	16.6	2.3
61류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	58.6	66.1	12.8	53	1.3	-19.9
90류	광학, 사진, 영화, 측정, 검사, 정밀 및 의료용 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및 부속품	58.9	63.8	8.3	38.1	1.0	-40.3
62류	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의 것 제외)	14.9	19.1	28.6	7.8	0.2	-59.1
70류	유리와 유리제품	17.3	19.3	11.8	6.1	0.2	-68.7
27류	광물성연료, 광물유,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18.8	30.1	60.3	8.7	0.2	-71.1
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213.9	397.1	85.7	30	0.8	-92.4
	소 계(상기 15개 품목 군)	3402.2	3961.9	16.5	3730.9	93.9	-5.8

자료: 프랑스 관세청 수입통계

8) 프랑스의 주요 품목별 對韓 수출 동향

- 프랑스의 對韓 수출 편중도(57%)는 한국의 대불 수출 편중도(94%)에 비해 현저히 낮다.
 - 프랑스의 對 한국 15대 수출품목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56.8%로 對 한국 15대 수입 품목군이 차지하는 비중(93.9%)에 비해 월등히 낮다.
- 프랑스의 對 한국 수출 품목 중, 항공기 및 우주선(369백만 유로 → 18,700만 유로, -49.2%) 및 의약품(21,100만 유로 → 16,000만 유로, -24.1%)이 대폭 감소하였다.
- 한편, 예술품(500만 유로 → 1,150만 유로)은 한국의 그림투자 붐으로 2배 이상(126%) 증가했으며 도자제품, 철도차량(부품), 자동차(부품) 및 포도주 등 주류도 높은 증가율 기록하였다.
- 또한 동, 니켈, 철강, 화학품, 고무 및 보일러와 기계류(펌프, 밸브 등 부품 포함) 등 산업재 수출도 크게 증가하였다.

프랑스의 최근 연도별 및 주요 품목별 對 한국 수출 현황

(단위: 백만 유로, %)

HS 코드	품목명	2005	2006	증감률	2007	구성비	증감률
	수출(對 한국) 총계	2,380.0	2,882.4	21.1	3,004.5	100	4.2
97류	예술품, 수집품과 골동품	1.7	5.1	193.7	11.5	0.4	126
69류	도자제품	7.3	7.7	5	13.7	0.5	79
86류	철도용 기관차량 및 부품, 철도나 궤도용 장비품 및 부품	13.5	7.5	-44.3	12.3	0.4	64.1
74류	동과 그 제품	8.2	30.9	275.3	49.1	1.6	58.6
75류	니켈과 그 제품	12.1	13.8	14	21.7	0.7	56.9
72류	철강	83.3	108.8	30.5	157	5.2	44.3
28류	무기화학품, 귀금속. 토류금속. 방사성 원소. 동위원소의 유기. 무기 화합물	28.4	62.2	118.8	89.3	3	43.7
29류	유기화학품	64.7	59.2	-8.5	79.7	2.7	34.5
87류	자동차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35.4	90.8	156.9	119.7	4	31.7
22류	음료, 알코올, 식초	43.9	50.4	14.8	66.3	2.2	31.5
40류	고무와 그 제품	33.5	36.2	7.9	46.1	1.5	27.4
84류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456.4	512	12.2	643.1	21.4	25.6
73류	철강의 제품	40.1	41.3	2.9	50.2	1.7	21.6
30류	의약품	117	211.1	80.5	160.2	5.3	-24.1
88류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309.3	368.8	19.2	187.3	6.2	-49.2
	소계(상기 15개 품목 군)	1254.8	1605.8	28	1707.2	56.8	6.3

자료: 프랑스 관세청 수출통계

- 한-불 무역규모는,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의하면, 2001년 8.2% 감소한 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75억 2,145만 불에 달했는데 특히, 지난 해 프랑스의 대한 수출은 1999년(35.8%)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25.6%)을 보였다.

- 이에 비하여 한국의 대불 수출은 1998년(1.5%) 및 2001년(-10%) 다음으로 가장 저조한 증가율을 기록했다.
- 2007년도 한국의 대불 무역수지가 4년 만에 다시 적자로 반전한 주 요인 중의 하나인 한국의 대불 직접 수출 부진은 선박 대불 수출이 급감한 것 외에도 2007년 대불 수출 규모의 56.4%에 해당하는 약 20억 불 상당의 한국 상품이 벨기에 등 EU 회원국을 경유하여 프랑스로 우회 수입 증가됨에 따라 대불 직접 수출이 그 만큼 둔화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 규제 제도

수입의 급격한 증가 또는 덤핑 등 불공정한 교역 행위로 인하여 EU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조사 결과 판단될 때 EU 당국은 산업 피해 구제 조치로서 EU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관세부과, 상계관세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입규제 조치는 각 회원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독단적으로 취할 수 없고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기초하여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1) 반덤핑

수출국의 기업이 덤핑가격으로 수출하여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EU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입규제조치이다.

EU집행위는 EU기업으로부터 어떤 일정 수출국 기업이 덤핑 수출을 하고 있어 EU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제소를 받으면 반덤핑 규정(384/96/ec)에 의거, 조사 후 반덤핑 조치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한다.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좌우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덤핑 존재: 해당 수출국(제 3 역외국) 기업의 EU 수출가가 자국 내수 가격보다 낮을 때
- EU 산업에 피해 존재: 덤핑 수입으로 EU역내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음이 입증될 때(EU역내 산업이 시장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
- EU연합의 전반적 이익: 반덤핑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 EU집행위는 석탄과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또는 확정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나 석탄과 철강제품 이외 상품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의해 확정 반덤핑관세 부과가 결정된다.
- EU집행위는 덤핑제소 접수 일부터 45일 내에 사전조사, 공식 조사를 개시할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제소업체(들)의 생산이 EU 총 생산의 25% 미만일 경우에 공식 조사가 거절된다.

2) 반 보조금(Anti-subsidy) 및 상계관세

보조금에 대한 국제적 규율은 보조금과 상계 조치에 대한 WTO의 협정에 의해 상당히 강화되었다. EU는 WTO의 협정 내용을 EU 보조금 규정에 통합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수출 보조금을 받고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반 보조금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EU 규정은 EU 역외국 정부의 수출보조금을 받고 EU에 수출되는 상품에만 적용되고 해당 제품에 상계 관세가 부과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 수출보조금 또는 한 일정 산업, 일정 기업에 한정된 보조금
- EU산업에 물질적 피해(material injury) 초래: 수출보조금을 받고 싼 가격으로 들어온 수입 제품으로 인해 EU역내 산업이 시장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
- EU연합의 전반적 이익: 반덤핑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 반덤핑 액션과 마찬가지로 집행위가 조사하고 잠정 조치를 취하나 최종 조치는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다. 제소와 조사 절차는 반덤핑 액션과 유사하다.

3) 세이프가드

EU 수입제도는 자유 수입을 일반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세이프 가드 조치를 취하는데 예외적 경우란 급작스러운 대폭의 수입 증가의 경우로 EU역내 산업과 기업, EU 공익에 위협적인 요인이 될 때를 의미한다. EU집행위는 회원국으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하고 case-by-case 형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처럼 기업이 직접 세이프가드 조치의 도입을 요청할 수 없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WTO의 세이프 가드조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세이프 가드 조치로는 수입쿼터로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조치와 감시조치가 있는데 감시(surveillance) 조치는 엄격한 의미에서 수입 제한 조치가 아니다. 다만 해당 제품의 수입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수입 라이선스가 요구된다. 현재 중국산 신발, 주방용품, 세라믹제품에 수입쿼터 조치가 적용되고 감시제도는 일부 국가의 철강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나. 수입 쿼터 제도

EU는 원칙적으로 수입 쿼터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WTO 협정 내에서 2004년까지 일부 섬유제품에 대해 쿼터 제도가 적용되었으나 2005년 1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전면 폐지 되었다. 그러나 섬유쿼터제도 폐지 이후 중국산 섬유제품과 신발이 대량 수입되어 EU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업계 및 EU 회원국 정부의 압력으로 EU당국은 중국산 일부 섬유 제품과 신발류에 대해 긴급 수입제한 조치(세이프 가드)를 취하여 섬유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물량을 제한하고 있는 한편 신발류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 교역관련 주요법규

프랑스는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서 EU의 통상법규를 따른다. EU통상정책의 실제 수단은 공동관세, 산업피해구제조치(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와 더불어 제 3국의 무역장벽 및 시장접근 정도에 관한 조사, 분석을 기초로 대외통상교섭과 협정체결 등인데 다자 또는 양자간 협의를 통해 통상 조치의 결정을 내리기도 하지만 일방적인 조치를 통해 이행하기도 한다.

1) 원산지 규정

원산지 규칙은 기타 통상조치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원산지 표기 요건 및 여타 차별적인 수량 제한 또는 관세쿼터 등과 같은 무역정책 수단으로 사용된다.

EU 원산지 규정의 기초법: 1992년 10월 12일 자 이사회 규정 2913/92

2) EU 공동관세

프랑스는 EU회원국으로서 EU 공동 관세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68년부터 여타 EU회원국과 동일한 EU 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EU의 주요 관세 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가입국 뿐 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관세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쌍무특혜 관세 조치를 취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의 감면, 면제 등 관세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또한 EU연합의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민감성에 따라 제품의 관세율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EU산업을 완제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하나 EU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자재 또는 반제품 등에는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를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면제한다.

- 관세율: 관세는 EU가 정하여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 표에 의하여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한다.
-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 방식인 HS (Harmoni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 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농업정책에 의한 농업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 표를 EU 관보를 통해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가격의 변화에 대하여 일정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을 설정 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증가세를 부과하는 선택관세(Alternative Tariff)가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고 수입부과금(Import Levy)을 부여한다.

- EU 관세율은 EU 집행위 관세(CUSTOM) 사이트(TARIC)에서 참조할 수 있다.
- 해당 인터넷 사이트 주소: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en/tarhom.htm

3) 수출입 관련 규정

EU 수입규정(Regulation 3285/94)은 EU로 수입되는 물품에 공동 적용되는 규정으로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수량제한을 금지하고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제한적인 시장 접근을 보장한다. 단, 수입상품이 EU산업에 심각한 손실을 끼치는 것을 예방 또는 치유하는 조치로 절차 규정에 의거,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 조치 등을 취한다.

수출도 마찬가지로 수출규정(Regulation 2063/69)에 의거, 개인과 기업은 특별한 제한 없이 석유와 가스를 제외한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을 수량제한 없이 제 3국에 수출할 수 있다. 단, 수출로 인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상품이 결여될 위험성이 있거나 회원국의 공익상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상황에서 집행위는 회원국의 요청이나 독자적인 결정으로 수출허가제도를 취할 수 있다.

4) 통상장벽 규정

통상장벽 해소를 위해 별도의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주로 WTO제소 또는 WTO 협정에 따른 보복조치(양허 철회, 중지, 관세인상, 수량규제 도입 등)를 취한다.

5) 산업 피해 구제 조치

산업 피해 구제 조치는 수입의 급격한 증가 또는 불공정한 교역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될 때 EU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로서 주로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관세부과, 상계관세부과 등을 의미한다.

상기와 같은 통상법규 이외에도 환경분야의 각종 규정과 산업분야에 있어서 각종 공업규격과 기술표준 인증제도, 안전규정(CE마킹), 상품 관련 제조자의 책임제 등이 프랑스를 비롯 하여 EU 시장을 접근하는데 기술장벽이 되고 있다.

4. 대한수입규제 동향

2008년 9월 19일 기준 EU로부터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제품은 5개 품목이며, 그 외 2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받고 있다.

구분	조치 유형	대상 품목
규제 중	반덤핑 관세	폴리에스테르단섬유(PSF), PET 칩, 양문형 냉장고, 실리콘(우회덤핑관세), 철강제 관연결구류
조사 중	반덤핑 관세	스텐레스스틸 냉연강판(신규조사), 철강제관연결구류(만기재심),

5. 관세제도

가. 일반 제도

프랑스는 EU 창설 회원국으로서 EU 관세제도를 따르고 있다. 지난 1968년 EU 공동 관세제도의 도입 이후 EU 공동 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EU의 관세 부과 원칙에 따라 WTO가입국 및 비가입국에 대해 협정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EU와 관세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쌍무 특혜 관세 조치를 공동으로 취하고 있으며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관세의 감면, 면제 등 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EU의 관세율 부과 근거는 EU 연합 또는 특정 회원국의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고저에 따라 상품별 관세율이 매년 결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일 예로 산업용 원자재 또는 반제품 등에는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관세를 일시 또는 영구 면제한다.

EU 집행 위에서 매년 공표하는 EU 공동 관세율 표를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세가 적용되고 있으나 석탄, 농산물(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국제 가격의 변화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카펫 및 일부 시계 등에는 종량세로 상, 하한 관세를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관세가 적용된다. 또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가 적용된다. 그리고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 외에 수입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EU국가 수입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EU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 http://europa.eu.int/comm/taxation_customs/ 접속 후 databases 를 클릭
- 다시 taric 메뉴를 클릭
- code taric 은 상품코드를 입력 해당관세율을 확인
- designation traic 은 키워드를 입력 해당관세율을 확인

나. 통관 시 적용되는 규정

1) 상품 분류 번호

관세품목 분류방식은 1988년 1월부터 관세협력 이사회가 편집하여 국제협정에 따라 채용된 HS 분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8단위 HS CODE로 분류되어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10자리 내지 12자리까지 세분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한국의 HS 코드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앞에서부터 6자리까지는 대부분 동일하나 7번째 자리부터는 한국의 코드와 다른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확인을 요한다.

2)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그 역할이 중요하다. 프랑스는 EU의 원산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는 관세율을 결정하는 기초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쿼터 또는 실링) 조치, 최악의 경우에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 조치 적용의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3) 관세 부과 가액

상품의 실질 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을 포함한 총체 가격에 부과되기도 한다.

통관 시, 수입업체는 관세 외에도 부가가치세(일반 공산품 19.6% 및 필수 식료품 5.5%)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및 동 제품 등)의 경우에는 특소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지재권 보호를 목적으로 1986년부터 신설 부과해오고 있는 일반 소비자용 오디오 및 비디오 메모리 매체에 대한 부과세가 수입업체(및 현지 생산업체)에 부과되고 있다. 해마다 신규 메모리 상품이 출시될 때 마다 추가로 적용되고 있는 지재권 보호 부과세율은 다음과 같다.

□ 프랑스의 저작권 보호용 부과세 현황(2008년 적용 세율 기준)

오디오 및 비디오 겸용 메모리 및 하드 디스크

오디오 및 비디오 디지털 녹음 및 녹화용 워크맨 및 가정용 전자제품에 장착된 메모리 및 하드디스크		비디오 디지털 녹화용 TV(디코더 포함) 및 워크맨에 장착된 메모리 및 하드디스크	
과세율(유로)	녹음 용량(Gb)	과세율(유로)	녹음 용량(Gb)
5	1 까지	10	40 까지
6	1~5		
7	5~10		
8	10~20		
10	20~40		
15	40~80	15	40~80
20	80~120	20	80~120
25	120~160	25	120~160
35	160~250	35	160~250
45	250~400	45	250~400
50	400~560	50	400~560

자료: 프랑스 관보(JOURNAL OFFICIEL DE LA REPUBLIQUE FRANCAISE) 2006.09.13.

오디오용 메모리 및 하드 디스크

오디오 재생용 워크맨 및 가정용 전자제품에 장착된 메모리 및 하드 디스크	
과세율(유로)	녹음 용량(Mb 및 Gb)
1	128 까지
2	128~256
3	256~384
4	384~512
5	512~1
8	1~5
10	5~10
12	10~15
15	15~20
20	20~40

자료: 프랑스 관보(JOURNAL OFFICIEL DE LA REPUBLIQUE FRANCAISE) 2005.12.02.

- 2001년 12월 6일부 시행 후 2005년 6월 6일, 2006년 7월 20일 및 2007년 7월 9일 지보위의 결정에 따라 지보세가 3번째 인하된 상품들
- DVD Ram, DVD-R 및 DVD-RW: 21.27 유로/100Gb, 3.5 인치 디스켓: 0.015 유로/1.44 Mb.

메모리 카드, USB 키, 외장형 저장 매체

(단위: 유로/Gb)

메모리 카드		USB 키		외장형 저장 디스크(PC 용)	
과세율	녹음 용량	과세율	녹음 용량	과세율	녹음 용량
0.144	~ 512 Mb	0.300	~ 512 Mb	0.0597	~ 80 Gb
0.090	~ 2 Gb	0.225	~ 1 Gb	0.0507	~ 120 Gb
0.072	~ 5 Gb	0.180	~ 2 Gb	0.0403	~ 160 Gb
0.062	~ 10 Gb	0.144	~ 5 Gb	0.0333	~ 200 Gb
0.059	~ 16 Gb	0.130	~ 10 Gb	0.0272	~ 320 Gb
-	-	0.125	~ 16 Gb	0.0237	~ 400 Gb
-	-	-	-	0.0200	~ 1000 Gb

자료: 프랑스 관보(JOURNAL OFFICIEL DE LA REPUBLIQUE FRANCAISE) 2007.07.09.

외장형 멀티미디어 저장 디스크

(단위: 유로)

OUTPUT 만 장착되어 있어 PC 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OUTPUT 및 INPUT 이 장착되어 있어 독자적으로 녹음 및 녹화가 가능한 것	
과세율	녹음 용량	과세율	녹음 용량
7	~ 80 Gb	5	~ 1 Gb
10	~ 120 Gb	6	~ 5 Gb
12	~ 160 Gb	7	~ 10 Gb
15.50	~ 250 Gb	8	~ 20 Gb
20	~ 400 Gb	10	~ 40 Gb
23	~ 560 Gb	15	~ 80 Gb
-	-	20	~ 120 Gb
-	-	25	~ 160 Gb
-	-	35	~ 250 Gb
-	-	45	~ 400 Gb
-	-	50	~ 560 Gb

자료: 프랑스 관보(JOURNAL OFFICIEL DE LA REPUBLIQUE FRANCAISE) 2008.01.19.

휴대폰

(단위: 유로)

전화 및 워크맨 기능을 겸비한 이동기기에 장착된 오디오 시청용 메모리 및 하드디스크		전화 및 워크맨 기능을 겸비한 이동기기(스마트폰)에 장착된 오디오 및 비디오 겸용 메모리 및 하드디스크	
과세율	녹음 용량	과세율	녹음 용량
1	~ 128 Mb	5	~ 1 Gb
2	~ 256 Mb	6	~ 5 Gb
3	~ 384 Mb	7	~ 10 Gb
4	~ 512 Mb	8	~ 20 Gb
5	~ 1 Gb	10	~ 40 Gb
8	~ 5 Gb	15	~ 80 Gb
10	~ 10 Gb	25	~ 160 Gb
12	~ 15 Gb	35	~ 250 Gb
15	~ 20 Gb	45	~ 400 Gb
20	~ 40 Gb	50	~ 560 Gb

자료: 프랑스 관보(JOURNAL OFFICIEL DE LA REPUBLIQUE FRANCAISE) 2008.04.03.

6. 주요인증제도

가. CE Mark

유럽 내에서 제품을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이 해당 EU 규정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한 후 이를 입증하는 CE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여야만 한다. 이 선언은 제조업자 스스로가 하거나 혹은 해당 통지기관 (인증기관, notified body)의 적합성 테스트(conformity assessment operation)를 통해 이루어진다. CE Mark는 제품의 안전과 사용자의 건강,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EU규정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표시이며 EU에서 제품을 자유롭게 유통시키는 것을 가능케 하는 ‘증명서(비자)’라고 할 수 있다. CE는 불어로 Communauté Européenne의 약자로 유럽 공동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CE Mark제도 의의는 아래와 같다.

- EU 역내 제품에 대한 최소 요구사항 통일
- EU내 물품이동 장애요소 제거
- EU 규정에 의한 국가간의 상이한 규정 대치
- 각국간의 테스트 인증서 인정

단, CE Mark는 품질에 대한 보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조건 등을 준수한다는 의미이다.

27개 EU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EFTA국가에 수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22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킹 지침(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 부착해야 한다.

CE 마킹 대상품목 및 규정 지침

품목	규정 지침
가스기기(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90/396/EEC
사람수송용 케이블(Cableway Installation to Carry Persons)	2000/9/EC
저압 전기 기기(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73/23/EEC
건설자재(Construction Products)	89/106/EEC
폭발용 기기 및 보호제품(Equipment and Protective System for used in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	94/9/EC
민간용 폭발물(Explosives for Civil Uses)	93/15/EEC
온수보일러(Hot Water Boiler)	92/42/EEC
가전 냉장냉동고(Household Refrigerators & Freezers)	96/57/EC(에너지효율지침)
승강기(Lift)	95/16/EC
기계(Machinery)	98/37/EC
선박(Marine Equipment)	96/98/EC
의료기기(Medical Devices)	93/42/EEC
의료용 임플란트(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90/385/EEC
시험관 치료용 기기(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98/79/EC
수동저울(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90/384/EEC
무선전신 및 통신 말단기기 (Radio Equipment &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99/5/EC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89/686/EEC
단순압력용기(Simple Pressure Vessels)	87/404/EEC
압력기기(Pressure Equipment)	97/23/EC
여가용 보트(Recreational Craft)	94/25/EC
장난감(Toys)	88/378/EEC
Trans-European Conventional Rail System	96/48/EC, 2001/16/EC

- 전자파적합성 지침(89/336/ EEC)
 - 모든 전자전기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 기준을 준수하고 CE 마킹을 획득해야 한다.
- 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
 - 85/374/eec(1999/34/EEC 수정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자 포함)는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일반제품 안전
 - 92/59/EEC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는 시판 상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환경규격
 - 2000/14/EC 지침에 의거하여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동 지침의 소음 발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대상품목

CE Mark에 해당하는 품목은 아래와 같다 (괄호 안은 EU 규정). 제품의 제조 및 특성상 EU 규정 요구 사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물건들은 유럽연합 내에서 판매/유통되기 전에 CE-마크가 부착되어야 한다.

- 50~100 볼트 전압을 사용하는 저전압 기기 (72/23/EEC)
- 프린터잉크 (87/404/EEC)
- 장난감 (88/378/EEC)
- 건축자재 (89/106/EEC)
- 전기/전자제품의 전자파 적합성 (89/336/EEC)
- 개인보호장비 (89/686/EEC)
- 비자동 저울 (90/384/EEC)
- 능동 삽입용 의료기기(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90/385/EEC, AIMD)
- 가스기기 (90/396/EEC)
- 유체 및 가스 연료 사용의 온수 보일러 (92/42/EEC)
- 민수용 폭약 (93/15/EEC)
- 의료기기 (93/42/EEC, MDD)
- 방폭제품 (equipment explosive atmospheres: 94/9/EC)
- 레크레이션 선박 (recreational craft directive: 94/25/EC)
- 승강기 (95/16/EC)
- 프린터 (97/23/EC)
- 산업용 기계류 (98/37/EC)
-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in vitro diagnostic product: 98/79/EC, IVDD)
- 무선기기와 텔레 커뮤니케이션 설비 (98/5/EC)
- 케이블카 (2000/9/EC)
- 측량기기 (2004/22/EC)

2) CE 마크 취득 절차

제조업자, 대리인 혹은 수입자는 아래와 같은 4단계를 통해 CE마크를 제품에 부착할 수 있다.

- 적합성 테스트 (conformity assessment) 실시
- 제조기술 파일 (technical constructional file) 제출
- 적합선언서 (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
- CE마크 부착

CE마크 취득을 위해 아래와 같은 8가지의 모듈 (module) 방식이 있다.

- 모듈 A (internal control of production)
 - 제조업자가 자신의 제품이 EU규정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자신의 책임 하에 스스로 선언한다. 선언 후 적합선언서를 작성하고 제품에 CE마크를 부착한다.
- 모듈 B (EC type-examination)
 - 유럽연합에서 인증하는 연구소(통지기관: notified body)는 형식 테스트(type examination)를 실행, 이를 확인한다. 그런 다음 적합선언서가 작성되고, CE Mark가 부착된다.
 - EU 국가별 통지 기관 리스트:
 - http://europa.eu.int/comm/enterprise/newapproach/legislation/nb/notified_bodies.htm
- 모듈 C (conformity to type)
 - EU형식 테스트 확인서를 취득한 뒤에 (모듈B) 제조업자가 제품이 확인서에 기재된 형식과 일치 한지 또는 EU규정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선언한다. 선언 후에 적합선언서가 작성되고, CE Mark가 부착된다.
- 모듈 D (production quality assurance)
 - 제조업자가 모듈B에 의거, 제조공정이 EU규정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제품 제조 시 수시로 품질시스템 심사 (예: EN/ISO 9002)가 실시된다. 그런 다음 적합선언서가 작성되고, CE Mark가 부착된다.
- 모듈 E (product quality assurance)
 - 제조업자가 품질시스템 심사 하에 (예: EN/ISO 9003) 제품을 생산하고, 모듈 B에 의거해서 제품이 EU 규정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확인한 후 적합선언서가 작성되고 CE Mark가 부착된다.
- 모듈 F (product verification)
 - 제조업자가 모듈B에 의거해서 생산된 제품이 EU규정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통지기관은 생산된 제품이 형식 테스트에서의 type과 일치함을 검사한다. 검사 후 적합선언서가 작성되고, CE Mark가 부착된다.
- 모듈 G (unit verification)
 - 통지기관이 모든 제품에 대해 적합성 테스트를 실시한다. 각 테스트마다 보고서가 작성된다. 테스트 후 적합선언서가 작성되고, CE Mark가 부착된다.

- 모듈 H (full quality assurance)
 - 제조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최소한EN/ISO 9001에 상응하는 품질시스템 검사를 실시한다. 추가적으로 이 시스템을 통지기관으로부터 감시하도록 한다. 제조업자는 자신 스스로의 책임 하에 제품이 EU규정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확인 후 적합선언서가 작성되고, CE Mark가 부착된다.

3) CE 마크 부착



- CE-마크는 제조업자 혹은 대리인이 부착하여야 한다.
- CE-마크는 오른쪽과 같은 마크로 도식되어야 한다.
- CE-마크의 확대 및 축소 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 CE-마크는 제품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읽을 수 있게 그리고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제품의 특성상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제품의 포장 및 사용설명서에 부착할 수 있다. 만약에 필요에 의해 통지기관이 검사를 실시했다면, 통지기관 인식번호 역시 CE-마크에 추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 인식번호의 표시에 대한 책임은 제조업자 또는 대리인에게 있다.

4) 통용 지역

CE-마크는 EU국가와 EFTA국가에서 통용된다. (EFTA국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그리고 노르웨이. 스위스는 EFTA 국가이지만, 유럽경제구역에 해당하는 국가가 아니므로 CE-마크 의무국가는 아니다.)

나. 에코 라벨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는 라벨로 현재까지 24개 품목군에 대하여 기준이 제정되어 있으며 4개 품목군에 대하여 기준 제정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32개 품목 군에 대하여 EU 집행위와 관련 업계 단체들이 에코라벨 기준 제정의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 기준 기 제정 품목
 - 세제: 일반 청소세제, 식기세척기 세제, 설거지세제, 세탁용 세제
 - 기기: 식기세척기, 전구, 휴대용 컴퓨터, PC, TV, 냉동고, 진공청소기, 세탁기
 - 종이제품: 복사용지, 화장지
 - 가정, 정원 용품: 침대 매트리스, hard floor coverings, 실내용 페인트 및 안료, 토양 개선제, 가정용 섬유제품
 - 의류: 신발, 섬유제품
 - 관광: 캠프장 및 서비스, 관광객 편의 시설 서비스
 - 유탄유: 유탄유
- 기준 제정 추진 품목: heat pump, 비누와 샴푸, 프린트용지, 가구

- 제정 가능성 검토 품목: 문구류, 벽지, 쓰레기봉투, 쇼핑백, 필기도구, 전화, 복사기, 소형 가정용 전기기기, 패션 액세서리, 장갑, 가죽제품, 스포츠 장비, 완구 및 게임, 포장지, DIY 제품, 에어컨류, 난방기기, 물 끓이는 시스템, 절연기, 건축부분품, 건축서비스, 소매서비스, 건조기, 금융서비스, 배달서비스, 자동차수리서비스, 자동차, 부속용품, 위생용품 등

다. 에너지 라벨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해야 하는 에너지라벨 대상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기-건조기 콤비, 식기세척기, 램프, 전기 오븐, 에어컨 등이다.

- GEEA(Group for Energy Efficient Appliances)
 -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국들이 운영하는 에너지 절약제품 보조 프로그램 마련하는 포럼이며 GEEA 규격에 적합한 제품은 GEEA의 에너지라벨을 사용할 수 있음.
 - 대상품목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배터리 충전기 등(19품목)
 - 정회원:
 - [France: The French Agency for Energy and the Environment \(Ademe\)](#)
 - [Switzerland: The 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SFOE\)](#)
 - [Denmark: The Danish Energy Authority \(DEA\)](#)
 - Netherlands: The Netherlands Agency for Energy and the Environment (SenterNOVEM)
 - [Germany: The German Energy Agency \(dena\)](#)
 - [Gemeinschaft Energielabel Deutschland \(GED\)](#)
 - 준회원:
 - [Sweden: The Swedish 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 \(STEM\)](#)
 - [Austria: The Austrian Energy Agency \(E.V.A.\)](#)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소비 효율에 따라 A~G까지 Energy효율 등급 라벨 표시 및 최저 효율 기준, 적용 에너지 효율 등급, 연간 에너지 소비량 등 표시 ○ 대상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벨 표시: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10품목) - 최저 효율: 냉장고, 냉동고, 냉동냉장고, 보일러, 안정기 등(5품목) ○ 시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위원회(EU Commission) ○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라벨링지침(Council directive/92/75/EEC,1992)
--	--	---

▶ GE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위스, 독일 등 유럽 9개국이 운영하는 대기 전력 감소를 위한 에너지 절약 제품 보급 프로그램이며 Energy 라벨 사용 ○ 대상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배터리충전기 등 (19품목)
▶ Energy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전력 절감형 제품을 보급하는 유럽의 대표적 프로그램 GEEA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같은 Energy 라벨 사용 ○ 대상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DVD 플레이어 등 (15품목) ○ 시행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위스 에너지부(SFOE: The 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 그 외의 인증제도

- CE-마크 획득 이후 프랑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따라 제품별 인증이 별도로 필요할 수도 있다. 필수인증이 아니어도 제품의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품질증명인증이나 환경 비오염 제품증명서 등 관련 제품에 도입된 규격 사양들을 조사, 획득하면 상품마케팅에 유리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도입, 적용되고 있는 인증 절차를 대리해 주는 회사를 고용,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프랑스 규격제도 위원회 AFNOR (Association Francaise de Normalisation)의 홈페이지 www.afnor.org에서 제품별로 프랑스에서 적용되는 규격 리스트를 확보 할 수 있다.
-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소비자의 위생,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제품들은 별도로 프랑스 건강, 의약품 보건소(AFSSAP: Agence Francais de Securite Sanitaire des Produits de Sante)의 기관으로부터 시장판매허가증, AMM (Autorisation de mise sur le marche)을 반드시 획득해야 한다.

라. EU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REACH)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는 화학물질의 양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신고, 허가, 제한하는 EU의 '新 화학물질 관리제도'이다.

EU에서 연간 1톤 이상¹⁾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연간 100톤 이상의 물질과 고위험성 물질(SVHC)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며, 특정 물질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일부 물질에 대해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1) REACH 개요

‘연간 1톤 이상’은 지난 3년간의 평균을 의미한다. REACH가 2007년 6월 1일 시행 되었으므로 2004~2006년의 평균이 1톤 이상이면 사전등록 대상이다. 예를 들어 화학 물질을 2004년에 300톤, 2005년에 400톤, 2006년에 500톤 수출했다면 2007년의 수출량은 400톤이 된다. 그러나 연간 1톤 이상은 EU 제조자나 수입자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수출량이 1톤이 안되더라도 수입자 입장에서 1톤이 넘을 수 있다.

REACH는 화학물질(Substance)을 관리하는 법이다. 그런데 화학물질로 구성되지 않은 물건은 없다. 따라서 농수산물 등 일부를 제외하면 EU로 수출하는 모든 품목이 REACH의 적용 범위에 해당된다.

REACH는 ①화학물질과 ②혼합물(Preparation)에 있는 화학물질, 그리고 ③완제품(Article)에서 의도적(Intended)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Unintended release)되는 화학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화학물질과 혼합물을 구성하는 각각의 화학물질, 그리고 완제품에서 의도적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별로 연간 1톤 이상이면 등록 대상이다.

완제품에서 CMR(발암물질, 돌연변이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의 고위험성 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이 비의도적으로 배출(Unintended release)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중량% 이상이고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Notification)를 해야 한다.

고분자(Polymer) 자체는 등록과 평가가 제외된다. 그러나 고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단량체 단위(monomeric unit) 및 화학적으로 결합된 물질이 2중량% 이상이고 연간 1톤 이상일 경우 등록을 해야 한다. 단, 상위공급자가 단량체를 등록한 경우 고분자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등록의무가 없다.

수송분리 중간체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제2조제8항). 중간체가 엄격히 관리되는 상태에서 다른 물질을 합성한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거나 사용자로부터 확인 받아야 한다(제18조). 단량체도 일종의 중간체이나 단량체는 중간체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제6조제2항).

- 다음 물질은 REACH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Council Directive 96/29/Euratom(1996년 5월 13일) 범위 내의 방사능 물질
 - 세관의 관리 하에 있는 물질자체 또는 혼합물이나 완제품내의 물질들로서, 어떠한 처리나 가공을 거치지 않고 일시적 저장 또는 재수출이나 경유를 위해 보세구역 또는 보세 창고에 있는 것.
 - 비분리 중간체(Non-isolated intermediate)
 - 철도, 도로, 내륙수로, 바다 또는 항공편으로 위험물질과 위험한 혼합물 내의 위험물질 운송

- 다음 물질에 대해서는 등록, 평가, 허가가 면제된다.
 - Regulation (ECC) No 726/2004의 범위 내에서 인간 또는 수의학적(veterinary) 용도를 위한 의약품(Medical products)
 - Council Directive 89/107/EEC(1988년 12월 21일)의 범위 내에 있는 식품용 식품첨가제
 - Commission Decision 1999/217/EC (1999년 2월 23일)의 범위 내에 있는 식품의 향료
 -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Regulation(EC) No 1831/2003(2003년 9월 22일)의 범위 내의 사료 첨가제
 - Council Directive 82/471/EEC(1982년 6월 30일)의 범위 내에 있는 동물 영양제
- 다음 물질에 대해서는 등록과 평가가 면제된다.
 - 고분자 물질
 - 최소의 위해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물질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알려져 있는 물질로, 부속서Ⅳ에 포함된 물질
 - 등록이 부적당하거나 또는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부속서 V에 해당되는 물질
 - EU에서 등록된 물질이 공급망 내에 수출되고 그 수출자 또는 동일 공급망 내의 다른 자로부터 EU 역내로 재수입되는 물질 자체 또는 혼합물 내의 물질:
- 다음 물질에 대해서는 등록된 것으로 간주한다.(15조)
 - 식물보호제품
 - 살생물제
 - Directive 67/548/EEC에 따라 신고된 물질(ELINCS 등재 물질): 이 경우에는 이전에 그 물질을 신고한 기업에만 해당되며, 화학물질청은 2008년 12월 1일까지 등록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 다음 물질에 대해서는 5년간 한시적으로 등록의무가 유예되며, 1회에 한하여 5년간 연장이 가능하다(제9조).
 - 제품 및 생산공정 R&D 용도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질

REACH에서 등록 의무자는 EU 제조자와 수입자이다. 우리 기업은 법률상 등록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EU 수입자가 등록을 회피하거나 우리 기업 입장에서 수입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EU 내 유일대리인을 선임하여 등록해야 한다. 특히, EU 수입자가 화학물질에 대해 잘 모를 경우에는 수입자와 상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등록주체를 결정해야 한다. 아래 그림의 왼쪽과 같이 수입자가 등록의무가 있으나, 등록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같은 물질을 제조하는 EU 내 제조자로부터 공급을 받는 경우 우리 기업은 수출 시장을 빼앗기게 된다.

2) 수입자가 등록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

EU로 직접 수출하지 않더라도 공급한 제품이 국내 또는 해외기업에서 원료 또는 부품으로 사용되어 EU로 수출되는 경우 구매 기업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공급한 품목(화학물질, 혼합물, 완제품)이 단순 판매상을 통해 수출되는 경우 유일대리인은 공급 업체에서 선임해야 한다.

REACH는 2006년 12월 18일 법이 최종 승인되어 발효되었으며,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존화학물질은 2008년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전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며 본 등록은 연간 톤수에 따라 결정된다. 본 등록은 사전등록을 한 경우에만 주어지며, 사전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바로 등록을 마쳐야 수출이 가능하다. 신규물질인 경우에는 2008년 6월 1일부터 바로 등록 절차가 진행된다.

3) 우리 기업의 대응 방법

우선 EU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각 품목이 화학물질인지, 혼합물 인지, 완제품인지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한다. EU로 수출하는 품목이 화학 물질인지, 혼합물인지, 완제품인지 구별하는 것이 REACH 대응의 첫 단계이다. 이러한 구분이 확실하지 않다면 REACH 기업지원센터(www.REACH.or.kr, 02-2183-1515)로 문의한다.

- 화학물질(Substance) 대응
 - 화학물질의 성분을 분석하여 명명하고 분류한다(기업지원센터 REACH 길라잡이 참조)
 - 등록 면제대상이나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는 물질인지 확인한다.
 - 대상 화학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인지 확인한다.
 - 대상 화학물질이 기존물질인지 신규물질인지 확인한다.
 - 기존물질인 경우 사전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신규물질인 경우 2008년 6월부터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 혼합물(Preparation) 대응
 - 혼합물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의 목록을 작성한다.
 - 혼합물의 각 화학물질 별로 '화학물질 대응 순서'에 따른다.
- 완제품(Article) 대응
 - 완제품을 구성하는 부품 목록을 작성한다.
 - 의도적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이 있는지 확인한다. 있을 경우에는 각 화학물질 별로 '화학물질 대응 순서'에 따른다.
 - 부품을 구매하는 경우 공급자에게 부품에 대한 물질정보를 요청한다.
 - 각 부품별로 고위험성 물질(SVHC)이 있는지 확인한다.
 - 고 위험성 물질이 있을 경우 완제품 대비 0.1중량% 이상이고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 절차를 따른다.

REACH에 대응하려면 컨설팅비, 유일대리인 선임 비용, 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비용은 제품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절히 대응한다면 지속적인 제품 수출이 가능하다.

7. 지적재산권

가. 개황

프랑스의 지적재산권보호 관련 법규는 발명특허법, 상표법, 의장법, 저작권법 등이 있으며, 1951년도에 설립된 프랑스 특허청(INPI; Institut National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에 의해 관장되고 있다.

나. 상표권

원칙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단어, 로고, 상징, 음성 등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 통상적으로 해당상품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
- 제품의 질을 표시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 예) 스웨터제품에 대한 상표로서 PURE LAINE 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
- 기존에 사용 중이거나 유사한 상표의 경우에는 상표 표기상의 유사성과 함께 발음상의 유사성 여부도 함께 고려되며, 실질적인 의미가 동일하여 제3자에게 혼돈을 가져다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불가
 - 예) BACARA 라는 상표가 있는 경우 BACCARA 상표 등록불가
- 상표등록의 당사자
 - 상표등록은 상표소유자가 직접 하거나 프랑스의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를 통해 이루어짐.
 - 변리사의 선정여부는 프랑스 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나 다음 두 가지의 경우 반드시 변리사의 이름으로 신청해야 함. (여러 사람의 공동 명의로 상표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프랑스에 거주하지 않거나 프랑스에서 설립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프랑스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프랑스에 등록된 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정)
- 상표심사 처리절차 및 소요기관
 - 상표의 등록은 프랑스 특허청이나 사업자등록소(Greffe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에 하도록 되어있으며 상표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한 상표에 문제가 없어 정상적으로 처리될 경우 3 개월 가량 소요됨

다. 의장권

프랑스의 의장권은 1909년 7월 14일에 제정된 의장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지난 79년 1월에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행 프랑스 의장법상 주요내용은

-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5년 (50년까지 연장 가능)
- 무심사주의 채택, 등록표시 불요, 위반에 대한 제재
 - 형사상: 최하 1개월에서 최고 6개월의 징역이나 12,000프랑의 벌금
 - 기 타: 위반행위 금지명령, 위조상품 및 생산장비 압수, 손해배상 및 판결내용 공고 조치

라. 특허권

특허를 등록할 수 있는 곳으로는 파리와 8개 대도시에 소재한 프랑스 특허청이다. 특허권 보장 기간은 20년이며 특허 분쟁 시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또한, 한국과 프랑스는 양국 모두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 가입국이므로, 프랑스에 특허등록을 희망할 경우 한국의 특허청을 통해 프랑스에서의 특허출원이 가능하다.

○ 특허 분쟁 시 처리방법

- 경쟁업체가 특허권을 취득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경쟁업체의 특허에 대한 악선전 또는 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특허를 출원한 경쟁업체의 직원을 빼앗아 오는 등의 불공정 경쟁행위 발생시 프랑스 상사재판소에서 이를 처리한다. 특허권 침해 시 1 차적으로 경범 재판소에서 형사범으로 취급되며, 경범재판소에서 유죄 판결 시, 최고 2 개월의 징역이 언도된다. 경범재판소의 판결 후 징역보다 벌금을 선호할 경우에는 상사 재판소(Tribunal de Commerce)로 이관시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과학적 이론, 수학적 방법, 예술적 창조, 도표, 지적 활동이나 경제분야에 있어서의 원칙론이나 방법론, 놀이(games), 소프트웨어, 정보제시 방법은 특허권에서 제외된다. 한편, 유럽 특허권 획득에 드는 비용은 특허 세, 번역, 대리인 비용 등을 포함하여 총 약 25,000달러의 비용이 든다.

마. 저작권

저작권은 작가가 보유하는 재산권과 윤리권(ethical right)을 의미한다.

재산권은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배타적으로 화폐적인 이익을 얻을 권리를 말하는데 이런 권리는 작가의 생존기간 동안, 작가 사후 50년간 상속인이 동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윤리권은 문학이나 예술적인 작품의 비 재정적인 이익을 모두 포함되고 생존기간 동안 양도할 수 없으며 영속적으로 작가와 그 상속인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다.

한편 프랑스는 지적소유권에 있어서도 EU의 지적재산권 규정을 따르고 있어 문화방면에 있어서 음반 50년, 서적, 영화 등은 70년간 저작권을 보호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유선 T.V 신청 시 시청료에 저작권 사용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음반, 공 카세트 테이프, 공 CD, 외장형 하드 디스크, MP3, 3G 휴대폰 판매 가격에도 저작권 사용비가 포함된다.

지재권 보호를 목적으로 1986년부터 신설 부과해오고 있는 일반 소비자용 오디오 및 비디오 메모리 매체에 대한 부과세가 수입업체(및 현지 생산업체)에 부과되고 있다. 해마다 신규 메모리 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추가로 적용되고 있는 지재권 보호 부과세율은 다음과 같다.

6. 통관/운송

가. 통관

수입물품의 통관 절차란 수입 신고를 받은 세관 당국은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이 부합한지 여부와 수입과 관련된 제방법 규정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여 외국물품을 내국 물품화 하는 절차다. 프랑스 수입 절차를 완료하여 수입된 외국물품(EU 역외국 물품을 의미)은 프랑스에서 출시 및 소비될 수 있는 동시에 여타 EU 시장으로 자유이동 될 수 있다.

수입신고는 수입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청에 등록된 관세사, 통관법인, 관세사법인의 명의로만 가능하다.

신고된 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프랑스 당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통관절차 흐름도

출항→입항→하선(보세운송 또는 타소 장치)→물품보세구역반입→장치 확인→수입 신고→
심사→물품 검사→수입 신고 관리→관세 등 제세납부

2) 구비서류

출시 및 소비(통관을 의미) 신고 때 수입상은 프랑스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유일한 신고서를
사용해야 한다.

수입신고서에는 반드시 상품의 해당 관세 분류 번호(TARIC CODE: EU 관세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 EU의 관세분류번호는 EU집행위 사이트에서 입수할 수 있음
- http://europa.eu.int/comm/taxation_customs/dds/en/ebticau...htm

수입신고서와 더불어 송장(invoice), 가격신고서(발송 당 물품 가치가 10,000 유로 이상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B/L(선화증권)부본 또는 AWB(항공화물운송장)부본, 수입 라이선스가
요구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 라이선스, 산 동물이나 고기 또는 육류 식품 등의 경우에는
검역증명서, 식물과 과일의 경우에는 식물병리학 증명서, 핵 제품과 폭발물의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또는 운송 허가증, 보호대상의 야생동물이나 식물의 경우에는 수입허가나
CITES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3) 물품검사

세관에서는 화물송장 등의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한다. 물품 검사는
일반적으로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 통제 구역인 부두,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하며
세관 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플랜트 설비, 정밀기기, 귀중품, 긴급수요물자,
door to door로 운반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세관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
검사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관세, 특별세(excise), 부가가치세(19.6%)는 통관 절차 때 지불한다. 대부분의
수입상들은 통관절차를 운송업체 내의 통관담당부서나 전문 통관 업체에게 위임하고 있다.

4) 통관 시 적용되는 규정

□ 상품분류 번호

- 모든 상품의 수출입 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프랑스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
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시 정확 한 상품 분류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 원산지 규정

-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프랑스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 관세부과가액

- 상품의 실질 거래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단, 인도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송장금액과는 별도로 관세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다.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한 것 들이다.
-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프랑스 경우 21%)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등)의 경우에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나. 운송

프랑스의 2대 국제 항구는 르 아브르 및 마르세이유이다.

1) 르 아브르(LE HAVRE) 항

프랑스 최대 컨테이너 운송항 및 유럽 5대 항

- 2006년도 운송 현황
 - 20피트 컨테이너 운송량: 213만 대(프랑스 전체의 60%)
 - 프랑스 원유 수입량의 40% 운송
 - 유럽 5대 화물 운송 항: 총 7,500만 톤(담보)
 - 2006년도 입항 선박 수: 6,180척
 - 여행객 수: 823,000명으로 전년비 9.6% 증가
- 주요 상품별 운송 동향
 - 총 운송량: 7,500만 톤(2005년도 수준 담보 상태)
 - 원유 및 정제된 석유제품 등 액체 상품 벌크 운송량은 4,760만 톤(전체의 64%)으로 전년비 1.6% 증가
 - 석탄(180만 톤) 등 고체 상품 벌크 운송량은 370만 톤(전체의 6%)
 - 기타 잡제품 운송량은 2,260만 톤(전체의 30%)으로 전년비 3.1% 감소

최근 연도별 및 화물별 운송 현황

(단위: 톤, 명, %)

구분	화물 별	2007.1-2	전년비 증감률	2006	전년비 증감률	2005	전년비 증감률	2004
유입	원유	5,717,201	-1.0	34,174,088	0.6	33,977,632	-8.0	36,922,616
	정제된 석유제품	892,507	22.2	5,425,258	-6.4	5,797,434	49.8	3,869,169
	LPG가스	88,043	-9.8	331,770	15.1	288,194	-13.3	332,249
	기타 액체(벌크)	109,666	51.9	611,810	-24.2	807,485	3.5	779,921
	동물 사료	0	-	101,788	-5.3	107,457	-21.2	136,347
	석탄	386,269	-1.7	1,729,085	-32.0	2,542,607	27.2	1,998,268
	시멘트	27,355	11.3	158,933	63.7	97,095	1.6	95,605
	기타 고체(벌크)	390,684	>100	1,194,003	-13.9	1,387,507	-9.2	1,527,787
	기타 잡제품	2,007,207	34.4	10,587,023	-0.6	10,653,885	-3.9	1,089,989
	(컨테이너)	1,894,391	36.7	9,949,981	1.7	9,781,336	-3.6	10,150,956
총 유입 량(톤)		9,618,932	10.4	54,313,760	-2.4	55,659,296	-1.9	56,751,948
유출입 물량	원유	0	-	0	-100	142,334	41.7	100,474
	정제된 석유제품	883,657	-2.4	6,144,442	20.7	5,091,688	2.9	4,947,341
	LPG가스	2,932	-84.7	101,586	-5.9	107,956	-0.4	108,360
	기타 액체(벌크)	130,009	13.9	718,382	17.4	611,979	-15.4	723,648
	곡물(벌크)	0	-	0	-	0	-	0
	동물 사료	0	-	0	-	0	-	0
	석탄	20,188	>100	87,334	-76.1	364,952	84.6	197,723
	시멘트	46,071	>100	293,413	1.0	290,419	-15.2	342,524
	기타 고체(벌크)	9,132	-63.4	112,344	92.8	58,256	-22.7	75,387
	기타 잡제품	2,122,776	17.7	12,126,610	-4.5	12,696,524	-1.8	2,927,857
(컨테이너)	1,966,296	20.7	11,131,988	-1.4	11,295,151	-1.0	11,409,432	
총 유출 량(톤)		3,214,765	11.1	19,584,112	1.1	19,364,108	-0.3	19,423,314
유출입 물동량		5,717,201	-1.0	34,174,088	0.2	34,119,964	-7.8	37,023,088
		1,776,164	8.6	11,569,700	6.3	10,889,122	23.5	8,816,510
		90,975	-22.2	433,356	9.4	396,150	-10.1	440,609
		239,675	28.6	1,330,192	-6.3	1,419,464	-5.6	1,503,569
		0	-	0	-	0	-	0
		0	-	101,788	-5.3	107,457	-21.2	136,347
		406,457	2.4	1,816,419	-37.5	2,907,559	32.4	2,195,991
		73,426	55.5	452,346	16.7	387,514	-11.6	438,129
		399,816	>100	1,306,347	-9.6	1,445,763	-9.8	1,603,174
		4,129,983	25.3	22,713,632	-2.7	23,350,408	-2.8	24,017,846
총 유출,입 물동량(톤)		2,833,697	10.5	73,897,872	-1.5	75,023,400	-1.5	76,175,264
식량 및 연료 보급		106,117	25.0	625,131	15.0	543,681	-0.8	548,235
전체 물동량(톤)		2,939,814	10.7	74,523,000	-1.4	75,567,080	-1.5	76,723,496
여행객 수		14,781	50.2	193,057	-53.1	412,036	10.4	373,337
		14,573	48.3	190,136	-53.7	411,040	8.9	377,472
전체 여행자 수		29,354	49.2	383,193	-53.4	823,076	9.6	750,809

자료: LE HAVRE 항만청

2) 마르세이유(MARSILLE) 항

□ 프랑스 최대 운송 항 및 유럽 4대 항

○ 2006년도 운송 현황

- 2006년 총 운송량: 1980년 이후 최초로 1억 톤 상회(전년비 3.6% 증가)

- 20피트 컨테이너 운송량: 941,000대(전년비 3.9% 증가)
- 항만청 매출액: 1억 8,400만 유로(전년비 5% 증가)

□ 주요 상품별 운송 동향

- 석유 제품 운송량: 6,420만 톤으로 2년째 증가(전년비 2.7%증가)
- 기타 잡제품 운송량: 1,640만 톤(전년비 약 6% 증가)
- 바이오 연료용 화학첨가제 운송량: 317만 톤(전년비 2.7% 증가)

□ 투자 동향

- 2006년도 투자액: 6,200만 유로(최근 5년 연평균 투자 수준)
- 투자 계획: 2007년 16,100만 유로, 2008년 15,500만 유로, 2009년 9,200만 유로
- 투자 기대 효과: 향후 3~5년 후 연간 운송량 2,350만 톤 증가 예상(잡제품 1,010만 톤, 고체 벌크 400만 톤, 석유제품 760만 유로, 액체 벌크 180만 유로)

3) 유럽 주요 항구별 경쟁력 비교

LE HAVRE, ANTWERF 및 ROTTERDAM 경쟁력 비교

항목	구분	LE HAVRE	ANTWERF	ROTTERDAM
경상 경비	평균 인건비	880,500(100)	1,105,600(126)	1,217,500(138)
	평균 임차료	494,500(100)	508,980(103)	628,300(127)
	소계	1,375,000(100)	1,614,580(117)	1,845,800(134)
유효 인력	무직자	12.5%(100)	11.1%(89)	10%(80)
	저급 인력	49%(100)	52%(105)	35%(71)
	중급 인력	37%(100)	33%(89)	36%(97)
	고급 인력	13%(100)	15%(113)	29%(218)
부지	내부유효면적	133(100)	635	218
	외부유효면적	551	23	351
	내부토지가(연)	1.9유로/SM	3-10유로/SM	8-10유로/SM
	외부토지가(연)	7.5-10유로/SM	60-100유로/SM	75-225유로/SM

자료: DTZ CONSULTING & RESEARCH 2005년 12월 보고서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개요

4억 6,000만 소비자를 가진 EU시장의 중심부에 위치한 프랑스는 독일 등 유럽 주요국과 인접한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프랑스는 자동차, 항공우주, 화학 등 첨단산업이 매우 발달되어 있으며, 그 외 패션, 화장품 등 고급 소비재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영재교육을 중시한 프랑스는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우수한 기술과 높은 생산성을 보유하여 세계적인 산업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기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세가 유럽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에 속하며, 근로자의 권리가 과도할 정도로 노동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점이 프랑스 투자의 단점 지적 사항이다.

1) 유럽시장의 중심

기업과 자본, 생산설비, 첨단기술이 시간 제약 없이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화한 세계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여 년 전부터 세계를 향해 문호를 개방 중이다.

그 결과 GDP상 세계 6위의 경제국이며 세계 3위의 서비스 수출국임과 동시에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해외 투자국인 프랑스, 가장 큰 단일 시장인 유럽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2) 해외투자기업 유치강국

누적된 해외직접투자액은 중국과 같고,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투자실적 면에서 세계 4위의 투자 유치국. 프랑스는 유럽에서의 성공을 위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일각에서 역설적이라고도 말하는 이 결과가 실제상 프랑스의 강점이다.

3) 기술 중심국

프랑스는 기업과 기업인의 땅으로서 250만 개 업체, 각 분야의 세계적인 경제리더들 및 지명도가 높고 존경 받는 전 세계 남녀 경영인들이 프랑스에서 일하고 있다.

예로부터 프랑스식 산업개발 모델은 혁신의 선구자였음. 쿼 메리 2호를 비롯하여 에어버스 A380, 고속철도 (TGV), IC카드, 원자력 산업과 보건 제약분야까지 프랑스 기술자들은 미래의 기술을 개발하는 선구자로서의 명성을 올리고 있다.

4) 유능한 인력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이 높고, 프랑스 연구원들의 능력이 뛰어나며, 또한 이들이 능력을 발휘하여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프랑스는 주요 해외협력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유럽의 기수가 되었다.

우수한 교육시스템을 통해 프랑스 기술자, 엔지니어, 경영매니저 및 공무원들, 관련 분야 전문가의 역할을 우수하게 수행 중. 창조성과 뛰어난 직업의식을 겸비한 프랑스 근로자들, 세계적으로 결근율이 낮은 근면한 인력으로 고평가. 또한 선진국 중에서도 미국보다 앞선 노동생산성을 인정받은 국가이다.

5) 저렴한 전력, 교통, 통신비

원자력 발전소의 발달(전체 전력의 78%)로 여타 선진국에 비해 전기세가 가장 낮으며 전국 어느 곳이나 연결된 기차, 항공 및 도로망의 발달과 전국토의 98%를 커버하는 유, 무선 통신망의 발달 등으로 교통비 및 통신비가 저렴하다.

6) 사업하기 좋은 환경

대대적인 세제 개편 및 공공 적자 감소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기업주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 특히, 시간 외 추가근무 수당에 대한 사회보장세 및 소득세 완전 면제로 기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9월 국회 비준 이후 발효).

7) 매력적인 금융시장

증권 시장의 발달로 사업자금 조달 여지가 많으며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이 운집해 있어 금융시장이 극히 풍부하다.

프랑스 투자 매력도 강점 및 약점 비교표

10개국 투자 매력도 비교 항목	'06순위	'05순위	2대 리더 국	06년
고속 기차	1	1	프랑스, 스페인	26km/백만 명
기업 신설 용이성	2	2	미국, 프랑스	8일
고소득층 개인 소득세율	2	2	영국, 프랑스	0.371
종업원 1인당 생산성	3	3	미국, 벨기에	120/EU 25국 100
인구 증가	4	4	미국, 스페인	104.9/'95년 100
GDP대비 R&D 지출 비율	4	5	일본, 미국	2.2%/EU15국 2%
투자 자본(GDP대비)	4	5	미국, 영국	0.11/EU15국 수준
항공 운송	5	4	화란, 미국	2.1/EU15국 2.0
시장접근 가능성	5	5	화란, 벨기에	100/EU 7국 112
기업의 장기 투자 증가율	5	5	미국, 스페인	0.022
언어 능력	5	5	미국, 스페인	0.51
23-34세 고등교육 비율	5	5	일본, 벨기에	0.37
기업 세율	5	미상	영국, 화란	0.262
근로자 시간당 임금 수준	6	4	폴란드, 스페인	103/미국 100
초고속 인터넷-케이블 가입 율	6	5	화란, 벨기에	0.152
92-'05 기간 GDP 성장률	7	8	폴란드, 미국	0.02
파업일 수	8	8	폴란드, 일본	40일/1000명
노동 유연성	9	9	미국, 일본	2.3/10
인건비 대비 사회부담 비율	9	10	미국, 영국	0.38

자료: 프랑스 투자진흥청 AFII

8) 프랑스 국가경쟁력 세계 25 위

- 프랑스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8년 25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도 28위에 비해 3계단 상승한 실적이며 2006년 30위에 비해서는 5계단 상승한 실적으로, 점차 순위가 상승하고 있다.
- 순위 상승원인으로는 정치적 안정, 더 완화된 조세제도, 그리고 노동자들의 소득보장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조화를 추구한 정부 개혁 정책에 기인한다.
- 실제 프랑스는 사르코지 대통령 취임 이후 주 35 시간 근로제도 정비, 복잡한 세제 완화 및 구매력 상승을 위한 개혁조치를 단행하고 있어 투자유치 매력도 측면에서는 향상되었다.
- MD는 프랑스의 순위가 점차 상승 중이지만 1위 미국과의 점수차이가 30점 이상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차원에서 더 근본적이 경쟁력 강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2008 국가경쟁력 순위

국가명	2008 순위	2007 순위	점수(1위 점수에 대한 상대점수)
미국	1	1	100
싱가포르	2	2	99.33
홍콩	3	3	94.964
스위스	4	6	89.656
덴마크	6	5	64.405
독일	16	16	74.735
중국	17	15	73.758
일본	22	24	70.028
프랑스	25	28	66.012
인도	29	27	60.625

자료: Les echos 지(IMD 발표자료 인용)

9)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의미

IMD는 과거 국가경쟁력이라 함은 국가 경제력을 의미했으나 이제는 투자매력도를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IMD는 싱가포르·아일랜드·두바이의 예로 들어 이러한 국가들이 경쟁력 순위에서도 수위를 차지한 동시에 외국인 투자유치의 모범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프랑스 투자청은 프랑스의 이 경쟁력 순위 상승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비해 과거 경쟁력 순위에 호들갑을 떨던 프랑스 언론들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10) 투자 유치 활동 기관이 제시한 프랑스의 우수한 투자환경(2007년 기준)

- 투자 기업 설립 경비가 세계에서 3번째로 가장 저렴하다. KPMG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의하면, 프랑스는 기업 경비 면에서 싱가포르 및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국가로 평가되었다.
 - 회사 등록비의 경우, 2006년 1월 기준 행정 수속비 76.19 유로에 회사설립 공지 비용 약 220 유로 등 300 유로 미만이다.
- 전력(KW당 가격 기준) 및 가스 사용료 면에서 미국, 독일보다 저렴하며 영국과 동등한 수준이다. 그리고 전기세의 다양성 면에서는 세계 1위이다.
- 파리 및 수도권지방(ILE-DE-FRANCE)은 사무실용 면적(4,900만㎡) 면에서 영국에 앞선 유럽 최대 규모를 가졌다.
- 임금 면에서도 프랑스는 독일 및 영국을 앞섰으며 제조업 종사자 임금 면에서 유럽 15개 국가 중 가장 저렴한 임금 국가 중의 하나이며 미국의 임금 수준과 버금간다.
 - 파리의 경우, 이러한 여러 가지 강점 덕분에 세계 500대 글로벌 기업들의 본부수(22개) 면에서 뉴욕, 런던 및 북경을 능가한 세계 2대 본부 유치 도시이다.
- 생활비 면에서도 파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비싼 도시인 런던에 비해 25포인트가 낮은 저렴한 생활비가 드는 수도이며 취리히, 동경 및 밀라노보다도 저렴하다.
- 세제 개혁으로 개선된 기업 환경 가운데,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 한도는 부가가치액의 3.5%이며 적자 액은 무한정 이월할 수 있고 지분 매도 시의 이익금에

대한 과세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연구비에 대한 감세한도가 1,600만 유로로 상향 조정되었고 특허에 대한 과세율이 인하되었으며 신설 기업에 대한 사회보장세가 8년간 면제되는 등 감세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 회사 이익금에 대한 영업세는 과거 50%에서 33.33%로 인하되어 선진 공업국들의 평균 수준이다. 한편, 잠정적으로 적용되어 오던 1.5%의 부과세는 2006년에 폐지되었다.
 - 영업세의 경우, 독일(25%)보다 높지만 과세대상액 면에서 프랑스가 유리하여 결국 세액으로 계산하면 거의 비슷하다.
 - 그리고 네덜란드(29.1%), 영국(30%) 및 이탈리아(33%)와는 비슷한 수준이다.
 - 33.33%라는 영업세율 수치 자체가 주는 의미는 기업의 영업이익에 부과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제세들을 종합해서 계산해야 할 일부이기 때문에 종합 과세액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다. 일 예로 법인세 등 각종 지방세들과 합할 경우, 프랑스의 기업에 대한 종합 과세율은 34.9%로 독일(38.7%), 이탈리아(37.3%) 및 스페인(35%)에 비해 낮다.
 - 그리고 과세 기준을 정의하는 규정도 감안하여 비교해야 하는데, 프랑스의 경우 최근 과세 기준 면에서 상당히 개선되어 유럽에서 가장 유리한 국가들 중의 하나로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이 감소하였다.
- 유럽 벤처 캐피탈 조항(EVCA)이 조사 발표한 바에 의하면, 프랑스는 최근 현대화된 세제 개혁을 통해 영업세, 지방세 및 사회보장세 등 원천공제 세금을 크게 감소함으로써 원천공제세 경쟁력 면에서 2006년 기준 영국을 앞질러 아일랜드 다음으로 유럽에서 2위를 차지했다.
- 연구·개발비의 50%까지 감세해주는 파격적인 세제 도입으로 동 분야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
 - 첫째 연구·개발비 1억 유로의 50% 및 1억 이상의 5% 감세
 - 2년째 연구·개발비의 40% 감세
 - 3년째부터는 연구·개발비의 30% 감세
 - 감세 대상 연구·개발비로 간주되는 경비는 연구원 및 장비, 하청 연구비, 특허 및 보호 경비 및 기술 벤처마킹(VEILLE TECHNOLOGIE) 비용 등이다.
- 프랑스 정부의 외국 투자 기업 보조 활동이 활발하다. EU 단일 시장에서의 기업간 건전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원국은 외국 직접투자 프로젝트 이전에 EU에 보조금을 요청해야 하는데, 외국 투자 기업의 규모, 투자 액, 투자 프로젝트 대상 및 고용창출 인원 등에 따라 보조금이 결정된다.
 - EU의 이러한 규정 범주 내에서 회원국 정부는 특정 분야의 경제활동 개발을 자유로이 지원해줄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는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의 6개 형태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 EU가 인정해준 지도에 명기된 경제 개발 미개척 지방 또는 산업 재배치 지방 내 생산 투자에 관한 지방정부의 보조(대기업의 경우, 투자액의 15%, 중소기업의 경우 25%까지)
 - 기업의 R&D 프로젝트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한 R&D 보조(R&D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프랑스 거의 전지역 내 투자 시 창출 고용자 1명당 25,000 유로의 국토정비 보너스 보조)
 - 인력 양성 프로젝트에 기업을 동반할 수 있는 봉급자들의 직업 훈련 보조
 - 장기 실업자, 청소년 무직자 등 특정 인에 대한 지방 또는 중앙 정부의 고용 보조(지방 투자의 경우, 창출 고용자 1인당 15,000 유로까지 국토정비 보너스 지원)
 - 국토 전역에 대한 중소기업의 투자 및 고용 창출 보조
 - 환경 보조: 현행 규격을 따라잡은 중소기업 및 이를 능가한 대기업

- 경쟁력 클러스터(66 개)에 대한 프랑스 정부 지원금은 5 년 동안 15 억 유로이며 동 지역 내 기업의 경우, 영업세가 면제된다.
- 외국 직접 투자 기업들의 세금 관련 행정업무 창구 일원화 및 전자식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 등 각종 행정 수속 및 절차가 현대화 및 간편화 되었다.
- 프랑스에서 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CFE(기업수속센터; Centre de Formalites des Entreprises)를 통하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곳에서 해당 기관에 필요한 절차를 일괄 처리한다

□ 1인 기업의 경우 URSSAF에 등록

- 등록 시 대표자는<MO>와 <MO'>를 참조하여 작성하여 본인의 고용 계약서와 함께 제출한다. URSSAF에서는 SIRET 번호를 발부하고 관련 행정기관에 회사 등록 사실을 통보한다.

□ 연락사무소의 등기

- 연락사무소를 Registre du Commerce et des Societes 에 등기하고 하는 경우 등기 신청서에 해당하는 서식 MO와 MO', 그 외에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며, 대표로 해당 인을 임명한다는 외국 본사의 결정을 증빙하는 서류, 연락사무소 대표인 관련 서류 (여권, 신원증명서 등), 외국 모회사 정관, 프랑스 내 거주지 증명서(사무실 임대 계약서, 자택 임대계약서 등)가 필요하다.
- 연락사무소는 상업활동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연락사무소의 외국인 대표는 외국인 상업 허가증을 취득 할 필요는 없으나, 장기 비자와 체류증은 취득해야 한다.

□ 지점의 등기

- 지점을 설립하는 데에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지점장이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상업허가증이 필요하다.

□ 자회사의 등기

- 마찬가지로 회사가 설립될 CFE에 등기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 참고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등기신청서류 MO와 MO'
 - 지사 대표와 회계감사인 (해당될 경우)의 임명 사실이 명기된 회사정관 2부
 - 감사보고서 (해당될 경우) 2부
 - 사무실 관련 부동산 임대 서류 1부
 - 회사 설립 공고가 나간 관보 1부
 - 지사장 호적증명서, 신분증이나 여권, 지사장 신원보증서
 - 특정 산업에 종사할 경우 요구되는 자격증
 - 지사장의 외국인 상업허가증과 체류증
 - 자본금납입 증명서
 - 지사 설립관련 서류
 - 상업재판소 서기과에서 K-Bis (사업 등록증)을 발부함으로 회사 설립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한다.

자료: 프랑스 투자청 웹사이트 (AFII)

2. 외국기업 투자동향

가. 프랑스 투자 현황

□ 전체 개황

- 프랑스는 해외투자 유출 입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프랑스는 2006년 말 누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해외투자 유입액 및 유출액면에서 4위이며 유출액에서 유입액을 공제한 수치 면에서 1위이다.

OECD 국가의 해외투자 집계 (1997 - 2006)

(단위: 십억 달러)

순위	국가 / 유입 액	국가 / 유출 액	국가/ 유출 액-유입 액
1	미국 / 1,637.2	미국 / 1,580.4	프랑스 / 391.0
2	벨·룩스 / 1,188.7	벨·룩스 / 1,181.7	일본 / 277.5
3	영국 / 797.2	영국 / 1,045.3	영국 / 248.2
4	프랑스 / 480.8	프랑스 / 871.8	스위스 / 215.0
5	독일 / 473.2	네덜란드 / 513.1	네덜란드 / 214.0
6	네덜란드 / 299.1	독일 / 510.2	스페인 / 181.0
7	캐나다 / 285.3	스페인 / 420.8	이탈리아 / 69.4
8	스페인 / 239.8	일본 / 330.9	캐나다 / 37.9
9	스웨덴 / 192.9	캐나다 / 323.1	독일 / 37.0
10	멕시코 / 178.4	스위스 / 318.5	노르웨이 / 27.5
11	이탈리아 / 128.8	스웨덴 / 210.4	스웨덴 / 17.5
12	스위스 / 103.4	이탈리아 / 198.2	핀란드 / 17.4
13	호주 / 89.7	아일랜드 / 90.1	아이슬란드 / 7.4
14	아일랜드 / 88.5	덴마크 / 81.3	오스트리아 / 6.7
15	덴마크 / 86.7	핀란드 / 71.5	아일랜드 / 1.6
16	폴란드 / 78.6	노르웨이 / 67.0	포르투갈 / 1.6
17	한국 / 55.5	오스트리아 / 52.3	그리스 / -3.1
18	체코 / 55.2	호주 / 46.0	덴마크 / -5.4
19	핀란드 / 54.0	포르투갈 / 45.0	벨·룩스 / -7.0
20	일본 / 53.4	한국 / 42.9	한국 / -12.6
21	오스트리아 / 45.6	멕시코* / 23.2	슬로바키아 / -16.7
22	포르투갈 / 43.5	아이슬란드 / 15.5	뉴질랜드 / -19.9
23	터키 / 42.6	그리스 / 10.7	헝가리 / -30.5
24	헝가리 / 40.9	헝가리 / 10.4	터키 / -36.4
25	노르웨이 / 39.4	폴란드 / 8.8	호주 / -43.7
26	뉴질랜드 / 19.0	터키 / 6.2	체코 / -51.9
27	슬로바키아 / 17.3	체코 / 3.2	미국 / -56.9
28	그리스 / 13.8	슬로바키아 / 0.6	폴란드 / -69.7
29	아이슬란드 / 8.1	뉴질랜드 / -0.9	멕시코* / -97.4
	전체 / 6,836.3	전체 / 8,078.1	전체** / 1,241.8 (합계 / 1,297.9)

주: * 멕시코 = 2001 - 2006

**OECD 전체=전체 유출액-전체 유입 액(합계= 국가/ 유출 액 - 유입액 항목 계)

자료: OECD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Database

- 2006년 프랑스의 외국직접투자 유입액은 646억 유로로 영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했으며, 해외 직접 투자 유출액은 917억 유로로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 했다.
- 2007년 7월 말 기준으로 프랑스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은 542억 유로를 상회했으며 유출액은 932억 유로에 달해 전년도 실적을 이미 초과했다.

프랑스의 최근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현황

(단위: 백만 유로)

구분	2005	2006	2007(1-7)
유출액	97,275	91,700	93,169
유입액	65,184	64,629	54,218
수지	-32,091	-27,071	-38,951

자료: 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

- 프랑스의 2007년 1/4분기 기준으로 지역별 및 국가별 외국인 투자 유입 규모 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지역은 EU 특히, 유로존으로 전체의 76.6% 및 61.2%에 해당되며 국가 별로는 미국이 전체의 14.4%를 차지했다.

프랑스의 주요 지역 및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현황 (2007 1/4분기)

(단위: 백만 유로)

구분	유로존(13)	기타EU(14)	미국	일본	스위스	중국	기타	전체
유출	14,422	2,682	7,093	1,158	-548	66	3,017	27,890
유입	12,378	3,127	2,907	189	265	360	1,012	20,238
수지	-2,044	445	-4,186	-969	813	294	-2,005	-7,652

자료: 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

- 프랑스는 1970년대부터 고용창출을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으며,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하였다.
- 2001년 5월에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프랑스 투자진흥청(AFII: Agence Française pour les Investissements Internationaux, Invest in France Agency)을 설립하였다.
-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환경 개선 및 유치 정책 덕분에 624개의 프로젝트 및 3만 4,517명의 고용창출을 기록한 2007년 프랑스의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은 2000년과 2006년 대비 고용창출 실적 면에서 감소한 것이나 1993년 이래 세 번째로 좋은 성과이다.
- 2006년 기준, 상업분야의 총 종사자 중 16%인 160만 명이 현지 투자 외국 업체에 종사하고 있으며 프랑스 40대 상장회사(CAC 40) 자본의 47%가 외국자본이다.

프랑스의 연도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현황

(단위: 건, 명, 억 유로)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프로젝트	563	558	438	547	583	650	665	624	4,628
고용인원	35,359	25,480	22,861	27,335	29,578	30,146	39,998	34,517	245,274
금액	469	564	521	377	253	511	584	902*	6,357(누적)

주: IMD 에서 발표한 외국인 투자액(1,263 달러)을 2007 년도 평균환율(1 유로=1.3705 달러)로 파리 무역관이 환산하여 산출한 수치임.

자료: 프랑스 투자진흥청(AFII), IMD

- 규모별 투자유치현황
 - 프로젝트 규모별로는 2006년과 비교하여 100~499명 고용창출규모의 프로젝트가 전체 프로젝트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1,000명 이상 규모의 프로젝트의 비중이 전년대비 2배 가량 증대되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 이는 2개의 대규모 프로젝트 (Securitas의 Protection Services인수 및 Ebrex의 Nexia Froid 인수 프로젝트) 유치에 기인한 것이다.

최근 2년간 투자유치 프로젝트 규모(고용창출)별 비중 현황

(단위:%)

규모	2006	2007	계
20명 미만	9.0	8.7	7.1
20~49명	14.3	14.3	16.4
50~99명	15.8	15.3	18
100~199명	17.7	22.9	21.7
200~499명	29.5	27	23.6
500~999명	9.6	3.9	9.6
1000명 이상	4.1	8	3.5
계	100	100	100

자료: 프랑스 투자진흥청(AFII)

- 지역별 투자유치현황
 - 지역별로는 전년대비 고용창출규모가 감소를 보였음에도 미국이 여전히 최다 투자 국가자리를 차지함. 미국의 2007년도 투자프로젝트 감소는 미국경제침체를 가져온 서브프라임 위기에 기인한 것이다.
 - 유럽역내국가의 투자유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아시아지역 국가 중에서는 중국, 일본, 인도 3개국이 15대 투자국가에 포함되었으며, 매년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프랑스의 주요 15개 투자유치국 국가별 고용창출 현황

(단위: 명, %)

연도	2006		2007	
	고용창출 실적	구성비	고용창출 실적	구성비
미국	9 511	23.8	5 768	16.7
스웨덴	3 543	8.9	4 131	12.0
독일	6 570	16.4	3 848	11.1
영국	4 225	10.6	3 699	10.7
네덜란드	1 862	4.7	3 368	9.8
이탈리아	806	2.0	1 919	5.6
일본	794	2.0	1 899	5.5
중국	1 572	3.9	1 459	4.2
스페인	1 495	3.7	1 336	3.9
벨기에	1 263	3.2	1 223	3.5
스위스	2 021	5.1	934	2.7
아이슬란드	460	1.2	733	2.1
캐나다	1 359	3.4	690	2.0
인도	155	0.4	528	1.5
오스트리아	657	1.6	502	1.5
기타 국가	3 705	9.3	2 469	7.2
계	39 998	100	34 517	100

자료: 프랑스 투자진흥청(AFII)

- 업종별 투자현황
 - 2007년 투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규모가 제조업종의 경우, 2만 894명으로 2006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으며 서비스업종의 경우, 1만 3,623명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 제조업종의 경우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우주항공, 철도장비 분야에서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였고, 농수산업 및 식품가공업분야의 고용창출규모가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 규모 면에서는 자동차부품 및 기업컨설팅서비스 업종의 고용창출 규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유치업종별 고용창출 규모현황

(단위: 명,%)

분야	2006	2006	2007	2007
가공식품 및 농수산업	1 506	3.8	2 326	6.7
실내가구 및 설비	1 955	4.9	1 525	4.4
바이오테크놀로지	133	0.3	254	0.7
플라스틱 가공 및 화학	2 582	6.5	1 880	5.4
전자부품산업	547	1.4	435	1.3
자동차 제조 및 부품업	4 344	10.9	4 215	12.2
일반전자공학	475	1.2	276	0.8
에너지 및 인가용역	1 223	3.1	853	2.5
전기, 전자, 정보, 의료기기	1 176	2.9	1 469	4.3
기계설비 및 부품	2 343	5.9	1 885	5.5
우주항공, 해양 및 철도장비	2 868	7.2	838	2.4
의약 및 화장품	1 435	3.6	744	2.2
금속업계 및 재처리	2 315	5.8	2 458	7.1
섬유 및 의류	774	1.9	233	0.7
유리, 목재, 종이, 출판, 광물, 세라믹	1 733	4.3	1 503	4.4
제조업 총계	25 409	63.5	20 894	60.5
기타 서비스업, 상업 및 금융업	3 695	9.3	4 509	13.1
컨설팅, 엔지니어링, 기업용역	5 209	13	3 609	10.5
소프트웨어 및 정보처리	2 672	6.7	1 469	4.3
통신사 및 인터넷업체	1 070	2.7	415	1.2
운송, 재고 및 건설토목산업	2 003	5	3 621	10.5
서비스업 총계	14 589	36.7	13 623	39.5
계	39 998	100	34 517	100

자료: 프랑스 투자진흥청(AFII)

나. 주요 투자국가별 현황

1) 독일

- 유럽국가 중에서는 최대 투자국가, 세계적으로는 미국에 이어 2대 투자국가로 전체 투자의 20%를 차지하였다.

- 현재까지 400억 유로의 금액을 투자하였으며 총 2,700여 개의 독일 기업이 약 30만 명의 고용창출을 기록하였다.
- 주요 투자 3대 분야로는 자동차(20%), 전자 및 의료기기(15%), 기업컨설팅 서비스(10%)이며 투자의 60%가 주로 그린필드투자로 가장 많고 이어서 전체 투자 프로젝트의 10%로 물류/유통센터 투자가 차지하였다.
- 독일의 대부분의 대기업은 이미 프랑스에 진출한 상황으로 독일 중견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증액투자보다는 건실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자금난을 겪고 있는 프랑스기업인수가 증가추세이다.

2) 중국

- 최근까지 주로 대표사무소의 형태로 프랑스에 진출하였으나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 2006년 1,572명에 이어 2007년에도 1,459명의 고용창출을 기록하였다.
- 2007년 평균 투자 프로젝트는 20건이며 투자금액은 5억 유로이다.
- 주로 기업인수형태로 진출하며 주요 진출분야는 전자 및 통신분야 및 항공분야에 두드러졌다.

3) 한국

- 2000-2006년 사이 총 22개의 프로젝트 및 850명 이상 고용창출을 기록했다.
- 대불 투자누계는 5억 8,400만 달러로 주로 전자(53%), 화장품(17%), 자동차(12%)에 집중되어 있으며, 60%이상이 판매법인의 형태로 생산법인과 R&D센터는 각각 18%와 13%를 차지하였다.
- 주요 프로젝트
- 2002년: 한국 YG-1(공구생산)의 프랑스 Corail사 인수(신규고용창출 48명 및 고용인수 52명)
- 2004년: (주)아모레퍼시픽 (화장품생산) 생산공장 설립 및 LG전자 이동통신분야 R&D센터구축
- 2005년: 팬택, 메디슨, VK 및 삼성전자
- 2007년: 상지건설 (15명) 및 LG전자 (에어컨분야, 12명)

4) 미국

- 금속가공, 기계, 화학, 자동차부품 등 주로 전통적인 분야에서 점차 첨단기술 및 정보통신분야로 투자업종이 증대하였다.
- 2000-2007년 사이 1,133개 프로젝트 진행 및 65,800명의 고용 창출을 기록했다.
- 제조업종의 프로젝트가 크게 줄어든 반면, 서비스 업종의 고용창출은 늘어났는데 대규모의 투자프로젝트가 모두 서비스업종에 해당된다.

5) 일본

- 프랑스는 일본의 유럽 1위의 투자대상 국가이다.
- 2007년 34개 프로젝트 및 1900명 고용창출로 프랑스의 7위 투자유치 국가이다.
- 주로 자동차 및 전기전자의료기기 분야에 집중되어있으며 주로 그린필드분야로 전체 프로젝트의 50%, 고용창출규모의 71%를 차지하였다.

- 2000-2007년 사이 총 200개 이상의 프로젝트 및 11,000명 이상의 고용창출로 28%의 성장을 보였다.
- 2006년 자동차업계 경기침체로 주춤한 투자가 지난해 두 배로 늘어나면서 활기를 되찾았다.

2007년 프랑스의 주요 투자유치 프로젝트

국가	업체명	분야	고용창출	시기
미국	Amazon	물류/유통	200명	2007년 4월
독일	TyssenKrupp AG	금속	140명	2007년 4월
독일	Robert Bosch GmbH	자동차부품	1700명	2007년 9월
캐나다	bombardier	철도부품생산	187명	2007년 3월
캐나다	Magna	자동차부품 R&D 센터	58명	2007년 8월
중국	Bluestar	화학	800명	2007년 1월
일본	Maruyasu	자동차부품 (기업인수)	487명	2007년
일본	Fuji Kiko	자동차부품 (증액투자)	230명	2007년

자료: AFII(프랑스 외국인투자유치 청) 발간 보고서

프랑스의 국가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현황(누계)

(단위: 명, %)

연번	국 별	2005		2006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1	네덜란드	608	16.5	688	16.7
2	영국	605	16.5	657	16.0
3	미국	509	13.8	550	13.4
4	독일	478	13.0	515	12.5
5	벨기에	416	11.3	488	11.8
6	룩셈부르크	193	5.3	269	6.5
7	스위스	221	6.0	243	5.9
8	이탈리아	150	4.1	135	3.3
9	일본	84	2.3	84	2.0
10	스페인	63	1.7	82	2.0
11	스웨덴	44	1.2	51	1.2
12	캐나다	15	0.4	46	1.1
13	쿠웨이트	39	1.1	40	1.0
14	아일랜드	35	0.9	33	0.8
15	기타 국가	213	5.8	238	5.8
(순위 미상)	한국	4	0.1	4.3	0.1
전체		3,673	100	4,119	100

자료: 프랑스 투자진흥청(AFII)

프랑스 지역별 외국인 투자 고용 창출 현황

(단위: 명, %)

연도 지방별	2005		2006		
	고용 창출	구성비	고용 창출	구성비	고용 증감
ILE DE FRANCE	8,590	28.5	9,001	22.5	411
RHONE-ALPES	3,694	12.3	4,179	10.4	485
PROVENCE-ALPES-COTE-D'AZUR	1,800	6.0	1,742	9.4	1,942
NORD-PAS-DE-CALAIS	3,089	10.2	2,853	7.1	-236
MIDI-PYRENEES	2,517	8.3	2,759	6.9	242
BRETAGNE	481	1.6	2,171	5.4	1,690
LORRAINE	1,974	6.5	1,710	4.3	-264
ALSACE	1,770	5.9	1,708	4.3	-62
AQUITAINE	949	3.1	1,647	4.1	698
PICARDIE	333	1.1	1,340	3.4	1,007
AUVERGNE	419	1.4	1,305	3.3	886
LANGUEDOC-ROUSSILLON	630	2.1	1,261	3.2	631
HAUTE-NORMANDIE	554	1.8	1,227	3.1	673
CHAMPAGNE-ARDENNE	124	0.4	1,143	2.9	1,019
PAYS-DE-LA-LOIRE	795	2.6	904	2.3	109
BOURGOGNE	767	2.5	650	1.6	-117
BASSE-NORMANDIE	92	0.3	632	1.6	540
POITOU-CHARENTES	434	1.4	573	1.4	139
FRANCHE-COMTE	158	0.5	446	1.1	288
CENTRE	919	3.0	442	1.1	-477
DOM-TOM(해외 속령)	10	0.0	270	0.7	260
LIMOUSIN	44	0.1	24	0.1	-20
CORSE	3	0.0	11	0.0	8
합계	30,146	100	39,998	100	9,852

자료: 프랑스 투자진흥청(AFII) 보고서

프랑스의 연도별 및 월별 해외 투자 유출, 입 현황

(단위: 십억 유로, %)

연도 월	2005					2006				
	유출액 (누계)	전년비 증감률	유입액 (누계)	전년비 증감률	수지 (누계)	유출액 (누계)	전년비 증감률	유입액 (누계)	전년비 증감률	수지 (누계)
1	5,035	7.29	1,320	-77.12	-3,715	-4,277	-184.95	3,996	202.73	8,273
2	9,089	-6.09	2,133	-66.88	-6,956	379	-95.83	7,218	238.40	6,839
3	19,970	61.48	14,143	34.50	-5,827	3,740	-81.27	16,371	15.75	12,631
4	23,444	38.99	15,670	26.47	-7,774	16,725	-28.66	22,271	42.13	5,546
5	26,096	24.59	18,734	41.89	-7,362	26,691	2.28	23,959	27.89	-2,732
6	28,955	16.75	25,378	47.48	-3,577	33,110	14.35	32,551	28.26	-559
7	34,248	11.94	31,381	60.31	-2,867	38,038	11.07	34,353	9.47	-3,685
8	43,165	48.11	35,598	52.06	-7,567	43,474	0.72	34,710	-2.49	-8,764
9	48,013	45.14	39,046	20.00	-8,967	53,529	11.49	40,268	3.13	-13,261
10	52,518	26.33	40,152	87.67	-12,366	63,515	20.94	46,750	16.43	-16,765
11	68,677	51.88	44,772	106.01	-23,905	69,129	0.66	52,092	16.35	-17,037
12	93,008	102.6	51,121	102.29	-41,887	87,440	-5.99	58,377	14.19	-29,063

자료: 프랑스 중앙은행

3.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한국의 對佛 투자 현황

- 1968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의 對佛 투자 규모는 총 288건에 5억 9,008만 9,000 달러이다.
- 2002년 대佛 투자 규모는 9,000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최근 4년 동안의 연평균 투자 규모는 3,145만 7,500달러(연 평균 28.75건)이다.

한국의 對프랑스 투자 현황

(단위: 건, 천 달러)

연도	투자건수	투자금액
2007	31	33,463
2006	30	29,026
2005	38	24,066
2004	16	39,275
2003	17	13,39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의 연도별 대佛(對佛) 투자 현황

(단위: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 법인 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총 계	277	108	811,818	357	584,356
1968-80	9	5	801	9	771
1981	1	0	259	1	259
1982	1	0	306	1	308
1983	1	0	731	1	685
1986	1	1	78	0	0
1987	0	0	0	1	78
1988	4	3	2,404	4	1,613
1989	5	4	1,658	4	1,071
1990	5	2	5,840	3	3,470
1991	10	3	10,576	6	7,094
1992	12	2	50,417	15	47,773
1993	10	3	45,665	10	34,908
1994	18	2	86,890	23	51,706
1995	8	3	66,977	17	91,020
1996	7	3	40,479	12	22,759
1997	21	10	32,050	22	10,666
1998	11	3	62,646	26	40,095
1999	21	8	16,290	25	12,581
2000	21	7	8,721	26	8,701
2001	10	5	31,289	11	25,014
2002	14	6	96,498	19	90,110
2003	8	5	12,657	17	13,396
2004	13	7	39,567	16	39,275
2005	28	11	27,381	38	24,066
2006	20	9	27,951	30	29,026
2007	18	6	143,686	31	33,463

주: 1980년도 실적은 1968년부터 1980년도까지의 합계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은 1988년부터 2007년 9월까지 대불 투자금액 순으로, 제조업, 도. 소매업, 서비스업 및 건설업 등에 투자를 실행했다.

한국의 분야별 對佛 투자 현황(1988년-2007년 9월 기준)

(단위: 건수, 천 달러)

업종	신고 건수	신규 법인 수	신고 금액	투자 건수	투자 금액
총계	277 (18)	108 (6)	811,818(143,686)	357 (20)	584,356 (27,910)
제조업	138 (8)	42 (2)	348,554 (12,003)	196 (10)	307,546 (11,378)
건설업	4 (1)	4 (1)	131,853 (129,600)	3 (1)	14,298 (14,068)
도매 및 소매업	78 (4)	30 (1)	252,889 (611)	88 (4)	22,3316 (611)
숙박 및 음식점업	14 (2)	8 (1)	3,815 (1,255)	18 (3)	3,374 (1,697)
운수업	5	5	473	6	469
통신업	1	1	1,163	1	1,163
부동산 및 임대업	16	6	53,370	21	14,991
사업 서비스업	4 (1)	4 (1)	6,281 (60)	3 (0)	6,221 (0)
교육 서비스업	1	1	8	1	8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9 (2)	4 (0)	8,212 (157)	13 (2)	7,770 (157)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7	3	5,200	7	5,200

주: 기간: '68년-'07년(1-9월)/ () 안의 숫자는 2007년 1-9월 중 실적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프랑스 진출 한국기업

- 소자본 투자를 제외하고 프랑스에서 두드러진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업은 약 19개사 정도이다.
- 태평양화학, 삼성전자, LG전자, 엘지 R&D센터, 한진 해운, RG PRINCE FILM, 엘앤 에이치 코리아, 기아자동차, 동양 어패럴, 한국타이어, 흥진크라운, 금호 타이어 등이다.

프랑스 진출 주요 한국 기업 리스트

(단위: 천 유로)

회사명	투자연도	투자 내역	투자금액
태평양화학	1990	제조업/향수(로리타)	54,213
삼성전자	1988	전자제품,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업	34,710
삼성물산	1977	섬유, 정보기기, 경공품 종합상사	24,249
RG PRINCE FILM	2002	만화영화제작	6,273
엘지 전자	1990	가전제품 판매업	6,241
엘지 R & D 센터	2004	이동통신 단말기 연구. 개발	5,342
엘앤에이치 코리아(주)	2000	SPEECH TECHNOLOGY	5,100
기아 자동차	2004	자동차 판매업	5,000
동양 어패럴	1996	숙녀복 판매업	5,000
현대정보기술	1995	IMAGE-IN	4,296
유로 대우(주)	2000	중장비 판매 서비스업	4,000
㈜이트로닉스	1992	카 스테레오 판매	3,272
(주)쌈지	2001-2005	숙녀복, 패션잡화 판매업	2,557+ 847
㈜흥진 크라운(HJC)	2001	헬멧(모토사이클, 자전거용)	2,683
한국화장품(주)	1997	화장품 판매업	1,357
해대(주)	1992	카 스테레오 판매업	1,346
한국 타이어(주)	2003	타이어 판매업	1,066
KBS 미디어(주)	2003	방송 콘텐츠	1,059
브이케이(주)	2005	정보통신기기 판매업	1,051

자료: KOTRA 2005/2006 해외 진출 한국기업 디렉터리

나. 프랑스의 대한민국 투자 현황

□ 프랑스의 대한(對韓) 투자 현황

- 1962년부터 '07년 말까지 프랑스의 對韓 투자는 총 704건에 51억 5,094만 달러에 달했다. 對韓 투자 국가 중에서 미국, 일본, 네덜란드, 독일, 영국, 말레이시아에 이어 7위(유럽 국가 중 4위)를 기록하였다.

주요 국가별 62년-07년 대한민국 투자 현황

(단위: 건, 천 달러)

국가	건수	금액	순위(금액)	금액비중(%)
미국	8,016	38,998,940	1	28.41
일본	9,955	20,526,151	2	14.95
네덜란드	990	15,754,336	3	11.48
독일	1,300	7,718,228	4	5.62
말레이시아	696	7,013,405	5	5.11
영국	899	6,827,655	6	4.97
프랑스	704	5,150,940	7	3.75
싱가포르	798	4,559,537	8	3.32
캐나다	495	3,541,643	9	2.58
벨기에	165	3,200,203	10	2.33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프랑스는 2007년 세계 6대 대한민국 투자 국가로 4억 3930만 불을 투자했다. 이는 2006년(1,174,434천 달러)에 비해 62.6% 감소한 것이다.
- 같은 해 투자건수(누계) 면에서 프랑스는 51건으로 9위를 차지했는데 2006년(62건)에 비해 11건 적은 실적이다.

주요 국가별 2007년 대한민국 투자 현황

(단위: 건, 천 달러)

국가	건수	금액	순위(금액)	금액비중(%)
미국	474	2,340,307	1	22.27
네덜란드	130	1,978,906	2	18.83
일본	469	989,756	3	9.42
케이만 군도	61	555,035	4	5.28
싱가포르	97	516,103	5	4.91
프랑스	51	439,300	6	4.18
독일	85	438,902	7	4.18
중국	365	384,829	8	3.66
영국	85	337,504	9	3.21
몰타	9	263,270	10	2.5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프랑스의 연도별 대한(對韓) 투자 현황

(단위: 천 달러)

연도	건수	금액
1971	1	450
1972	1	150
1973	1	2,600
1974	3	825
1975	1	1,250
1975	1	200
1977	2	3,727
1978	2	3,417
1979	2	1,091
1980	0	0
1981	1	1,121
1982	0	0
1983	2	1,573
1984	3	22,155
1985	5	5,072
1986	1	200
1987	6	11,309
1988	15	50,355
1989	13	39,380
1990	12	22,439
1991	16	28,834
1992	15	29,202
1993	17	39,674
1994	16	56,358
1995	19	35,192
1996	21	90,317
1997	33	411,357
1998	54	369,421
1999	49	750,239
2000	45	607,470
2001	35	425,547
2002	39	110,824
2003	44	150,316
2004	58	179,962
2005	58	85,179
2006	62	1,174,434
2007	51	439,300
전체	704	5,150,940

자료: 산업자원부

대한(對韓) 진출 프랑스 기업 현황

회사명	모기업	진출 연도	투자금액(천\$)	업종/투자분야
한국유리공업(주)	SOCIETE FINANCIERE D'ADMINISTRATION ET DE GESTION	1971	119,551	판유리제조업
한불 종합금융(주)	SOCIETE GENERALE	1977	53,173	기타여신금융업
(주)사노피아 벤티스코리아	SANOPI-AVENTIS	1991	55,546	의약품 및 정형 외과용품 도매업
한국생고방 베트로텍스(주)	SAINT GOBAIN VETROTEX INTERNATIONAL	1993	89,013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발레오 전장 시스템즈코리아(주)	VALEO BAYEN	1999	105,360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아키에스	KIM THEO	1999	535,023	호텔 업
라파즈 한라시멘트(주)	FINANCIERE LAFARGE	2000	170,857	시멘트 제조업
삼성탈레스(주)	THALES INTERNATIONAL	2000	112,500	기타측정, 시험, 항해 및 정밀기기 제조업
비벤디 워터산업개발(주)	VIVENDI WATER	2001	66,1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넥상스 코리아(주)	NEXANS PARTICIPATIONS, S.A.	2001	62,083	절연금속선 및 케이블제조업
신한 금융 지주회사	BNP PARIBAS S.A.FRANCE	2002	1,000,823	기타금융업
약사(AXA)보험회사	AXA	2007	117,000	보험업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외국인 투자 장려정책

1) 국가매력도 정책을 축으로 한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 프랑스 2003년 12월 이후 투자매력도 강화 위한 130개 조치 발표.
 - 고급 인력 유치 정책:
 - 선정된 전략 분야에 세계적인 연구 인력의 연구개발 활동 유도(세계 최고의 보수 지급, 25-50만 유로의 연구비 지급)
 - 외국 고위임 직원과 가족의 프랑스 입국절차 간소화 및 획기적인 거주 조건 개선 (외국인 상업허가증 제도 폐지, 노동 허가증 및 체류증 발급 절차 간소화, 배우자의 프랑스 내 근로허가 및 세제 개선),
 - 프랑스 대학 및 전문 고등교육 기관 홍보 및 외국 학생의 온라인 학교 등록.
 - 기업 및 자본 유치정책:
 - 투자관련 안전 보장
 - 외국 기업의 프랑스 투자시 관련 행정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중앙 및 지방 정부 공무원의 업무 협력 조율
 - 첨단기술 분야 클러스터의 구조 조정 및 경쟁력 강화
 - 연구 개발 활동 시 관련 세금 수준의 대폭적인 하향 조정을 통한 고부가가치 사업 및 인재의 유도

2) 프랑스의 국가 매력도 강화 조치

□ 외국인 주재원과 동반 가족 입국절차 개선 내용

- 주재원의 현실을 고려한 세제 적용
 - 파견 수당의 과세 면제
 - 사회보장분담금을 본국에서 지불했을 경우 프랑스에서는 면제
- 간부 직원 입국절차 간소화
 - 외국인 간부급 직원과 동반 가족이 입국 시 프랑스 이민국(OMI)에서 노동허가증 및 체류증 발급 일괄 처리
- 주재원의 근로 조건 및 자격 관련 신규 조치
 - 외국 기업의 프랑스 지사나 법인 장에게 요구되었던 외국인 상업 허가증 폐지
 - 주재원 배우자의 프랑스 내 근로 허가(단, 월급이 2,000유로 이상이어야 함) 및 외국인 직원들의 자녀 교육 환경 개선.

□ 연구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

- 프랑스 내 모든 기업의 연구개발 감세(CIR) 제도 개선
 - 동 제도의 영속화
 - 연구비 감세(CIR) 예산 증가(5.3억 유로에서 8.5억 유로로)
 - 재정적 수혜관련 산출법 완화
 -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지출항목의 확대
 - 연간 혜택 상한선을 610만 유로에서 800만 유로로 증액
- 신생 벤처기업을 위한 제도(250명 미만, 설립 8년 미만이거나 사회보장 분담금 대비 연구 개발 지출이 적어도 15%가 되며 대기업의 지분참여가 없는 기업)
 - 세금 경감(법인세, 직업세, 토지세)
 - 사회보장금 고용주 분담금 면제
 - 주식 양도 시 이익에 대한 세금 면제.

3) 기타 제반 주요 지원제도

- 지역개발 우선지역 지원(PAT), 국토개발청(DATAR) 지원
- 사업용 부동산 임대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료 할인 지원
- 유럽의 지역 개발 기금(FEDER)
- 직업세 면제
- 중소기업 지원 기금
- 공기업의 금융 지원.
- 세제 개혁으로 개선된 기업 환경 가운데,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 한도는 부가가치액의 3.5%이며 적자액은 무한정 이월할 수 있고 지분 매도 시의 이익금에 대한 과세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연구비에 대한 감세한도가 1,600만 유로로 상향 조정되었고 특허에 대한 과세율이 인하되었으며 신설 기업에 대한 사회보장세가 8년간 면제되는 등 감세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 회사 이익금에 대한 영업세는 과거 50%에서 33.33%로 인하되어 선진 공업국들의 평균 수준이다. 한편, 잠정적으로 적용되어 오던 1.5%의 부과세는 2006년에 폐지되었다.
 - 영업세의 경우, 독일(25%)보다 높지만 과세대상액 면에서 프랑스가 유리하여 결국 세액으로 계산하면 거의 비슷하다.
 - 그리고 네덜란드(29.1%), 영국(30%) 및 이탈리아(33%)와는 비슷한 수준이다.
 - 33.33%라는 영업세율 수치 자체가 주는 의미는 기업의 영업이익에 부과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제세들을 종합해서 계산해야 할 일부이기 때문에 종합 과세액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다. 일 예로 법인세 등 각종 지방세들과 합할 경우, 프랑스의 기업에 대한 종합 과세율은 34.9%로 독일(38.7%), 이탈리아(37.3%) 및 스페인(35%)에 비해 낮다.
 - 그리고 과세 기준을 정의하는 규정도 감안하여 비교해야 하는데, 프랑스의 경우 최근 과세 기준 면에서 상당히 개선되어 유럽에서 가장 유리한 국가들 중의 하나로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이 감소하였다.
- 유럽 벤처 캐피탈 조합(EVCA)이 조사 발표한 바에 의하면, 프랑스는 최근 현대화된 세제 개혁을 통해 영업세, 지방세 및 사회보장 세 등 원천공제 세금을 크게 감소함으로써 원천공제 세 경쟁력 면에서 2006년 기준 영국을 앞질러 아일랜드 다음으로 유럽에서 2위를 차지했다.
- 연구, 개발비의 50%까지 감세해주는 파격적인 세제 도입으로 동 분야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
 - 첫째 연구.개발비 1억 유로의 50% 및 1억 이상의 5% 감세
 - 2년째 연구.개발비의 40% 감세
 - 3년째부터는 연구.개발비의 30% 감세
 - 감세 대상 연구.개발비로 간주되는 경비는 연구원 및 장비, 하청 연구비, 특허 및 보호 경비 및 기술 벤치마킹(VEILLE TECHNOLOGIE) 비용 등이다.
- 프랑스 정부의 외국 투자 기업 보조 활동이 활발하다. EU 단일 시장에서의 기업간 건전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원국은 외국 직접투자 프로젝트 이전에 EU에 보조금을 요청해야 하는데, 외국 투자 기업의 규모, 투자액, 투자 프로젝트 대상 및 고용창출 인원 등에 따라 보조금이 결정된다.
 - EU의 이러한 규정 범주 내에서 회원국 정부는 특정 분야의 경제활동 개발을 자유로이 지원해줄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는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의 6개 형태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 EU 가 인정해준 지도에 명기된 경제 개발 미개척 지방 또는 산업 재배치 지방 내 생산 투자에 관한 지방정부의 보조(대기업의 경우, 투자액의 15%, 중소기업의 경우 25%까지)
 - 기업의 R&D 프로젝트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한 R&D 보조(R&D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프랑스 거의 전지역 내 투자 시 창출 고용자 1 명당 25,000 유로의 국토정비 보너스 보조)
 - 인력 양성 프로젝트에 기업을 동반할 수 있는 봉급자들의 직업 훈련 보조
 - 장기 실업자, 청소년 무직자 등 특정 인에 대한 지방 또는 중앙 정부의 고용 보조(지방 투자의 경우, 창출 고용자 1 인당 만 5 천 유로까지 국토정비 보너스 지원)
 - 국토 전역에 대한 중소기업의 투자 및 고용 창출 보조
 - 환경 보조: 현행 규격을 따라잡은 중소기업 및 이를 능가한 대기업

- 경쟁력 클러스터(66개)에 대한 프랑스 정부 지원금은 5년 동안 15억 유로이며 동 지역 내 기업의 경우, 영업세가 면제된다.
- 외국 직접 투자 기업들의 세금 관련 행정업무 창구 일원화 및 전자식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 등 각종 행정 수속 및 절차가 현대화 및 간편화 되었다.
- 프랑스에서 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CFE(기업수속센터; Centre de Formalites des Entreprises)를 통하여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곳에서 해당 기관에 필요한 절차를 일괄 처리한다

나. 외국인 투자 제한 및 금지 분야

- 돈내기 게임 분야의 사업
- 개인의 안전이 법으로 규제된 사업
- 테러 활동 분야에 병원체 또는 독물의 불법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 및 동 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생 문제 예방과 관련된 연구, 개발 또는 생산 활동
- 우편물 가로채기 및 대화 원격 도청용으로 구상된 장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 정보 기술 제품 및 시스템이 제공해주는 안전도 검사 및 인증 관련 서비스업
-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시설을 운영하는 공, 사립업체와 계약에 의해 연관된 기업에 대한 정보 시스템의 보안 분야에서 행해지는 보안 서비스 상품 및 제품 생산 활동
- 민간용 및 군사용으로 공히 사용될 수 있는 기술 및 상품 관련 사업: 핵무기 생산에 사용되는 기술 및 제품 등
- 암호 수단 관련 사업
- 국방 비밀을 위탁받은 기업체들이 행하는 업종
- 군사 또는 전쟁 및 유사 장비용 무기, 탄약, 화약 및 폭발 물질의 연구, 생산 또는 상업 활동
- 직접 또는 하청에 의해 국방부 장비 연구 또는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들이 행하는 업종.

다. 투자인센티브

프랑스의 경우 외국인에만 주어지는 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원칙적으로 없으나, 외국 기업의 투자행위가 투자 예상지역에 고용창출 등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앙정부 및 각 지방정부들과 교섭을 통해 보다 유리한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

고용창출효과가 큰 투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금액의 근로자 훈련비용 등을 정부예산에서 별도로 지원하며, 규모가 큰 투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일반적인 지원이 제공되는 지역
 - 투자액의 17%까지 지원 가능하다.
- 투자유치 관심지역
 - 정부에서 투자유치에 역점을 두는 지역으로 투자액의 25%까지 지원 가능하다.
- 투자유치 특별대상지역
 - 코르시카 섬과 북부 벨기에 접경지역에는 상기 지원뿐만 아니라 특별세제 혜택도 부여된다.

- 도시 면세지역(ZUF) 제도
 - 슬림 및 빈민가 개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로써, 이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사회보장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 각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투자인센티브 유형
 - 지방정부별로 다소 복잡하다. 일반적으로 조세 면제보다는 공장부지 제공, 인프라 건설 지원, 근로자 교육훈련비 부담 등의 형태를 지닌다.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외국인 투자 형태

현행 프랑스 기업법에 설립 가능한 회사 중 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종류는 크게 1인 유한책임회사,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등 3가지로 볼 수 있다.

1) 1인 유한 책임회사(EURL)

투자자가 1인인 경우로 회사설립 및 운영에 있어 각종 서류작업 및 운영방식이 간단하며, 특히 내부 의사결정 기관과 절차를 투자자의 뜻대로 정하여 정관에 기입할 수 있다.

2) 2인 유한 책임회사(SARL)

투자자가 2인에서 100인인 경우 설립 가능한 회사로 법률적으로는 주로 소규모 합작회사나 지인들끼리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유용한 형태이다. 즉, 내부 운영 규칙이나 의사결정 기관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단, 최고 의결 기관은 항상 투자자의 모임인 임시 총회이어야 하며 그 의결 정족수는 총사원 지분의 25%(2차 소집 시에는 20%)를 기준으로 결정)이다.

3) 주식회사(SA)

3인 이상의 발기인(초기 투자자)을 필요로 하며 투자자의 수는 제한 없음. 기본적으로 대규모 회사를 전제로 하며 따라서 이사회를 필수기관으로 하고 있고 주식양도가 자유롭다.

추후 상장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운영 관련(특히 재무) 사안들이 정확히 기재되고 공시되도록 하는 규정들이 많다.

회계 승인 및 일반 의사결정 정족수는 주주 총회의 25% (2차 소집 시는 20%). 임시총회 시에는 20%(2차 소집 시에는 정족수 제한이 없음)이다.

4) 법인 형태

	1인 유한책임회사 (EURL)	유한책임회사 (SARL)	주식회사 (SA)	주식합자회사	약식 주식회사 (SAS)
주요 장점	주주 1인, 단순하고 비용 저렴	설립 및 운영 간편 (폐쇄적 소유권)	"감독 하 경영" 가능 구조	위임도 높은 경영구조	자유로운 구조
	실질 과세		자본구조 (5)	자본구조 (5)	최소 주주 1인 정관 설립의 자유(7)
경영진	1인 경영자 (주주 또는 비 주주)	1인 또는 다수 경영자 (주주 또는 비 주주)	회장 및 집행 이사 1 또는 2명(사장 및 집행 이사), 담당 이사 (최고 명). 이사회(회계감사를 포함한 3인 이상 18 인)	1인 또는 다수의 경영자 (출자자 또는 비 출자자)	회장 1인 (이사회 구성 조항 명시 가능)
최소 자본금	없음(3)	없음(3). 정관에 자본금액 명기. 채권 발행 제한. 산업 내 출자 가능	37,000유로(1) 자본금이 225,000 유로 이상일 경우 공공 저축 모집 허가. 산업 내 출자 금지	37,000 유로(1) (2) 무한책임 주주는 산업 내 출자허가, 유한 책임 주주는 금지	37,000 Euro (8). 저축 공모 및 산업 내 출자 금지
출자자 / 주주	1인	2 - 100인	최소 7인. 연 1회 이상 총회: 연차 회계 승인 및 정기 총회 일반 결정은 과반수 찬성, 임시총회 정관 수정은 2/3 찬성	최소한 일반출자자 1인 및 유한출자자 3인	최소 1인의 무한 책임주주 및 3인의 유한책임 주주. 단체 결정은 무한 책임주주 의 동업자 (만장 일치 원칙) 및 유한책임주주의 동업자들 에 의함.
총회 정족수	해당 무	1차 소집: 전체 주식수의 25%+1; 2차 소집: 20%	임시 총회 시, 1차 소집: 25% 및 2차 소집: 20%; 정기 총회 시, 1차 소집: 20% 및 2차 소집: 정족수 해당 무	정족수 해당 무	규정에 따라 자유, 주주 총회 소집 의무가 없음
최소 비토권 (특별 다수결 저지 비율)	해당무	정관수정 등 임시 총회: 33%+1표; 정기총회: 50%+1표(2차 소집시는 다수결)	임시 총회 시: 1/3; 정기 총회 시: 50% (SAS의 경우, 정기총회 시에는 규정에 따라 자유)		규정에 따라 자유
출자자 또는 주주의 경제적 책임	출자액 한도 + 민사 및 형사 책임	출자액 한도 + 민사 및 형사 책임	출자액 한도 + 민사 및 형사 책임	무한 책임 주주: 무제한 및 연대 책임 유한 책임 주주: 출자액한도	출자액 한도 + 민사 및 형사 책임
특징	주식 양도 시 양도세 적용(6). 회계감사 필요(4)	주식 양도 시 양도세 적용 대상(6)	회계 감사 의무	회계 감사 의무	회계 감사 의무
세제	법인소득세나 개인소득세	법인 소득세	법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법인 소득세

- 회사 설립 시 현금 출자금의 반만 납입하고 잔액은 5년에 걸쳐 지불
- 자본은 가변적/ 장기 회사운영 예비자금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자본금 지참을 권장함. 자본금은 출자금 의 20% 이상 풀려져야 함.
- 세전 가격 매출규모가 310만 유로 이상 또는 총 결산이 155만 유로 이상 또는 종업원 수 50명 이상일 경우에는 회계 감사 필요
- 외부자본을 사용하고, 보다 다양한 주식 발행 가능
- 양도가격의 5%를 매수자가 지급.
- 주주, 경영진, 조직과 자본 양도 간의 관계
- 공개 자금모집 금지

나. 법인 설립

생산 공장도 법인체이기 때문에 같은 설립 절차를 적용하는데 다만, 공장 인수 또는 건립 과정 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정부와 보조금 지원 여부 등 각종 인센티브 관련 사전 협상 작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연구.개발 분야나 66개 경쟁력 클러스터(산업 특수단지 또는 특구)에 투자하는 경우, 여러 가지 많은 세제 혜택 및 지원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관할 정부 또는 지자체와 충분한 지원 협상(EU 지원 포함)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

다음은 주요 지원 내용들이다.

- 연구.개발비의 50%까지 감세해주는 파격적인 세제 도입으로 동 분야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
 - 첫째 연구.개발비 1억 유로의 50% 및 1억 이상의 5% 감세
 - 2년째 연구.개발비의 40% 감세
 - 3년째부터는 연구.개발비의 30% 감세
 - 감세 대상 연구.개발비로 간주되는 경비는 연구원 및 장비, 하청 연구비, 특허 및 보호 경비 및 기술 벤치마킹(VEILLE TECHNOLOGIE) 비용 등이다.
- 프랑스 정부의 외국 투자 기업 보조 활동이 활발하다. EU 단일 시장에서의 기업간 건전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원국은 외국 직접투자 프로젝트 이전에 EU 에 보조금을 요청해야 하는데, 외국 투자 기업의 규모, 투자 액, 투자 프로젝트 대상 및 고용창출 인원 등에 따라 보조금이 결정된다.
 - EU 의 이러한 규정 범주 내에서 회원국 정부는 특정 분야의 경제활동 개발을 자유로이 지원해줄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는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의 6개 형태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 EU 가 인정해준 지도에 명기된 경제 개발 미개척 지방 또는 산업 재배치 지방 내 생산 투자에 관한 지방정부의 보조(대기업의 경우, 투자액의 15%, 중소기업의 경우 25%까지)
 - 기업의 R&D 프로젝트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한 R&D 보조(R&D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프랑스 거의 전지역 내 투자 시 창출 고용자 1명당 25,000 유로의 국토정비 보너스 보조)
 - 인력 양성 프로젝트에 기업을 동반할 수 있는 봉급자들의 직업 훈련 보조
 - 장기 실업자, 청소년 무직자 등 특정 인에 대한 지방 또는 중앙 정부의 고용 보조 (지방 투자의 경우, 창출 고용자 1인당 만 5천 유로까지 국토정비 보너스 지원)
 - 국토 전역에 대한 중소기업의 투자 및 고용 창출 보조
 - 환경 보조: 현행 규격을 따라잡은 중소기업 및 이를 능가한 대기업
 - 경쟁력 클러스터(66개)에 대한 프랑스 정부 지원금은 5년 동안 15억 유로이며 동 지역 내 기업의 경우, 영업세가 면제된다.

1)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 자회사 등기 관련 서류
 - 등기신청서류(MO 및 MO' 작성안내문)
 - 지사 대표와 회계감사인(해당될 경우)의 임명 사실이 명기된 회사의 정관 2부
 - 감사보고서 (해당될 경우) 2부
 - 사무실 관련 부동산 임대 서류 1부
 - 회사 설립 공고가 나간 관보 또는 일간지 1부
 - 지사장 호적증명서, 신분증(여권 등)
 - 지사장 신원보증서
 - 특정 산업에 종사할 경우 요구되는 자격증
 - 지사장의 체류증
 - 자본금 납입 증명서
 - 지사 설립관련 서류

2) 서류 공증 방법

필요 서류 불문 번역 후 법무사 공증 → 한국 외무부 영사확인 →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불어 번역 및 공증

3) 투자 서류접수 기관

□ 투자 진출 절차(법인 및 사무소 설립절차, 관련기관)

프랑스에 투자 진출하는 데에는 사전 허가나 신고제도가 없으나 한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프랑스 투자 진흥청(AFII: Agence Française pour les Investissements Internationaux. 영문 Invest in France Agency)의 자문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제출 서류가 투자 방식 및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프랑스 투자진흥청(AFII) 한국 사무소

대표자	위베르 프레데릭 (Hubert FREDERIC) 한국사무소장
한국인 투자 담당관	오 성림 투자담당관
전화	(02) 564 0419
팩스	(02) 3452 9025
이메일	korea@investinfrance.org
홈 페이지	www.afii.fr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5-9 삼흥 빌딩 8층 (우)135-711

□ 프랑스 법인(공장 포함) 설립 절차

사무실 또는 공장 임차 또는 구매 계약 (부동산 중계업소, 지자체)
↓
회사 대표 선임
↓
자본금 마련
↓
자본금 예치 은행구좌 개설(현지 은행)
↓
회계감사 선임
↓
정관 등록
↓
장기비자 신청
↓
상호, 상표, 도메인 중복사용 여부 확인
↓
회사 등록(사업자 등록증(K-Bis)을 발급 받으면 완결 : 약 2주)
↓
직원 사회보장 가입

프랑스 법인설립 절차	관련 기관
사무실, 공장 임차(구매) 계약	부동산 중계업소, 지자체
회사 대표 선임	
자본금 마련	
자본금 예치 은행구좌 개설(현지 은행)	
회계감사 선임	
회사 정관 작성 및 공증 (변호사)	공증기관
정관 등록	회사 설립지역 세무서
장기비자 신청	주한 프랑스 영사과
상호, 상표, 도메인 중복사용 여부 확인	프랑스 특허청(INPI)
회사 등록 (사업자 등록증(K-Bis)을 발급받으면 완결: 약 2주)	상사재판소 회사등기소(Registre du Commerce et des Societes)
회사설립 공고	관보 또는 주요 일간지
직원 사회보장 가입	사회보장기관(URSSAF)

주: 서류는 불어로 번역하여 회사가 서면으로 임명한 대리인이 제출한다. 회사 등기에 소요되는 기간은 2주이며 행정 수속 비용은 60유로, 회사설립 공고 비용은 200유로 정도이다.

4) 투자 허가서 발급 이후 수속 절차

□ 사장, 부사장, 회계책임자 등록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장, 부사장, 회계 책임자는 투자 허가 기관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법인구좌 개설

거래희망은행에 투자허가서와 사업허가서를 제출하면서 법인구좌를 개설하고, 모든 금전거래는 동 구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법인 도장 신청(관할 시청 및 구청)

프랑스 내 모든 기업은 법인 도장을 갖고 있으며 모든 서류와 공문서들은 필히 법인도장을 날인하여야 효력이 있다.

□ 비관세 대상 수입원부자재 및 설비재 등록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부자재와 회사설립을 위한 설비재도 비과세이다. 사업 계획서에 근거하여 필요자재 소요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여 투자허가기관 및 상무부 등 유관 부서에 제출하여 수입원부자재 및 설비재의 비과세를 추진할 수 있다.

□ 노동자 채용 및 회계장부 등록 등

노동자는 노동력 공급기관을 통해 제공받아 채용하거나 외국인 투자 법인이 직접 광고를 내어 채용할 수 있다. 회계장부는 법인의 회계 처리 시스템으로 프랑스 재무부(세무서)에 등록해야 한다.

- 외국 직접 투자 기업들의 세금 관련 행정업무 창구 일원화 및 전자식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 등 각종 행정 수속 및 절차가 현대화 및 간편화 되고 있다.

다. 대표사무소 설립

1) 연락 사무소 등록 절차

프랑스에 진출하는 기업이 상업 활동을 제외한 광고 선전, 정보 제공, 보관, 기타 예비적 단계의 제한적 활동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주재원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이 적격이다. 국내 모기업이 프랑스 파견 주재원이나 현지고용인에게 사회보장금의 고용주 부담액을 포함한 월급을 지불해야 하며, 회사등기 지역의 사회보장 및 가족수당 관리기관 [URSSAF](#) (Union de Recouvrement des cotisations de Securite Sociale et d'Allocations Familiales)에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사회보장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프랑스에 설립한 연락 사무소가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고용 직원이 2명이 넘으면 상사 등기소(Registre du Commerce et des Societes)에 연락사무소로서 등기를 해야 한다. 연락사무소는 세무당국에게는 항구적인 사무실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일부 지방세와 급여 관련 고용주세는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본사에서 파견된 주재원의 경우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파견근로자와 그 동반가족이 프랑스에 입국하고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 비자, 거주 허가 및 노동허가 등을 취득해야 하는데 거주 및 노동허가는 이민 수속 시 이민국(OMI)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한다.

연락사무소 등기 시, 상사등기소(Registre du Commerce et des Societes)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MO > 및 < MO'(작성안내문)>이다. 그 외에 연락사무소 설립 및 대표 임명장, 연락사무소 대표자 인적 서류 (여권, 신원증명서 등), 외국 모회사의 정관, 프랑스 내 거주지 증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자택 임대계약서 등)가 필요하다.

연락사무소 등록 절차	관계 기관
1. 장기 비자 신청 및 발급	주한 프랑스 영사과
2. 이민 수속	프랑스 이민국(OMI)
3. 주거지 임차계약	부동산 중계업소 또는 임대주
4. 연락사무소 임차계약	상동
5. 연락사무소 등기(고용인원 2명 시)	상사 등기소(상사 재판소)
6. 직원 사회보장 가입(주재원 및 피고용자)	사회보장기관(URSSAF) 관할지역 사무소

- **연락 사무소 등록 관련 서류**
 - 등기신청서류 MO와 MO' (작성안내문)
 - 사무실 관련 부동산 임대 서류 1부
 - 사무소장 호적증명서, 신분증(여권 등)
 - 사무소장 신원보증서
 - 사무소장의 체류증
 - 사무소장의 임명장
 - 모회사 정관

2) 문의처

- 프랑스 기업설립청(APCE)
 - 주소: 14 rue Delambre 75682 Paris Cedex 14, France
 - 전화: 33-(0)1 42 18 58 58 / 팩스: 33-(0)1 42 18 58 00
 - E-mail: info@apce.com
 - 홈페이지: www.apce.com
- 사회보장기관([URSSAF](http://www.urssaf.fr))
 - 본사 주소: 93518 Montreuil Cedex
 - 전화: 33-(0) 820 01 10 10
 - 이메일: parisrp@urssaf.fr
 - 홈페이지: www.urssaf.fr
 - 파리 강북지역 관할 지부: 10, rue du Faubourg Montmartre, 75 009 Paris
 - 파리 강남지역 관할 지부: 3 rue de Tolbiac - 75 013 Paris
- 기업행정수속센터([CFE](http://www.cfe.fr): Centre de Formalites des Entreprises): 외국인 이 프랑스에 상사를 설립할 때 관할 지역 내 상공회의소에 문의하여 제반 제출 서류 및 행정 수속 절차에 대한 자문 및 안내를 받아야 한다.
- 상공회의소는 주요 도시마다 소재하고 있다.
 - **파리 상공회의소(Chambre de commerce et d'industrie)**
 - 주소: 2 R DE VIARMES, 75040 PARIS CEDEX 01
 - 전화: 01 53 40 46 00

- 팩스: 01 53 40 46 08
- 홈페이지: www.ccip.fr/cfe

6. 투자입지여건

가. 투자 입지 여건

- 프랑스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이며 세계 6대 경제 및 무역국이자 4대 투자 유출입 국가이다.
- 노동 시장이 경직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지만 2007년 사르코지 대통령의 대대적인 개혁 정책 덕분에 주 35시간 근로법이 완화되고 앞으로는 일요일 개점 및 추가 근무 등 기업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 각종 세제 개혁을 통한 기업부담 세제 감세 조치들이 단행되고 있어 이제는 유럽 국가 중에서도 양호한 국가경쟁력을 확립하고 있다.
- 인구 정책의 성공으로 출산율이 2.1에 달하며 서유럽 국가 중 인구가 증가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력 부족 현상이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는 나라이다.
- 내수가 경제 성장의 주 원동력이 되고 있는 관계로 선진국 기업들이 투자를 선호하는 국가
- 4억 6,000만 소비자를 가진 EU의 중심부에 위치한 프랑스는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와 인접해 있는 지리적으로 요지에 위치하고 있다.
- 프랑스는 자동차, 항공우주, 화학 등 첨단산업이 매우 발달되어 있으며, 그 외 패션, 화장품 등 고급 소비재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 무엇보다도 영재교육을 중시한 프랑스는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우수한 기술과 높은 생산성을 보유하여 세계적인 산업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 GDP상 세계 6위의 경제국이며 세계 3위의 서비스 수출국임과 동시에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해외 투자국인 프랑스, 가장 큰 단일 시장인 유럽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 누적된 해외직접투자액은 중국과 같고,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투자실적 면에서 세계 4위의 투자 유치국. 프랑스는 유럽에서의 성공을 위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프랑스는 기업과 기업인의 땅으로서 250만 개 업체, 각 분야의 세계적인 경제리더들 및 지명도가 높고 존경 받는 전 세계 남녀 경영인들이 프랑스에서 일하고 있다.
- 예로부터 프랑스식 산업개발 모델은 혁신의 선구자였다. 쿼 메리 2호를 비롯하여 에어버스 A380, 고속철도 (TGV), IC카드, 원자력 산업과 보건 제약분야까지 프랑스 기술자들은 미래의 기술을 개발하는 선구자로서의 명성을 올리고 있다.

- 우수한 교육시스템을 통해 프랑스 기술자, 엔지니어, 경영매니저 및 공무원들, 관련 분야 전문가의 역할을 우수하게 수행 중. 창조성과 뛰어난 직업의식을 겸비한 프랑스 근로자들, 세계적으로 결근율이 낮은 근면한 인력으로 고평가. 또한 선진국 중에서도 미국보다 앞선 노동생산성을 인정받은 국가이다.
- 원자력 발전소의 발달(전체 전력의 78%)로 여타 선진국에 비해 전기세가 가장 낮으며 전국 어느 곳이나 연결된 기차, 항공 및 도로망의 발달과 전국토의 98%를 커버하는 유, 무선 통신망의 발달 등으로 교통비 및 통신비가 저렴하다.
- 증권 시장의 발달로 사업자금 조달 여지가 많으며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이 운집해 있어 금융시장이 극히 풍부하다.

1) 프랑스 국가경쟁력 세계 25 위

- 프랑스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8년 25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도 28위에 비해 3계단 상승한 실적이며 2006년 30위에 비해서는 5계단 상승한 실적으로, 점차 순위가 상승하고 있다.
 - 순위 상승원인으로는 정치적 안정, 더 완화된 조세제도, 그리고 노동자들의 소득보장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조화를 추구한 정부 개혁 정책에 기인한다.
 - 실제 프랑스는 사르코지 대통령 취임 이후 주 35 시간 근로제도 정비, 복잡한 세제 완화 및 구매력 상승을 위한 개혁조치를 단행하고 있어 투자유치 매력도 측면에서는 향상되었다.
 - MD는 프랑스의 순위가 점차 상승 중이긴 하지만 1위 미국과의 점수차이가 30점 이상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차원에서 더 근본적이 경쟁력 강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 IMD는 과거 국가경쟁력이라 함은 국가 경제력을 의미했으나 이제는 투자매력도를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2008 국가경쟁력 순위

국가명	2008 순위	2007 순위	점수(1위 점수에 대한 상대점수)
미국	1	1	100
싱가포르	2	2	99.33
홍콩	3	3	94.964
스위스	4	6	89.656
덴마크	6	5	64.405
독일	16	16	74.735
중국	17	15	73.758
일본	22	24	70.028
프랑스	25	28	66.012.
인도	29	27	60.625

자료: Les echos 지(IMD 발표자료 인용)

2) 투자 유치 활동 기관이 제시한 프랑스의 우수한 투자환경(2007년 기준)

- 투자 기업 설립 경비가 세계에서 3번째로 가장 저렴하다. KPMG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의하면, 프랑스는 기업 경비 면에서 싱가포르 및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국가로 평가되었다.
 - 회사 등록비의 경우, 2006년 1월 기준 행정 수속비 76.19유로에 회사설립 공지 비용 약 220유로 등 300유로 미만이다.
- 전력(KW당 가격 기준) 및 가스 사용료 면에서 미국, 독일보다 저렴하며 영국과 동등한 수준이다. 그리고 전기세의 다양성 면에서는 세계 1위이다.
- 파리 및 수도권지방(ILE-DE-FRANCE)은 사무실용 면적(4,900만㎡) 면에서 영국에 앞선 유럽 최대 규모를 가졌다.
- 임금 면에서도 프랑스는 독일 및 영국을 앞섰으며 제조업 종사자 임금 면에서 유럽 15개 국가 중 가장 저렴한 임금 국가 중의 하나이며 미국의 임금 수준과 버금간다.
 - 파리의 경우, 이러한 여러 가지 강점 덕분에 세계 500대 글로벌 기업들의 본부 수(22개) 면에서 뉴욕, 런던 및 북경을 능가한 세계 2대 본부 유치 도시이다.
- 생활비 면에서도 파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비싼 도시인 런던에 비해 25포인트가 낮은 저렴한 생활비가 드는 수도이며 취리히, 동경 및 밀라노보다도 저렴하다.
- 세제 개혁으로 개선된 기업 환경 가운데,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 한도는 부가가치액의 3.5%이며 적자 액은 무한정 이월할 수 있고 지분 매도 시의 이익금에 대한 과세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연구비에 대한 감세한도가 1,600만 유로로 상향 조정되었고 특허에 대한 과세율이 인하되었으며 신설 기업에 대한 사회보장세가 8년간 면제되는 등 감세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 회사 이익금에 대한 영업세는 과거 50%에서 33.33%로 인하여 선진 공업국들의 평균 수준이다. 한편, 잠정적으로 적용되어 오던 1.5%의 부과세는 2006년에 폐지되었다.
 - 영업세의 경우, 독일(25%)보다 높지만 과세대상액 면에서 프랑스가 유리하여 결국 세액으로 계산하면 거의 비슷하다.
 - 그리고 네덜란드(29.1%), 영국(30%) 및 이탈리아(33%)와는 비슷한 수준이다.
 - 33.33%라는 영업세율 수치 자체가 주는 의미는 기업의 영업이익에 부과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제세들을 종합해서 계산해야 할 일부이기 때문에 종합 과세액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다. 예로 법인세 등 각종 지방세들과 합할 경우, 프랑스의 기업에 대한 종합 과세율은 34.9%로 독일(38.7%), 이탈리아(37.3%) 및 스페인(35%)에 비해 낮다.
 - 그리고 과세 기준을 정의하는 규정도 감안하여 비교해야 하는데, 프랑스의 경우 최근 과세 기준 면에서 상당히 개선되어 유럽에서 가장 유리한 국가들 중의 하나로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이 감소하였다.
- 유럽 벤처 캐피탈 조합(EVCA)이 조사 발표한 바에 의하면, 프랑스는 최근 현대화된 세제 개혁을 통해 영업세, 지방세 및 사회보장 세 등 원천공제 세금을 크게 감소함으로써 원천공제세 경쟁력 면에서 2006년 기준 영국을 앞질러 아일랜드 다음으로 유럽에서 2위를 차지했다.

- 연구.개발비의 50%까지 감세해주는 파격적인 세제 도입으로 동 분야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
 - 첫 해 연구.개발비 1억 유로의 50% 및 1억 이상의 5% 감세
 - 2년째 연구.개발비의 40% 감세
 - 3년째부터는 연구.개발비의 30% 감세
 - 감세 대상 연구.개발비로 간주되는 경비는 연구원 및 장비, 하청 연구비, 특허 및 보호 경비 및 기술 벤치마킹(VEILLE TECHNOLOGIE) 비용 등이다.

- 프랑스 정부의 외국 투자 기업 보조 활동이 활발하다. EU 단일 시장에서의 기업간 건전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원국은 외국 직접투자 프로젝트 이전에 EU에 보조금을 요청해야 하는데, 외국 투자 기업의 규모, 투자 액, 투자 프로젝트 대상 및 고용창출 인원 등에 따라 보조금이 결정된다.
 - EU의 이러한 규정 범주 내에서 회원국 정부는 특정 분야의 경제활동 개발을 자유로이 지원해줄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는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의 6개 형태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 EU 가 인정해준 지도에 명기된 경제 개발 미개척 지방 또는 산업 재배치 지방 내 생산 투자에 관한 지방정부의 보조(대기업의 경우, 투자액의 15%, 중소기업의 경우 25%까지)
 - 기업의 R&D 프로젝트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한 R&D 보조(R&D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프랑스 거의 전지역 내 투자 시 창출 고용자 1 명당 25,000 유로의 국토정비 보너스 보조)
 - 인력 양성 프로젝트에 기업을 동반할 수 있는 봉급자들의 직업 훈련 보조
 - 장기 실업자, 청소년 무직자 등 특정 인에 대한 지방 또는 중앙 정부의 고용 보조 (지방 투자의 경우, 창출 고용자 1 인당 15,000 유로까지 국토정비 보너스 지원)
 - 국토 전역에 대한 중소기업의 투자 및 고용 창출 보조
 - 환경 보조: 현행 규격을 따라잡은 중소기업 및 이를 능가한 대기업
 - 경쟁력 클러스터(66개)에 대한 프랑스 정부 지원금은 5년 동안 15억 유로이며 동 지역 내 기업의 경우, 영업세가 면제된다.

- 외국 직접 투자 기업들의 세금 관련 행정업무 창구 일원화 및 전자식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 등 각종 행정 수속 및 절차가 현대화 및 간편화 되었다.
 - 프랑스에서 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CFE(기업수속센터; Centre de Formalites des Entreprises)를 통하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곳에서 해당 기관에 필요한 절차를 일괄 처리한다

나. 유망 투자분야

1) 식료품산업

동 분야는 EU 전체 농 식료품산업 매출의 21.1%을 차지하는 유럽 최대의 규모를 갖는 산업일 뿐만 아니라 동 분야 대 유럽 수출의 72%가 유럽이다. 미국 및 일본도 주요 수출 대상 국가이어서 세계적인 인지도가 높다. 그 이유는 프랑스가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철로, 항로 등 뛰어난 교통 연계 시스템 덕분에 유럽 진출을 원하는 기업에게 이상적인 입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 밀도는 효과적인 물류체인 제어를 가증하게 한다.

동 산업은 관련 전문 인력 양성기관이 많아 전문 인력을 구하기가 용이하여 프랑스 제 3위의 고용률을 자랑하는 산업분야로서 외국인이 직접 투자를 할 만한 산업이다. 4,250 개 업체가 농식품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중 93%가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다논(DANON)과 같은 다국적기업도 진출해 있으며 종업원 500명 이상의 85개 기업이 동 산업 수출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포도주, 치즈 등 전통적인 생산품 외에도, 프랑스는 농식품 산업의 기술 혁신을 위해 기술혁신에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 정부 출자 연구기관들의 지원을 받아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프랑스 전국 40여 개의 기술센터(ACTIA: Association des Centres Techniques de l'Industrie Agroalimentaire)를 통해 고도의 기술 개발 및 산업에의 응용, 신상품의 생산 및 신규 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다.

프랑스의 농 식품산업이 강한 이유는 프랑스 전체 면적의 55%가 농경이 가능 정도로 농경지 면적이 넓은데 기인하며 농산물의 70%를 가공하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프랑스의 농 식품은 세계적으로 안전한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도 주요인이다. 생산자에 대한 엄격한 품질 검사를 통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프랑스의 생산업체는 전 세계적으로 까다롭기로 소문난 프랑스의 미식가의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한 결과이기도 하다. "Made in France" 제품은 전통적으로 동 분야의 제품의 질과 생산 노하우를 인정받고 있으며 신선 식품에서 첨단 가공 식품까지 모든 종류의 농 식품 생산이 가능한 것이 프랑스가 유럽시장 및 세계 수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이다.

2) 바이오테크놀로지 산업

2001년 현재 바이오테크 기업의 수는 250여 개로 유럽에서 세 번째 규모이며 1997년 이후 프랑스의 바이오산업은 급성장을 이루어 2000년 프랑스 바이오 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약 25%에 달한다. 바이오테크 산업의 매출액은 7억 5,700만 유로이며, 이 분야에서 일하는 인력은 약 5,000명이며 320,000 명에 달하는 풍부한 연구 인력과 공공연구기관, 병원, 대학들이 과학연구에 공헌한 발표 논문 수로 볼 때 프랑스는 세계 4위이다. 프랑스는 거대한 바이오산업 시장으로 유럽 제2의 제약시장이자 1위의 제약생산국이다.

프랑스는 동 분야에서 근로자 1인 시간당 GDP는 34달러로 유럽 최고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으며 제조업 평균 인건비는 시간당 80달러로 가장 낮아 고용률이 높은 산업이다. 지난 10년간 프랑스는 제약분야에서 고용이 1% 증가한 데 비하여 같은 기간 독일, 이탈리아 및 스페인 등에서는 일자리가 감소했다.

프랑스의 바이오테크 산업은 동 분야 기업의 80%가 인간 건강 관련 기술개발 중심으로 발전해 있다. 프랑스 바이오산업은 주로 기술 플랫폼 기업(genomics, drug delivery)이 주도했으나 최근 들어 치료약품 개발로 선회하고 있으며 공 기관과 민간 기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되어 있다. 프랑스의 바이오 산업단지나 각 지역의 혁신기술 네트워크는 공공 연구소, 병원, 대학, 창업 인큐베이터 등을 포괄하여 형성되어 있으며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술이전을 비롯하여, 필요한 인프라와 서비스, 지원 등을 공유하여 바이오 기업이 창립 초기를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8개의 "바이오 산업단지 (GENOPOLE)"가 설립되어 있는데 제노폴은 주로 제노믹스와 포스트 제노믹스로 특화되어 있고 설립 지역은 Evry(Paris 남쪽 지방도시), Lille(벨기에 국경 지역 도시), Strasbourg(독일 국경 지방 도시 내 BioValley), Lyon 및 Grenoble (프랑스 중동부 지방 도시 및 남부 지방 도시), Marseille(지중해 지방 도시), Montpellier(중남부 지방 도시), Toulouse(스페인 국경지방 도시) 및 Bordeaux(남서부 대서양 지방 도시) 등이다.

바이오산업 개발을 위한 프랑스의 금융지원책은 다양하다. 국립 기술 개발 지원 청(ANVAR: 2005년 BDPME와 통합되어 OSEO로 바뀜)은 프랑스 공 기관으로서 혁신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창업 자문 및 자금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 및 민간벤처 기금은 기업이 창업 초기 단계를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2000년 7월에 조성된 BioAM기금은 국립과학연구원(CNRS), 국립 의약품 연구기관 (INSERM), 국립 농작물 학 연구 기관(INRA) 등의 정부 연구기관과 국립금고 (CDC: Caisse des depots et de la Consigne), AXA, Caisse d'Epargne 등 금융 회사에서 참여한 것으로 바이오 신생 기업이 창업 구상부터 창업 시까지의 필요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금규모는 10년간 3,000만 유로로 20~25 개사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 외에 벤처캐피털은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민간기금으로 1999년 한 해 동안 프랑스에서는 약 167개의 바이오테크 산업 프로젝트에 1억 5,500만 유로의 벤처자금이 투자되었는데, 주요 바이오 벤처 투자자는 Sofinnova Partners, Apax Partners, Atlas Ventures, Banexi Ventures, Auriga Ventures, Genavent 등이다.

프랑스는 동 분야의 외국인 투자 장려책으로서 신생 바이오 업체의 창업 지원 및 기존 업체의 성장을 도모하고 2002년 은행의 장기대출기금(BDPME: Banque de Developpe ment des Petite et Moyens Entreprises. 2005년 ANVAR와 통합되어 OSEO로 바뀜) 4억 유로 조성 및 신규 씨드 캐피털 머니 9천만 유로를 정부 등 공기관이 조성해주었다. 그리고 프랑스 연구성은 GenHomme 프로그램으로서 인간 제논 해독 결과를 실질적으로 이용을 허용해 주었으며 제논과 포스트 제논 연구 지원은 물론 정부연구소 와 민간연구소 간의 연구 개발 협력을 지원(5년간 5억 500만 유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해주고 있어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분야이다.

3) 물류 산업

유럽 GDP의 8%에 해당하는 약 7,100억 유로의 물류산업 규모를 갖는 유럽의 중심 부에 위치한 프랑스는 100만 여 물류 산업체와 약 500만 명의 종사자 및 1,200억 유로의 물류산업 규모를 가지고 있다. 동 산업은 성장의 전환점을 맞고 있는 산업 분야로서 통합 물류업체의 경우 매년 10~12%의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유망 산업 이다. 유럽에서는 약 20여 개의 물류 그룹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이들의 매출 액은 18억 유로가 넘는다.

외국물류 기업이 많이 진출하여 프랑스 물류시장의 28%를 점유하고 있는데, 영국기업 (Hays Logistics, Exel plc 및 Tibbett & Britten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벨기에(ABX logistics, Ziegler, Katoen Natie), 네델란드(TNT Post Group), 독일(Danzas), 미국(UPS, Frigoscandia-Prologis의 계열사) 기업들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물류산업은 판매업, 창고업, 포장 업 등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기업을 포함하는데, 동 분야의 외국인 투자 건 수 및 고용창출 인력 수는 2000년 41건에 2,164명 및 2001년 40건에 2,440명으로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업에서 물류 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이 증가 중이고 냉장 및 냉동품, 자동차부품, 의약품 등 취급 제품군별로 전문화하는 경향이 있고 물류를 일괄 처리하는 업체의 등장으로 기업의 물류를 아웃소싱 하는 기업이 증가하여 프랑스 전체 기업의 30%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물류산업이 발달하고 있는 까닭은 프랑스의 뛰어난 교통 운송망(육로, 철로, 항만, 수로, 항공로)의 발달과 풍부한 전문 인력 및 양성교육기관의 발달, 저렴한 토지 및 부동산 비용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급성장 분야에 진출하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

7. 노무관리

가. 프랑스 노동법 개요

프랑스의 노동법은 기업의 경제적 목표를 감안하는 한편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노사계는 각 경제 산업분야의 관행을 반영하는 마스터 단체협약(conventions collectives)으로 결정된다. 종업원의 이윤배분 참여 및 종업원 지주제에 대해 소득세 및 급여세를 면제 하며 장려하고 있고, 효율적 생산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 및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에 한시적으로 배치된 파견근로자는 프랑스와 본국간에 사회보장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프랑스나 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나. 노사관계

1) 프랑스 관련법령 하에서 자유로이 고용계약 협상 가능

가장 보편적인 계약유형은 CDI라고 하는 시한을 정하지 않는 고용계약(contrat a duree indeterminee)이다. 관행상 계약서는 반드시 프랑스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론상 계약쌍방은 자신의 계약서를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나, 계약서 조항은 노동법이나 해당 기업의 업종 전반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저촉할 수 없다. 고용 계약서에는 급여 수준, 근로 시간, 직급, 직장주소 등이 꼭 명시되어야 한다. 보수는 해당 업종 전반에 적용되는 협약에서 요구하는 최저보수나 법정최저임금(SMIC)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프랑스의 법정최저임금은 매년 7월 1일에 한번씩 조정이 되고 있는데 2007년 6월 29일에 조정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시간당 법정최저임금은 8.44유로이며 주 35시간에 해당하는 월 151.67시간 근무 조건의 월 급여액은 1,280.07유로이다.

법정최저임금(SMIC) 인상 현황				
연도	시간 당 급여	월 급여(총체)		관보 게재 일
	en euros	151.67 시간 근로 기준 I	169 시간 근로 기준 I	
2008	8,63	1 308,88	//	29/04/2008
2007	8,44	1 280,07	//	29/06/2007
2006	8,27	1 254,28	//	30/06/2006
2005	8,03	1 217,88	1 357,07	30/06/2005
2004	7,61	//	1 286,09	02/07/2004
2003	7,19	//	1 215,11	28/06/2003
2002	6,83	//	1 154,27	28/06/2002
2001	6,67	//	1 127,23	29/06/2001

자료: 프랑스 경제 연구, 통계기관(INSEE)

2007년 신임 대통령 Nicolas Sarkozy의 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사회보장세 및 소득세 면제의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근무시간 35시간제에 탄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5월 29일 노동부 장관이 노조에 제시한 협상(안)은 기업 임의로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주 35시간제가 실제로 무용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이는 ‘더 일하고 더 벌자’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된 것이며 구매력 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최우선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 법안은 프랑스 전경련 및 노조와 함께 협의했던 내용(35시간 준수+추가 근로수당)과 전혀 다른 파격적인 것이어서 프랑스 전경련 및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어 국회에서 통과될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프랑스의 연도별 법정최저임금 인상 현황

(단위: 유로)

연도	시간당 법정최저임금	법정최저임금 월 급여액		프랑스 관보 공고일
		월 151.67 시간 근무 시	월 169시간 근무 시	
2007	8.44	1,280.07	//	2007/06/29
2006	8.27	1 254,28	//	30/06/2006
2005	8.03	1 217,88	1 357,07	30/06/2005
2004	7.61	//	1 286,09	02/07/2004
2003	7.19	//	1 215,11	28/06/2003
2002	6.83	//	1 154,27	28/06/2002
2001	6.67	//	1 127,23	29/06/2001

자료: 프랑스 경제통계 연구소(INSEE)

프랑스 노동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시기적으로 인력 수요가 높아질 경우 임시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근로 시간을 조정하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로 임시직 고용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임시직이나 시한을 정해놓고 고용하는 경우, 프랑스 노동법은 18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프랑스의 임시고용 시장은 미국 다음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2) 대표이사의 자격

대표이사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서가 아니라 회사정관에 대표 임명, 급여수준, 책임 소재 등이 명기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동시에 고용계약서를 체결하기도 한다.

고용을 위한 행정절차가 간편하여 상업기업등기소에 회사를 등기하면 바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직원 고용 시, 업무를 실제로 시작하기 전에, 직원고용 신청서(DUE)를 회사 소재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사회보장 및 국민연금연맹 URSSAF에 제출한다. 신청서는 전자 시스템으로 관련 기관에 전달된다. 신청서를 토대로, URSSAF는 고용인을 의료보험, 고용 보험 등 필요한 시스템에 등록을 한다. 새로운 고용인은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국립 고용청(ANPE)에서는 기업이 직원을 고용하는데 도움을 준다. 기업이 제안하는 직종과 업종에 대한 정보제공, 이력서 심사, 직원연수 프로그램 등 다양하다. 프랑스 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바로 업무나 작업장에 투입하여 가동할 수 있는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사회 보장세 감면이나, 특종 직종에 대한 고용증진 수당 등을 통한 고용지원 정책은 특히, 신규 투자 또는 신규 고용 창출 기업에 큰 도움이 된다.

3) 개인적, 경제적 사유로 인한 고용계약 해지

고용계약은 고용주가 개인적 사유(실제적이고 중대한 사유, 과실, 중대한 과실)나 경제적 사유(기업의 부실화)로 해지할 수 있다. 고용주는 해고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밝혀야 하며 법에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경제적 사유로 인한 해고에는 사회보장 계획, 재취업 또는 지원조치, 노동부에 대한 보고 의무를 비롯한 특별규정이 적용된다. 규정상 노조대표 및 지방 노동부 사무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해고 시에는 더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4) 60세부터 정년퇴직

근로자는 60세 이상의 나이로 퇴직할 경우 항상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 고용주는 근로자가 법정 퇴직연령인 65세에 도달하였을 때 퇴직시킬 것인지 혹은 충분한 기간 동안(40-41년) 사회보장 부담금을 납부해오고 있는 근로자들을 60세에서 65세 사이에서 퇴직시킬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5) 임금 수준

프랑스의 2006년도 평균 임금은 2,583(세전)유로 및 1,941유로(세후)이다. 세전 월급여는 1%, 세후 월급여는 0.4% 인상되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1.6%)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리고 남녀간 월급여 격차는 여전히 18.9% 수준을 유지했다.

고용주는 동 임금 (NET)의 약 50%(BRUT 임금 기준 시 약 41%)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세와 약 25%(BRUT 임금 기준 시 약 21%)에 해당하는 피고용자 부담의 사회보장세를 합해서 분기별로 사회 보장 기관(URSSAF)에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 비용은 BRUT 임금의 약 141%(NET 임금 기준 시 약 150%)이다.

최근 연도 등급별 및 성별 민간 및 준공무원 월급여

(단위: 유로, %)

등급별	전체		남자		여자	
	2005	2006	2005	2006	2005	2006
D1(2006년 전체의 10%)	1 040	1 060	1080	1 099	985	1 005
D2(2006년 전체의 10%)	1 162	1 186	1210	1 232	1 094	1 119
D3	1 272	1 297	1328	1 353	1 186	1 211
D4	1 391	1 417	1454	1 480	1 285	1 311
중간	1 529	1 555	1598	1 625	1 403	1 429
D6	1 699	1 727	1781	1 809	1 552	1 579
D7	1 926	1 957	2036	2 067	1 745	1 776
D8	2 286	2 324	2449	2 487	2 011	2 051
D9	3 032	3 084	3312	3 363	2 528	2 585
최고/최저 비율	2,9	2,9	3,1	3,1	2,6	2,6

자료: Insee, DADS

연도별 임금 및 물가 상승률(%)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평균 급여(세전)	0,7	0,2	1,7	0,6	0,9	0,9	0,3	0,6	1,1	1,0
평균 급여(세후)	0,9	0,9	1,6	0,5	1,1	0,6	-0,3	0,0	1,0	0,4
소비자 물가	1,2	0,7	0,5	1,7	1,7	1,9	2,1	2,1	1,8	1,6

자료: Insee, DADS

최근 연도 직급별 및 성별 민간 및 준공무원 월급여 및 인상률

(단위: 유로, %)

민간 및 준공무원	월급여(세전)			월급여(세후)			고용 비중	
	2005	2006	인상률	2005	2006	인상률	2005	2006
전체	2516	2583	1,0	1903	1941	0,4	100,0	100,0
고급 간부	5051	5174	0,8	3777	3855	0,5	16,2	16,3
중간 간부	2552	2627	1,3	1926	1966	0,5	24,8	24,5
사무직	1751	1791	0,7	1340	1361	0,0	22,9	22,8
노동직	1839	1884	0,8	1403	1423	- 0,2	36,0	36,3
남자	2690	2759	0,9	2036	2076	0,3	100,0	100,0
고급 간부	5367	5505	0,9	4018	4112	0,7	18,3	18,3
중간 간부	2676	2754	1,3	2023	2066	0,5	22,8	22,6
사무직	1809	1849	0,6	1398	1416	- 0,3	11,3	11,2
노동직	1882	1931	1,0	1436	1457	- 0,1	47,6	47,9
여자	2187	2251	1,3	1650	1686	0,6	100,0	100,0
고급 간부	4174	4282	1,0	3105	3161	0,2	12,3	12,7
중간 간부	2369	2437	1,2	1780	1817	0,5	28,5	28,2
사무직	1723	1764	0,7	1312	1336	0,2	44,7	44,6
노동직	1577	1598	- 0,3	1204	1211	- 1,0	14,5	14,6
법정최저임금 Smic (151.67 시간)	1 186	1 236	2,6	933	970	2,4	-	-
시간당 임금								
풀 타임								
남자	17,39	17,86	1,1	13,16	13,43	0,4	65,8	65,8
여자	14,43	14,87	1,4	10,89	11,14	0,7	34,2	34,2
전체	16,38	16,84	1,2	12,39	12,65	0,5	100,0	100,0
고급 간부	32,25	33,03	0,8	24,11	24,61	0,5	16,5	16,7
중간 간부	16,60	17,08	1,2	12,53	12,78	0,5	24,8	24,6
사무직	11,52	11,80	0,8	8,82	8,97	0,1	22,7	22,6
노동직	12,00	12,33	1,2	9,15	9,31	0,1	35,9	36,1
파트 타임								
남자	15,47	16,21	3,1	11,82	12,34	2,8	32,9	30,4
여자	12,59	13,03	1,9	9,52	9,78	1,1	67,1	69,6
전체	13,54	14,00	1,8	10,28	10,56	1,1	100,0	100,0
고급 간부	28,63	28,90	- 0,6	21,38	21,47	- 1,2	11,0	11,4
중간 간부	15,88	16,33	1,2	12,02	12,32	0,8	17,7	18,5
사무직	10,48	10,96	2,9	7,98	8,16	0,6	46,0	48,1
노동직	10,94	11,16	0,3	8,42	8,56	0,0	25,3	22,0
법정최저임금 Smic	7,82	8,15	2,6	6,15	6,40	2,4	-	-

자료: Insee, DADS

지방별 및 직급별 연봉(NET)

(단위: 유로, %)

연도	2005	2000	2005년 연봉(NET)				
지방별	근로자 분포율	평균 연봉	평균	간부	준 간부	사무직	노동직
Alsace	3,1	19,278	21,615	41,440	22,998	15,666	17,544
Aquitaine	4,4	18,216	20,297	40,107	22,289	15,530	16,292
Auvergne	1,8	17,584	19,954	41,425	22,222	15,672	16,416
Basse-Normandie	2,0	17,285	19,532	40,796	22,113	15,601	16,280
Bourgogne	2,4	17,899	20,111	39,890	22,766	15,581	16,654
Bretagne	4,3	17,396	19,866	39,319	21,980	15,619	16,058
Centre	3,8	18,339	20,332	39,489	22,506	15,656	16,620
Champagne-Ardenne	2,0	18,195	20,177	41,368	22,568	15,718	16,964
Corse	0,4	17,482	19,708	41,460	22,679	15,835	15,825
Franche-Comté	1,7	18,157	20,443	40,566	22,586	15,700	16,963
Haute-Normandie	2,9	19,039	21,271	42,004	23,792	15,974	17,630
Ile-de-France(수도권)	25,3	26,017	29,237	50,723	24,677	17,201	18,343
Languedoc-Roussillon	2,9	17,743	19,859	38,891	21,953	15,239	15,921
Limousin	1,0	17,415	19,472	40,615	21,688	15,559	15,973
Lorraine	3,2	18,284	20,565	40,894	22,815	15,655	17,102
Midi-Pyrénées	3,9	18,505	21,093	39,648	22,206	15,567	16,202
Nord-Pas-de-Calais	5,8	18,301	20,501	40,235	22,225	15,613	16,748
Pays de la Loire	5,4	17,876	20,054	40,386	21,994	15,604	16,245
Picardie	2,6	18,000	20,138	40,744	22,415	15,587	16,864
Poitou-Charentes	2,4	17,412	19,568	40,003	21,853	15,685	15,976
Provence-Alpes-Côte d'Azur	6,7	19,158	21,561	41,010	22,824	15,776	16,835
Rhône-Alpes	10,1	19,649	22,000	42,132	22,937	15,965	17,118
본토 평균	98,2	20,429	22,882	45,326	23,117	16,074	16,917
Guadeloupe	0,4	18,327	20,504	44,647	23,439	16,021	15,664
Guyane	0,1	20,506	23,415	47,662	25,507	20,110	16,055
Martinique	0,5	18,563	20,998	45,061	23,966	16,189	15,760
Réunion	0,8	17,806	19,812	44,731	23,431	15,820	15,635
전체(해외 속령 포함)	100	20,398	22,842	45,327	23,139	16,079	16,900

자료: 프랑스 경제통계 연구소(INSEE), 발표된 가장 최근 자료

2005년도 직업별 중간 수준 임금(월 급여 NET)

(단위: 유로)

직급별	중간임금	직급별	중간임금
	(NET)		(NET)
의사 및 유사 직	3,000	금속 절삭작업	1,480
조사 및 연구직	2,850	사회활동직	1,470
영업 간부	2,800	토목공사 기술직	1,460
행정업 간부	2,730	정비 작업	1,440
엔지니어 및 공업 간부	2,700	건설장비 기사직	1,430
운송업 간부직	2,670	자동차 기사직	1,430
정보처리 엔지니어	2,640	생산 프로세스 작업	1,420
은행 및 보험업 간부직	2,600	기계공	1,400
간부직 공무원	2,600	전기 및 전자 근로직	1,400
건축토목공사 간부 및 현장 감독	2,600	보조 간호직	1,380
홍보직	2,290	행정 사무직 공무원	1,360
교육직	1,980	회계 사무직	1,350
간호사 및 산파직	1,900	건설 작업직	1,350
기계 기술직	1,880	기업 행정사무직	1,340
군인, 경찰, 소방대원	1,800	비서직	1,300
운송업 경영직	1,780	하역 작업직	1,300
공장 기술직	1,770	금속 가공직	1,300
행정 기술직	1,760	푸주간, 빵가게 근로직	1,300
직업 훈련직 및 인사직	1,750	자동차 수리직	1,280
농업 기술직 및 간부직	1,750	전기 및 전자 노동직	1,240
은행 사무직 및 기술직	1,750	금속가공 노동직	1,230
행정 기술직 공무원	1,730	요리사직	1,210
경공업 기술직	1,730	정비보수직	1,200
정보 기술직	1,700	경비직	1,200
외판직	1,670	건설 노동직	1,200
사장 비서직	1,650	호텔 및 음식점 사무직	1,190
직업훈련직	1,620	잡역직	1,120
전기 기술직	1,600	정원사	1,110
정비직	1,600	미용사	1,100
예술직	1,600	기계 근로직	1,090
그래픽산업 기술직	1,590	판매직	1,080
준 의약품 판매업 경영직	1,580	텍스타일, 가죽, 종이 노동직	1,080
보험 기술 사무직	1,580	장인 및 근로직	1,070
관광 및 운송 안내직	1,560	텍스타일, 가죽, 종이 근로직	1,040
건축토목공사 기술직	1,520	가사보조직	1,020
어부	1,520	가정부	1,020
도매업자	1,490	베이비 시터	900
그래픽 근로직	1,490		

자료: 프랑스 경제통계 연구소(INSEE), 발표된 가장 최근 자료

8. 조세제도

프랑스의 조세제도는 기업의 투자, 지역경제 개발과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었다: 감가상각, 향후 기업 활동에 대한 손실 연기와 면제 등. 프랑스의 조세정책은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기업에 적용된다.

프랑스는 110개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이중 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가. 법인세

외국기업이 프랑스에 항시적 사업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수익은 언제나 프랑스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자회사, 지점, 항구적 시설 등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프랑스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110개 국가와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체결하여 기업이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방지한다.

항시적 시설의 정의는 체결한 조약 문에 명시되어 있는 정의에 준한다.

1) 과세대상 수익의 정의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은 공제되는 비용을 제외한 수익을 말한다. 수익은 모든 영업활동, 판매와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내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회사가 지출한 제반 비용 및 원가는 공제 가능하다.

2) 공제 가능한 비용:

-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과 유형고정자산
- 비품
- 건물과 장비 임대료
- 급여
- 사회보장분담금
- 구입 물품
- 에너지소비
- 광고비
- 금융 비용

3)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가 남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특정 유형의 경비에 대해 공제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개인차량 이용 등 필수항목이 아닌 지출이 이에 해당한다.

모회사가 프랑스의 자회사에게 청구한 금액은 공제 가능하다. 특히 경영관련 비용, 이자 비용, 로열티는 공제대상이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었다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때 적용된 가격은 시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4) 감가상각 규정

프랑스의 감가상각 규정은 해당 고정자산의 통상 사용연한에 따라 정액법의 감가상각율에 1.5부터 2.5까지의 가속계수를 적용한다. 중고가 아닌 신제품 생산 설비 구입시 이 규정이 적용된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감가상각 기간은 12개월이다.

5) 법인소득세 세율 및 산정방식

한시적인 특별법인세를 제외하고 다음의 요율이 적용된다.

- 법인소득세 표준 세율은 33.33%.
- 일부 제한된 경우에는 19%의 경감세율이 적용된다.
- 소기업(주식의 75%를 개인이 소유하며 1년 매출이 1,000만 유로 이하의 기업)의 경우 수익이 3만 8,112 유로 미만인 경우 15%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그 이상의 경우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6) 경상 손실의 이월처리

경상 손실은 발생 년으로부터 5년간에 걸쳐 이월 하거나, 발생 년 이전 3년에 걸쳐 적용할 수 있다. 감가상각 총당금이나 장기 순자산 손실과 관련된 손실분에는 특수 규정이 적용된다.

7) 기업군에 대한 통합신고제도

프랑스의 통합 조세 제도는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어 그룹회사(groups of companies)들이 세액 산정액의 범위 내에서 수익과 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프랑스의 모회사가 자신과 세무상 동일한 그룹으로 통합될 자회사의 지분을 최소한 95%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기업의 회계연도 개시일 이전 5년 동안 이러한 통합체제를 명백히 유지해와야 한다.

나. 부가가치세 및 관세

부가가치세(VAT)는 상품 및 서비스 소비에 대한 세금으로 소비자가 지불한다. 기업은 판매 시 부가가치세 수합의무만 있고, 수합한 총액에서 자신의 구매 및 투자 분에 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는다. 기업이 자신의 구매 분에 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수합한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하면 세액공제분을 변제 받는다. 상품의 역외수출은 부가세 면세 대상이다.

1) 부가세율

상품 및 서비스 판매에 대한 표준 부가가치세율은 19.6%이나, 경감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식품의 경우 5.5%, 일부 농산물 및 의약품 (5.5% 또는 2.1%), 서적, 호텔, 대중교통, 신문 및 잡지, 여가 활동과 관련해서는 5.5%의 세율이 적용된다. 최근 프랑스 정부는 오디오 및 비디오 작품이 수록된 CD, DVD 등도 서적과 동일한 부가세 (5.5%)를 적용할 방침이어서 조만간 동 상품들의 수요 증대가 예상된다.

2) EU 전역에 걸쳐 균일한 관세의무 적용

상품은 유럽 전역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며 수입품에 대해서는 한 EU 회원국에서 다른 회원국으로 이동 시 1회에 한해 관세가 부과된다. 다른 EU 회원국에 재수출되기 위해 프랑스에 도착하는 상품은 관세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프랑스로 반입할 수 있다.

다. 연간 도급세 (IFA: IMPOT FORFAITAIRE ANNUEL)

연간 도급세는 2003년에 도입된 기업세로 매출규모가 4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연 1회 부과되며 매년 세율이 책정된다.

2008년부터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연간 도급세(IFA: IMPOT FORFAITAIRE-ANNUEL)가 면제되는 개정안이 최종 검토 중이다.

2007년도 연간 도급세율 표

매출 규모	연간 도급세율(유로)
40만 ~ 75만 유로	1,300
75만 ~ 150만 유로	2,000
150만 ~ 750만 유로	3,750
750만 ~ 1,500만	16,250
1,500만 ~ 7,500만 유로	20,500
7,500만 ~ 5억 유로	32,750
5억 유로 이상	110,000

자료: 프랑스 경제 재무부

라. 원천 공제세

고용 규모별로 사회 원천공제세가 차등 부과되고 있다. 주로 직원 복지를 위한 기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8년부터는 10명 미만의 소기업들의 고용증대로 인한 세율 인상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 규모 등급 한계를 폐지할 방침이다.

2007년도 고용규모별 사회 원천공제 세율

기업의 고용규모	직업훈련세	주택 용자기금 1%	주택 보조기금	교통비
9명 이하	급여의 0.55%	해당 무	급여의 0.10%	해당 무
10명째 고용	3년간 0.55%후 1.05% 까지 점증	해당 무	급여의 0.10%	의무
10~19명	급여의 1.05%	해당 무	급여의 0.10%	의무
20명째 고용	3년째 1.6%까지 점증	3년간 면제 후 3년간 점증	급여의 0.5%	의무
20명 이상	급여의 1.6%	부과	급여의 0.5%	의무

자료: 프랑스 경제 재무부

□ 연대세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연대세는 노약자 및 운신이 불편한 장애자들을 위해 신설된 것으로 근로자들이 연 7시간을 추가로 근무한 1일 급여를 고용주가 수급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몫은 없으나 급여표에는 고용주 부담으로 명기된다.

마. 지방세

1) 직업세(Taxe professionnelle)

직업세는 대표적인 지방세이다. 직업세는 납세기업이 소재한 지방행정당국이 매년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지방행정당국은 다음을 고려하여 직업세를 부과한다:

- 기업의 사무실 임대료
- 기업이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가처분 고정자산가액의 16%

이 두 가지 수치의 합계의 84%에 대해 매년 지방행정당국이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그 밖의 지방세로는 토지와 건물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토지세(Taxe fonciere), 비 영업용 건물의 임차인이나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주거세(Taxe d'habitation) 및 오물 수거세가 있다. 세액은 해당 자산의 임차가액 및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리고 2007년부터는 TV 시청료가 주거세의 한 비목으로 취급되어 징수되고 있다.

최근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TV 시청료를 동결하겠다는 발언을 하여 관련 업계(공영 TV 방송사 등)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동 방침은 구매력 증대의 일환이어서 시행될 가능성이 많다.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외환 관리 제도

프랑스의 외환 관리 제도는 점진적으로 완화되어 오다가 1990년에 완전히 폐지되어 현재는 특별한 외환 관리 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

나. 외국 자본 및 기술 등록

통계 및 통제 목적을 위해 1만 5,000유로 이상의 외환 거래는 프랑스 금융 기관이 중앙 은행에 보고해야 하는 것 외에 외국 자본에 대해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기술 협정이나 이와 유사한 협정에 대해서도 보고할 필요가 없다.

다. 현금 구좌

모든 프랑스 거주자는 프랑스 혹은 해외에 현금 구좌를 가질 수 있다. 해외에 은행 구좌나 증권을 보유하는 거주자는 은행 명, 구좌 혹은 예금 종류 등을 프랑스 내 거주자임을 밝히는 증명서와 함께 신고해야 한다.

라. 자본 및 소득의 송금

법인 혹은 지사에 투자된 자본의 본국 송금에 대한 외환 규제는 없다. 재화 혹은 서비스의 구입 및 판매, 이자, 로열티, 배당금 및 기술 자문료를 포함한 제 소득의 본국 송금에 대한 규제도 없다.

마. 자금 조달 방법

프랑스 은행의 대출은 매우 자유로우며, 대출 방법도 여타 선진국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산이 있을 경우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자산이 없을 경우 모기업 또는 제3자의 지급 보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지 투자법인의 경우, 상장등록을 하여 주식을 판매할 수 있다. 40대 그룹회사들만을 위한 제1주식시장 외에 중견 기업들을 위한 제2 주식시장도 발달해 있다.

이 외에도 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활용도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다.

1) 팩토링 및 포페이팅

국제무역에서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면 채무자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신용이 나쁜 구매자를 만나면 돈 받을 방법이 매우 어려워 진다. 그렇다고 큰 돈을 미리 받고 판매할 수도 없다. 이럴 때 이용하는 팩토링이나 포페이팅 금융기법이 있다.

□ 팩토링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보전과 관련 팩토링 회사(신용판매회사)가 판매자를 대신하여 구매자에 관한 신용조사 및 신용위험 인수, 매출채권의 기일 관리 및 대금회수, 금융제공, 기타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 서비스이다.

국제팩토링은 무신용장방식의 신용조건부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팩토링회사가 신용조사 및 신용위험인수, 금융제공, 대금회수 기타 업무처리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이다. 즉 국제팩토링은 전세계 팩터의 회원망을 통하여 수입상의 신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무신용장방식의 새로운 무역거래 방법이다.

팩터는 수출상을 위하여 수출채권과 관련 된 대금회수를 보장하고 회수업무에 따른 장부기장 등 회계업무와 전도금융에 이르기까지 제반 서비스 제공한다. 그리고 수입상에게는 해외로부터 신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을 위한 신용을 공여해 준다.

□ 포페이팅

불어의 Forfait에서 유래된 말로 현금을 대가로 채권을 포기 또는 양도한다는 뜻의 포페이팅은 수출환 어음이나 약속 어음을 받은 수출업체에게 일체의 상환청구권 없이 (Without Recourse) 고정이자율로 할인해 주는 무역금융 기법이며 일반적으로 개설은행 으로부터 인수통보(A/A)를 받는 시점에 할인이 이루어진다.

Forfaiting이 완결된 경우, 수입자의 도산, 신용장 개설은행의 파산, 수입국가의 Default 등의 사유로 만기 대금회수가 불가능 하게 되어도 수출자가 수출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국가 위험도가 높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수출업자가 널리 활용한다. 단, 수입지 법원의 지급정지 가처분 (Court Injunction)에 의한 만기부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대상 거래

- 신용장방식 기한부 수출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하자 사항이 없고, 매입이 특정은행으로 제한된 Restricted L/C 가 아니며, 50,000 달러 상당액 이상으로 USANCE 기간이 60 일 이상, 다만 개설국가, 금액 및 Usance 기간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별도로 제한될 수 있다.

3) 거래 절차

- 거래지점의 외환계 또는 외환업무부로 Forfaiting 의뢰
- 외환업무부에서 Forfaiting 가능여부 및 할인조건 확정
- 할인매입자 (Forfaiteer) 선정
- 할인이율과 제 수수료조건 확정
- 거래절차 확정
- 지점에서 수출환어음 매입하여 수출업체에 수출대금 지급(일반 수출절차와 동일)
- 인수통보(A/A)가 접수되면 Forfaiting 이 실행되고 할인된 수출대금이 입금
- 수출대금이 입금되면 수출사후관리 종결(수출자의 의무 소멸)
- 만기에 Forfaiteer 가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회수

V.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 특성

가. 소비자 및 바이어 특성

1) 신중하고 까다로운 구매태도

프랑스는 최근 농산물, 식료품 및 석유제품 가격 급증으로 인해 인플레이션(2.5%)이 임금 인상률을 상회함으로써 바닥에 떨어진 구매력 문제가 팽배하다. 이로 인해 중산층들도 구매 능력이 여유롭지 못하여 구매 태도가 상당히 신중하고 까다로워졌다. 품질대비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상품을 찾아 다니는 것이 일상 생활화 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 보호단체의 활동이 활발하여 상품의 가격 및 안전도, 친환경 제품 여부 등을 꼼꼼히 분석,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프랑스 소비자들의 구매 시 큰 영향을 주고 있다.

2) 독창적인 디자인 선호

프랑스는 패션이 발달한 나라이며 항상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의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량 다품종이 거래되는 시장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 바이어들은 새로운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을 선도하려는 모험 정신이 부족한 편이어서 여타 인근 국가에서 시장성이 검증되기 전에는 쉽게 구매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바이어 설득 과정에서 타 시장에서의 성공 사례 등을 집중 홍보하는 것이 좋다.

3) 패스트 패션 시대 개막

과거 2 회 내지 4 회의 컬렉션 시대에서 이제는 연간 최소 4 회 이상 7-8 회의 컬렉션 시대로 급변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서민 매장에서 먼저 이제는 고급 매장에서도 유행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의상과 같은 계절 상품들의 교체 주기가 급격히 빨라져 수급 및 유통 구조가 완연하게 바뀌고 있다. 이는 원거리에 있는 한국 및 아시아 수출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며 동구나 북아프리카 마그레브 국가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제 대량 반복 구매 행위는 일부 산업 시설재를 제외하고는 일반 공산품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워 지고 있어 세심한 시장 및 유통 동향 파악이 요청된다.

4) 보수적인 거래관행이 점차 사라지는 추세

프랑스 바이어들은 일단 거래처와 신용관계가 형성되면 쉽게 거래처를 바꾸지 않는 보수 성향을 보였는데 최근 세계화 물결이 거세게 일면서부터는 점차 사라져가는 추세이다. 이제는 거래 위험 부담에 대한 공포심이 많이 사라져 거래처를 변경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뢰가 쌓이기 전까지는 거래하기를 꺼려하는 성향이 여전히 남아있어 새로운 프랑스 바이어와 첫 거래를 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일단 거래관계가 형성되고 상호 신용이 쌓이게 되면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첫 거래 성공까지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사용설명서 불어로 명기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의 사용법이나 용도 등은 반드시 프랑스어로 표기 되어야 한다. 특히 식료품일 경우 프랑스어의 표기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6) 수입 대금 결제

프랑스의 소규모 유통업체들은 은행 수수료가 높고 자금이 장기간 예치되어야 하는 L/C 거래 보다는 T/T 거래를 선호하며, 거래관계가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DA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첫 거래는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으며, 가급적 안전한 L/C 거래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지 바이어의 대금 결제 관행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L/C 이외의 결제 방식으로 거래를 추진할 경우에는 바이어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미국 서브프라임 신용경색 바람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한국상품 인지도

프랑스에서 인지도가 높은 한국 상품으로는 휴대폰, 승용차, 전자제품 및 가전제품 등이다. 특히, 휴대폰의 경우, Samsung 제품이 2007 년도 프랑스 핸드폰 시장 점유율 1 위를 차지하는 등 한국 상품의 대명사처럼 잘 알려져 있다. LCD TV 의 경우도 일본 제품과 더불어 쌍벽을 이루고 있다. 승용차의 경우는 SUV 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이고 가전제품 중에는 냉장고, 세탁기 및 진공 청소기 등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삼성, LG, 현대 등 한국의 대기업들에 대한 현지 인지도는 각 주력 분야에서 높은 편이다. 특히,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여타의 해외 지역에서 선전 중인 한국 상품들은 프랑스에도 소개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선박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져 관련 업계에서는 품질대비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화물선이라는 인식이 높아졌다.

다. 프랑스 시장의 특성

프랑스 시장은 대체적으로 자유 시장 원리가 지배하지만, 사회 보장 제도 및 자국 산업 보호 측면에서 정부 개입이 많은 편이다.

프랑스는 SIAL, MAISON ET OBJET, AIR SHOW, MONDIAL AUTOMOBILE 등의 대형 전시회를 통해 국제 교역의 장으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지리적으로도 프랑스는 서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유럽 경제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 경제는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세금 및 신규 사업을 확립에 있어 과도한 규제, 높은 사회 보장 비용 등을 들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 개혁 및 경쟁력 제고 노력을 하고 있다. 프랑스 산업의 주된 분야는 자동차, 화학, 항공기, 군수물자 및 첨단기술(원자로 및 고속 열차 등) 분야이다. 최근에는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제조업들이 생산기지를 외국으로 이전하고 있어서 실업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프랑스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 고품질 제품으로 공략하는 것이다. 프랑스 시장은 IT, 전기, 전자, 건강, 의료, 합성소재, 자동화 기술 등 기술 혁신 제품에 대한 호응이 좋은 편이면서 유명 브랜드 및 고급 디자인 상품에 대한 애착심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반면, 프랑스는 EU 내에서 가장 늦게 인터넷이 보급 되어 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5년 후의 멀티 미디어 제품 및 첨단 기술 제품 시장 잠재력이 많다. 프랑스 일반 소비자들은 가격 다음에 품질을 중시하고 있어서 대형 유통업이 크게 발달해 있으며 서민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프랑스의 유통채널은 제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유통 과정에서의 주체는 여타의 산업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제조업체, 유통상, 수출입 업자, 소매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프랑스 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 유용한 방법은 해당 분야의 박람회 참가하여 바이어 및 경쟁업체들의 동정 및 상품 동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늘리는 것과 상품 전문 잡지 및 시장 조사보고서 등의 매체를 통해 시장 동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또한 분야별 협회를 통한 정보 수집 및 산업 동향 조사도 필요하다.

프랑스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내수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새로운 상품을 수출할 여지가 많은 편이다. 특히, 최근 들어 인터넷 인프라 및 저변 인구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IT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건강관리 및 웰빙 추세에 따라 의료 및 스포츠 관련 제품들도 프랑스 시장에서 유망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라. 유망 상품

MP3, 광디스크, 3G 휴대폰, USB 메모리, 디지털 카메라, 네비게이션(GPS), 게임기기 등의 IT 제품들이 프랑스 시장에서도 유망상품으로 부각 중이다. 프랑스인들은 레저, 문화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서 동 분야 상품의 시장성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에는 자동차 속도 위반용 레이더 설치가 고속도로 및 도시 진입도로 등 주요 도로 상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경고해주는 휴대형 경고기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레이더 경고기의 부착은 위법이 아니나 레이더 감지기의 부착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1) MP3 플레이어

세련된 디자인과 향상된 기능 및 가격 경쟁력을 토대로 특히 청소년 층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휴대폰에도 필수 품목으로 내장되고 있고 가정용 및 자동차용 시청각 장비에도 응용되고 있어 동 시장성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2) 광디스크 'Blue Ray Disk'

동 제품은 고화질 비디오 디스크 레코더를 목표로 개발되었으며 기존의 저장매체보다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다. 날로 높아지는 미디어 분야의 수요에 힘입어 기존의 하드 및 소프트웨어 산업을 대체할 제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3) 3세대 형 휴대폰

현대 프랑스 몇몇 대도시에서 시범으로 시행되고 있는 DMB용 방송이 조만간 지상파 방송으로 프랑스 전 지역에 확대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DMB용 휴대폰의 수요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 USB 메모리 'Maxell M-Drive Pocket'

대용량 USB메모리는 중요 데이터를 항시 지니고 있어야 하는 요즘 시대에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동 제품은 작고 가벼운 8기가 바이트의 대용량 저장 제품이다. 사용법도 간단하며 가격도 동류 제품에 비해 높지 않아 인기가 예상된다.

5)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는 2005년부터 프랑스 시장에서의 판매가 급증했다. 디지털카메라는 기존의 광학 카메라 디자인이 소비자에게 친숙하게 다가갔고 우수하면서도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점이 인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개인이 자유 자재로 PC 등에 저장, 각색 및 인화 등을 할 수 있어서 필름이나 인화 현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경제성도 동 상품의 인기도 상승 요인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6) 디젤 승용차

동 제품의 경우 경쟁 차종에 비해 연비가 좋고 성능도 크게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구 온실화 가스 배출량도 EU의 규정치를 준수하는 등 친환경적이어서 소비자들로부터 환영 받고 있다. 프랑스의 디젤 승용차 판매 비중은 75% 이상이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 승용차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디젤 엔진 승용차 개발이 필수적이다.

7) 네비게이션(GPS)

2006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네비게이션 제품도 유망하나 저가의 중국산에 대응할 수 있는 가격경쟁력, 혹은 품질을 보유해야 할 것이다. 금년부터는 GPS 전자 칩을 내장한 3세대 형 휴대폰이 출시되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어서 향후 시장성이 아주 좋을 전망이다.

8) 속도 위반 감시 레이더 경고기

대당 99유로에서 129유로 사이의 대중용 경고기부터 대당 699유로의 최고급 제품에 이르기까지 가격 및 성능이 다양한 제품들이 인기리에 판매되기 시작했다. 프랑스의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특별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벌점 12점 이상이면 면허증이 취소되고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속도위반 감시 레이더를 경고해주는 동 상품을 구입하여 속도 위반을 예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알려져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2. 물가정보

가. 파리(프랑스) 기초 통계자료

	2003	2004	2005	2006	2007
명목 1인당 GDP(USD)	29,260	33,333	34,291	35,879	-
명목 물가상승률(%)	2.3	2.3	1.7	1.7	1.6
명목 임금상승률(%)	2.6	2.9	3.3	3.1	2.6
미화 대비 연평균 환율	1.13	1.24	1.24	1.26	1.37

나. 파리(프랑스) 물가정보(1 USD = 0.66662 EUR)

번호	항목	가격(USD)	1.7	베이컨 1kg	20.21
1. 식재료			2. 육류		
1.1	쌀 1kg	4.20	2.1	쇠고기 등심 1kg	20.85
1.2	밀가루 1kg	1.11	2.2	쇠고기 안심 1kg	24.30
1.3	백설탕 1kg	4.01	2.3	돼지고기 목살 1kg	11.25
1.4	스파게티 면(엔젤헤어) 1kg	3.93	2.4	돼지고기 등심 1kg	11.85
1.5	계란 12개	4.20	2.5	닭고기 가슴살 1kg	16.43
1.6	햄 1kg	23.75	3. 어패류		

3.1	냉동새우(중간 크기) 1kg	20.18	9.8	홍차 티백 25bags	2.78
3.2	대합조개 1kg	29.21	9.9	코코아 250g	4.05
3.3	연어(생) 1kg	19.82	10. 주류		
3.4	냉동참치 1kg	22.88	10.1	맥주 355ml 캔 6 팩	6.56
4. 낙농품			10.2	스카치 위스키(750ml) 1 병	36.29
4.1	우유 500ml	1.35	10.3	와인 750ml	127.51
4.2	요거트 150g	0.54	11. 담배		
4.3	치즈(슬라이스) 500g	4.13	11.1	담배 1 갑	7.65
4.4	버터 500g	6.75	12. 패스트푸드		
4.5	마가린 500g	3.74	12.1	햄버거 1 개	5.10
4.6	바닐라 아이스크림 473ml	1.53	12.2	치킨 런치세트 1 개	8.55
5. 유지			12.3	치즈피자 라지 1 판	32.85
5.1	식용유 1L	2.85	13. 잡화		
5.2	올리브오일 1L	10.92	13.1	치약 150g 1 개	6.30
6. 과일			13.2	샴푸 400ml	6.96
6.1	사과 1kg	3.30	13.3	칫솔 1 개	4.44
6.2	오렌지 1kg	2.25	13.4	화장비누 1 개	1.80
6.3	레몬 1kg	4.28	13.5	면도기 1 개	11.48
6.4	바나나 1kg	4.07	13.6	전기 면도기	103.51
7. 채소			13.7	건전지 AA size 4 개 1 세트	8.25
7.1	양배추 1kg	2.24	13.8	미용용 화장지 1 통	2.70
7.2	양상추 1kg	3.00	13.9	화장실 롤 티슈 12 롤	3.74
7.3	당근 1kg	1.88	13.10	세탁용 세제 3L	9.27
7.4	양송이 버섯 1kg	8.85	13.11	섬유 유연제 1L	2.10
7.5	감자 2kg	1.62	13.12	주방용 세제 750ml	2.82
7.6	양파 1kg	0.89	13.13	살충제(스프레이식) 330g	6.21
7.7	토마토 1kg	2.24	13.14	전구 60W 2 개(백열등)	1.95
8. 과자 및 당류식품			14. 의류 및 신발		
8.1	스낵과자 130g	1.77	14.1	남자정장	1,176.08
8.2	초콜릿 100g	2.10	14.2	여자정장	2,550.17
8.3	씨리얼(콘플레이크) 375g	3.15	14.3	여성핸드백	1,552.60
9. 음료			14.4	아동복	37.50
9.1	탄산음료 250ml 캔 6 팩	3.29	14.5	청바지	142.51
9.2	생수 1L	0.47	14.6	남자코트	1,125.08
9.3	오렌지주스(100%) 1L	4.20	14.7	여자코트	1,192.58
9.4	아메리카노 커피(전문점)	3.90	14.8	티셔츠	127.51
9.5	카페라떼 커피(전문점)	5.55	14.9	신사화	442.53
9.6	인스턴트 커피 125g	15.95	14.10	숙녀화	375.03
9.7	Ground 커피 500g	4.43	14.11	드라이클리닝(정장 한 벌)	12.30

15. 가구			19.7	인터넷 가설비(최소 DSL)	무료
15.1	소파 3 인용(패브릭)	675.05	19.8	인터넷 월 사용료(최소 DSL)	44.85
15.2	침대 쿼 사이즈 매트리스	538.54	19.9	국내우편 일반편지 1 통	0.83
16. 의료비			19.10	국제우편 일반편지 1 통 (현지~서울)	6.81
16.1	의료보험료 4인 가족 1년	6,817.95	19.11	특급우편 1kg 이하(현지~서울)	130.70
16.2	병원진료비(의료보험 X)	31.50	20. 주택환경 및 공공요금		
16.3	병원진료비(의료보험 O)	9.45	20.1	아파트 월 임차비용 150㎡	6,120.41
16.4	진통제 10정	4.70	20.2	단독주택 월 임차비용 150㎡	6,157.91
16.5	해열제 100정	4.20	20.3	중개수수료 월 임차료의 % (단독주택)	100%
16.6	흉부 x-ray 비용 1회	79.51	20.4	임차보증금 월 임차료의 % (단독주택)	400%
16.7	치과 방문 1회(스켈링 1회)	43.38	20.5	가정용 전기요금 kWh	0.08
16.8	세왕절개수술	2,669.62	20.6	가정용 가스요금 ㎡	0.08
17. 자동차 및 차량유지			20.7	가정용 수도요금 ㎡	4.16
17.1	경승용차 900~1,299cc	15,736.05	20.8	케이블 TV 1달(기본)	44.85
17.2	소형승용차 1,300~1,799cc	37,277.49	21. 가전제품		
17.3	중형승용차 1,800~2,499cc	45,453.03	21.1	LCD TV 40인치	1,935.13
17.4	대형승용차 2,500~3,500cc	112,357.49	21.2	DVD Player 범용형	448.53
17.5	초대형 3,500cc 이상	112,357.49	21.3	냉장고 600리터급	1,968.13
17.6	무연휘발유 1L	2.25	21.4	세탁기 10kg(드럼형)	1,807.62
17.7	LPG(단위부피당)	1.05	21.5	전자레인지 20리터급	151.51
17.8	경유 1L	1.95	21.6	에어컨	1,498.60
17.9	자동차 등록비(2,000cc 신차)	622.54	21.7	토스터기 1개	74.85
17.10	자동차보험료 의무(2,000cc 신차)	803.00	21.8	식기세척기 24인치(폭)	1,057.57
17.11	자동차보험료 임의(2,000cc 신차)	2,593.22	21.9	데스크탑 본체	1,048.57
17.12	엔진 오일 1회 교체 비용	57.00	21.10	노트북	1,498.60
18. 교통비			21.11	컴퓨터 프린터기	148.51
18.1	도심 1시간 주차료	3.00	22. 문화서비스 및 도서		
18.2	지하철 기본요금(1구간)	1.65	22.1	복사용지 1권 250매 (A4 또는 Letter Size)	3.90
18.3	시내버스 기본요금	1.65	22.2	개봉극장 입장료 1회(성인)	11.70
18.4	택시 기본요금	8.40	22.3	DVD 타이틀 1개(신작 기준)	23.99
18.5	택시 1km 당 추가요금	1.23	22.4	도서 1권(신작 소설)	28.50
18.6	철도이용료(100km)	25.65	22.5	공연 best seat (뮤지컬, 대형극장 기준)	142.51
19. 통신이용료			22.6	CD 앨범 1장 (대중음악 신작 앨범 기준)	23.99
19.1	전화 개통비 1회선	82.51	22.7	해당국 유력 일간신문 1년 구독료	523.53
19.2	전화 사용료 월 기본요금	24.00			
19.3	전화요금(시내) 3분	0.05			
19.4	국제전화 3분	1.19			
19.5	휴대전화 개통비	무료			
19.6	휴대전화 사용료 월 표준 1분	0.42			

23. 교육			29.2	신규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비용	무료
23.1	유치원 수업료 1년(사립)	3,300.22	30. 노무환경		
23.2	초등학교 수업료 1년(사립)	4,500.30	30.1	주당 법정근무시간	35 시간
23.3	중학교 수업료 1년(사립)	5,250.35	30.2	출산휴가일수	16 주/26 주/34 주
23.4	고등학교 수업료 1년(사립)	5,550.37	30.3	연간 국경일수	11 일
23.5	국공립 대학교	450.03	30.4	토요일휴무제	시행
23.6	사립 대학교	9,750.65	* 비교		
23.7	전문대학	6,000.40			
23.8	외국인 학교 초등 수업료 1년	27,625.84	1.4	유사제품	
23.9	외국인 학교 중등 수업료 1년	30,836.06	3.2	냉동	
23.10	외국인 학교 고등 수업료 1년	32,754.68	8.2	유사제품	
24. 외식 및 숙박			9.1	330ml 캔 6 팩	
24.1	패밀리레스토랑 4인	225.02	9.9	유사제품	
24.2	특급 호텔(5성급) 1박	930.06	10.1	330ml 캔 6 팩	
24.3	중급 호텔(3성급) 1박	390.03	10.2	12년산	
24.4	특급 호텔(5성급) 조식	72.00	10.3	750ml 유사제품	
24.5	중급 호텔(3성급) 조식	21.00	14.1	유사제품	
25. 스포츠			16.4	유사제품(타이레놀 판매 금지)	
25.1	골프장 그린피(퍼블릭)	82.51	17.6	유류세 별도	
25.2	골프공 1다스(12개)	44.85	17.7	유류세 별도	
25.3	피트니스 클럽 1년 이용료	1,125.08	17.8	유류세 별도	
26. 임금			19.6	2시간 통화시간 상품가입 시 기준	
26.1	사무직 일반 초임(대졸)	2,130.14	19.8	전송속도 8MB 기준	
26.2	사무직 비서 초임(대졸)	2,065.64	21.8	식기세트 12개용	
26.3	생산직 일반 초임(학력 무관)	1,893.13	23.7	BTS 과정 기준	
26.4	가정부 시간당 임금(주중)	1,530.10	26.2	사회보장세 공제 후 실지급 월액 기준	
26.5	베이비시터 시간당 임금(주중)	1,350.09	26.3	업종별 상이, 일반생산직/전문생산직 구분	
27. 이미용 서비스			26.4	월급	
27.1	여성 헤어컷 1회	58.50	26.5	월급	
27.2	남성 헤어컷 1회	34.50	28.1	125ml	
28. 화장품			28.2	50ml	
28.1	바디로션	6.71	28.3	200ml	
28.2	영양크림	76.51	28.4	200ml	
28.3	스킨로션	27.75	29.1	10년 유효	
28.4	밀크로션	30.00	30.2	첫째, 둘째 아이/셋째 아이/쌍둥이	
29. 관공서 요금					
29.1	여권 발급 비용	90.01			

3. 바이어 발굴

- 프랑스 바이어를 발굴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은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각종 박람회에 참가하여 찾아오는 바이어나 참가업체들 가운데 수입업체를 방문 상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프랑스에서는 연중 기계, 전자, 건축, 자동차, 농업, 생활소비재, 바이오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친 유망 박람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이러한 박람회에 이러한 바이어들이 많이 참관 및 참가하기 때문이다.
- 직접 참가가 어렵다면 일단 참관만 하더라도 시장의 흐름이나 동향을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현지에서 무료, 혹은 유료로 입수 가능한 박람회 공식 디렉토리에 실려있는 프랑스의 관련업체(바이어) 리스트를 통해 바이어를 물색하는 후속 조치를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 유럽 국가별 또는 도시별 전문 전시회 및 일반 박람회 www.eventseye.com: Europe, france 또는 paris 순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만일 인터넷을 이용한 바이어발굴을 원한다면 KOMPASS를 활용하여 바이어를 검색할 수도 있으며 홈페이지 주소는 www.kompass.fr 및 www.societe.com 등이다.
- 그밖에 각종 산업 협회의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와 같다
 - 전기기계수출입조합 www.ficime.fr
 - 기계산업연맹 www.fim.net
 - 전기전자통신산업연맹 www.fieec.fr
 - 자동차설비조합 www.fiev.fr
 - 자동차공업협회 www.ccfa.fr
 - 화학산업연맹 www.uic.fr
 - 전자제품 생산조합 www.simavelec.fr
 - Yellow page www.botin.fr
- Kotra 파리무역관 홈페이지에서도 바이어들의 인콰이어리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 www.kotra.or.kr/paris
- 두 번째 방법으로는 지사화 사업에 참가하는 것이다. 소정의 참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파리무역관은 1년 내지 최고 4년까지 지사활동을 대행해주면서 신규 바이어 발굴 및 수출 상담 대행 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기 전략으로서는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세 번째 방법은 파리무역관의 세일즈 출장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다. 파리 무역관을 통해 사전에 상담약속을 잡은 신규 바이어들과 세일즈 상담을 하고 후속 조치 및 A/S도 받을 수 있어 상당히 효과적이다.
- 네 번째 방법은 파리무역관의 바이어발굴 조사대행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다. 가장 경제적이며 신속한 잠재 바이어 발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지 출장 상담이나 전시회 참가 등에 앞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

- 이 외에 현지 컨설팅 회사의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용역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불어를 해독 또는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한계가 있다.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역사적/문화적 금기사항

프랑스는 전 세계의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사는 국가이다. 백인 이외에도 식민지시절 유입된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출신의 이슬람 종교인들을 비롯, 세네갈, 카메룬 등에서 유입된 흑인, 그 밖의 인도차이나인, 중국인 등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나라이다. 백인들 또한 포르투갈, 이탈리아, 폴란드 출신의 이민자들이 많이 있다.

2005년 폭동사태에서 보듯이 이들 소수 유색인종들은 기존의 백인 프랑스인들에 비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인종간의 갈등이 언제 또 표면화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심코 내뱉은 인종 및 종교관련 발언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절대 인종 및 종교적인 발언은 아예 하지 않아야 한다.

나. 약속

프랑스 바이어와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약속이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바이어들은 최소 1주일 전에 약속을 정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10일 전에 상담 약속을 잡으면 된다. 약속은 보통 공식 레터를 통해 이뤄지며 이메일도 종종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또한 시간 개념이 정확하기 때문에 약속 시간에 늦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속시간에 늦을 경우에는 사전 연락을 통해 양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이나 먼저 도착하는 것도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짐으로 3분 내지 5분 후 도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모가 큰 바이어의 경우는 약속을 잡는 것 자체가 어렵고 잘 만나 주지도 않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경우, 직급이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나 차석자가 약속을 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다. 거래관행

프랑스 바이어들은 일단 거래처와 신용관계가 형성되면 쉽게 거래처를 바꾸지 않는 보수 성향을 보여왔는데 근래에는 세계화 물결이 거세게 일면서부터 점차 사라져가는 추세이다. 이제는 거래 위험 부담에 대한 공포심이 많이 사라져 거래처를 변경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뢰가 쌓이기 전까지는 거래하기를 꺼려하는 성향이 여전히 남아있어 새로운 프랑스 바이어와 첫 거래를 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일단 거래관계가 형성되고 상호 신용이 쌓이게 되면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첫 거래 성공까지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 수입 대금 결제 방법

프랑스의 소규모 유통업체들은 은행 수수료가 높고 자금이 장기간 예치되어야 하는 L/C거래 보다는 T/T거래를 선호하며, 거래관계가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DA거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첫 거래는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으며, 가급적 안전한 L/C거래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현지 바이어의 대금 결제 관행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L/C이외의 결제 방식으로 거래를 추진할 경우에는 바이어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마. 식사

프랑스 음식은 세계적으로 맛있고도 비싼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 비즈니스맨들은 중식, 일식, 한식에도 매우 익숙해져 있으므로 바이어만 동의한다면 굳이 프랑스식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단, 아랍계 바이어와 식사한다면 돼지고기는 삼가야 한다.

프랑스 식당에서는 수준에 맞는 복장을 갖추고 사전에 예약해 두는 것이 중요한데, 고급 식당이 아니라면 편안한 복장에 예약을 하지 않고도 식사를 할 수 있는 곳도 있다. 너무 격식에 맞게 행동할 필요는 없으며 최대한 예의를 갖춘 상태에서 편하게 식사하며 즐거운 대화로 분위기를 살리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말 없이 식사만 할 경우, 불만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기가 쉽다. 식사 시간이나 상담 시간에 너무 과묵한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바. 선물

프랑스인들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서 부담스러운 선물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물을 준비하더라도 회사와 관련이 있는 작은 판촉용 선물이나 한국 기념품일 경우에도 받는 사람이 부담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사. 인사

남성끼리, 혹은 남녀끼리 인사를 할 때는 가벼운 악수를 하는 것이 좋다. 간혹 여성끼리 인사를 할 때 볼을 맞부딪치는 인사를 하기도 하는데 만약 바이어가 이러한 인사를 시도할 경우 가볍게 볼을 갖다 대고 입으로 ‘쪽’소리만 내는 정도의 인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아주 친해졌을 때의 이야기이고 초면일 경우에 이런 인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 복장

복장에 대해서 특별한 규칙은 없으나 넥타이에 수트 정도면 무난하다. 그러나 운동화나 블루진, 반바지 등은 걸레이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

자. 편안한 모습으로 상담

프랑스인들은 한국인에 비해 표정이 밝은 경우가 많고, 유머감각 뛰어난 편이다. 하지만 한국 업체의 경우 너무 딱딱한 표정으로 상담에 임하는 경우가 많아 프랑스 바이어로부터 호감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 만나면 날씨 이야기와 같은 간단한 인사말을 통해 상담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끄는 것이 좋으며 너무 심각한 표정보다는 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업무적으로는 프로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제품을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 프리젠테이션 자료 전달

제품을 구두로만 설명하게 되면 바이어가 추후 구매를 위해 본격적으로 제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료 부족으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반드시 회사 소개, 제품 설명 등 만나서 설명할 내용을 미리 자료로 준비하여 상담 과정에서 바이어에게 전달하여 함께 보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바이어는 제품이 좋다고 바로 구매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후보 품목으로 선정한 후에 구매시즌이 되면 본격적인 구매를 검토하기 때문이다. 또한 잘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 보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으며, 바이어 입장에서든 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상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카. 바이어 스케줄 존중해야

품목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대부분의 바이어들은 특정 시기에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구매 시즌이 있기 때문에 바이어에게 지금 바로 구매를 기대한다면 곤란하다. 바이어가 주로 구매하는 시기를 파악하고 그 전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지, 추가로 제공할 정보가 있는지를 물어봐서 바이어가 일하기 편하게 스케줄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

타. 독점권 부여는 신중히

제품이 우수하고 경쟁력이 뛰어날 경우 바이어는 판매 독점권을 확보하려고 한다. 바이어 회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고 바이어의 의지를 충분히 확인한 경우에는 이에 응해도 무방하겠지만, 시장상황과 바이어에 대한 충분한 정보, 그리고 다른 바이어의 반응 등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면 바이어의 독점권 부여 제의에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판매 독점권은 바이어 회사의 규모나 시장에서의 활약상, 그리고 바이어의 의지가 확인된 경우에 추진하는 것이 위험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특수용 기술 제품일 경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소개 자료 작성(붙어판)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점 거래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시장 접근 방법 상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잘 판단하여 계약할 줄 아는 능력이 요구된다.

파. 기다리는 자세로 장기전에 대비해야

프랑스 바이어들은 기존 거래선과의 신뢰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쉽게 거래선을 바꾸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새로운 거래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제품의 품질, 납기 등 신규 거래에 동반되는 위험부담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품이 좋다고 바로 구매를 결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믿을 수 있는 거래선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심지어 3-5년 동안 공을 들여 거래를 성사시킨 경우가 있을 정도로 구매에 신중한 것이 프랑스 바이어들이다. 하지만 일단 거래가 시작되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자세로 장기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관행도 시대의 요청에 따라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수시로 흥미로운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신규 공급업체에게도 과거 보다는 쉽게 접근하는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다.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가. 인내심이 필요한 시장

한국인들이 프랑스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전반적으로 느리게 흘러가는 사회 분위기이다. 행정관서는 물론이요 일반 바이어와 거래를 할 때에 이들의 느린 일 처리는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한국인들의 인내심을 자극하기 일쑤이다. 이는 프랑스인들의 낙천적인 국민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무엇이든지 한치의 실수 없이 꼼꼼하고 까다롭게 처리하는 업무스타일과 특히, 보수성 및 사회주의에 기인한다.

따라서 프랑스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프랑스 진출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 한국식 ‘빨리빨리’ 방법이 잘 통하지 않는 곳이 바로 프랑스이기 때문이다.

나. 계약 및 서류작성 시 꼼꼼하게 검토

한국인들의 경우 계약 및 서류작성 시에 있어서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아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비즈니스 계약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 있어서도 프랑스 인들은 이러한 문서작업을 꼼꼼하게 처리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다. 수출입 계약뿐만 아니라, 투자진출을 위해 사무실을 임차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등 제반 계약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고용하여 최대한 꼼꼼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외국인일 경우, 작은 글자로 촘촘히 인쇄되어 있는 제반 조건 및 제한 사항들에 대한 설명을 일식하려는 경향이 짙다. 이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 설명하는 데에 시간을 많이 빼앗긴다는 개념 때문에 편의주의를 선호하려는 심리작용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고의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언급하지 않으려는 작전일 수도 있어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 시간을 두고서라도 검토한 후 서명 하겠다고 제안하는 등의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 영어가 잘 안 통하는 나라?

프랑스인들은 대체적으로 관광/여행업계 종사자들을 제외하고는 영어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바이어들의 경우 대개 영어를 구사하지만 그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이런 경우 불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줄 알면 많은 도움이 된다.

대체적으로 불어를 잘하는 외국인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국민정서가 있으므로 간단한 회화 정도라도 구사할 수 있다면 프랑스 진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불어 통역원을 동반하는 것이다. 통역하는 시간 동안 다음에 해야 할 말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 상담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라. 체류증 발급이 까다로운 나라

프랑스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주재원들 가운데에는 몇 년째 3개월 유효 체류증을 갱신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유효 체류증을 갱신하면 1년 유효 체류증이 발급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프랑스는 체류증 신청을 위해 이른 새벽부터 선착순 대열에 가담하여 평균 2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고충을 매 분기 또는 매년 겪어야 하는 나라이다.

최근에 강화된 가족 동반 비자 발급 관련 법개정에 의하면, 앞으로는 불어 실력 테스트에 합격해야 하는 어려움이 가중된다. 그리고 상용 비자는 일체 발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DNA 검사를 통한 친족 여부 확인 절차도 도입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자비로 DNA 검사를 받을 수도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아프리카 국가와 같이 불법 밀입국자가 많은 국가를 겨냥하여 만든 규정이다.

투자 진출 시 애로 사항 중 자녀 교육 문제를 빼놓을 수는 없다. 현지 초,중등학교에 입학시킬 경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외국인 학교나 영-불어로 수업하는 국제학교의 경우, 입학 시기와 성적 그리고 정족수 문제가 뒤따라 몇 달 또는 학기를 기다려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가. 태평양 화학

1) 프랑스 투자의 대표적인 성공사례

1990년 프랑스에 투자한 태평양 프랑스는 대표적인 프랑스 현지진출 성공사례로 손꼽히며, 프랑스 진출을 노리는 많은 기업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총 242명 고용에 연간 5,800만 유로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대표적인 향수 브랜드는 프랑스 내에서 5위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등 대 성공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엄격한 품질관리와 연구개발을 통해 프랑스 국내시장은 물론 세계 80개국 이상으로 수출하면서 프랑스 투자 진출의 효익을 톡톡히 맛보고 있다. 흔히 프랑스를 ‘화장품 산업의 리트머스 종이’라 하는데, 프랑스에서의 성공은 곧 전세계에서 통한다는 비유가 그대로 실현된 셈이다.

2006년 7월에는 성공적인 프랑스 투자 진출을 통한 한-불 간 우애증진 공로로 서경배 사장이 프랑스 최고 권위의 훈장인 레종도뇌르(LEGION D'HONNEUR) 훈장을 수훈했다.

2) 공장이라기보다 잘 정돈된 공원 같은 태평양 프랑스 공장

2007년 9월 태평양 프랑스 공장을 방문했을 때, 샤프트르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위치에 밀밭과 언덕을 지나 9월의 햇빛이 내리쬐는 그림 같은 평원 위에 펼쳐진 태평양 프랑스 공장을 만날 수 있었다.

마중 나온 전인수 법인장의 안내로 간단한 회사 소개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시찰을 하는 동안 자연 채광이 우수한 공장 내부에서는 화장품 공장답게 향기로운 향수 내음이 풍겨났으며, 근로자들의 표정도 매우 밝았다. 또한 공장 내부 정원에는 갖은 향을 내뿜는 향초를 심어놓아 공장인지 식물원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우수한 환경을 만들고 있었다.

이곳 샤프트르 공장은 총 18,000㎡의 면적 위에 총 1,600만 유로를 투자, 13개 라인의 향수 및 화장품 생산 시설, 첨단 시설의 R&D센터 및 재고창고,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3) 태평양 프랑스의 성공요인

□ 철저한 현지화 전략: 생산 및 마케팅 등 전 분야에 걸쳐 100% 현지인력을 채용하여 운영

현지 전인수 법인장은 프랑스에서 유학하여 현지 문화 및 상관습에 정통한 인물로서 동인을 주축으로 철저하게 현지화된 인력 운용이 회사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실제로 현지에 방문했을 때 만나는 현지 직원마다 현지어로 인사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서 여타 한국 투자기업과는 다른 면모를 느낄 수 있었다.

직원들과의 의사소통 문제 및 문화의 차이로 인한 언행의 표현에서 빚어지는 사사로운 오해와 불신감 누적으로 실패하고 돌아간 투자기업들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현지화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 제조국 후광효과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프랑스는 전 세계 화장품의 시험 무대로서 프랑스에서 성공하면 어디에 내놓아도 성공한다는 것이 불문율이다. 실제로 강력한 현지 연구 인력이 개발한 향수 인의 경우 프랑스 시장 점유율 5위를 바탕으로 전 세계 80여 개국 이상으로 수출되어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이 제품은 면세점 같은 저가 매장으로의 유통을 방지하는 등 엄격한 유통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더구나 실제 화장품 케이스의 선명한 Made in France 마크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이끄는 강력한 구매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

□ 시사점: 현지화야말로 해외투자의 핵심

현지 경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회사정책으로 한국의 본사는 투자와 재무 부분만 관리하고 그 외의 마케팅 등 모든 권한을 현지 경영자에 위임하고 있다.

현지에는 전인수 법인장만이 유일한 한국인이며 나머지 240여명의 직원은 모두 현지인으로 채용하였고, 그나마 전인수 법인장은 파리에 위치한 마케팅 본사 사무실에 상주하고 샤르트르의 공장은 현지인 공장장에게 전적으로 운영을 위임하고 있어, 법인장은 1주일에 2회 정도 방문하여 특이 사항만 점검한다고 한다.

그 외의 마케팅 법인장 및 제품 기획 등 핵심요직을 모두 프랑스 현지인이 담당하고 광고, PR 등 모든 분야에서 현지 전문가들을 기용한 것이 높은 프랑스 시장 점유율 확립의 비결이다.

나. 흥진크라운

흥진크라운 유럽 지점은 2001년에 독일 접경 프랑스 동부 지방 도시에 투자한 이래 모토사이클 헬멧, 재킷 및 장갑 시장에서 매년 300만 유로의 매출 신장세를 올리고 있는 성공한 중소기업이다.

종업원 19명의 대부분이 물류 창고에서 근무하고 있고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판매를 전담하는 직원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매니저가

불어 및 사정에 능통한 한국인이라는 점이 가장 핵심적인 성공 요인이다. 이는 현지 직원들과의 문화 충격을 충분히 흡수해낼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해주는 간부직원의 역할이 성공비결의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물류센터 종업원들과의 인간관계 유지 능력이 출중하여 적기 공급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거래처의 신뢰도 증가 및 매출 증대에 공헌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매직원에게 기본급+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판매 신장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점, 또한 프랑스에서 가장 근면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독일 접경 도시에 투자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성공 요인 중의 하나이다. 수시로 독일 땅이 되었다가 프랑스로 환원되곤 하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근면한 독일계 피가 많이 섞인 알자스 지방은 실업률도 높아 성실하고 우수한 유효 인력을 고용하기에 비교적 수월한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홍보 강화도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시장인 독일과 도보로 넘나 들 수 있는 접경 도시에 자리를 잡은 것도 원활한 유통 및 물류비 절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다만, 파리와 500km 거리에 있어 프랑스 수도권 시장 공략에 다소 제약을 받는 경향이 있으나 주요 도시별 및 지역별 중간 도매상들과의 긴밀한 유대 관계 유지를 통해 이를 많이 극복하고 있다.

상기 2개 기업 외에 현지에 진출한 상사들이 상당수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투자 기업이라고 볼 수 없어 성공 및 실패 사례에서 제외시켰다.

7. 이주정착 가이드

가. 입국

프랑스에 90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서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 비자 발급에는 3주 이상이 소요되며 유효한 여권 및 비자 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2장이 필요하다

- 주한 프랑스 대사관
 - 주소: 서울 서대문구 합동 30
 - 전화: 02-3149-4300

3개월 이내의 단순 관광목적 입국 시에는 비자가 불필요하다.

나. 주택

프랑스에서는 은행계좌 개설 및 각종 전화 개설을 위해 주택을 먼저 구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주택사정은 그리 양호한 편이 아니다. 특히, 파리의 경우 25~30평 정도의 아파트를 임차하는 데 월 2,000~4,000유로가 필요하다. 그러나 시내 곳곳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매물을 알아볼 수 있으며 시내 중심에서 떨어질수록 임차료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현대식 아파트 건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옛 건물을 굳이 기피하지 않는 것이 기일 단축에 도움이 된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을 고를 때는 중앙난방을 제공하는지(전기식 개별난방일 경우 상당한 전기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함), 주차장은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으며

마음에 드는 주택을 골랐으면 집주인에게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이때는 주택 보증금 (대개 임차료 2개월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대개 1개월치 임차료, 혹은 1년 임차료의 15%)를 지불하는 조건에서 집주인의 입주자 선택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서류 계약을 하기 전에 L'Etat des lieux(인벤테리)를 수위 또는 복덕방 직원의 입회 하에 하게 되는데 이는 입주 당시의 집 상태와 차후 퇴거 시의 상태를 비교하기 위해 반드시 서류로 작성해야 하는 절차이다. 건물의 구조 변경이나 파손 또는 인위적인 흠집이나 더럽힘 등이 퇴거 시 지적될 경우, 보상을 해야 하므로 서명 전에 최대한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 은행 구좌 개설

주택임차가 끝나면 시중은행에서 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로는 주택임차계약서, 여권이 필요하며 부부 공동명의로 구좌를 개설할 수도 있다. (이때 주택임차 계약서에 공동명의로 계약이 되어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절차는 먼저 시중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담당자와의 면담약속을 잡아야 하며 약속된 시간에 방문하여 구좌개설과 관련한 인터뷰를 실시한다. 구좌는 바로 개설이 되는데 현금카드와 수표책 발급을 받기까지는 1주 내지 3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라. 전화 가설

주택 임차가 끝나면 전화가설을 할 수 있는데 전에는 주택이 위치한 각 지역별 France Telecom 대리점에서 신청했었으나 현재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전 임차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면 가설이 매우 용이하며 하루 정도 소요된다. 고속인터넷의 보편화로 프랑스 국영 프랑스 텔레콤 외에도 Freebox, Cegetel 등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인터넷, 전화, 케이블 TV를 묶어 함께 서비스하고 있다. 가입, 서비스의 업체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소요시간은 파리일 경우 약 10일 정도 걸린다.

마. 전기 또는 가스 신청

주택 임차가 끝나는 날에 가장 먼저 신청 또는 명의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할 것이 바로 전기 또는 가스이다. 전 임차자(또는 주인)가 프랑스 전력-가스공사(EDF-GDF)에 해약 통지를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나 가스가 전혀 없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전화나 인터넷 또는 방문을 통해 전기나 가스를 새로 신청해야 한다. 전화로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동공제를 희망하는 신규 가입자만을 접수 처리하여 주기 때문이다. 직접 사무실에 찾아가거나 서신을 통해서 신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수표나 다른 지불 방법이 가능하다. 이제는 전기 시장도 자유경쟁체제이어서 다른 사립 전력회사에 가입해도 무방하다.

바. 자동차 구입

신차의 경우 파리시내 곳곳에 위치한 자동차 판매점 (Garage)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인기 차량의 경우 주문 후 차량인도까지 2~3개월 정도 소요된다. 현지 브랜드인 푸조(Peugeot), 르노 (Renault), 씨트로엥(Citroen)의 중형 모델(푸조 208 또는 308, 르노 클리오, 메간

또는 씨닉 및 씨트로엥 C3 또는 C4) 및 폭스바겐의 골프(Golf), 파사트(Passat) 등이 인기 차량이며 가격은 푸조 308, 1600cc의 경우 20,000 유로 정도이다. 최근 도입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비례하는 보너스 및 부과세가 적용되고 있어 주행거리 1km당 160g 미만의 승용차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 부분의 중,소형 디젤 승용차들은 보너스 또는 무과세 대상이다.

중고차 또한 Garage에 등록된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으며 개인간의 직거래도 가능하다. 프랑스의 중고차 거래 사이트인 www.lacentrale.fr 에서도 차량 시세 및 검색이 가능하나 중고차 전문 매장이거나 각 브랜드 매장에서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경우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간 보증을 해주며 대 부분 정비 및 주요 부품의 안전 점검을 해주기 때문이다.

회사용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대부분 장기 임차를 하는 경우가 많다. 3년 내지 4년 동안 매달 정해진 임차료를 지불하면 정비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편리하다. 그리고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중고차를 시세보다 낮게 구매할 수 있는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적기에 새로 부임한 직원이 매입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사. 한국관련 쇼핑

파리 시내 곳곳에 위치한 한국 슈퍼마켓에서 웬만한 한국식품은 구할 수 있어 불편함은 없으나 가격은 한국보다 2~3개 가량 비싸다. 그 밖의 MONOPRIX, CHAMPION, AUCHAN, FRANPRIX, LECLERC, CARFOUR와 같은 슈퍼마켓에서 현지생활에 필요한 각종 물품 및 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파리 시내 곳곳에 위치한 한국 식당에서 거의 모든 한식 메뉴를 즐길 수 있으며 기타 PC방, 미용실 등 관련한 모든 정보를 한인 업소 디렉토리나 교민 신문에서 얻을 수 있으므로 현지에 와서 참고하면 된다.

아. 교육

프랑스는 국영 및 공영 교육기관이 잘 발달되어 있다. 영국이나 미국 등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재원 및 외교관들이 많아서 이들 자녀들을 위한 사립 학교도 대 도시에 상당 수 자리하고 있다. 영어로 강의하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사립 학교들이 발달되어 있어 외국인 자녀들이 교육받는 데 불편이 없다. 다만 입학하기 원하는 학생수는 많고 학교 수는 한정되어 있어 6개월 전 등록절차를 시작, 다음 학기 대기자 명단에 등록해 놓는 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프랑스 정부는 2007년부터 국립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영어 과목을 추가하는 등 세계화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프랑스 국립 교육기관에 자녀를 입학하여도 큰 문제는 없다. 프랑스의 학군제도도 2007년부터 해제되어 거주지역 외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초등학생들의 등 학교 시 부모나 위임자가 반드시 동반해주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모두 직장생활을 할 경우에는 직장 근처의 학교에 등록시키는 경우도 많다.

자. 병원

프랑스의 병원도 국립 및 대학 병원이 아주 잘 발달해 있어서 개인 병원이나 외국인 경영 병원이 드문 편이다. 종합 병원의 대 부분이 국립 또는 공립이라고 보면, 큰 오차가 없다. 파리 인근 도시에는 미국 병원이 유일하게 자리하고 있는데 진료비가 2-3배 이상 비싼 편이다. 개인 병원은 외과 및 치과 또는 소아과 등이 많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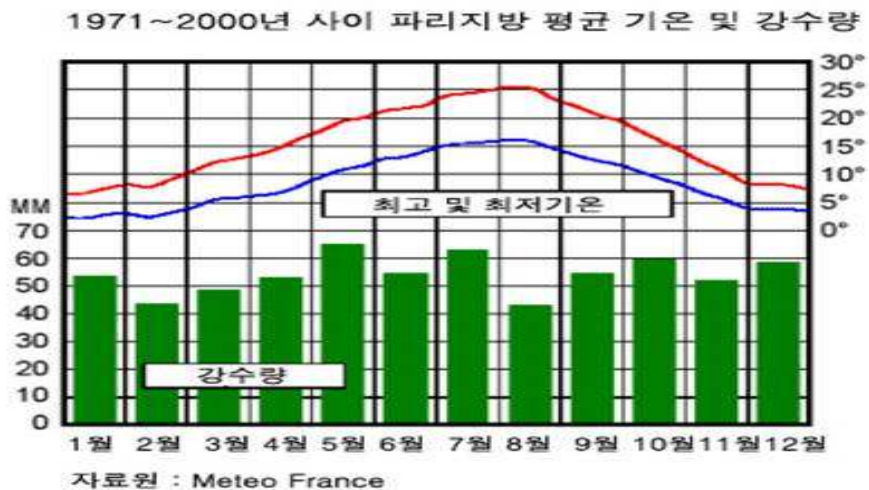
위급 시에는 종합 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면 된다. 24시간 열려 있고 예약을 하지 않아도 순서가 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자기 차례가 오기까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안내 간호원은 환자의 위중 상태를 보아 순서를 바꾸어 주기도 하기 때문에 아주 위급한 경우에는 많이 기다리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대부분 지역이 온대성 기후이나 남부지방은 지중해성 기후를 보이고 있다. 연평균 기온은 섭씨 15-20도로서 7월 평균기온이 섭씨 20도이고 겨울의 평균기온은 영상 2도이다.

파리와 파리 근교는 한국의 부산과 같이 한겨울에도 눈이 내리는 날이 매우 드물고 강수량은 연평균 520mm로서 연중 고른 강수량을 보이고 있다. 또한, 5월까지의 하루에도 갠 날씨와 비 오는 날씨가 번갈아 나타나는 등 날씨가 매우 변덕스러운 편이다. 따라서, 늦가을부터 겨울 그리고 늦봄 기간 중에 프랑스를 방문할 때에는 방수 재킷, 외투, 스웨터 및 우산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북유럽보다는 덜 하지만 약간의 백야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서머타임을 실시하는 여름에는 저녁 10시 반 경까지 환한 반면, 겨울에는 오후 4시 반에 해가 진다.

- 출국 전 아래 사이트를 통해 현지 날씨와 기온을 검색 할 수 있다.
- <http://www.meteo.fr>(각 도시 별 검색 당일 및 5일간의 날씨 및 기온 검색 가능)

나. 시차/근무시간

1) 시차

프랑스는 세계 표준시인 그리니치 천문대 시각(GMT)에 비해 1시간 빠르며 우리나라보다 8시간이 늦다(프랑스가 자정일 경우 한국은 익일 08:00시). 3월 마지막 일요일부터 10월 마지막 토요일까지 실시되는 서머타임 기간에는 한국과의 시차는 7시간으로 줄어든다.

2) 근무시간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경우 주 35시간제 도입이 완료된 상황이나 2008년부터는 노사간의 임금 사전 합의 조건으로 주간 근무 시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일반적으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반 직장의 근무 시간은 보통 평일은 09:00-18:00가 많으나 직장 및 개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은행의 경우는 보통 9:00-4:30까지 대민업무를 하며 점심시간에도 교대근무를 하지만 휴가철의 경우 12:00-14:00까지 대민업무는 일반적으로 중단된다.

상점들의 경우 대부분 토요일까지 영업(10:00-19:00)을 하는 대신 월요일 등 주중 하루를 쉬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폐점하나 연간 일요일 영업 허가 일수는 5일인데 2008년부터 가구점에 한해서만 일요일 영업을 허가되고 있다.

우체국은 토요일 정오까지 근무한다. 참고로, 스페인처럼 시에스타는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평일의 경우 대부분의 상점들은 19시면 영업을 종료하는데 샹젤리제 거리(Avenue de Champs-Élysées)의 경우 더 늦은 시각까지도 영업을 하며 일요일에 영업하는 상점도 상당수 있다. 이는 프랑스 정부가 관광지역이나 문화활동에 대해서는 일요일에도 개업하는 것을 법으로 제정하여 허용해주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는 Monoprix와 같은 소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이 21시 내지 22시까지로 연장된 곳이 많아지고 있으며 일요일 오전에도 개업을 하는 곳이 점점증하고 있다.

다. 도량형

□ 도량형 및 의류치수 비교

프랑스는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국가인 독일, 영국과도 다른 의류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의복치수에 대한 주요국가의 비교표는 다음과 같다.

여성기성복 상의 (가슴둘레 기준)

프랑스	36	38	40	42	44	46	48
영국	10	12	14	16	18	20	22
미국	8	10	12	14	16	18	20
한국	80	85	90	95			

여자스타킹

프랑스	1	2	3	4	5
미국	8.5	9	9.5	10	10.5
한국	S	M	L	XL	XL

남자구두

프랑스	39	40	41	42	43	44	45
영국	5.5	6.5	7	8	8.5	9.5	10.5
미국	6	7	7.5	8.5	9	10	11
한국	245	250	255	265	270	275	

남자기성복

프랑스	36	38	40	42	44	46	48
영국	35	36	37	38	39	40	42
미국	35	36	37	38	39	40	42
한국	28.5	30	31.5	33	34.5	36	37.5

남자 와이셔츠

프랑스	36	37	38	39	40	41	42
미국	14	14.5	15	15.5	16	16.5	17
한국	14	14.5	15	15.5	16	16.5	17

라. 출입국/비자**1) 비 자**

비자 면제협정에 의하여,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 시에는 비자가 면제된다. 장기 체류(취업 및 유학)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 또는 제3국에서 최초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 비자 발급처
 - 주한 프랑스 대사관 영사과
 -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합동 30번지 중앙우체국 사서함 1808호
 - 전화: (02) 3149-4400, 팩스: (02) 365-1694
 - 홈페이지: www.ambafrance-kr.org
 - 휴일: 토, 일요일과 양국 공휴일
 - 비자서류 접수시간: 월-금 (9시-12시30분)
- 비자 취득과 관련된 안내는 주한 프랑스대사관 홈페이지 참조요망.
 - (<http://www.ambafrance-kr.org/maina.php?&page=visa.htm&numrub=2>)

2) 출입국 절차

출입국에 필요한 특별한 절차는 없다. 입국 시 신고물품이나 현찰이 있을 경우에만 신고하며 그 외에는 대부분 세관검사 없이 통관을 한다. 세관원이 임의로 선택하여 세관 검사를 하므로 샘플 등은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한 표시를 해야 한다. 단,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출발한 항공편에 대해서는 검문검색이 다른 항공편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마. 환율/환전

프랑스는 다른 EURO 사용국가와 마찬가지로 지난 2002년 1월 1일부터 이전의 자국 화폐였던 프랑(Franc)화의 유통을 중단하고 유럽 12개국의 공동화폐단위인 유로(Euro)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유로의 하부 단위는 센트(Cent)이며, 프랑스 현지에서는 썬팀(Centime)으로 부른다. 주화에는 1, 2, 5, 10, 20, 50 센트와 1, 2유로가 있다. 지폐로는 500(최고액 권), 200, 100, 50, 20, 10, 5 유로 권이 있다.

지폐의 디자인은 사용국가 12개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나, 동전의 뒷면의 디자인은 국가마다 다르다. 참고로, 유럽에서 위조지폐 제조 문제가 심각했던 프랑스는 유로화 통용 후에도 위조지폐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가장 많이 위조되는 지폐는 50유로 권으로서, 매장에서 물품 구입 후 50유로 권을 지불할 때 원본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점점 잦아지고 있다.

- 유로화 사용국가(2008년부터 15개국)
 - 벨기에,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슬로베니아, 사이프러스 및 말트(바티칸, 산마리노, 모나코도 동전은 자체발행하고 있으나 기념품의 성격이 더 강함.)

프랑스의 시중은행과 파리 시내 및 유명 관광지 도처에 있는 환전소(Bureau de change)에서는 주요통화(달러화, 엔화 등)를 쉽게 환전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 및 환전소마다 적용환율이 약간씩 다르며, 시내 오페라 지역에 있는 환전소가 환율이 좀 더 좋은 편이다. 참고로, 환전을 하지 않는 은행이 점차 늘고 있어 주택가 등에 소재한 은행에서는 환전이 어렵다.

□ 유로화 환율 (2008년 5월 30일 기준): 유럽 중앙은행 환율 기준

- 미 달러화 대비: 1유로 = 1.5551달러
- 환전 시 적용 환율: 달러화를 살 때 1.648달러, 팔 때 1.453달러
- 원화 대비 환율: 1유로 = 1605.64원

바. 교통/통신

1) 우리나라와의 교통

대한항공, 에어프랑스 및 아시아나 항공이 서울과 파리를 잇는 직항 편을 개설하여 운행 중인데 자세한 운항 시간은 다음과 같다.

□ 대한항공

- 서울 출발 → 파리 도착 편 (매일 운행)
 - 서울 출발시간 - 13: 50
 - 파리 도착시간 - 18: 25

- 파리 출발 → 서울 도착 편 (매일 운행)
 - 파리 출발시간 - 21: 20
 - 서울 도착시간 - 14:45(출발 다음날)

□ 에어프랑스

- 서울 출발 → 파리 도착 편(매일 운행)
 - 서울 출발시간 - 09: 55
 - 파리 도착시간 - 14: 40
- 파리 출발 → 서울 도착 편(매일 운행)
 - 파리 출발시간 - 13: 15
 - 서울 도착시간 - 06: 55(출발 다음날)

□ 아시아나 항공

- 서울 출발 → 파리 도착 편(주 3회: 월, 수, 금 운행)
 - 서울 출발시간 - 13: 15
 - 파리 도착시간 - 18: 20
- 파리 출발 → 서울 도착 편(주 3회: 월, 수, 금 운행)
 - 파리 출발시간 - 21: 20
 - 서울 도착시간 - 15: 20(출발 다음날)

Charles De Gaulles 공항은 1, 2, 3(3 터미널은 얼마 전까지 T9 터미널로 불렸으며, 주로 전세기가 출발하고 도착한다)의 총 세 개의 터미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2터미널은 다시 2A, 2B, 2C, 2D, 2E, 2F의 여섯 개의 터미널로 나뉜다.

파리-서울간 대한항공 및 에어프랑스 직항 항공편은 모두 Charles de Gaulles 2 공항 E 터미널에 출발 및 도착한다.

아시아나 항공 직항 항공편은 Charles de Gaulles 1 공항에 출발 및 도착한다.

- 도착예정 터미널 인터넷 검색 법
 - <http://www.adp.fr> 사이트로 접속, 'Horaire de vols'항목을 선택하면 항공편 별 도착 예정시간, 공항 상태(연착 등) 및 도착예정 터미널을 검색할 수 있다.

2) 국내 교통

□ 택시

택시는 길거리 아무데서나 잡을 수 없으며 시내 곳곳에 지정되어 있는 택시 승차장에서 타야 한다. 체류하는 호텔 등에서는 콜택시를 부를 수 있으며 콜택시 요금에는 부르는 곳까지의 이동 시간 및 거리를 병산한 요금이 합산된다. 택시요금은 시간·거리 병산제이며 출퇴근 러시아워가 아닌 경우, 파리 시내의 경우는 보통 10-15 유로의 요금이 청구된다. 또한, 최소요금제가 있어서 이용금액은 5유로보다 적더라도 5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택시요금은 A.B.C 세 등급으로 나누어 지는데, 파리시내에서 낮에 택시를 탈 경우에는 A등급의 요금이 적용되며 야간에는 할증요금 B가 적용된다. 그러나 택시가 파리 시내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대낮인 경우에는 할증요금 B가 적용되며, 야간인 경우에는 할증요금 C가 적용된다. 운전사가 어떠한 등급을 적용하고 있는가는 택시외관에 설치된 캡의 알파벳 A.B.C에 붙어 들어오게 되어있어 바가지 요금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택시 요금의 5-10% 정도의 팁을 지불하는 것이 관례이며 어떤 경우에는 택시운전사가 팁을 포함하여 금액을 요구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큰 가방 등의 짐이 있을 경우, 짐 1개당 1유로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팁을 포함한 택시요금 영수증은 운전사에게 발급받을 수 있다.

- 파리의 콜 택시를 부를 수 있는 택시회사의 전화번호
- G7 : 0147394739
- BLUE : 0149361010
- ALPHA : 0145858585

□ 지하철과 버스

우리나라의 지하철에 해당하는 파리의 공공교통수단은 파리운송공사(RATP)에서 운영하는 지하철(Metro), 지상 전차(TRAMWAY) 및 시내 버스(AUTOBUS)와 철도공사(SNCF)에서 운영하는 시외 급행선(RER)을 들 수 있으며 모두 동일한 표를 사용한다. 지하철(Metro), 지상 전차(TRAMWAY) 및 시내 버스(AUTOBUS)는 정거장 간 거리가 좁아 파리의 거의 전 구간을 운행하는 대신 속도가 느리며 RER은 시내 외 주요 구간을 빠른 속도로 운행하나 정거장 수가 많지 않다.

- 파리 전철 이용 시 주의할 점
 - Metro 는 입장 시에만 표를 사용하며 열차에서 내려 역 밖으로 나갈 때 다시 표를 집어넣지 않는다. RER은 입장 시에 표를 개찰기에 집어넣고 열차에서 내려 역 밖으로 나갈 때에 다시 한번 표를 집어넣어야 하며 또한 개찰기는 그 표를 다시 돌려준다.
 - 승차 혹은 하차(RER 의 경우)시 개찰기에 표를 집어넣고 개찰기가 표를 다시 돌려줄 때 그 표를 뽑기 전까지는 문이 열리지 않는다.
 - Metro 는 Zone 개념이 없이 모두 한 구역으로 간주되나 RER 에는 거리에 따라 Zone 개념이 있으며, 각 Zone 마다 요금이 틀리다. 따라서 RER 이용 시 역무원에게 정확한 행선지를 말하고 표를 구입해야 한다.
 - Metro 와 Metro 간의 환승 시에는 개찰기에 다시 표를 집어넣을 일이 없으나, RER ↔ Metro 간의 환승 시에는 표를 개찰기에 집어넣어야 한다.
 - 같은 역이라도 RER 역인지 Metro 역인지에 따라 요금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La Défense 역의 경우 Metro 를 이용할 경우 2 Zone 기본 요금이 적용되나, RER 을 이용하면 3 Zone 요금이 적용된다. RER은 빠른 대신 요금이 비싸고, Metro 는 저렴한 대신 여러 정거장을 지나쳐야 한다.
 - RER 은 동일한 노선을 운행하더라도 각 열차마다 정차하는 역이 틀리므로, 도착할 열차 가 행선지에 정차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RER 의 모든 열차는 'GOTA', 'NORA', 'OFRE' 등 네 글자로 된 이름이 붙어있는데 가고자 하는 행선지에 정차 하는 열차의 이름을 확인한 후 해당 열차에 탑승해야 한다.

지하철 표 구입 시 창구에서 파리 지하철 노선도 (Plan de Paris)를 요구하면 무료로 얻을 수 있다.

지하철 표는 낱장에 1.4유로이며, 10매 묶음(까르네: Carnet)은 11.1유로이어서 지하철을 여러 번 이용할 경우 까르네를 사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다. 그리고 3일 또는 주간 표도 판매 하는데 표 색깔로 구분된다. 일반 지하철 표는 남색 계통이며 관광객용 또는 주간 통근용 표는 오렌지 색이다. 한달 정기권도 오렌지 색이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오렌지 카드(CARTE ORANFE)라 불리고 있다. 오렌지 카드 정기권은 까르네(일반 표 1매 한 묶음)보다 더 경제적이며 효율적이다. 정해진 기간 내에 지하철을 자주 활용할 경우에는 더욱 경제적이다. 동 오렌지 카드는 RER용으로도 사용된다. 그 대신 해당 지역(Zone)별로 가격이 다르다.

- 주요 용어: 출구(Sortie), 환승구(Correspondance)

버스요금은 지하철 요금과 같으며, 버스요금은 버스 승차 시 운전사에게 현금으로 지불 (1.5유로)하고 표를 구입하거나 지하철 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버스 내에서는 까르네 (10장 묶음 티켓)를 판매하지 않는다. 시 경계를 넘어가는 버스는 Zone 개념이 있으므로 요금에 주의해야 한다.

품목	소비자 가격(유로)	조사처
도심 1 시간 시내 도로변 주차료	2.00	
도심 1 시간 지하 주차장 주차료	3.00	VINCI PARK
지하철 기본요금(1 구간)	1.50	RATP
시내버스 기본요금	1.50	RATP
택시 기본요금	5.60	TAXI G7
택시 1km 당 추가요금	0.82	TAXI G7
철도이용료(100km)	17.10	SNCF
항공 여객료(국내 1 시간 기준)	150.00	Air France
항공 여객료(국제 5 시간 기준)	1,480.00	Air France

장기 출장자나 여행객용 1일 내지 5일용 공중교통(지하철, 시내버스, RER) 탑승권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다. 잦은 이동이나 장기 출장자에게는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구간	1일용	2일용	3일용	5일용
1-3	8.50	14.00	19.00	27.50
1-6	18.00	27.50	38.50	47.00

자료: 파리시내교통공사(RATP)

□ 임대 자전거

파리나 리옹 등 프랑스 주요 도시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임대 자전거들이 시내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무인 자동 임대기가 비치되어 있어 은행카드로 1일 또는 1개월 등 임대계약을 할 수 있다. 1일 임대 계약금은 1유로이며 30분 이내 사용 시에는 무료이다. 30분 초과 시마다 1유로씩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임대 계약 담보금은 계약이 만료되면 자동 환불되는데 일종의 자전거를 분실했거나 파손했을 경우 등에 대비한 보증금이자 예치금이다.

3) 유용한 인터넷 사이트

지리 및 교통정보 사이트 <http://www.mappy.fr>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므로, 현지에서 렌터카 등으로 이동 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 특정 두 지역간의 최단거리 여정(전 유럽범위로 검색 가능)
- 고속도로 이용 시 고속도로 요금
- 예상 소요시간
- 특정 한 지점의 지도상 위치(전 유럽범위로 검색 가능)

4) 통신

동전을 사용하는 공중 전화기는 이미 거의 철수되었으며 공중 전화를 이용할 방법은 전화 카드를 구입하는 것 밖에 없다고 봐야 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공중전화 카드는 공중 전화기에 바로 삽입하여 사용하는 칩 부착형 전화카드와 전용 접속번호로 다이얼 하여 카드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상대방 전화번호를 다이얼 하는 선불제 전화카드 두 종류가 있다. 사용료는 후자의 편이 더 저렴하나 사용법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공중전화용 칩 부착형 전화카드는 담배 판매소(tabac)에서 구입할 수 있다. 단, 전화카드 구입시 어떤 종류의 카드를 구입할 것인가를 묻는 경우가 있으며, 칩 장착형 카드를 구매하고자 할 때 'carte à puce'(까르따 뷁쓰)를 달라고 해야 한다.

프랑스의 국제전화 호출번호는 00번이다. 00을 누르고 국가번호를 누르면 된다.

- 통화 방법(칩 장착형 카드): ① 수화기를 든다 ② 화면의 글씨가 바뀌면 전화카드를 넣는다. ③ 화면의 글씨가 바뀌면(좀 기다려야 함) 0082-2(서울의 경우)-상대방 전화번호를 누른다. ④ 통화가 끝난 후 수화기를 내려놓고 전화 카드를 뺀다.
- 통화 방법(선불제 카드): ① 수화기를 들고 카드에 기재된 접속번호를 누른다. ② 안내원의 메시지에 따라서 카드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③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누른다.(국제 전화일 경우 00 + 국가번호 + 지역번호 + 전화번호 형식). ④ 통화가 끝난 후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 한국통신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0800-99-0082(카드 없이 공중전화에서도 통화가능)

한편, 여행자에게 있어 파리 시내의 인터넷 환경은 썩 좋지 않은 편이다. 갑작스럽게 인터넷을 사용해야 할 경우 인터넷 카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사용료도 시간당 4유로 정도로 비싼 편이며 한글 사용도 용이하지 않고 그 수도 적어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Hot-Spot의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으므로 오히려 무선을 이용하는 것이 편할 수도 있다. 단, Wi-Fi Hot-Spot이 가능하더라도 장소에 따라 유/무료 여부임을 확인해야 한다. 유로로 사용해야 할 경우 Wi-Fi 1일권을 구입해야 하며 가격은 18-30유로 선이다.

- 파리 시내의 Hot-Spot 리스트:
 - <http://www.journaldunet.com/wifi/localisation/36667/paris.shtml>

사. 호텔/식당

1) 호텔

세계적인 관광 도시이자, 국제회의 및 전시 도시인 파리에 수천여 개의 호텔이 있으나 수많은 국제회의 및 전문전시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이들 전시회가 개최되는 성수기에는 호텔 예약이 수월하지 않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2007년 9월과 10월은 럭비 월드컵 대회로 인해 호텔 사정이 최악이었다. 비즈니스맨들이 파리시내에서 묵을 수 있는 주요 호텔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 Hotel Plaza Etoile
 - 주 소: 21 Avenue de Wagram 75017 Paris
 - 전화번호: (33-1) 43804224 (파리에서 전화 걸 때에는 33-1대신 01, 이하 동일)
 - 팩스번호: (33-1) 47640084
- Hotel Tivoli
 - 주 소: 7 Rue Brey 75017 Paris
 - 전화번호: (33-1) 43803122
 - 팩스번호: (33-1) 47640121
- Hotel Elysées Ceramic
 - 주 소: 34 Av. Wagram 75008 Paris
 - 전화번호: (33-1) 42272030
 - 팩스번호: (33-1) 45229583
- Hotel Concorde Lafayette
 - 주 소: 3 Pl. du General Koenig
 - 전화번호: (33-1) 40685040
 - 팩스번호: (33-1) 40685205
- Hotel Novotel Tour Eiffel
 - 주 소: 61, Quai de Grenelle 75015 Paris
 - 전화번호: (33-1) 4058 2000
 - 팩스번호: (33-1) 4058 2425
- IBIS Tour Eiffel
 - 주 소: 2, rue Cambronne 75015 Paris
 - 전화번호: (33-1) 4061 2222
 - 팩스번호: (33-1) 4061 2299

* 조금 저렴한 민박형 숙소의 리스트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 Residence Sabine
 - 주 소: 58 rue du garde chasse, Les Lilas (지하철 Metro 11번 Mairie des Lilas)
 - 전화번호: (33-1) 4183 2200
 - 팩스번호: (33-1) 4183 2210
 - 숙박료: 2인1실 46 유로, 콘도 65-70유로

- Hotel du Moulin
 - 주 소: 3 rue Aristide Bruant 75018 Paris (www.hotelmoulin.com)
 - 전화번호: (33-1) 4264 3333
 - 팩스번호: (33-1) 4606 4266
 - 숙박료: 싱글(샤워) 60유로, 싱글(욕실) 66유로, 더블(샤워) 68유로, 더블(욕실) 73유로, 트윈(욕실) 76유로
- 파리 오페라 국제 오피스텔
 - 주 소: 67, rue de Richelieu 75002 Paris (www.guest-house-paris.com)
 - 전화번호: (33-1) 4260 6251
 - 팩스번호: (33-1) 4260 0456

2) 한국식당

식당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보통 전채로 먹는 요리의 경우 약 7-15유로 대이며 김치찌개 백반 등 식사류는 약 12-15유로 선이다.

식당 명	전 화	주 소
가람	0145757783	15/17, Av Emile Zola 75015
고향	0140598045	6 rue General Estienne 75015
국일관	0142610418	12, rue Gomboust 75001
다래분식	0145773677	4bis, Rue Violet 75015
명가	0147834145	19, boulevard Garibaldi 75015
보배	0145788009	44 rue de Lourmel 7515
사모	0147059127	1, Rue du champ de mars 75007
서울가든	0140606060	165 Rue de Javel 75015
소반	0145793283	85 rue de Entrepreneurs 75015
신정	0145222106	7, rue Clapeyron 75008
오도리	0145778812	18, Rue Letellier 75015
우리	0145773711	5, Rue Humblot 75015
우정	0145207282	8, Bd Delessert 75016
진고개	0148782464	28, rue Lamartine 75009
진미	0146278423	5, rue des Moines 75017
한림	0143546274	6, rue Blainville 75005

3) 기타 가 볼만한 식당

식당 명	전 화	주 소	
La Gare	0142151531	19,Chaussee de la Muette 75016	프랑스식
Fermete Marbeuf	0153230800	5, Rue Marbeuf 75008	프랑스식

한국 식당이나 프랑스 식당 모두 22:30 이후에는 손님을 받지 않는다. 종업원들의 주간 근로시간(35시간)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 관공서 관행

일반 관공서는 체계적인 조직사회로 형성되어 있어 업무영역의 구분이 확실하고 민원 사항의 경우 관련서류만 규정에 의해 제출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같은 사안이라도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그 처리결과가 달라지는 융통성이 다소 발휘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행정처리 속도가 늦은 편으로 연휴 기간 또는 여름휴가 기간 중에는 경우에 따라서 1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다.

프랑스는 현재 세계에서 손꼽히는 전자 정부 시스템을 구축해놓았으며 이를 계속 발전 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아직까지 민원 처리시 서류 및 서신을 선호하는 문서주의 원칙이 아직도 남아있는 분야가 있어 외국 민원인을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자. 공휴일

2008년도 프랑스 공휴일

월 일	공휴일 명
1.1	신정 (Le Jour de l'an)
3.24	부활절(Pâques): 매년 날짜 변경(부활절 다음 월요일)
5.1	노동절 (Fête du travail) 및 예수 승천일(Ascension)
5.8	2차 세계 대전 승전기념일(Victoire 1945)
7.14	대혁명 기념일(Fête Nationale)
8.15	성모승천일 (Assomption)
11.1	만성절(Toussaint)
11.11	1차 세계 대전 종전기념일(Armistice)
12.25	크리스마스(Noël)

한편, 하계 휴가기간 특히, 8월 초순에는 절반 이상이 휴가를 떠나므로 비즈니스를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기간 중에는 출장이나 상담을 피하는 것이 좋다.

차. 여행시 유의사항

최근 프랑스를 방문하는 우리 여행객들이 소매치기 당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소매치기 장소도 기존 관광지, 지하철, 공항 등지에서 박람회장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 수법 또한 다양해 한마디로 규정짓기는 어렵지만 공통적인 사실은 자연스러운 몸 접촉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어로 Do you speak English? 하면서 접근을 해 온다. 그러면 우리 여행객들은 불어가 아닌 영어라는데 일단 자신감이 생겨 Yes하면서 흔쾌히 반응을 보인다. 사건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일단 상대방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한 우리들은(보통 2-3명) 축구 얘기를 하면서 다리를 걸기도 하고 또 태권도 얘기를 하면서 넘어뜨리는 시늉을 하기도 한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 여행객의 오른쪽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은 고스란히 소매치기 무리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 여행객들은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어오면 일단 못 들은 척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우리 여행객의 도난 방지를 위해 최근 주 프랑스 대사관에서 홍보자료로 작성한 행동 요령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았다.

1) 공항

프랑스에 입국하는 우리 여행객들은 대부분 장시간 비행 및 시차로 인한 피로로 주의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점을 이용 소매치기들은 접근하여 여행자용 가방을 훔쳐간다. 공관 분석에 따르면 공항에서의 여권 및 소지품 도난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 여행객들은 차량에 탑승할 때까지 수화물이나 손가방에서 잠시도 눈을 떼어서는 안되겠다.

만일 공항에서 가방 등 소지품을 도난 당했을 경우에는 즉시 대한항공 직원에 도난사실을 알리고 인근 경찰서에 신고토록 한다.

2) 공항-파리 이동 시

공항에서 파리로 이동하는 방법은 공항버스, RER(고속 지하철), 택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 RER로의 이동 시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항-파리간 RER 대부분에는 2-3인조의 소매치기 범들이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행을 마치고 출국을 하기 위해 시내에서 공항으로 가는 RER내에서 소매치기를 당하여 예정된 출국을 못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따라서 RER보다는 보다 안전한 공항버스나 택시를 이용할 것을 권한다.

만약 RER 또는 지하철을 타게 될 경우에는 특히 승, 하차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탑승객이 많을 경우 몸을 밀착하면서 지갑 또는 기타 소지품을 소매치기 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Gare du nord 역 및 Chatelet-Les Halles 역 주변에 소매치기가 많다.

3) 숙소

숙박할 호텔에 도착하여 체크인할 때 소지품 분실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체크인할 때는 반드시 짐을 시선이 머물 수 있는 곳에 놓고 만약에 일행이 있을 경우에는 교대로 소지품을 지키도록 한다. 또한 가격이 저렴하다 하여 무허가 민박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집주인은 도난사고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고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아울러 호텔이라고 해도 보안에 대해 안심할 수 없는데, 취침 시에는 반드시 호텔방문을 내부에서 잠그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한다.

4) 관광지

관광지 중 몽마르트르 언덕 및 샹젤리제 거리 입구가 도난사고 다발지역으로 분석되고 있다. 몽마르트르 언덕은 Pigalles(삐갈)지역까지 도보로 내려오는 도로변에서 사고를 많이 당하며 샹젤리제 거리는 다른 도로와의 연결통로에서 사고가 빈발하다.

한편 삐갈 지역에는 저렴한 가격의 스트립 바를 안내하겠다며 접근하여 계산시 수천 유로에 달하는 청구서를 제시하는 삐끼들이 많으므로 이들의 제안에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5) 철도역

파리의 북 역(Gare du Nord), 리옹 역(Gare de Lyon) 등 사람의 왕래가 잦은 철도 역에서는 2-3인 무리의 접근을 주의한다. 이들은 한 사람이 친절하게 말을 붙여 오면서 다른 사람은 소매치기하는 수법을 쓰기 때문에 아예 접근차체를 차단하는 게 좋다.

6) 지하철

지하철은 소매치기들의 온상이다. 특히 1호선(라데팡스(La Défense)역과 샤토드벵센느(Château de Vincennes)역을 연결하는 가장 오래된 주선)은 주의를 요한다.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들의 수법은 열차가 출발하려는 순간에 소지품을 가지고 밖으로 도망친다. 따라서 우리 여행객들은 가능한 출입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보다 안전하며 자리가 있을 때는 앉는 편이 낫다.

7) 보행 시

가급적 차도 쪽이 아닌 건물 쪽에 인접하여 보행토록 한다. 특히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2명이 탄 오토바이를 경계해야 한다. 또한 대여섯 명씩 무리를 지어 접근하는 아동 소매치기단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8) 국가간 연결 철도

영국과 프랑스를 오가는 유로스타(Eurostar)의 객차 내에서 소지품 분실 사고가 빈번하다. 특히 식당칸이나 화장실로의 이동 시에는 반드시 소지품을 챙겨서 이동한다. 또한, 프랑스-이탈리아 야간열차도 안심할만한 곳은 못 된다.

9) 행사장

파리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박람회나 상품전시회 참석 중 도난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행사장 내에서는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방심하는 경향이 있는 데 장소를 불문하고 항상 소지품에 유의해야 한다.

위에서 열거한 장소별 행동요령은 특정 사례에 지나지 않으므로 언제 어디서나 소지품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사고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금소지를 가능한 줄이고 여행자 수표나 신용카드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며 돈, 항공권 및 여권 등은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분리 보관하는 게 좋다. 특히 여권은 외출 시 복사본을 소지하는 것도 분실의 경우를 대비한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카. 유용한 연락처

1) 파리소재 한국 주요기관

- 대사관
 - 주 소: 125, Rue de Grenelle 75007 Paris (전철역 13호선 Varennes 역)
 - 전 화: (33-1) 47 53 01 01, 팩스: (33-1) 47 53 71 49
 - 조일환 대사, 정태인 영사

- OECD 대표부
 - 주 소: 2-4, Rue Louis David 75016 Paris (전철역 9호선 Rue de la Pompe 역)
 - 전 화: (33-1) 44 05 20 50, 팩스: (33-1) 47 55 86 70
 - 권태신 대사
- 문화원
 - 주 소: 2, Avenue D'Iena 75008 Paris (전철역 6, 9호선 Trocadero 역)
 - 전 화: (33-1) 47 20 84 15, 팩스: (33-1) 47 23 58 97
 - 모 철민 원장
- KOTRA
 - 주 소: 19, Avenue de l'Opera 75001, Paris (전철역 7, 14호선 Pyramides 역)
 - 전 화: (33-1) 55 35 88 88, 팩스: (33-1) 55 35 88 89
 - 최진계 관장
- 관광공사
 - 주 소: Tour Maine Montparnasse 33, AV. Du Maine BP 169 75755, Paris Cedex 15
(전철역 6호선 Montparnasse Bienvenue 역)
 - 전 화: (33-1) 45 38 71 23, 팩스: (33-1) 45 38 74 71
 - 진수남 지사장
- 대한항공
 - 주 소: 9, Blvd. de la Madeleine 75001 Paris (전철역 8, 12, 14호선 Madeleine 역)
 - 전 화: (33-1) 42 61 58 46, 팩스: (33-1) 42 61 22 52
- 외환은행
 - 주 소: 17, Av.Montaigne 75008 Paris (전철역 9호선 Alma-Marceau 역)
 - 전 화: (33-1) 53 67 12 00, 팩스: (33-1) 53 67 12 34

2) 파리소재 한국인업소

- 여행사
 - 한불 여행사: (33-1) 43 12 37 47
 - 시티라인: (33-1) 42 50 00 44
 - 골드라인: (33-1) 44 90 01 08
 - E.P.S. : (33-1) 56 02 60 80
- 인터넷 방
 - 꿈텔 PC 게임방: 01 53 58 37 12 (8, rue Mathurin Regnier 75015 Paris)
 - 컴컴: 01 43 14 21 54 (38bis Blvd. Beaumarchais 75011 Paris)

3) 기타 연락처

- 24시간 영업약국
 - 84, Av. des Champs-Elysees 75008 Paris (01 4562 0241)
 - 133,Av. des Champs-Elysees 75008 Paris (01 4720 3925)

- 지하철 분실물 신고
 - 12호선 Convention 역내 (01 5676 2000)
-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
 - 118 008, 118 218, 118 007 등 다수 (2005년 12월부로 전화번호 안내서비스 독점이 해제되면서 종전의 12번 대신 118로 시작하는 다수의 서비스가 경쟁체제로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게 됨)

타. 관광명소

1) 시내 관광명소 및 관광방법

파리 시내를 하루 일정으로 여행하는 방법으로는 보통 관광버스와 세느강 유람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관광버스로는 PARIS VISION, CITYRAMA, L'OPEN TOUR등이 있으며, 주요 관광지를 순환하며 티켓은 1일권과 2일권이 있는데 가격차가 거의 없으므로 2일권이 더욱 경제적이다. 운행 방식은 시내버스와 비슷하게 하차 후 동일한 정류장에서 다음 버스에 탑승하는 식이며, 운행간격은 약 15-30분 정도이다.

세느강 유람선은 BATEAUX MOUCHES와 BATEAU PARISIENNE가 대표적이며, 총 관광시간은 1시간 또는 1시간 15분 정도가 소요된다. 출발지는 BATEAUX MOUCHES의 경우 알마 橋 (PONT DE L'ALMA) 서쪽이며 BATEAU PARISIENNE은 에펠 탑 밑 세느 강변이다. 유람선 관광은 파리 시내를 끼고 세느강을 선회하기 때문에 도착지는 출발지와 같다. 요금은 20시 이전에 탑승 할 경우, 8.5 유로이며 20시 이후에는 9유로이다.

또는 박물관, 미술관 등만을 관람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하철역에서 판매하는 박물관 패스를 구매하면 개별 입장티켓을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곳을 방문할 수 있으나 수지를 맞추기는 사실 어렵다.

이외에도 파리시내를 일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좀 더 자세히 관광하고자 할 경우 시내 관광 할 수 있는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시테 섬과 생루이 섬 (Ile de Cité & Ile St. Louis)
 - 노트르담 대성당
 - 법원 (Palais de Justice)
 - 콩시에르쥬리 (Conciergerie)
 - 생트 샤펬 (Sainte Chapelle)
 - 파리시청 건물(Hôtel de ville) 및 그레브(GREVE) 광장('파업=GREVE'이라는 불어의 어원은 과거 파리 시청 앞 광장의 이름에서 나온 것임).
- 개선문에서 루브르까지
 - 개선문 (L'arc de Triomphe)
 - 샹젤리제 거리 (Avenue des Champs-Elysées)
 - 콩코르드 광장 (Place de la Concorde)
 - 툴리리 정원 (Jardin de Tuileries)

- 루브르 박물관 (Musée du Louvres)
- 오르세 박물관 (Musée d'Orsay)
- 에펠탑에서 앙발리드까지
 - 에펠탑 (La Tour Eiffel)
 - 샤흐리오 궁 (Palais de Chaillot)
 - 인류, 해양, 영화박물관으로 이용 (단, 해양박물관은 잠정 폐쇄)
 - 앙발리드 (Hôtel des Invalides)
 - 군사박물관 및 나폴레옹 유해 안치소
 - 로댕박물관
- 몽마르트르 (Montmartres)
 - 사크레죄르 성당(Basilique du Sacré-Coeur)
 - 테르트르 광장(Place du Tertre)(일명 화가의 광장)

□ 초상화를 그려주는 화가들의 밀집지역

대다수의 화가들이 동양인의 두상을 표현하지 못하므로 초상화는 하지 않는 편이 낫다.

- 오페라 하우스 일대
 - 쇼핑지역
 - 면세점: 오페라 인근의 오스만 街(Boulevard Haussmann) 밀집
 - 최고급품: 생토노레 거리 (Rue de Faubourg Saint Honoré)
 - 고급 식품점: 포송(Fauchon)
 - 관광포인트: 오페라 하우스 (Opéra Garnier), 마들렌느(Madelaïne)
- 레알지구(LES HALLES)
 - 폼피두 센터(CENTRE G. POMPIDOU): 도서관 및 미술관
 - 포럼 데 알(FORUM DES HALLES: 대형 지하 쇼핑센터)
- 카르티에 라탱/생제르맹 데 프레 일대(QUARTIER LATIN & SAINT GERMAIN DES PRES)
 - 소르본 대학 (LA SORBONNE)
 - 판테옹 (PANTHEON), 룩상부르그 공원(JARDIN DU LUXEMBOURG)
 - 유명 카페: 레 뒤 마고(Les deux Magots), 브라스리 립(Brasserie LIPP), 카페 플로르 (Café Flore)
- 몽파르나스(MONTPARNASSE) 구역
 - 몽파르나스 타워 (TOUR MONTPARNASSE): 56층 고층빌딩
 - 유명 카페: 돔(DOME), 셀렉트(SELECT), 로통드(ROTONDE), 쿠폴(COUPOLE)
- 기 타
 - 1998년 월드컵 축구 경기장: St. Denis 에 소재
 - 라 데팡스(LA DEFENSE): 파리 인근 신도시. GRANDE ARCHE 에 서면 개선문을 통해 오벨리스크까지 한눈에 볼 수 있음.
 - 카타콤브 (CATACOMBES): 지하 납골당
 - 하수도 (EGOUTS DE PARIS): 하절기에만 관람가능
 - 숲: 파리 서쪽의 볼로뉴 숲(BOIS DE BOULOGNE), 동쪽의 뱅센느 숲(BOIS DE VINCENNES)

2) 파리 교외 관광

- 베르사이유 궁전 (CHATEAU DE VERSAILLES)
 - 파리 교외 남서부 약 25Km, 유럽 최대의 왕궁 (100 헥타아르)
 - 화요일 내부건물은 휴관 (단 정원만 개원)
 - 개관시간
 - 하계: 09:00-18:00
 - 동계: 10:00-17:00

- 폰텐블로 성 (FONTAINEBLEAU)
 - 파리 남부 약 60Km
 - 나폴레옹 유품 전시, 폰텐블로 숲, 바르비종 등
 - 화요일 내부건물은 휴관 (단, 정원만 개관)
 - 개관시간
 - 하계: 09:00-18:00
 - 동계: 10:00-17:00

- 샤흐트르 (CHARTRES)
 - 파리 남서부 약 90Km
 - 노트르담 주교 좌 성당(CATHEDRAL NOTRE-DAME)
 - 스테인드 글라스로 유명(Chartres Bleu)

- 말메종 (MALMAISON)
 - 파리의 뉴 타운 LA DEFENSE 에서 5Km
 - 나폴레옹과 조세핀의 추억이 깃든 곳
 - 일요일 오후에만 개관(14:30 -19:00)

- 샹티이(CHANTILLY) 성
 - 파리 동북부 약 60Km
 - 르네상스 풍의 우아한 古城, 인근에 말(馬) 박물관 및 경마장
 - 개관시간
 - 하계: 09:00 - 18:00
 - 동계: 10:00 - 17:00

- 피에르퐁 (PIERREFONDS) 및 콩피앵뉴(COMPIEGNE)
 - 파리 동북부 약 100Km
 - 아늑한 분위기의 중세풍 성
 - 휴관일 없음
 - 개관시간
 - 하계: 09:00 - 18:00
 - 동계: 10:00 - 17:00